



##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육학박사학위논문

발달장애 학생 언론보도기사의  
주제어 및 토픽 분석: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를 중심으로

2020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특수교육전공  
안 예 지



발달장애 학생 언론보도기사의  
주제어 및 토픽 분석: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를 중심으로

지도교수 김 동 일

이 논문을 교육학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협동과정 특수교육전공  
안 예 지

안예지의 박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0년 2월

위 원 장     김   창   대     (인)

부위원장     홍   성   두     (인)



## 국문초록

본 연구는 교육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에 대한 사회적 갈등과 논란을 이해하고 건강한 통합문화를 형성하기 위하여, 비장애인의 인식과 태도를 반영하고 이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언론보도기사를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대상은 특수교육을 비롯한 통합교육 대상자의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4년 제정 및 시행된 「발달장애인법」과 함께 국내 주요한 논의 대상인 발달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발달장애 학생 언론보도기사를 분석하는 것은 비장애인의 인식과 태도가 경험적으로 드러나는 교육현장의 사회적 현상을 이해할 수 있게 하며, 생애주기별 지원을 강조하는 「발달장애인법」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1990년부터 2019년 4월까지 보도된 발달장애 학생 언론보도기사 15,616건을 수집하고, 텍스트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이들을 구성하고 있는 주제어와 토픽을 분석하였다. 또한 발달장애의 하위유형인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를 구분한 분석을 통해 장애유형에 따른 주제어와 토픽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발달장애 학생 언론보도기사는 학교 교육, 지역사회 지원 및 활동, 서비스 등과 관련된 주제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주제어는 학생의 전반적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 정부의 지원, 특수교사의 성폭행, 대회 및 행사운영과 홍보에 대한 내용으로 구분되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다. 10년을 기준으로 한 주기별 분석을 통해 시간 흐름에 따른 주제어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학교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언론의 관심이 생활지원 및

서비스와 같은 사회적 지원과 구체적인 지원 방안으로 확장된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발달장애의 하위유형인 지적장애 학생 언론보도기사의 주제는 교육활동, 사건·사고, 정부 지원 등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생활지원을 위한 기관 및 지역사회 지원,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특수교사 성범죄, 치료와 상담 등의 치료지원의 내용으로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었다. 주기별 분석결과의 큰 흐름은 전체 발달장애 학생 언론보도기사와 유사하나 3주기에 성범죄와 같은 사건·사고나 특수학교 설립 반대와 같은 사회적 논란과 갈등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발달장애의 하위유형인 자폐성장애 학생 언론보도기사 또한 학교와 관련된 주제가 다수 나타났으나, 건강, 서비스와 같은 생활지원에 대한 다양한 단어도 주요하게 다루어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제어들의 관계를 통해 언론보도의 구조를 살펴본 결과, 서비스 개선을 위한 연구와 논의, 문화예술행사, 기업이나 대학의 서비스 개발 연구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다. 또한 지적장애 학생 언론보도기사에 비해 자폐성장애 학생 언론보도기사에서 치료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어들이 주요하게 나타나 발달장애 하위유형에 따른 네트워크의 구조와 성격이 다소 상이함을 확인하였다.

넷째, 잠재 디리클레 할당(Latent Dirichlet Allocation; 이하 LDA) 기반 토픽 모델링 분석을 통해 발달장애 학생 언론보도기사에 잠재된 16개의 토픽을 추출하였다. 추출된 토픽은 ①기업의 사회공헌활동, ②통합교육, ③대회 및 행사, ④사회보호시설, ⑤특수교육, ⑥체험활동 프로그램, ⑦조사결과발표, ⑧교육시설설립, ⑨성범죄, ⑩자폐성장애 학생사례, ⑪장애이해, ⑫서비스지원확대, ⑬지적장애 학생사례, ⑭사회봉사활동, ⑮직업훈련센터, ⑯발달모니터링으로 명명되었다. 이들 토픽에 대한 언론의 관심도 분석 결과,

주기별 언론의 관심도가 높아진 토픽은 ①기업의 사회공헌활동, ⑥체험활동 프로그램, ⑦조사결과발표, ⑪장애이해, ⑫서비스지원 확대, ⑮직업훈련센터였고, 관심도가 낮아진 토픽은 ②통합교육, ③대회 및 행사, ⑤특수교육, ⑩자폐성장애 학생사례, ⑬지적장애 학생사례였으며, ④사회보호시설, ⑧교육시설설립, ⑭사회봉사활동, ⑯발달모니터링에 대한 관심도는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었다.

다섯째, LDA 기반 토픽 모델링 분석을 통해 지적장애 학생 언론보도기사에서는 ①특수교육, ②지역지원계획, ③성범죄, ④발달모니터링, ⑤대회 및 행사, ⑥사회봉사활동의 6개 토픽이 추출되었다. 이들 주제에 대한 주기별 언론의 관심도 분석을 통해 ②지역지원계획, ③성범죄, ④발달모니터링에 대한 언론의 높아진 관심도를 확인한 반면, 다른 주제에 대한 관심도는 낮아지거나(①특수교육, ⑤대회 및 행사)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⑥사회봉사활동).

마지막으로, LDA 기반 토픽 모델링 분석을 통해 자폐성장애 학생 언론보도기사에 추출된 토픽은 총 8개로 ①발달모니터링, ②체험활동 프로그램, ③직업훈련센터, ④관련연구, ⑤문화예술행사, ⑥사건·사고, ⑦장애이해, ⑧특수교육으로 명명되었다. 이중 ②체험활동 프로그램, ⑤문화예술행사, ⑥사건·사고, ⑦장애이해에 대한 언론의 관심도는 주기에 따라 높아졌으며, ①발달모니터링, ③직업훈련센터, ⑧특수교육에 대한 관심도는 감소하고, ④관련연구에 대한 관심도는 유지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성공적인 통합교육 및 통합사회 문화형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텍스트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대량의 발달장애 학생 언론보도기사에 잠재된 내용을 분석한 이 연구는 실험연구를 통해 나타나지 않았던 장애에 대한 비장애인의 인식과 태도를 경험적으로 분석하여 특수교육의 역할 재고를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였다는 의의를 가진다.



주요어 : 발달장애 학생, 지적장애 학생, 자폐성장애 학생, 언론보도  
기사, 텍스트 빅데이터 분석, 주제어 분석, 토픽 분석

학 번 : 2015-30446

# 목 차

제 1 장 서론 .....	1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제 2 절 연구 문제 .....	6
제 2 장 이론적 배경 .....	8
제 1 절 발달장애 학생과 언론보도 .....	8
1. 발달장애 학생의 개념 및 정의 .....	8
가. 지적장애 학생 .....	12
나. 자폐성장애 학생 .....	18
2. 언론보도의 개념 및 특성 .....	25
가. 온라인 저널리즘과 포털형 인터넷 뉴스 .....	25
나. 뉴스 프레임 .....	27
3. 발달장애 언론보도분석 선행연구 .....	33
가. 장애에 대한 언론보도분석 .....	34
나. 지적장애 언론보도분석 .....	37
다. 자폐성장애 언론보도분석 .....	38
4. 특수교육 법적·제도적 변화 .....	42
가.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 .....	43
나.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 .....	50
제 2 절 빅데이터와 언론보도분석 .....	53
1. 빅데이터의 정의 .....	53
2. 텍스트 빅데이터 분석기법 .....	54
가. 주제어 빈도 분석 .....	55
나. 주제어 네트워크 분석 .....	56
다. 잠재 디리클레 할당(LDA) 기반 토픽 모델링 분석 .....	59
3. 텍스트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한 언론보도분석 .....	64

<b>제 3 장 연구 방법</b>	<b>68</b>
<b>제 1 절 분석 자료</b>	<b>69</b>
1. 분석 자료 수집	69
2. 데이터 클리닝	71
<b>제 2 절 자료 분석</b>	<b>74</b>
1. 주제어 분석	74
가. 주제어 빈도 분석	74
나. 주제어 네트워크 분석	75
2. 토픽 분석	77
 <b>제 4 장 연구 결과</b>	 <b>81</b>
<b>제 1 절 주제어 및 네트워크 분석</b>	<b>81</b>
1. 발달장애 학생 언론보도기사 분석	81
가. 주제어 분석	81
나. 주제어 네트워크 분석	86
2. 지적장애 학생 언론보도기사 분석	99
가. 주제어 분석	99
나. 네트워크 분석	104
3. 자폐성장애 학생 언론보도기사 분석	117
가. 주제어 분석	117
나. 네트워크 분석	122
<b>제 2 절 토픽 분석</b>	<b>134</b>
1. 발달장애 학생 언론보도기사 토픽 분석	134
가. 전체 기간 분석	134
나. 주기별 분석	140
2. 지적장애 학생 언론보도기사 토픽 분석	145
가. 전체 기간 분석	145
나. 주기별 분석	150
3. 자폐성장애 학생 언론보도기사 토픽 분석	153

가. 전체 기간 분석 .....	153
나. 주기별 분석 .....	159
 제 5 장 요약 및 논의 .....	 165
제 1 절 요약 .....	165
제 2 절 논의 및 제언 .....	168
 참고문헌 .....	 176
부 록 .....	201
Abstract .....	236

## 표 목 차

<표 2-1-1> 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 및 「발달장애인법」의 발달장애 정의	10
<표 2-1-2> 적응행동 정의의 변화	16
<표 2-2-1> 네트워크 중심성 지수 산출 수식	58
<표 4-1-1> 발달장애 학생 TF기준 상위빈출 30개 단어	82
<표 4-1-2> 발달장애 학생 TF-IDF기준 상위빈출 30개 단어	83
<표 4-1-3> 발달장애 학생 주기별 상위빈출 30개 단어	85
<표 4-1-4> 발달장애 학생 네트워크 중심성 분석 결과	88
<표 4-1-5> 발달장애 학생 1주기 네트워크 중심성 분석 결과	91
<표 4-1-6> 발달장애 학생 2주기 네트워크 중심성 분석 결과	95
<표 4-1-7> 발달장애 학생 3주기 네트워크 중심성 분석 결과	98
<표 4-1-8> 지적장애 학생 TF기준 상위빈출 30개 단어	100
<표 4-1-9> 지적장애 학생 TF-IDF기준 상위빈출 30개 단어	101
<표 4-1-10> 지적장애 학생 주기별 상위빈출 30개 단어	103
<표 4-1-11> 지적장애 학생 네트워크 중심성 분석 결과	106
<표 4-1-12> 지적장애 학생 1주기 네트워크 중심성 분석 결과	109
<표 4-1-13> 지적장애 학생 2주기 네트워크 중심성 분석 결과	113
<표 4-1-14> 지적장애 학생 3주기 네트워크 중심성 분석 결과	116
<표 4-1-15> 자폐성장애 학생 TF기준 상위빈출 30개 단어	118
<표 4-1-16> 자폐성장애 학생 TF-IDF기준 상위빈출 30개 단어	119
<표 4-1-17> 자폐성장애 학생 주기별 상위빈출 30개 단어	121
<표 4-1-18> 자폐성장애 학생 네트워크 중심성 분석 결과	124
<표 4-1-19> 자폐성장애 학생 1주기 네트워크 중심성 분석 결과	127
<표 4-1-20> 자폐성장애 학생 2주기 네트워크 중심성 분석 결과	130
<표 4-1-21> 자폐성장애 학생 3주기 네트워크 중심성 분석 결과	133
<표 4-2-1> 발달장애 학생 언론보도기사 토픽 및 포함단어 10개	136
<표 4-2-2> 지적장애 학생 언론보도기사 토픽 및 포함단어 10개	146
<표 4-2-3> 자폐성장애 학생 언론보도기사 토픽 및 포함단어 10개	154
<표 4-2-4> 발달장애 학생 언론보도기사 토픽 분석 결과 종합	162

## 그 립 목 차

[그림 2-1-1] 특수교육 법적·제도적 변화 .....	42
[그림 2-1-2] 「제1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 개요 .....	44
[그림 2-1-3] 「제2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 개요 .....	45
[그림 2-1-4] 「제3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 개요 .....	47
[그림 2-1-5] 「제4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 개요 .....	48
[그림 2-1-6] 「제5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 개요 .....	49
[그림 2-2-1] LDA 모형 .....	60
[그림 2-2-2] Smoothed LDA 모형 .....	61
[그림 3-1] 분석 절차 및 방법 .....	68
[그림 3-1-1] 웹 스크래핑 Python 프로그래밍 예시 코드 .....	70
[그림 3-1-2] 정규화 작업을 위한 Python 프로그래밍 예시 코드 .....	72
[그림 3-1-3] 불용어 제거 및 사용자 사전 등록 Python 프로그래밍 예시 코드 .....	73
[그림 3-2-1] 주제어 빈도 분석을 위한 R 프로그래밍 예시 코드 .....	75
[그림 3-2-2] LDA 기반 토픽 모델링 분석 R 프로그래밍 예시 코드 .....	79
[그림 4-1-1] 발달장애 학생 언론보도기사 주제어 비교 .....	83
[그림 4-1-2] 발달장애 학생 주기별 주제어 비교 .....	84
[그림 4-1-3] 발달장애 학생 주제어 네트워크 .....	87
[그림 4-1-4] 발달장애 학생 주제어 간소화 네트워크 .....	87
[그림 4-1-5] 발달장애 학생 네트워크 CONCOR 분석 결과 .....	89
[그림 4-1-6] 발달장애 학생 1주기 주제어 네트워크 .....	90
[그림 4-1-7] 발달장애 학생 1주기 주제어 간소화 네트워크 .....	90
[그림 4-1-8] 발달장애 학생 1주기 네트워크 CONCOR 분석 결과 .....	93
[그림 4-1-9] 발달장애 학생 2주기 주제어 네트워크 .....	94
[그림 4-1-10] 발달장애 학생 2주기 주제어 간소화 네트워크 .....	94
[그림 4-1-11] 발달장애 학생 2주기 네트워크 CONCOR 분석 결과 .....	96
[그림 4-1-12] 발달장애 학생 3주기 주제어 네트워크 .....	97
[그림 4-1-13] 발달장애 학생 3주기 주제어 간소화 네트워크 .....	97
[그림 4-1-14] 발달장애 학생 3주기 네트워크 CONCOR 분석 결과 .....	99

[그림 4-1-15] 지적장애 학생 언론보도기사 주제어 비교 .....	101
[그림 4-1-16] 지적장애 학생 주기별 주제어 비교 .....	102
[그림 4-1-17] 지적장애 학생 주제어 네트워크 .....	104
[그림 4-1-18] 지적장애 학생 주제어 간소화 네트워크 .....	105
[그림 4-1-19] 지적장애 학생 네트워크 CONCOR 분석 결과 .....	107
[그림 4-1-20] 지적장애 학생 1주기 주제어 네트워크 .....	108
[그림 4-1-21] 지적장애 학생 1주기 주제어 간소화 네트워크 .....	108
[그림 4-1-22] 지적장애 학생 1주기 네트워크 CONCOR 분석 결과 ...	110
[그림 4-1-23] 지적장애 학생 2주기 주제어 네트워크 .....	111
[그림 4-1-24] 지적장애 학생 2주기 주제어 간소화 네트워크 .....	112
[그림 4-1-25] 지적장애 학생 2주기 네트워크 CONCOR 분석 결과 ...	114
[그림 4-1-26] 지적장애 학생 3주기 주제어 네트워크 .....	115
[그림 4-1-27] 지적장애 학생 3주기 주제어 간소화 네트워크 .....	115
[그림 4-1-28] 지적장애 학생 3주기 네트워크 CONCOR 분석 결과 ...	117
[그림 4-1-29] 자폐성장애 학생 언론보도기사 주제어 비교 .....	119
[그림 4-1-30] 자폐성장애 학생 주기별 주제어 비교 .....	120
[그림 4-1-31] 자폐성장애 학생 주제어 네트워크 .....	122
[그림 4-1-32] 자폐성장애 학생 주제어 간소화 네트워크 .....	123
[그림 4-1-33] 자폐성장애 학생 네트워크 CONCOR 분석 결과 .....	125
[그림 4-1-34] 자폐성장애 학생 1주기 주제어 네트워크 .....	126
[그림 4-1-35] 자폐성장애 학생 1주기 주제어 간소화 네트워크 .....	126
[그림 4-1-36] 자폐성장애 학생 1주기 네트워크 CONCOR 분석 결과 ·	128
[그림 4-1-37] 자폐성장애 학생 2주기 주제어 네트워크 .....	129
[그림 4-1-38] 자폐성장애 학생 2주기 주제어 간소화 네트워크 .....	129
[그림 4-1-39] 자폐성장애 학생 2주기 네트워크 CONCOR 분석 결과 ·	131
[그림 4-1-40] 자폐성장애 학생 3주기 주제어 네트워크 .....	132
[그림 4-1-41] 자폐성장애 학생 3주기 주제어 네트워크 .....	132
[그림 4-1-42] 자폐성장애 학생 3주기 네트워크 CONCOR 분석 결과 ·	134
[그림 4-2-1] LDA 모델의 적정 토픽 수 탐색 결과 .....	135
[그림 4-2-2] 발달장애 학생 언론보도기사 연도별 토픽 기사 빈도 ...	139
[그림 4-2-3] 발달장애 학생 언론보도기사 주기별 토픽 관심도 .....	141

[그림 4-2-4] 발달장애 학생 언론보도기사 토픽 관심도 변화 경향 ....	143
[그림 4-2-5] LDA 모델의 걱정 토픽 수 탐색 결과 .....	145
[그림 4-2-6] 지적장애 학생 언론보도기사 연도별 토픽 기사 빈도 ....	147
[그림 4-2-7] 2017~2018년 지적장애 학생 언론보도기사 빈도 .....	150
[그림 4-2-8] 지적장애 학생 언론보도기사 주기별 토픽 관심도 .....	151
[그림 4-2-9] 지적장애 학생 언론보도기사 토픽 관심도 변화 경향 ....	152
[그림 4-2-10] LDA 모델의 걱정 토픽 수 탐색 결과 .....	153
[그림 4-2-11] 자폐성장애 학생 언론보도기사 연도별 토픽 기사 빈도 ·	156
[그림 4-2-12] 2015년~2017년도 자폐성장애 학생 언론보도기사 빈도 ·	159
[그림 4-2-13] 자폐성장애 학생 언론보도기사 주기별 토픽 관심도 ....	160
[그림 4-2-14] 자폐성장애 학생 언론보도기사 토픽 관심도 변화 경향 ·	161





# 제 1 장 서 론

##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를 포함하는 발달장애는 국내에서 가장 높은 출현율을 보이는 장애로, 국내 특수교육대상자의 67.5%를 차지하고 있는 주요한 장애집단이다(교육부, 2019). 최근 통합교육을 지향하는 특수교육 패러다임과 함께 특수학급이나 일반학급 배치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도를 기준으로 특수학급에 50,812명(54.7%), 일반학급에 15,687명(16.9%)이 통합교육 환경에 배치되어 교육받고 있다. 우리나라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발달장애 학생들을 포함한 전체 장애 학생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8년 그 수가 9만 명을 넘어서면서 특수교육에 대한 국가 및 국민의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2018년 문재인 정부 또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종합대책을 통해 2022년까지 26개교 이상의 특수학교와 1,250개의 특수학급을 신·증설해 발달장애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확대하기로 하며 발달장애를 중심으로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이 다시 한 번 강조되었다.

이러한 현상을 통해 국내 통합교육과 관련된 논쟁은 실시 당위성에서 통합교육의 효과성과 효율성의 차원으로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정대영, 2006).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통합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름에 대한 인정, 모든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노력, 그리고 이러한 가치관과 태도를 공유하는 교직원과 학교의 문화가 중요하다(이대식, 2007; Dyson, Howes, & Roberts, 2004). 그러나 장애학생 교육권에 대한 인식과 요구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 관련 기관 설립 또는 통합교육과 관련된 사회적 논란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혼란은 통합교육에 대한 높은 필요성을 강조하는 학계와 현장에 비해 다름을 인정하고 모든 학생들을 포용하려는 노력과 태도를 갖춘 학교 또는 사회문

화 부재에 기인한다.

통합교육의 의미와 목적은 모든 개인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구성원들 간의 조화를 추구하여 더불어 사는 공동체 사회를 지향하는 것이다(정대영, 2006). 공동체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특정 집단이나 개인이 아닌 사회 전체가 그 가치와 의미를 공유하고 함께 노력해 나가야하지만, 일반교육의 맥락에서 특수교육과 상호 연관적으로 연구되고 논의되어야 하는 통합교육은 여전히 특수교육 분야에 제한되어 논의되고 있다(박승희, 1999; Fuchs & Fuchs, 1994). 특수교육 분야에 제한되어 있는 연구와 논의를 일반교육과 상호 연관적으로 확장시키고 성공적인 통합교육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태도를 바탕으로 한 공동체 지향적 학교 또는 사회문화가 형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통합교육과 관련된 사회적 현상을 이해하고, 통합교육 주체들의 인식과 태도가 경험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이대식, 2007).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ICF)에 따르면, 장애는 신체손상(impairment)과 같은 개인적 요인에 의한 기능장애(disability)와 대인간 요인, 외부의 환경적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불이익(handicap)으로 설명되며(WHO, 2001),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태도는 이들의 사회 참여를 제한하는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Byrd & Elliot, 1988; Berzon & Maran, 1989; Tait, 1992; Barton, 1996; Yoshida, Wasilewski, & Friedman, 1990). 정책과 입법이 사회 변화 촉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만(Parmenter, 1991), 장애인의 실질적인 사회 참여와 통합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태도로 결정될 수 있는 것이다(Carter, Parmenter, & Watters, 1996; Gleeson, 1995; Gold & Auslander, 1999). 그러므로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의 긍정적인 인식을 증진시켜 장애인의 사회 통합을 촉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지역사회 지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Wilkinson & McGill, 2009). 장애에 대한 인식은 사회적 접촉과 개인적 경험에 의해 형성될 수 있지만

(Mamula & Newman, 1973), 모두가 이런 경험을 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긍정적인 장애인식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비장애인이 발달장애를 접하게 되는 수단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의 인식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수단으로 언론이 있다. 언론은 장애에 대한 대중의 태도와 가치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이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Gold & Auslander, 1999; Hafferty & Foster, 1994; Keller et al., 1990). 선행연구들은 언론에서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일관된 이미지가 대중의 믿음과 기대를 형성한다고 주장한다(Byrd & Elliot, 1988; Neuendorf, 1990; Tait, 1992). 또한 언론에서 부정적으로 묘사되는 장애의 모습은 장애인들의 사회 적응을 방해하고(Gardner & Radcl, 1978), 그들에 대한 대중의 불안감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Byrd & Elliot, 1988). 이처럼 언론보도는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이고 부적절한 고정 관념을 강화하거나, 올바른 지식 전달을 바탕으로 긍정적인 사회적 인식 및 태도 변화를 촉진할 수 있다(Elliott & Byrd, 1982; Keller et al., 1990; Margolis, Shapiro, & Anderson, 1990).

21세기 인터넷이 대중화된 요즘 사람들은 시간이나 장소의 제약 없이 언제든지 언론보도, 즉 뉴스에 쉽게 접할 수 있다. 2018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3세 이상 국민 5,093만 명 중 91.5%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고, 이중 85.1%가 신문, 잡지 읽기와 같은 정보획득 활동을 위해 인터넷을 이용한다고 응답하였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 2019). 인터넷 이용률 평균이 연령별 89.2%이상인 것을 고려할 때, 오늘날 우리나라 국민의 대부분이 인터넷을 통해 뉴스를 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언론보도에 높은 접근성을 가진 오늘 날, 언론에서 다루어지는 장애 관련 뉴스는 대중의 인식 및 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언론은 장애를 약하고, 무기력하며, 연민 또는 조롱의 대상 등으로 묘사하여(Bogdan et al. 1982; Byrd & Elliot, 1988; Carter, Parmenter, & Watters, 1996)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 관념을 강화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2017; Biklen, 1987; Byrd & Elliot, 1988; Keller et al., 1990; Yoshida,

Wasilewski, & Friedman, 1990). 반면, 일부는 언론이 장애인의 한계보다는 능력을 강조하는 인간중심언어(people-first language)의 사회적 표현을 지향하여 대중의 인식을 개선한 사례를 통해 언론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Byrd, 1997; Duvdevany, Rimmerman, & Portowicz, 1995; Eichinger, Rozzo, & Sitornik, 1992; Gold & Auslander, 1999; Michael-Smith, 1987).

언론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결정할 수는 없지만, 무엇을 생각할지는 결정할 수 있다(Neuendorf, 1990, p. 115). 다시 말해, 언론은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고 대중의 관심과 행동을 자극하여 통합교육을 비롯한 통합사회를 지향하는 장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태도를 형성하는 도구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Carter, Parmenter, & Watters, 1996; McKeever, 2013). 따라서 언론은 개인의 경험에 의존하는 주관적이나 정적인 정보를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관점에서 사실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장애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개선하고 증진시키는데 힘써야한다(Wilkinson & McGill, 2009). 국내 일간지와 지상파 방송 저녁 종합뉴스의 교육 관련 1,422건의 보도기사를 분석한 손승혜, 황하성, 장운재(2011)는 국내 언론이 교육의 다양한 대상과 주제들에 대한 균형 잡힌 보도의 부재, 전문성 부족, 비리나 사건 중심의 부정적 보도, 경쟁을 위한 홍보 위주의 보도가 교육 현실 이해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혼란을 야기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므로 발달장애 학생관련 언론보도기사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평가를 바탕으로 향후 통합교육 및 통합문화 형성을 위한 언론보도의 역할과 방향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발달장애에 대한 언론보도를 분석한 선행연구로 김진훈, 박정식(2012), Carter, Parmenter, & Watters(1996), Wilkinson & McGill(2009), McKeever(2013), Bie & Tang(2015), Muhamad & Yang(2017) 등이 있다. 다양한 방법으로 발달장애 관련 언론보도를 분석한 국외 연구에 비해 국내 연구는 지적장애인 관련 연구 한 편이 유일했다. 이들은 발달장애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기 보다는 하위유형인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로 대상을 제한하여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학생과 같이 분석대상

의 연령을 제한한 연구는 전무하였다. 분석은 짧게는 한 달부터 길게는 2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보도된 기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해당 연구들은 특정 언론사를 선택하여 분석대상 기사를 선정하였기 때문에 최대 800건을 넘지 않는 적은 수의 기사를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을 종합해보았을 때, 기존의 연구들은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비장애인들에게 노출되는 방대한 양의 언론보도를 포괄적으로 분석하지 못하였으며, 발달장애를 모두 포괄하기 보다는 하위유형인 지적장애나 자폐성장애에 국한되어 진행되었다. 언론사의 일부 기사만을 분석한 내용분석 연구는 발달장애 학생과 관련된 사회적 현상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는데 제한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박대민, 2013). 빠르게 생산되는 대량의 언론보도기사를 전체적으로 조망하여 새로운 현상을 분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텍스트 빅데이터 분석기법이 있다.

언론보도기사 분석에 있어 전통적인 내용분석 방법의 대안으로 텍스트 빅데이터 분석기법이 제안되는 이유는 언론보도기사가 가지는 다음의 특징 때문이다(박대민, 2013). 첫째, 언론보도기사가 디지털화된 형태로 생산되고 유통되는 것이 보편화되어 대량의 자료를 표집하는데 유용하다. 둘째, 언론보도기사는 비정형데이터이지만, 올바른 문법의 형식은 물론 제목, 본문, 기사이름 등의 정형적인 형식 또한 갖추기 때문에 다른 비정형데이터의 비해 텍스트 빅데이터 분석의 속도와 정확성이 높다. 셋째, 언론보도기사는 공유된 정보를 바탕으로 다양한 언론사의 의해 중복적으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큰 축약효과를 가진다. 따라서 중복되는 기사들을 하나의 대표 기사로 처리하거나 중복되지 않은 내용을 종합하여 분석하는 등 다양한 관점에서의 분석이 가능하다(한승희, 2018). 이처럼 대량의 언론보도기사가 가지고 있는 특징으로 인해 언론보도기사 분석을 위한 텍스트 빅데이터 분석기법의 활용성은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 알고리즘에 기초한 텍스트 빅데이터 분석은 시계열로 축적된 양질의 자료 모두를 대상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표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비해 다양한 관계를 분석할 수 있음은 물론 2중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낮다(박대민, 2013; 한승희, 2018). 또한 데이터 추동적

(data-driven)인 텍스트 빅데이터 분석기법은 양적정보에 내포되어 있는 질적 의미를 파악하는 결과 해석 단계에서 연구자의 주관성이 개입할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박대민, 2013). 따라서 언론보도 기사를 대상으로 한 텍스트 빅데이터 분석은 기존에 내용분석을 통해 조망하지 못했던 전체적인 사회적 현상을 설명하는데 의미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연구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언론보도가 제공되는 오늘날의 언론보도 특성을 반영하여 언론보도 기사를 수집하였고, 대량의 정보를 객관적이고 탐색적으로 분석하는데 용이한 텍스트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통합교육의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발달장애 학생 언론보도 기사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장애학생에 대한 비장애인들의 인식과 태도를 드러내는 동시에 이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언론보도 기사를 이해하기 위하여 기사를 구성하는 주제어, 핵심 주제어 간의 관계, 그리고 토픽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시각적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 논의의 중심이 되는 발달장애 학생을 둘러싼 사회적 현상을 체계적으로 탐색하여 장애 학생들의 성공적인 사회통합을 위한 보다 실천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절 연구 문제

본 연구는 발달장애 학생 언론보도 기사를 통해 생성되는 담론에 대한 이해와 성찰을 바탕으로 장애학생들을 위한 통합교육 및 통합사회를 구현하는데 필요한 실천적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발달장애 학생 언론보도 기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주제어와 그 관계를 분석하고, 전체 언론보도 기사에 잠재된 토픽과 주기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발달장애라는 개념은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포함하기에 하위 장애유형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여 장애의 독특한 특성으로 관찰될 수 있는 차이를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사가 보

도되는 뉴스 프레임을 탐색적으로 분석하여 발달장애 학생에 대한 언론 보도의 태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에 따라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발달장애 학생과 발달장애 하위유형(지적장애 학생/자폐성장애 학생) 언론보도기사의 주제어는 무엇인가?

- 1-1. 발달장애 학생 언론보도기사의 주제어와 그 관계는 어떠하며, 이는 주기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가?
- 1-2. 지적장애 학생 언론보도기사의 주제어와 그 관계는 어떠하며, 이는 주기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가?
- 1-3. 자폐성장애 학생 언론보도기사의 주제어와 그 관계는 어떠하며, 이는 주기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가?

둘째, 발달장애 학생과 발달장애 하위유형(지적장애 학생/자폐성장애 학생) 언론보도기사의 토픽은 무엇인가?

- 2-1. 발달장애 학생 언론보도기사에 나타난 토픽은 무엇이며, 주기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가?
- 2-2. 지적장애 학생 언론보도기사에 나타난 토픽은 무엇이며, 주기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가?
- 2-3. 자폐성장애 학생 언론보도기사에 나타난 토픽은 무엇이며, 주기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가?



## 제 2 장 이론적 배경

### 제 1 절 발달장애 학생과 언론보도

#### 1. 발달장애의 개념 및 정의

발달장애(Developmental Disability)라는 용어는 1970년 미국 「발달장애 서비스 및 시설 건축법」(Developmental Disabilities Services and Facilities Constructions Act of 1970: PL 91-517)에서 처음 등장하였으며, 용어에 대한 정의가 처음 언급된 것은 1975년 「발달장애 원조 및 권리장전법」(Developmental Disabilities Assistance and Bill of Rights Act of 1975: PL 94-103)이다. 해당 법령에서는 발달장애를 ‘18세 이전에 발생하는 지적장애, 자폐증, 뇌성마비, 간질에 기인한 지속적, 본질적 장애’라고 정의하였다. 1978년 제정된 「재활, 포괄적 서비스 및 발달장애법」(Rehabilitation Comprehensive Service and Developmental Disability Act: PL95-602)에서는 발달장애를 범주가 아닌 기능을 중심으로 정의하였고, 1984년 개정된 「발달장애인법」(Developmental Disabilities Act of 1984: PL 98-527)에서 ‘22세 이전에 발생하는 중증의 만성적 장애(severe and chronic disability)로 자기 관리, 수용·표현 언어, 학습, 이동, 자기 지시, 독립적인 생활능력, 경제적 자급자족의 주요 생활 활동 영역에서 3가지 이상에서 제한된 기능이 무기한 지속되는 장애’로 정의하였다(강위영, 정대영, 박찬웅, 2009; 이승희, 조홍중, 2001). 미국의 「발달장애인법」은 발달장애인 협의회 창설, 보호 및 옹호 시스템 가동, 연구 기관 설립 등을 통해 발달장애인을 장애인 복지의 주류로 재편하는데 기여하였으며, 각국 발달장애인법 제정 운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김기룡, 김삼섭, 나경은, 2016).

우리나라의 경우, 1999년 「장애인복지법」을 장애범주를 확대하고 장

애의 개념을 재개념화하는 개정 과정에서 발달장애가 장애범주에 처음 포함되었다(이승희, 조홍중, 2001). 해당 법령 시행령 제2조(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는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신장장애인, 심장장애인과 더불어 발달장애(자폐증)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별표 1]에서 발달장애인을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의한 언어, 신체표현, 사회적응 기능, 자기조절 능력저하로 인하여 장애인으로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정의하였다. 이처럼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에서 정의하는 발달장애는 자폐증으로 정의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2007년 「장애인복지법」이 전부 개정과 함께 발달장애가 자폐성장애로 용어가 변경된 것을 통해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 이밖에도 2007년 「특수교육진흥법」에서 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있지만, 해당 법령에서는 발달장애가 아닌 발달장애와 유사한 발달지체(developmental delay)라는 용어를 포함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발달지체는 시행령 [별표]에서 ‘신체, 인지, 의사소통, 사회·정서, 적응행동 중 하나 이상의 발달이 또래에 비하여 현저하게 지체되어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영아 및 9세 미만의 아동’이다. 이처럼 발달지체는 급격한 발달이 일어나는 영유아기에 장애를 진단하는 것이 어렵거나 낙인효과가 우려될 때 사용하는 용어로 특정한 장애명이 없이도 특수교육 및 관련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이소현, 박은혜, 2011).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에 장애와 관련된 대표적인 두 가지 법령에서 발달장애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발달장애라는 용어는 여러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왔다.

불분명한 발달장애의 개념을 확립하고 장애의 범위와 연령 기준에 대한 함의를 통해 학제 간 혼란을 줄이고 상호연계성을 높여 효과적인 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반복되어왔다(이승희, 조홍중, 2001; 조홍중, 이미정, 2012; 홍성두, 김원호, 2019). 이러한 요구는 발달장애인법 제정추진연대의 적극적인 입법 활동을 통해 2014년 5월 20일에 고시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을 통해 그 개념이 보다 구체화되었다. 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는 2011년 12월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한국자폐인사랑협회 등의 단체로 적극적인 활동을 추진하였다. 「발달장애인법」 제정의 배경이 된 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에서 정의한 발달장애의 정의와 실제 고시된 「발달장애인법」에서 정의하는 발달장애의 정의는 <표 2-1-1>과 같다. 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는 공통적으로 발달장애를 공통적으로 일상생활 영역에서 기능적 결함으로 정의하고,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를 장애 범주로 포함하였지만 그 범위는 다소 상이한 것을 알 수 있다. 장애인부모연대의 경우, 발달장애의 장애 범주에 뇌병변장애를 포함하되 신체적 장애를 배제하였고, 자폐인사랑협회는 정신적, 신체적 기능 손상을 가진 경계성 발달장애인을 정의에 포함시켰다. 지적장애인복지협회의 경우, 발달장애에 대한 별도의 정의를 제공하지는 않으나 자폐성장애를 “지적장애 등”의 범주에 포함시켜 사실상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를 발달장애로 정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단체들의 요구를 바탕으로 최근 고시된 「발달장애인법」에서는 발달장애를 「장애인복지법」의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를 포함하여 두 장애가 발달장애의 범주에 속한다는 합의에 이르렀다. 그러나 연대의 정의에서 상충되었던 정신적, 신체적 기능 손상에 대한 내용이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대체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정의가 제시되지 않아 여전히 정의의 모호성이 존재한다.

<표 2-1-1> 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 및 「발달장애인법」의 발달장애 정의

구분	발달장애의 정의
장애인부모연대안(제3조)	<p>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발달장애”란 18세 이전에 나타나야 하고, 생애주기에 걸쳐 지속되어야 하며, 걷는 것, 말하는 것, 스스로 돌보는 것, 일하는 것과 같은 것들을 하기 어렵고, 뇌병변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이들이 요구하는</p>

	<p>지원과 같은 종류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어떤 특징(욕구, 증상)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단, 지적장애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하고, 오로지 신체적 장애에만 해당하는 장애는 포함하지 않는다.</p>
지적장애인복지협회안(제2조)	<p>① “지적장애인 등”이라 함은 18세 이전에 정신적이거나 신체적인 기능손상 또는 정신적·신체적 기능손상이 결합되어 나타나 무기한 지속되기 쉬우며, 자기보호 관리, 언어표현, 학습 및 인지 능력, 이동, 자기지시, 독립적 생활능력, 경제적 자족성 등 주요 일상 활동 영역에서 실질적인 기능적 제약을 초래하여 장기간에 걸쳐 특별하거나 종합적·일반적인 보호, 치료 또는 기타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필요로 하는 자를 말한다.</p> <p>② 지적장애인 등의 범주에는 「장애인복지법상」의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 장애인을 포함하며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자폐인사랑협회안(제2조)	<p>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발달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소정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및 경계성 발달 장애인을 포괄한다.</p> <p>2. “경계성 발달장애인”이라 함은 정신적, 신체적인 기능손상으로 자기보호 관리, 언어표현, 학습 및 인지 등 주요 일상생활 영역에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p>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제12844호 제2조 제1항)	<p>1. “발달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의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장애인을 말한다.</p> <p>가. 지적장애인: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여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p> <p>나. 자폐성장애인: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p> <p>다. 그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p>

	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

참고: 조홍중, 이미정(2012).

「발달장애인법」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복지욕구를 반영하여 생애주기별 복지지원과 가족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44개의 조항이 7개의 장으로 구성되어있다(권주석, 2016). 효율적이고 일관된 생애주기별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단계에 적용되는 법령들을 검토하여 연계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인간의 발달 단계에서 핵심적인 시기인 학령기에 적용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발달장애를 정의하고 있지 않다. 때문에 「장애인복지법」을 기준으로 하는 「발달장애인법」은 발달장애 정의에 포함된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를 제외하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만 포함하고 있는 학습장애, 정서·행동장애, 발달지체 아동을 대상으로 아무런 지원을 제공할 수 없는 것이다. 이들은 2018년 기준 10,350명으로 전체 특수교육대상자의 11.4%에 해당한다. 즉, 학습장애, 정서·행동장애, 발달지체와 같이 생애발달과정상의 장애로 인해 성인기에 「발달장애인법」 제2조 제1항 다에서 명시하고 있는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다 할지라도 해당 법령의 지원과 서비스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조홍중, 이미정, 2012). 그러므로 여전히 모호한 발달장애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여, 이들을 위한 지원 및 서비스가 생애주기별로 일관되게 제공되게 함은 물론 배제되는 개인 없이 모두에게 균형 있는 서비스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실질적으로 발달장애라 불리는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 가. 지적장애 학생

지적장애(Intellectual Disability)는 사회적, 문화적, 교육적, 정치적 상황을 통해 형성된 장애로 지적장애의 정의와 분류는 시대에 따라 변화해 왔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용어의 변화를 넘어 장애에 대한 사회적 관

점과 이들을 위한 교육의 목적과 방법의 변화 등을 포함하기에 정의의 변화를 이해하는 것은 장애를 더욱 이해하는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강종구, 김라경, 2012; 박정식 2010; 이영철, 2007). 지적장애를 정의하기 위한 노력은 오랜 시간 지속되어 왔는데, 아래에서는 지적장애의 변화를 가장 잘 설명하는 용어의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지적장애는 비교적 새로운 용어로 과거에 백치, 저능, 정신박약, 정신지체 등으로 불렸다. 특히, 정신지체(Mental Retardation)라는 용어는 존엄과 존중을 갖지 못하고, 평가 절하되어 온 이전 용어들을 대체해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사용되었다(박정식, 2010; Finlay & Lyons, 2005; Hayden & Nelis, 2002; Rapley, 2004). 정신지체라는 용어는 장애(disability)가 개인의 내부에 존재하며, 정신지체를 가지고 있는 것은 결함이 있는 것이고, 결함은 사람의 정신(mind)에 있다는 의미를 포함한다(강종구, 김라경, 2012). 즉, 오랜 기간 동안 정신지체는 장애의 원인을 개인의 기질 또는 결함으로 인한 낮은 정신 수행력을 가진다고 보았기 때문에 실제연령과 정신연령의 차이로 장애를 진단하였다. 이처럼 개인의 정신적 결함을 강조한 초기 정의들은 정신지체의 영속적인 상태와 치유 불가능성(incurability)을 강조한다는 공통된 특징을 가진다(Doll, 1941, 1947; 민천식, 2003에서 재인용).

1876년 설립된 미국정신지체학회(American Association on Mental Retardation: AAMR)는 현재까지도 지적장애의 조건, 정의, 분류 등을 확립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는데, 1992년에 이들이 채택한 Luckasson et al.(1992)의 정의는 의미있는 변화를 야기하였다. 1992년의 정의는 개인의 내부 결함이 아닌 사회적 환경과 상호작용 과정에서 기능적 제한을 가지는 것으로 지적 기능 및 적응 능력, 심리적 및 정서적 측면, 건강 및 신체적 측면, 그리고 환경적 측면의 네 가지 차원에서 정신지체를 정의하였다(박정식, 2010; DePloy & Gilson, 2004; Hahn & Hegamin, 2001). 사회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변화는 개인을 둘러싼 환경의 중요성을 인정함에 따라 개인의 능력과 더불어 기능상의 한계를 지원할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이처럼 1992년 이후에 정신지체의

개념은 점차 기능을 지향하고 생태학적 조망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의 패러다임으로 확대되며, 개인의 정신적 결함을 강조하는 ‘정신지체’를 대신하여 사회적 환경에서 인간 기능성의 다차원적 접근을 강조한 ‘지적장애’라는 용어를 점차 많이 사용하기 시작하였다(민천식, 2003). 지적장애라는 용어는 체계적인 개별지원을 통해 인간의 기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인식을 반영함은 물론 개별화 지원에 대한 논리적 기초가 된다. 또한 장애인 당사자 또한 정신지체보다 지적장애라는 용어를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여 국제적으로 지적장애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추세이며(박정식, 2010), 이러한 변화는 기관의 명칭과 법률 등 다양한 곳에서 관찰된다.

지적장애라는 용어를 2007년부터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미국 지적장애 및 발달장애협회(American Association on Intellectual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AAIDD, 전 미국정신지체협의회)의 가장 최근 정의인 11차 정의(2010)에 따르면, 지적장애는 “지적 기능성과 개념적·사회적·실제적 적응기술로 표현되는 적응행동 영역에서 유의하게 제한성을 보이는 장애로 특정된다. 이 장애는 18세 이전에 시작된다.” 지적기능은 평균 2표준편차 미만의 70이하의 지능을 의미하며, 개념적 적응기술은 언어적 표현, 읽기/쓰기, 자기지시, 돈의 개념 이해를 포함하고, 사회적 적응기술은 대인관계, 책임감, 자기존중감, 법 준수하기, 규칙 따르기 기술을, 그리고 실제적 적응기술은 일상생활활동, 자기관리, 가사활동, 직업생활, 건강 및 안전, 여가, 지역사회 활용 등을 의미한다. 이밖에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2001)의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ICF)에서도 “장애는 신체기능과 구조, 활동 제한에서의 장애를 일으키며, 개인과 환경적 요인 간의 상호작용적 맥락 내에서 참여 제한을 일으키는 건강상태”로 지적장애를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여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지적 기능과 적응행동상

의 어려움이 함께 존재하여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으로 지적장애를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7년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서 지적장애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되었으나,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정의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여전히 정신지체라는 용어를 채택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볼 때, 지적장애는 개인의 낮은 지적 기능과 적응행동 기술로 정의됨을 알 수 있으며, 이들의 기능이 증진 가능성을 바탕으로 서비스와 지원 측면에서 장애를 분류하고 지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적장애의 국내 출현율은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수교육대상자의 53.4%가 지적장애 학생으로 특수교육대상자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장애유형이다(교육부, 2019). 장애의 원인으로는 유전인자나 염색체 이상과 같은 생물학적 원인, 출산 과정상의 문제와 같은 환경적 원인 등이 논의되고 있으나, 그 원인을 설명할 수 없는 경우도 다수 존재한다(김동일 외, 2019; 김동일, 손승현, 전병운, 한경근, 2010).

지적 기능성과 적응행동상의 결함으로 정의에 따라 지적장애 학생의 특성은 지적 능력과 적응행동상의 특성으로 구분된다. 우선, 표준화 지능 검사결과 70이하의 지능을 가진 지적장애 학생들은 언어이해, 지각추론, 작업기억, 처리속도의 영역에서 비장애학생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을 보인다. 이들의 낮은 지적 기능성은 단기기억의 결함, 선택적 주의집중의 문제, 부호화 문제 등으로 설명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김동일 외, 2010). 첫째, 지적장애 학생들의 단기기억은 용량이 제한되어 정보를 유지하는 시연활동과 정보를 범주화하는데 문제가 있고 느린 정보조작 속도를 보인다. 또한 낮은 초인지 능력으로 인하여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전략을 선택하고 사용하는 능력이 부족해 전반적인 학습 영역에 어려움을 가진다. 둘째, 지적장애 학생들은 다양한 자극 중에서 필요한 자극을 선택하여 주의를 기울이고, 집중된 주의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보인다. 셋째, 모방과 일반화 능력이 부족하여 특정 대상을 관찰하여 우발적으로 학습하거나 학습한 내용을 일반화하는데 어려움을 가진



다. 이와 같은 지적 특성으로 인하여 지적장애 학생들은 전반적으로 낮은 학업성취를 보인다.

일반적으로 지적 능력은 개인의 결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나 지적장애를 개인 내 결함 보는 전통적인 관점에서 개인의 능력과 환경 사이에 상호작용의 결과로 개인의 잠재능력을 지원하면 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는 사회생태학적인 관점으로 정의와 개념이 변해가면서 (Wemeyer et al., 2008), 지적 능력과 더불어 적응행동상의 결함은 지적 장애의 주요한 진단기준으로 자리 잡았다. 이는 사회생태학적인 관점에서 지적장애를 정의한 1992년 AAMR의 9차 정의에 포함된 구체적인 적응행동의 개념과 이 시점을 기준으로 지능과 적응행동상의 문제를 동시에 고려하여 지원 강도의 필요성에 따라 장애를 분류하는 변화된 기준을 통해 설명된다(강종구, 김라경, 2012). 지적장애 정의에 포함된 적응행동은 다음의 6가지 공통요인을 기준으로 발전되어 왔다(Tasse et al., 2012). 첫째, 적응행동은 사회적 기대에 부합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 학습 및 수행 능력이다. 둘째, 적응행동은 연령과 문화에 따라 예상되는 행동이다. 셋째, 적응행동은 신체적 요구와 지역사회 참여에 필요한 개인의 기능이다. 넷째, 적응행동은 책임감 있는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다. 다섯째, 적응행동은 연령과 같은 발달특성을 반영한다. 여섯째, 적응행동은 개인의 최대 수행 능력이 아니라 개인의 일상적인 행동을 의미한다. 언급된 내용을 기준으로 변화되어 온 적응행동의 정의는 <표 2-1-2>와 같다.

<표 2-1-2> 적응행동 정의의 변화

발표연도	적응행동 정의
5차 정의 (Herber, 1959)	적응행동은 개인이 주변 환경의 자연적/사회적 요구사항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효율성을 의미한다. 이는 다음의 2가지 요소를 지닌다. (a) 각 개인이 독립적으로 기능하고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 (b) 각 개인이 속한 문화에서 부여된 개인적/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를 만족스럽게 이루는 정도.

6차 정의 (Herber, 1961)	적응행동은 개인이 성숙하고, 학습하며, 사회적 적응을 해나가면서 주변 환경의 자연적/사회적 요구사항에 적응할 수 있는 효율성을 의미한다.
7차 정의 (Grossman, 1973)	적응행동은 개인이 속한 연령별/문화적 집단에 요구되어지는 개인적 독립성과 사회적 책임감의 기준에 부합할 수 있는 정도의 효율성을 의미한다. 적응행동은 다음의 영역에 반영되어 있다. (a) 어린시절: 감각운동기술, 의사소통, 자조, 사회화, (b) 아동기 및 초기 청소년기: 일상생활에서 기초 학업기술을 적용하는 것, 추론하기 및 판단의 적용, (c) 후기 청소년기와 성인기: 직업적/사회적 책임감과 성과
8차 정의 (Grossman, 1983)	적응행동은 각 개인이 속한 연령이나 문화 집단에 부합하는 성숙, 학습, 개인의 독립성, 사회적 책임감의 기준을 달성하는 효율성에 심각한 제한이 있을 때 나타난다.
9차 정의 (Luckasson et al., 1992)	적응기술은 주어진 상황에 적응하는 능력과 주변 상황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개인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집합체를 의미한다. 적응행동에 제한이 있는 사람은 각 개인의 나이에 적합한 다음의 10가지 적응행동 기술 중 2개 혹은 그 이상의 영역에서 제한성을 나타낸다. 10개의 적응행동 영역은 의사소통, 자기관리, 가정 내에서 기능하는데 필요한 기술, 사회적 기술, 지역사회 이용, 자기관리, 건강와 안전, 기능적 학업, 여가, 직업(일)이다.
10차 정의 (Luckasson et al., 2002)	적응행동은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기능하기 위해 배운 개념적 사회적, 실제적 기술의 집합체이다.
11차 정의 (Schalock et al., 2010)	적응행동은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기능하기 위해 배운 개념적, 사회적, 실제적 기술의 집합체이다. 적응행동은 다영역 구인개념이고 다음의 하위 기술을 포함한다. 1. 개념적 기술: 언어, 읽기와 쓰기, 금전개념, 시간개념, 수 개념 2. 사회적 기술: 대인적 관계 기술, 사회적 책임감, 자아 존중감, 파괴성, 순진성(경계심), 규칙과 법 준수, 피

	<p>행당하지 않기, 사회적 문제해결 기술</p> <p>3. 실제적 기술: 일상생활 활동, 작업기술, 금전관리, 안전, 건강관리, 여행/이동, 일정/일과계획, 전화기 사용</p>
--	---

출처: 서효정(2014).

오늘날 개념적·사회적·실제적 적응기술로 정의되는 적응행동상의 결함은 지적장애인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기술에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어려움은 개인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생애발달단계의 초반에 발견되고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Chadwick et al., 2005; Matson, Dempsey, & Fodstad, 2009). 선행연구들은 지적장애 학생들이 보이는 부적응행동이 이들의 지역사회 통합을 방해하는 주요 요인임을 밝혔다(김형일, 신현기, 2003; Bricker, 1995; Guralnick & Groom, 1988; Swanton et al., 2010). 지적장애 학생들은 개인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공격적이고 위축되거나 퇴행적이며 충동적인 행동 특성을 보이고, 타인과의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 능력 부족으로 인해 또래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 문화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등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보인다. 특히, 학령기는 사회 통합은 물론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적응행동 기술을 학습 수 있는 시기이지만, 자칫 부적응행동으로 인해 사회에서 거부당하거나 낙인될 수 있기에 상당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

## 나. 자폐성장애 학생

우리나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자폐성장애는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결함이 있고,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관심과 활동을 보임으로써 교육적 성취 및 일상생활 적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정의되며, 주로 만 3세 이전에 진단된다. 비장애아동과 비교하여 이들이 보이는 능력은 매우 뛰어나거나 지체되기 때문에 하나의 장애가 아닌 연속선상의 다양성을 보이는 범주성장애로 분류되며(Heflin & Simpson, 1998), 자폐, 아스퍼거, 소아기 붕괴성 장애 등을 포함한다. 자

폐성장애는 사회적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의 지속적인 결함을 보이는 장애로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흥미와 행동을 보이는 특성으로 인해 다양한 개인의 기능 영역에서 현저한 어려움을 초래한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이들이 보이는 증상의 범위는 매우 넓고 일관적이지 않아 자폐범주성장애 또는 자폐스펙트럼장애로도 일컫는다. 그러나 자폐성장애의 주요 증상인 사회적 의사소통과 상호작용 결함은 아동이 주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공동관심(joint attention)을 형성하지 못하는 초기 발달과정 특성이 대화자로서의 역할 및 전반적인 대인관계에 어려움으로 이어진다는 공통된 특징을 가진다(이희란, 2007).

이와 같이 생애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폐성장애 주요 증상의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하고 이들의 사회 발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다. Kanner(1943)에 의해 자폐성장애가 처음 소개된 이후 자폐성장애의 원인을 생물학적 요인에서 찾고자 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분명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또한 자폐성장애의 주요 증상은 다양한 행동문제에 기초하고 있어 생물학적 요인으로만 원인을 설명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인지결함 및 사회성 분야에 연구가 활성화되었다(신현기, 1998; Frith, Morton, & Leslie, 1991). 최근 이루어진 자폐성장애 관련 연구들은 심리학적 관점에서 선천적으로 사회성 발달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정서인지 장애이론과 상위표상능력(meta-representation)과 같은 인지적 결함이 사회성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마음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변찬석, 1996; 신현기, 1998).

우선, 정서인지 장애이론은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거나 서로 다른 정서를 구분하는 능력이 선천적으로 부재되었다는 이론으로 자폐성장애를 처음 발견한 Kanner(1943)에 의해 채택된 개념이며, Hobson(1986)에 의해 더 구체화되었다. Hobson(1986)은 비디오를 통해 정서를 나타내는 몸짓(gestural), 목소리를 생활연령과 일치시켜 설정한 자폐성장애아동 집단과 지적장애아동 집단에게 보여주고, 비디오에서 나타난 정서를 얼굴표정 사진과 일치시키게 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자폐아동 집단

이 지적장애아동 집단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행 수준을 보였다. 자폐아동 집단이 지적장애를 동반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는 지적 능력과 상관없이 자폐성장애 아동들이 낮은 정서인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 다른 정서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이처럼 정서를 인식하고 구분하는 능력은 대인관계 형성을 위한 기초적인 기술이지만, 자폐성장애 아동은 이를 위한 능력의 선천적 무능력으로 인해 사회적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 능력이 정상적으로 발달하지 못한다는 것이 정서인지 장애이론의 가설이다.

정서인지 장애이론의 한계 또한 존재한다. Dawson & McKissick(1984)은 자폐성장애아동의 사회성 결함이 자기인지(self-recognition) 능력을 기반으로 발생한다는 정서인지 장애이론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들은 4세에서 6세까지의 자폐성장애 아동 16명을 대상으로 시각적 자기인지 능력과 자기인지 능력 발달 간 관계가 있다고 받아들여지는 대상 영속성 및 몸짓의 제한정도를 측정하였다. 연구대상 15명 중 13명의 아동은 정상적인 자기인지 능력을 보였고, 낮은 자기인지 능력을 보인 2명의 아동은 대상 영속성 과제에서도 낮은 수행을 보였다. 대상 영속성이 자폐성장애 아동의 자기인지 능력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나, 몸짓과의 유의한 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Dawson과 McKissick는 자폐아동의 자기-타인인식이 사회적 결함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정서인지 장애이론의 가설을 지지하지 않았다.

또한 정서인지 장애이론에 따르면, 자폐성장애 아동은 초기 발달시기부터 부모와의 관계 형성에 결함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자폐성장애 아동이 부모와 애착을 형성할 수 있다는 보고가 늘어나고 있고(김상원, 신의진, 이경숙, 1997; Dissanayake & Crossley, 1997; Rogers, Ozonoff, & Maslin-Cole, 1993; Willemsen-Swinkels, Bakermans-Kranenburg, Buitelaar, van Ijzendoorn, & van Engeland, 2000), 최근 메타연구를 통해 약 53%의 아동이 부모와 안정애착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허미나 외, 2014; Rutgers et al., 2004). 이처럼 자폐성장애 아동

이 선천적인 결함을 가진다는 정서인지 장애이론은 자폐성장애 아동의 애착이 형성되어 있다는 최근 연구결과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제한점을 가진다(변찬석, 1996).

다음으로, 마음이론(Theory of Mind; ToM)은 바람, 믿음, 의도, 정서 등과 같이 직접적으로 관찰될 수 없는 타인의 마음 상태(mental states)를 추론하고, 추론한 내용을 바탕으로 타인의 행동을 설명하고 예측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마음이론은 마음상태에 따라 행동이 발생했던 주관적인 경험이 축적되면서 발달할 수 있으며, 타인 또한 그들의 내적 표상에 의해 행동할 수 있음을 이해하게 되는 인지적 능력(정승화, 홍경훈, 2011)인 동시에 개인이 속한 문화적 요인과의 관련이 있어 사회적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 능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김건희, 장수정, 2013; 오진희, 김은정, 유운영, 2010). 즉, 마음이론은 사회성 결함과 인지적 결함을 연결하여 자폐성장애를 설명하는 개념으로 자폐성장애 학생의 주요 증상인 사회성 결함이 타인의 마음상태를 표상하는 마음이론의 결여로 인한 어려움이라고 가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으며(Baron-Cohen, 1989; Baron-Cohen, 1991; Baron-Cohen, Leslie, & Frith, 1985; Leslie & Frith, 1988; Perner, Frith, Leslie, & Leekam, 1989), 대표적인 연구로 자폐성장애 아동의 틀린 믿음(false belief)에 대한 연구를 통해 마음이론 발달 수준을 증명하고자 한 Baron-Cohen, Leslie & Frith(1985)가 있다. 이 연구는 Wimmer & Perner(1983)의 실험을 응용하여 자폐성장애 아동이 자신의 믿음을 바탕으로 타인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Sally와 Anne을 주인공으로 하는 인형 놀이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실험은 피험자들이 두 인형의 이름을 숙지한 상태에서 시작된다. 먼저, 두 인형이 모두 있는 한 방에서 Sally는 먼저 자신의 구슬을 앞에 있는 바구니에 넣고 방을 나간다. Sally가 방을 나간 사이 Anne은 Sally의 바구니에 있던 구슬을 꺼내 자신의 상자 안에 그 구슬을 숨긴다. Sally가 다시 방으로 돌아왔을 때 실험자는 피험자에게 Sally가 어디에서 구슬을 찾을지 예측하게 한다. 다

시 말하면, 구슬의 위치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였지만 Sally는 구슬이 여전히 바구니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틀린 믿음을 아는지 확인하는 실험이다. 실험집단으로 표집된 20명의 자폐성장애 아동의 수행을 다운증후군으로 진단된 아동 14명과 비장애 아동 27명을 통제집단으로 설정하여 비교한 결과, 자폐성장애 아동의 언어 능력이 통제집단보다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자폐성장애 아동의 수행이 현저히 낮음을 확인하였다. 이 과제를 올바르게 수행하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타인의 믿음 또는 실재(reality)와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Baron-Cohen, Leslie & Frith(1985)는 자폐아동이 과제에서 보인 낮은 수행을 통해 이들에게 마음이론이 결여되어 있음을 증명하였다.

마음이론 또한 타인의 마음상태를 바탕으로 한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능력으로 ‘신념’의 영역에 제한되어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Kanner(1943)에 의해 자폐성장애를 제안한 이래 다양한 관점에서 자폐성장애를 설명하기 위한 노력이 꾸준히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론은 여전히 인지심리학, 철학, 교육학 등의 영역에서 가장 많이 검토되고 지지되고 있는 이론이다. 이는 많은 이론 중에서도 자폐성장애에 대한 많은 설명 변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신현기, 1998).

자폐성장애 학생이 보이는 증상은 매우 다양하며, 일부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그 증상이 개선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이 가지는 일부 특성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이차적인 문제를 야기한다. 특히 자폐성장애 학생이 가지는 인지적, 행동적 불가변성(inflexibility) 특성은 비규칙적이고 즉흥적인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학교 상황에서의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다. 또한 학령기 자폐성장애 아동이 가지는 문제해결 기술, 주의집중의 어려움, 충동성 등과 같은 취약성 또한 정서적 기능의 약화를 초래하여 학교생활 적응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Loveland & Kotoski(2005)는 자폐성장애 학생이 공통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어려움을 사회 및 적응행동, 언어 및 의사소통, 정서 등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첫째, 사회 및 적응행동은 자폐성장애를

정의하는 주된 증상 중 하나로 또래 관계 형성의 어려움, 사회적 고립, 언어적·비언어적 의사소통 능력 결핍 등의 형태로 학령기 전부터 관찰된다(Wing & Gould, 1979). 이러한 특성은 생활연령이 증가하면서도 계속 유지되어 개인의 성숙도 및 발달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에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특성 중 하나이다(Rutter & Garmezy, 1983; Rumsey & Hamburger, 1988). 사회 및 적응행동 결함의 원인은 주의 패턴(attention pattern)과 같은 인지 능력 제한으로 기인된다. 이는 언어 자폐성장애 학생들이 주의가 많이 필요한 상황에서 사회적 상황을 해석하는 능력이 저하되었으며, 타인과는 다르게 동일한 상황에 대한 주의집중을 보였다고 보고한 연구 결과들을 통해 이해될 수 있다(Klin et al., 2002; Pierce, Glad, & Schreibman, 1997).

둘째, 자폐성장애 학생의 특징으로 언어 및 의사소통 결함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언어 및 의사소통의 결함은 또래와 다르게 불규칙적이고 운율이 부족한 언어를 구사하고 인칭대명사 사용에 있어 반복적인 오류와 반향어(echolalia) 문제를 보인다(Bartak & Rutter, 1974; Fay, 1979; Kanner, 1943). 반향어는 모든 학생들에게서 관찰되는 특징은 아니나 약 75%에 달하는 다수의 학생들에게서 관찰되는 주요 증상 중 하나이다(Fay & Butler, 1968; Howlin, 1982; McEvoy, Loveland, & Landry, 1988; Prizant, 1983; Rutter, 1968). 일부 학자들은 반향어가 즉흥적인 대화가 어려운 자폐성장애 학생들의 의사소통전략이며, 언어습득을 도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Tager-Flusberg & Calkins(1990)는 반향어가 의사소통기술 습득을 촉진할 수는 있어도 문법적인 발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못한다는 반론을 제기하였다. McEvoy와 그의 동료들(1988) 또한 언어 수준이 높을수록 자폐성장애 학생이 보이는 반향어가 감소됨을 밝혀 후자의 주장에 더 무게가 실리고 있다.

셋째, 정서 행동은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자신을 비롯한 타인의 의사소통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 학령기 이전 자폐성장애 유아는 얼굴표정 인식 및 표현에 어려움을 가지고 간단한 타인의 정서만 분별할 수 있고, 생활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능력이 차츰 향



상되나 발달양상은 비장애아동과 다르게 나타난다. 자폐성장애 학생들은 비장애 학생들에 비해 평범하지 않고, 부적절하고, 과도한 정서를 보이며,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보인다(Capps et al., 1993; Joseph & Tager-Flusberg, 1997; Yirmiya et al., 1989). 일부 연구는 자폐성장애 학생들의 정서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원인이 있을 것이라 주장하지만, 다른 연구들은 모든 자폐성장애 학생들에게서 정서적 결함이 관찰되지 않으며, 언어 정신 연령을 일치시킨 통제집단과의 비교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이지 않다고 보고한다(Ozonoff, Pennington, & Rogers, 1990; Prior, Dahlstrom, & Squires, 1990). 다시 말해, 자폐성장애 학생들의 정서적 결함은 발달지연을 일부 반영하고, 이들의 정서 발달은 언어 수준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적장애 학생은 지적 능력과 적응행동의 결함 그리고 자폐성장애 학생들은 상호작용, 의사소통의 결함으로 인한 장애로 이들이 보이는 정서·행동적 특성은 매우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적응행동상의 결함으로 인해 사회 통합에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매우 상이하면서도 유사한 특징을 가진 두 개의 장애유형을 ‘발달장애’의 범주에 통합하는 것은 이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특성을 중심으로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유용하다(김기룡, 김삼섭, 나경은, 2016). 실제 특수교육대상자에서 자폐성장애 학생의 비율은 지적장애 학생에 비해 낮으나, 자폐성장애의 약 56%가 지적장애를 동반하며 두 장애유형을 지칭하는 발달장애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이주영 외, 2017). 언급된 내용을 고려할 때, 이들 두 집단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태도를 파악하고 성공적인 통합을 위한 논의를 바탕으로 생애발달주기별 교육 및 지원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의미있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학령기는 발달장애 학생들이 사회 적응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을 습득하고 연습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다양한 교육과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Horn & Fuchs, 1987) 이들에 교육적 요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러한 서비스가 학령기 이후에도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 2. 언론보도의 개념 및 특성

### 가. 온라인 저널리즘과 포털형 인터넷 뉴스

온라인 저널리즘(Online Journalism)은 인터넷을 통해 뉴스를 생산하고 분배하는 총체적 과정으로 디지털 저널리즘(Digital Journalism), 인터넷 저널리즘(Internet Journalism), 사이버 저널리즘(Cyber Journalism), 웹 저널리즘(Web Journalism) 등으로 불리는 개념이다. 온라인 저널리즘은 여전히 발전해나가고 있어 그 정의나 영역이 유동적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온라인 저널리즘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 등에 관한 보도, 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터넷과 같은 가상공간을 이용해 온라인 이용자에게 전문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저널리즘”으로 정의된다(김병철, 2005; Craig, 2005). 온라인 저널리즘의 시초는 1970년 영국에서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를 TV스크린에 표현하는 텔리텍스트(Teletext)이며, 1980년대에 인터넷이 아닌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 정보가 제공되는 형태로 발전하였다. 1990년대 인터넷이 급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뉴스편집과 취재의 개념은 물론 뉴스 가치를 결정하는 관계자들에 의해 뉴스의 보도여부를 결정하는 게이트키퍼(gate-keeping)도 온라인에서 가능해지면서 새로운 저널리즘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처럼 온라인 저널리즘은 인터넷이 발달하기 이전에 출현하였으나,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뉴스를 전달하는 가장 주요한 매체로 온라인 저널리즘이 본격적으로 확산되었기에 일반적으로 온라인 저널리즘의 기원은 1990년대로 알려진다(김병철, 2005).

물리적인 장벽에 제한받지 않는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저널리즘은 수용자로 하여금 실시간 정보에 대한 높은 접근성을 가지게 함은 물론 지면과 시간의 구조적 한계를 가지던 기존 오프라인 신문의 단점을 완화시키며 급속히 확대되었다(박광순, 안종목, 2015). 때문에

온라인 저널리즘의 발전은 인터넷 신문과 밀접한 관련을 가질 수밖에 없다. 세계 최초로 1992년 3월 ‘시카고 트리뷴(Chicago Tribune)’지의 인터넷 신문([www.chicagotribune.com](http://www.chicagotribune.com))이 창간되었고, 3년 이후인 1995년에 국내에서도 중앙일보의 인쇄신문 종속형 인터넷 신문([www.joins.com](http://www.joins.com))을 시작으로 인터넷을 통해 뉴스가 제공되기 시작하였으며, 이용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인터넷 신문의 제공 형태도 다양화되었다(김병철, 2005; 정승현, 2008). 일반적으로 인터넷 신문의 유형은 종이신문과 병행하여 배포되는 오프라인 종속형 인터넷 신문, 순수한 온라인 기반인 독립형 인터넷 신문, 포털사이트가 뉴스를 제공받아 배포하는 포털형 인터넷 뉴스, 그리고 뉴스를 생산하는 것이 아닌 기존의 뉴스를 바탕으로 분석과 해석 의견을 전달하는 토론형 인터넷 신문으로 구분된다(송경재, 2006).

다양한 인터넷 신문의 유형 중, 포털형 인터넷 뉴스는 직접적으로 뉴스를 생산하지는 않지만, 인터넷을 매개로 대중에게 뉴스를 전달하고 전파하는 독특한 뉴스 생산방식을 가지고 있다. 전통적인 관점에서 저널리즘은 ‘언론활동이나 이러한 활동분야, 시사적 문제에 대한 뉴스 등을 취재 편집해서 미디어를 통해 보도, 논평, 해설 등을 하는 활동 또는 이러한 활동을 전문적으로 하는 직업분야’로 정의된다(임영호, 2000). 뉴스를 직접 취재하여 생산하지 않고 생산된 뉴스를 재매개하는 포털형 인터넷 뉴스는 언급된 저널리즘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포털형 인터넷 뉴스가 전통적인 신문, 방송보다 높은 이용자들의 호응과 함께 그 영향력을 확대해가면서 새로운 저널리즘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되기도 한다(안종묵, 2011). 포털형 인터넷 뉴스가 저널리즘적 기능을 수행하는데 뛰어난 특성을 가졌다고 평가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 포털에서 인터넷을 이용하기 때문에 포털에서 제공되는 뉴스에 보다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높은 접근성을 가진다. 둘째, 수요자가 선택하는 특정 매체는 물론 다양한 매체의 정보까지 제공하는 개방성을 가진다. 마지막으로, 시공간에 제한받지 않아 실시간으로 뉴스를 제공할 수 있는 속보성이다(정승현, 2008). 이러한 특징을 가진 포털형 인터넷 뉴스는 뉴스 서비스 환경에 큰 변화와 함께 그 영향력

을 점차 확대해가며 온라인 저널리즘의 주요 형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1998년 야후코리아를 시작으로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의 포털사이트는 수백여 개 언론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들의 관심과 요구에 맞게 뉴스를 공급하고 있다. 초반에 큰 기대를 받지 못하던 포털형 인터넷 뉴스는 2001년 미국의 9·11 테러와 2002년 한일월드컵, 대통령 선거 등과 관련하여 빠르게 뉴스를 접하기 위한 사람들이 인터넷을 이용하기 시작하면서 2000년 전후로 포털형 인터넷 뉴스 이용이 크게 증가하였다(반현, 권영순, 2007). 특히 네이버와 다음과 같은 대형 포털 사이트는 이용자의 뉴스 패턴을 급격히 변화시켜 포털 사이트를 통해 뉴스 유통 여부에 따라 개별 뉴스 미디어의 각종 성과가 결정될 만큼 그 영향력이 확대되었다(김동윤, 김성해, 2012; 채정화, 2014).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뉴스 이용창구를 분석한 뉴스 이용집중도 조사보고서(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2018)에서는 포털형 인터넷 뉴스의 이용점유율이 85.6%에서 89.3%까지 증가하고, 일간 온라인, 통신사·보도전문채널 온라인, 종편 온라인, 지상파 온라인, 뉴스큐레이션, 인터넷뉴스 온라인, 기타 등의 이용점유율은 감소하였음을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국민의 대부분이 인터넷을 통해 뉴스와 같은 정보획득을 하고 있으며(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2019), 온라인 저널리즘에서 포털형 인터넷 뉴스가 가지는 중요성과 영향력을 감안할 때, 포털형 인터넷 뉴스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연구와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나. 뉴스 프레이밍

언론은 특정 주제를 어떠한 방식으로 강조하고 보도하는지에 따라 대중의 태도를 유발할 수 있는데, 이는 뉴스 프레이밍(news framing)이라고 불린다(Entman, 1993, 2007; Neuendorf, 1990). 뉴스 프레이밍은 뉴스의 내용적인 특징을 결정하는 구조적 결정 요인에 대한 관심에 따라 대두된 개념으로 그 정의는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정승현, 2008). Goffman(1974)은 프레이밍을 ‘정보를 분류하고 해석하는데 적용하

는 해석적 스키마(schema)'로 정의하였으며(류재성, 2018), Tuchman(1978)은 뉴스 프레이밍을 통해 수많은 사회적 이슈 중에 사회적 현실을 바라보게 하는 틀의 역할을 하여 대중이 특정 이슈에 대해 토론할 수 있게 한다고 하였다. 또한 Gitlin(1980)은 현실에 대한 인식, 해석, 제시, 선택, 강조, 배제의 연속적인 패턴에 따라 담론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고, Gamson과 Modigliani(1989)는 갈등적 사안과 관련된 논란과 논란의 핵심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단초를 제공하는 것이 프레이밍이라 하였다. 이밖에도 Entman(1993)은 프레이밍이 문제 정의, 원인 진단, 도덕적 판단, 그리고 대안 제시라는 4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뉴스 프레임의 선택과 현저성(saliency)을 통해 대중이 특정 이슈에 대해 특정 방식으로 느끼고,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 정의하였다(Entman, 2007, p.165). 즉, 뉴스 프레이밍은 언론과 대중이 사회적 이슈를 바라보고 이해해나가는 방식이며, 대중으로 하여금 특정 주제에 대해 생각하고 토론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슈에 대한 반응 및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요한 개념이다.

뉴스 프레이밍의 현실 구성적 역할과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효과로 프레이밍 효과(framing effect), 의제설정 효과(agenda-setting effect), 점화 효과(priming effect)가 있다(Scheufele & Tewksbury, 2006). 이러한 효과는 프레이밍에 따른 뉴스에 노출된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효과로 이들을 함께 살펴보는 것은 뉴스 프레이밍이 대중의 인식과 태도 형성에 미치는 전반적인 과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Tewksbury & Scheufele, 2009). 프레이밍 효과는 언론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동일하여도 뉴스를 구성하는 방식이나 내용을 표현하는 방식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이은지, 나은영, 2013). 경제적 또는 정치적 이슈와 같이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상반된 대중의 의견이 존재하는 경우, 뉴스 프레이밍이 특정 대안을 선택하는 대중의 관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동일한 뉴스에 대해서도 이익과 손실을 평가하는 과정에 따라 대중이 보이는 반응의 차이는 Khneman과 Tversky(1979)의 전망 이론(prospect theory)을 바탕으로 설명할 수 있

다. 대중은 이익보다 손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일반적 성향으로 인해 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최대한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선택을 하지만,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 더 큰 위험을 감수하는 위험 추구적 선택을 하는 경향성이 보고된다. 즉, 이익의 프레임에서 보도되는 뉴스는 대중의 위험 회피적인 반응을 유도할 수 있고, 손실의 프레임에서 보도되는 뉴스는 대중의 위험 추구적 반응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진범섭, 2016). 이와 같은 프레이밍 효과는 제시된 정보에 대한 개인의 지식체계 개념이 활성화되는 과정으로 특정 이슈에 대하여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신념에 의해 가시화될 수 있다(Nelson, Oxley, & Clawson, 1997).

의제설정효과는 특정 이슈에 대해 반복적으로 노출됨으로써 해당 이슈를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이와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서 노출된 정보가 평가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경제와 관련된 이슈가 반복적으로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것은 대중의 관심과 이목을 집중시키는 것뿐 아니라 이슈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노출된 정보를 활용하여 정부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Price & Tewksbury, 1997; Tewksbury & Scheufele, 2009). 이러한 경향성은 점화 효과로 불리는데, 점화 효과는 외부에서 자극이 주어졌을 때 이와 관련된 개인의 과거 경험이나 생각이 촉발되는 것을 의미한다(이효성, 2006). 일반적으로 갈등적 사안에 노출된 개인이 복잡한 분석보다 상대적으로 단순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두뇌작용을 보이는데, 이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비교적 접근하기 쉬운 최근 정보에 의존하는 경향성을 야기한다(이효성, 2006; Iyengar & Kinder, 1987). 즉, 뉴스 프레이밍에 따라 보도되는 내용과 빈도는 대중의 기억 속에 있는 과거 경험이나 생각을 활성화시켜 행동 경향성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뉴스 프레이밍의 방식이 대중의 반사회적 또는 사회적 행동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Jo & Berkowitz, 1994).

이처럼 뉴스 프레임이 가지고 있는 현실 구성적 역할의 중요성을 바

탕으로 저널리즘 분야에서는 언론보도의 내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프레임 연구가 등장하여 오늘날까지 다양한 형태로 이어져오고 있다. 프레임 연구는 크게 언론보도의 형식적 차원을 분석하는 연구와 뉴스의 텍스트를 통해 내용적 차원을 분석하는 형태로 나뉜다(이희영, 김정기, 2016; 정승현, 2008). 뉴스 프레임의 분류에 관한 연구는 30년 이상 지속되어 왔으며, 뉴스의 주제와 가치에 따라 분류가 매우 다양하다. 이하에서는 일반적 뉴스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뉴스 프레임을 형식적 또는 내용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1) 형식적 차원의 프레임

형식적 차원의 프레임은 언론이 보도되는 형식을 통해 의미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형식적 차원의 프레임을 제시한 대표적인 연구자로 Iyengar(1991)과 Pan & Kosicki(1993)가 있다. 먼저, Iyengar(1991)는 일화적 프레임(episodic frame)과 주제적 프레임(thematic frame)으로 언론보도의 형식적 프레임을 분류하였다. 일화적 프레임은 구체적인 사건과 문제를 조명하여 특정 사례를 설명하는 것(예: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폐교를 앞둔 특정 학교의 사례를 통해 인구감소 문제를 조명)으로 묘사적인 특성이 강하다. 반면, 주제적 프레임은 보다 심층적이고 거시적인 맥락에서 정치적 문제와 사건에 초점을 맞추고 집단적, 추상적, 일반적 근거를 제시하는 보도 형식(예: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높은 성범죄 수치를 다루고, 이러한 성범죄 증가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한 논평 제공)으로 해설적이고 평가적인 성격을 갖는다(박은혜, 김영옥, 2007; Iyengar, 1991, p. 2, 14). Iyengar(1991)는 언론보도가 일반적으로 주제적 프레임보다는 일화적 프레임에 강하게 편향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는 일화적 프레임을 강화시키는 언론 조직 및 제작 규범을 지적하며, 이러한 언론계의 관행이 '복잡한 문제를 일화적 수준으로 단순화'시켜 맥락적인 이해보다는 국소적·비조직적이며 고립된 논의를 야기한다고 주장하였다(De Vreese, 2005).

Pan & Kosicki(1993)은 뉴스에서 다루어지는 자료, 기사, 그리고 청중이 함께 뉴스 담론(news discourse)을 형성하는 것을 사회인지적 과정으

로 보았으며, 이에 영향을 미치는 언론보도의 형식을 구문론적 구조(syntactic structures), 단편 구조(script structures), 주제 구조(thematic structures), 수사적 구조(rhetoric structures)로 구분하였다. 첫째, 구문론적 구조는 단어 또는 구가 문장 내에 일관적인 패턴으로 제시되는 것으로 역피라미드형(예: 헤드라인, 리드, 일화, 배경사건, 결론)과 같은 구조적 특성을 가진다. 구문론적 구조는 전문가를 인용하거나 경험적 데이터를 인용하여 경험적 타당성 또는 사실성을 주장하고, 공식적 자료를 인용하여 특정 관점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드러내는 등의 역할을 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둘째, 단편 구조는 뉴스가 스토리텔링을 통해 특정 사건을 묘사하고, 개인의 경험을 넘어 대중이 공동의 논의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기능을 가졌다는 관점이다(Bird & Dardenne, 1988). 단편 구조는 일반적으로 육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른 내용을 포함한다. 셋째, 주제 구조는 하나의 이슈 또는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어 특정 가설을 검증하는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진 보도는 헤드라인, 리드 또는 결론을 포함하는 요약과 일화, 배경정보 및 인용문을 통해 가설을 뒷받침하는 본문으로 구성되며, 특정 이슈나 주제를 중심으로 다층적인 구조를 이룬다. 마지막으로, 수사적 구조는 언론기자가 관찰하고 해석한 내용을 최대한 사실화하여 뉴스의 효과를 높이고자 언론기자가 선택하는 문체를 의미한다.

## 2) 내용적 차원의 프레임

내용적 차원의 프레임은 언론보도의 의미구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언론보도 기사를 구성하는 내용적 특성에 초점을 둔 프레임이다. 내용적 차원의 프레임을 제안한 대표적인 학자로 Gitlin(1980), Entman(1993), Semetko와 Valkenburg(2000) 등이 있으며, 이들이 제안한 프레임의 분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뉴스 프레임을 분류한 초기 연구자 중 한 명인 Gitlin(1980)은 1965년 4월 1일 미국 워싱턴에서 시작된 전쟁반대 학생시위에 대한 뉴스를 분석하여 해당 시위를 증폭시킨 언론의 역할을 프레임 분석을 통해 탐색하



였다. 초기 시위를 증폭시킨 뉴스 프레임은 시위 용어, 복장, 나이, 목표 등을 사소하게 묘사하는 사소화(trivialization), 시위의 반대 입장을 강조하거나 시위를 나치와 같은 극단주의자로 표현하는 양극화(polarization), 집단 내 갈등 강조, 그리고 시위대가 이질적이고 대표성이 없음을 강조하는 소외화(marginalization)로 구분되었다. 그는 이러한 뉴스 프레임이 학생시위의 일련의 과정 및 변화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Entman(1993)는 정치적인 관점에서 진단(diagnose), 평가(evaluate), 처방(prescribe)으로 뉴스 프레임을 구분한 Gamson(1992)의 분류를 확장하여 문제 정의(define problems), 원인 진단(diagnose causes), 윤리적 판단(maker moral judgement), 대안 제시(suggest remedies)로 프레임을 제안하였다. 문제 정의는 문제의 제공자가 이익과 손실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결정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문화적 가치 관점에서 평가된다. 원인 진단은 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을 파악하는 것을 의미하고, 윤리적 판단을 내리고 이러한 판단이 문제 제공자에게 미친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안 제시를 통해 문제에 대한 판단과 조치를 정당화하고 이러한 결정이 향후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이후 Semetko & Valkenburg(2000)는 유럽 언론보도를 경험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책임 귀인(attribution of responsibility), 인간적 흥미(human interest), 갈등(conflict), 도덕성(morality), 경제적 결과(economic consequences)의 다섯 가지 뉴스 프레임을 제안하였다. 첫째, 책임 귀인 프레임은 원인이나 해결책에 대한 책임을 정부, 개인, 또는 그룹에게 귀속시키는 방식으로 사건이나 문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급감하는 출생아 수와 연간 합계출산율의 원인을 국가의 복지부족으로 귀인하는 것이 책임 귀인 프레임의 한 예시가 될 수 있다. 둘째, 인간적 흥미 프레임은 대중의 관심을 끌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특정 개인이나 감정적인 요소를 이용하여 사건, 이슈, 또는 문제를 설명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갈등 프레임은 대중의 관심을 모으기 위한 수단으로써 개인, 그룹 또는 기관 간의 충돌을 강조하는 것으로 정치적 논쟁이나 대통령 선거

캠페인 관련 보도 등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뉴스 프레임이다 (Neuman, Just, & Crigler, 1992). 넷째, 도덕성 프레임은 종교적, 윤리적, 규범적 논의를 통해 문제를 제시하는 것으로 인용이나 추론을 통해 간접적으로 접근한다. 예를 들어, 성병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전문 집단을 인용하여 대중이 도덕적인 관점에서 성적 행동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의도하는 것이다. 다섯째, 경제적 결과 프레임은 개인, 그룹, 기관, 지역 또는 국가에 경제적으로 미칠 결과에 대한 사건 또는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이는 중요한 뉴스 가치를 가진다(Graber, 1993). 언급된 분류는 Neuman, Just, & Crigler(1992)이 제시한 인간적 흥미, 도덕성, 경제적 결과 프레임과 Price, Tewksbury, & Powers(1997)이 제시한 갈등적, 개인적, 인간적 흥미 프레임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뉴스 프레임의 분류이다(Muhamad & Yang, 2017).

### 3. 발달장애 언론보도분석 선행연구

UNESCO(1989)에서 발간한 장애인에 관한 사회인식 핸드북에서는 올바른 장애인관을 정립하기 위해 매체가 유의해야 할 10가지를 제안하고 있다. 첫째, 문제를 부각하지 말고 사람을 부각시켜야 하며 둘째, 손상 부분이 아닌 할 수 있는 능력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셋째, 비장애인 중에서도 능력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제시해야 한다. 넷째, 장애인의 전체 집단의 한 부분으로 묘사되어야 한다. 다섯째, 장애인을 비하하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며 여섯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손상부위나 성취, 어려움을 감정적으로 언급하지 않도록 한다. 일곱째, 성공한 장애인에게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평범한 장애인에게도 공평한 배려를 해야 한다. 여덟째, 한 가지 유형의 장애인만 내세우지 않도록 한다. 아홉째, 일반적인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에 동조해서 그 이미지를 고정화시키지 않고, 열 번째, 정신지체인 사람은 성장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서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의 언론에서 부정적으로 묘사되는 언론보도의 특성으로 인해서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강화되거나, 장애가 아닌 사람을 우선으로 하는 인간중심 언어 사용을 촉진하여 사회적 표현방법을 변화시킨 긍정적인 사례도 존재하였다. 이하에서는 발달장애에 대한 언론보도분석을 실시한 국내외 선행연구를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개인의 지식, 태도, 그리고 다양한 이슈와 관련된 사회정책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국내외 언론이 묘사하는 발달장애의 특성과 보도 경향성을 이해해보고자 한다.

## 가. 장애에 대한 언론보도분석

장애와 관련된 언론보도분석 선행연구는 특정 장애유형이 아닌 장애인 전반에 대한 언론보도를 분석한 선행연구의 특징으로 장애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사회적 비판을 검증하는 연구, 장애 관련 법 제정 시기의 언론분석을 통해 정책적 함의를 탐색한 연구, 장애 관련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 그리고 언론보도별 특성을 비교한 연구 등이 있다.

우선, Keller et al.(1990)은 언론이 장애에 대해 부적절하게 묘사하며 보도량 또한 많지 않다는 비판을 검증하기 위하여 84개의 미국 주간지에서 장애에 관한 428건의 언론보도 기사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지체장애, 지적장애 등의 장애인이나 그 가족 구성원의 일상에 대한 내용이 칼럼과 같은 뉴스를 통해 다수 보도되었는데, 이들은 장애가 개인의 삶에 미친 영향을 부정적으로 기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Keller와 그의 동료들은 언론이 개인의 능력이 개선될 수 있다는 기능적인 관점에서 보도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김호연(2005)과 함미애, 박원희(1999)는 미국과 한국에 장애 관련 법안 제정이나 올림픽과 같은 중요 행사가 이루어지는 특정시기에 보도된 언론의 보도특성을 분석하여 정책적 함의를 탐색하였다. 우선, 김호연(2005)은 미국 전장애인법이 발효된 1991년부터 2003년 12월까지 676권의 미국 시사주간지 *Time*에 보도된 장애인 관련 언론보도 기사에 대한 내용분석을 실시하여 기사의 내용 형태 구성과 경향성으로 인해 발생가능한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매년 보도되는 2,600여건의 기사 중,

1%인 평균 6건의 기사가 장애와 관련된 내용으로 매우 적은 기사 수를 보였으나, 2000년대로 갈수록 기사의 수나 내용이 증가하는 경향성이 분석되었다. 하지만 기사들은 지체장애나 감각장애와 같은 특정 장애 영역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여전히 부정적인 용어와 고정관념의 성격을 띤 보도가 지속적으로 관찰되어 향후 개방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장애인 관련 보도를 통해 대중에 정확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함미애, 박원희(1999)는 특수교육진흥법 제정(1977년~1978년), 서울 장애자 올림픽(1988년~1989년) 그리고 연구가 이루어진 시점인 1997년을 중심으로 장애 관련 보도의 경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 자료로 조선일보를 선택하였으며, 신문 기사의 수, 장애 지칭 용어, 장애유형, 그리고 기사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장애 관련 보도는 서울 장애가 올림픽을 중심으로 급증하는 현상을 보이고 이후 기사가 점차적으로 증가하였다. 장애를 지칭하는 용어들은 무절제되어 사용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시대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개념이 변화하면서 인권과 법령에 근거한 용어가 반영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기사들은 지체장애 관련 언론보도에 집중되었으며, 미담·극복(24.80%), 행사(19.41%), 제도·행정(13.21%)에 대한 기사가 많이 보도된 반면 사건·사고(4.31%), 고용·직업(3.50%), 교육(3.23%)에 대한 기사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1977년부터 1997년의 장애 관련 기사들이 장애인을 봉사자와 희생의 대상으로 취급하거나 소수 성공 사례를 부각시켜 독자의 흥미를 유도하여 언론이 장애인에 대한 바른 인식 형성하지 못하였음을 지적하였다.

유사한 맥락에서 서지형(1993)은 특정 신문사에서 보도된 장애 관련 기사를 분석하여 장애인 복지의 실재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에는 1971년부터 1992년까지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에 나타난 장애인 관련 기사가 포함되었다. 분석대상 기사들은 사회 환경 개선 측면(제도적 환경, 물리적 환경, 사회 인식적 환경), 장애인 전인 재활 측면(의료적 재활, 직업적 재활, 사회 심리적 재활), 그 외(행사, 기타)를 기준으로 분석되었

다. 약 22년간 보도된 961건의 기사를 분석한 결과, 전체의 22.4%가 행사와 관련되어 있었으며, 사회인식 환경 관련 기사가 14.9%로 나타났다. 언론기사에서 가장 적게 다루어진 부분은 교육재활로 5.5%를 차지하였다. 장애인 관련 기사는 장애인 복지에 대한 세계적 조류와 정책적 변화에 따라 관심이 높아졌으나, 사실전달 위주의 보도가 주를 이루고 있어 여러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신문의 보도적, 지도적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밖에도 언론의 주요 요소인 게이트키퍼링으로 인해 인터넷 신문의 형태에 따라 상이할 수 있는 보도 특성을 살펴본 김미혜, 박순천, 조수민, 손지혜(2004)의 연구도 있다. 이 연구는 독립형 인터넷 신문 오마이뉴스와 종속형 인터넷 신문인 조선일보를 비교하여 장애관련 보도경향을 분석을 실시하였다. 해당연구는 2004년 1월에서 3월까지 보도된 장애관련 138건의 기사의 외형(기사 수, 형태)과 기사의 내용(주제, 가치, 논조)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독립형 인터넷 신문이 종속형 인터넷 신문에 비해 권리 주장 및 홍보·계몽과 같은 장애에 대한 사회적 접근을 더 시도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권리 추구 및 장애인의 차별과 관련한 가치에 있어 현저한 차이를 보고하였다. 또한 두 유형의 인터넷 신문은 모두 극복과 미담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으며, 기사에 논조에서 큰 차이가 없음을 보고하였다.

이처럼 장애유형을 특정하지 않은 연구들에 비해 발달장애 관련 언론 보도기사를 분석한 선행연구는 미비하였는데, 이는 발달장애의 개념과 정의가 국가마다 다르고, 국내에서도 그 정의가 계속 변화되어왔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Carter, Parmenter, & Watters(1996)가 호주 시드니 지역, 도시, 전국 10개 신문에 1993년 6월부터 7월까지 약 8주간 보도된 발달장애 관련 기사 총 134건의 기사를 수집하였는데 독특한 점은 발달장애가 청각장애, 시각장애, 학습장애, 중복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 행동장애, 자폐성장애, 기타 등으로 매우 다양한 장애유형으로 정의하고 있어 국내에서 정의하는 발달장애보다는 장애 전반을 다루고 있는 연구로 보인다. 이 연구는 수집된 언론보도기사의 내용(주제, 초점 대상 집

단, 발전 가능성 및 방향)과 용어를 분석하여 시드니의 언론보도기사가 스포츠, 기타, 모금이 가장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 주제이며, 연령과 장애 유형을 특정한 기사들은 학령기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기사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검토해보았을 때, 장애에 대한 편견을 강화시키거나 용기 있고 영웅적인 모습을 강조하는 용어들이 빈번히 사용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정리하면, 장애에 대한 언론보도분석을 실시한 국내외 선행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언론에서 장애를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 연상하게 하는 부정적인 용어들이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고한다. 또한 2000년대에 들어 장애와 관련된 언론보도기사의 수가 증가되었지만, 다루어지는 주제가 장애인의 영웅적인 모습을 강조하는 미담이나 행사관련 내용이 상대적으로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나. 지적장애 언론보도분석

지적장애는 신문에서 일반적으로 다루어지는 장애유형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언론보도기사를 분석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이 수행되지 않았다(Wilkinson & McGill, 2009; Yoshida et al. 1990). 국외 연구인 Wilkinson & McGill(2009)은 2001년 영국의 유력지인 *The Guardian*에 출판된 지적장애 관련 기사 86편을 분석하여 McGill & Cummings(1990)의 1983년 기사 분석 결과와 비교하였다. Wilkinson와 McGill은 영국의 지적장애 출현율을 통해 예상되는 빈도보다 자폐성장애 또는 다운증후군에 언론보도에서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 것을 통해 지적장애의 특성이 다양해지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는 영국의 지적장애가 국내에서는 다른 장애로 구분되는 자폐성장애와 다운증후군을 포함하는 특징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이들은 기사 대부분은 아동과 관련되어 있으며, 과거에 비해 의학적 용어의 사용이 줄고, 인간 중심 언어 사용이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는 1983년 이후 이루어진 지적장애인 관련 정책 및 서비스 변경으로 인한 변화로 보인다.

이와 유사한 국내 연구로 이창희, 박범영(2018)가 있는데, 이 연구는 우리나라 패럴림픽에 대한 관심도와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1988년 제8회 서울 패럴림픽부터 2018년 제12회 평창 동계 패럴림픽 개최 전의 보도된 8,541건의 대중매체(일간지, 방송/통신, 인터넷 뉴스 등) 보도를 장애유형별(지체장애, 지적장애, 시각장애)로 분석하였다. 패럴림픽과 관련된 대중매체는 방송/통신 분야를 통해 가장 많이 보도되고 있으며, 지적장애 관련 보도가 지체장애보다 2배 이상 많아 패럴림픽에 신체적 장애인 이외 장애유형의 참가자가 증가하였음을 보고하였다.

김진훈, 박정식(2012)은 1990년부터 2010년까지 국내 종합일간신문에 보도된 지적장애인 관련 신문기사 596건에 대한 외형적인 보도경향(기사 횟수, 기사 형태, 기사 크기)과 내용적인 보도경향(기사 주제, 기사 논조, 장애 표현 용어)을 분석한 연구로 국내 지적장애 관련 언론보도분석의 전반적인 보도경향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지적장애의 기사 횟수와 크기, 그리고 긍정적인 논조가 해를 거듭하면서 증가되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기사 주제가 다양하지 않고, 단순 사건·사고를 나열하는 형태를 띠고 있음을 지적하며, 지적장애 관련 기사가 단순한 사건 전달을 넘어 인권, 권리, 교육 등 지적장애인들의 문제와 욕구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야한다고 제언하였다.

이와 같은 지적장애 관련 언론보도분석 선행연구들을 통해 지적장애 관련 보도가 과거에 비해 그 수가 현저히 증가하였으며, 이들에게서 사용되는 용어와 논조가 과거에 비해 긍정적으로 변화됨을 알 수 있었다.

## 다. 자폐성장애 언론보도분석

자폐성장애 관련 언론보도분석을 실시한 국내의 연구는 전무하므로 국외에서 진행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자폐성장애 관련 언론보도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Mckeever(2013)는 1996년부터 자폐증 퇴치법(Combating Autism Act)이 통과한 2006년까지 *The New York Times* 와 *The Washington Post*에 보도된 자폐성장애에 대한 관련 기사 302건

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기사의 내용 분석을 통해 의제 설정, 프레임, 미디어 옹호와 대중의 행동을 촉진하는 동원정보(mobilizing information)에 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분석된 기사에는 의료, 정부, 가족 및 비영리 단체 관련 내용이 가장 많이 등장하였으며, 과학 관련 프레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는 반면, 정책 관련 프레임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 관련 프레임에 포함된 언론보도기사는 주로 자폐성장애의 원인과 관련된 것으로 의학적 관점에서 MMR 백신(Measles, Mumps, and Rubella vaccine; 홍역, 볼거리, 풍진 혼합백신)이 자폐성장애를 초래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사회적 관심과 논쟁이 활발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전반적으로 자폐성장애 관련 기사에서는 장애의 원인보다 해결책을 더 자주 언급하였으나, 대중들의 행동을 촉진할 수 있는 동원 정보는 부족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자폐성장애의 전반에 대한 언론보도기사를 분석한 연구보다 MMR 백신과 자폐성장애 관련 언론보도기사를 분석한 선행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으며, 관련 연구로 Boyce(2006), Clarke(2008), Holton et al.(2012), Dixon & Clarke(2013) 등이 있다. 일례로 Clarke(2008)의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연구에서는 자폐성장애가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MMR 백신이 자폐성장애를 야기하지 않는다는 과학적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사회적 논란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영국과 미국 언론보도기사를 분석하여 과학적 주장에 대한 균형 잡힌 보도가 MMR 백신과 관련이 없다는 과학적 합의와 상충되는 담론을 만들어 냈는지 여부를 탐구하였다. ‘균형 잡힌 보도’는 쟁점에 대한 하나 이상의 주장이 있을 때 두 가지 이상의 경계 관점을 균형 있게 보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통계적인 표본추출 기법을 사용하여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보도된 279개의 기사를 분석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언론에서 백신이 자폐와 관련되었음을 주장하는 측과 이를 반대하는 측의 주장을 동등한 비중으로 보도하였기 때문에 백신과 자폐가 관련이 없다는 과학적 관점과는 상이한 사회적 담론이 형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저널리즘 윤리 및 위험 커뮤니케이션(risk communication)에 대한 시사점



에 대해 논의하였다.

Muhamad & Yang(2017)은 뉴스 프레임을 분석하여 미국 언론에서 자폐성장애가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들은 2014년 1월 한 달 동안 미국 신문에 보도된 자폐성장애 아동과 관련된 기사 413건을 수집하여 그 프레임을 분석하였다. 갈등, 인간적 흥미, 경제적 결과, 도덕성 프레임을 기준으로 지역과 전국 신문을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자폐성장애 아동 관련 기사는 인간적 흥미 관점에서 가장 많이 보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간적 흥미 프레임은 대중의 흥미를 얻기 위해 개인의 이야기를 통해 특정 이슈를 제시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프레임이다.

Bie & Tang(2015) 또한 프레임 분석을 통해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중국의 5개 주요 신문들의 자폐성장애 관련 언론보도 프레임을 분석하였다. 총 795개의 자폐성장애 관련 기사가 수집되었으며, 이들은 인구통계학적 정보, 주제, 프레임 유형 등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자폐성장애 관련 중국 언론보도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지는 주제는 자선(charity), 사회적 생산 기반(infrastructure), 과학(science)이었으며, 자폐성장애인 보다는 부모나 가족 등의 의견을 담은 기사가 많았고, 기사의 프레임을 살펴보았을 때 인간적 흥미와 관련된 기사가 많은 편이었으나(21%, 92건), 대부분의 담화성격이 모호한 기사가 대부분이었음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Bie와 Tang은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한 수가 자폐성장애에 대한 대중의 친숙도를 높였을 수 있으나, 자폐성장애인을 ‘도움이 필요한 존재’ 또는 ‘반사회적’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묘사하는 것과 자폐성장애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논의하면서도 이들이 가족에게 짐 또는 문제라는 시각에서의 보도는 대중의 선입견을 강화하는 것임을 지적하며, 장애를 옹호하는 언론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이는 앞서 살펴본 국내의 장애 관련 언론보도와 유사한 경향성을 가짐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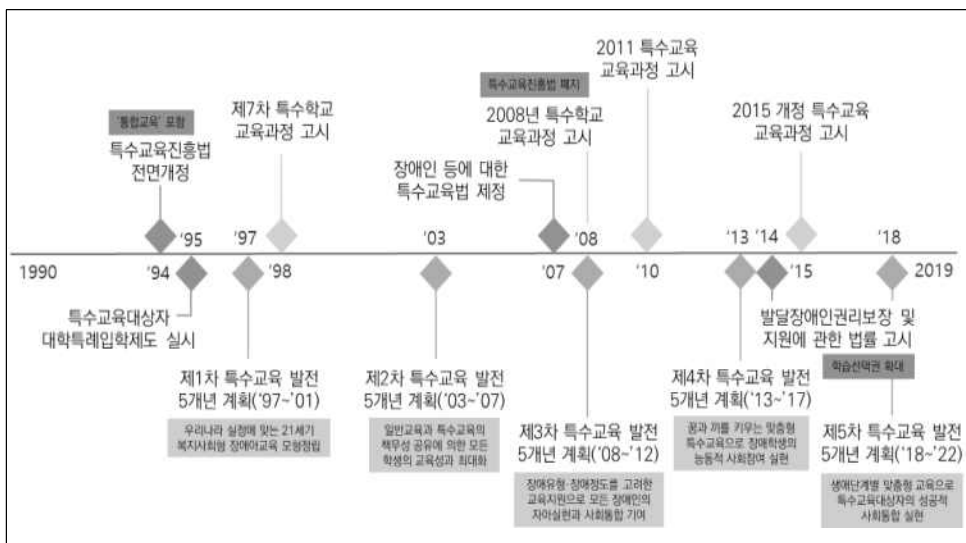
자폐성장애 관련 언론보도분석을 실시한 선행연구들은 내용분석보다는 자폐성장애를 둘러싼 논쟁은 물론 언론보도의 특성을 살펴보는 프레

임 분석연구가 다수 실시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자폐성장애와 MMR 백신의 연관성에 대한 과학적 합의에도 불구하고 지속된 논쟁이 언론의 주요한 역할 중 하나인 균형(balance)으로 야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폐성장애 관련 언론보도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인간적 흥미 프레임의 관점에서 보도되는 특성이 확인되며 장애에 대한 연민과 선입견을 강화하는 언론보도의 방향이 수정되어야 함이 공통적으로 강조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언론에서 다루어지는 발달장애는 다양한 관점에서 보도기사의 형식과 내용을 분석하는 형태로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해당 연구들은 장애인 관련 법 제정이나 패럴림픽과 같은 특정한 사건을 기준으로 언론보도기사를 수집하여 분석을 실시하는 특징을 보였다. 기사를 수집하는 기간은 한 달부터 약 20년까지 다양하였으나, 수집된 기사는 특정 신문사의 기사로 제한되어 그 수가 약 800건을 넘지 않아 분석에 포함된 수가 매우 적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장애에 대한 언론 보도기사의 시대적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특정 과거 시점의 분석 결과와 현재 시점의 분석 결과를 비교하기도 하였지만, 분석에 포함된 기간 사이의 변화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발달장애와 관련된 사회의 인식 및 가치 변화를 설명했다는 데 의의를 가진다. 하지만 대중의 인식과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량의 기사를 분석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언론보도기사의 대상의 범위가 매우 다양하다는 제한점이 존재한다. 발달장애인이 생애주기별로 보이는 특성과 요구는 매우 다양하며, 이에 따라 사회적 관심, 이슈, 인식 또한 변화될 수 있다. 특히 장애인들의 실질적인 통합이 학령기부터 시작되는 것을 고려할 때, 발달장애 학생들과 관련된 사회적 인식과 태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안전한 통합교육 환경을 구축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합의를 제공할 수 있는 발달장애 학생 언론보도 분석연구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 4. 특수교육 법적·제도적 변화

우리나라 특수교육은 일반교육의 목표와 같은 맥락에서 모든 학생의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교육으로 인식이 전환되어 왔으며(교육부, 2012), 특수교육의 양적 확대와 더불어 교육의 질 향상을 통한 특수교육 지원의 균형적인 발전이 도모되어왔다(민천식, 2013). 언론보도분석을 통해 발달장애 학생들을 둘러싼 사회적 현상을 이해하고 사회통합을 위한 학교 문화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특수교육 변화를 주도해온 법적·제도적 변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발달장애 학생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이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차원의 노력의 일환으로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과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을 꼽을 수 있다. 특수교육의 법적·제도적 주요변화는 [그림 2-1-1]과 같으며, 이하에서는 변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2-1-1] 특수교육 법적·제도적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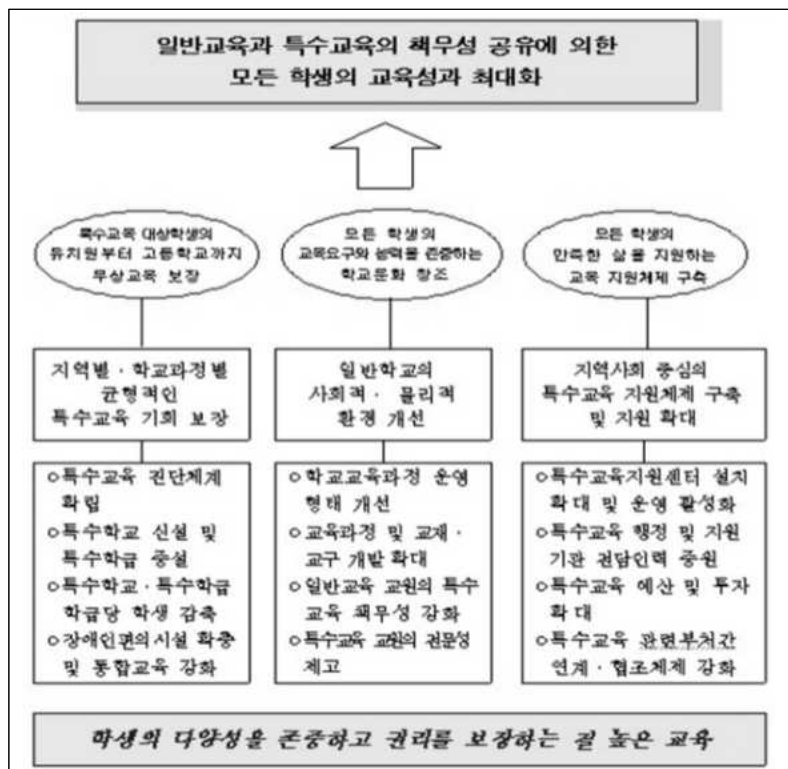
## 가.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은 특수교육의 양질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중장기 계획으로 1997년부터 현재까지 5차 계획이 수립되어 시행되고 있다.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은 특수교육의 양질의 발전을 위한 정책목표와 정책과제를 제안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시행함으로써 사회 환경의 변화와 시대적 요구에 맞는 특수교육의 영역을 확대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1997년 처음 계획되고 시행된 「제1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97~’01)」은 교육부 단독계획인 「교육복지 종합대책」에 포함되어 학교 중도탈락자 예방 종합대책, 학습부진아 교육 지원 대책, 귀국학생 교육 대책과 함께 고안되었다. 「제1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21세기 복지사회형 장애아교육 모형 정립’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장애학생들의 장애정도를 고려한 배치를 통해 완전취학개념의 정책방향을 교육수혜 범위를 확대로 전환하였다(국립특수교육원, 2016). 해당 계획에서는 모든 특수교육대상자에게 교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장애유형, 장애정도, 가정환경 등을 고려한 ‘발전적 장애아 교육모형’이 제안되었다. 장애의 정도를 경도와 중도로 구분하고 정도에 따라 일반학교 학습 도움실부터 가정·병원의 복지시설에서 분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배치하는 모형으로 교육의 형태나 교육장소를 결정함에 있어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을 고려한 것이 특징적이다. 이와 같은 계획을 통해 1997년부터 2001년까지 특수교육대상자들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이들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환경 배치라는 성과를 얻었다. 「제1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의 비전, 목표 및 추진과제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대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또한 주요 추진 과제로 포함된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신·증설과 학급당 학생 감축, 학교 교육과정 운영 형태 개선 및 교사의 전문성 제고 등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들을 교육현장에 배치한 이후, 이들을 위한 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제2차 계획을 통해 고안되었음을 알 수 있다([그림 2-1-3] 참고).



출처: 국립특수교육원(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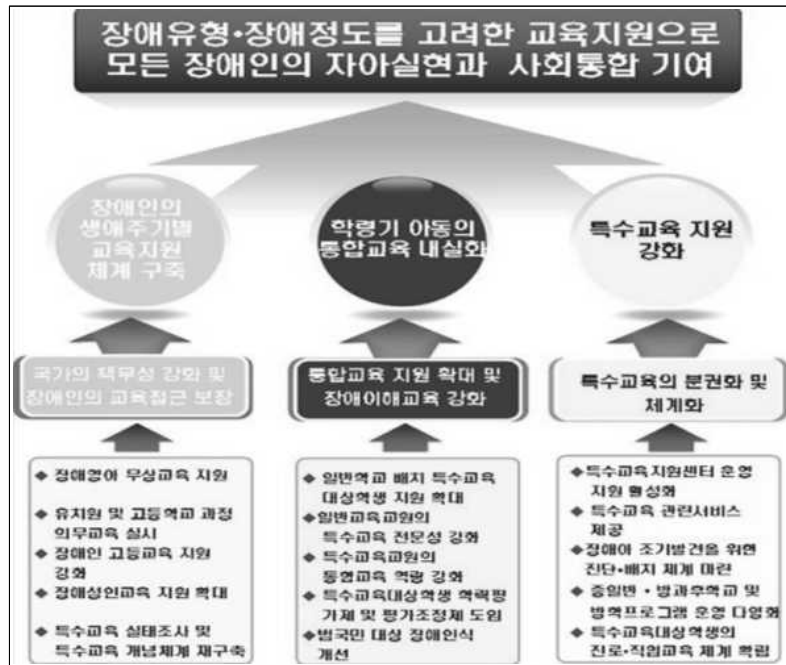
[그림 2-1-3] 「제2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 개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시행된 제3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은 「특수교육진흥법」이 폐지되고, 2007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정되고 2008년 시행된 새로운 법안과 함께 수립된 계획으로 특수교육의 격동기의 계획으로 볼 수 있다(국립특수교육원, 2016). 「특수교육진흥법」은 정책대상 집단의 의견을 수렴하는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1994년 전문 개정된 법령으로 특수교육의 양질의 확대를 위해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을 포함한 일반학급으로의 배치와 통합교육을 강조하고, 조기교육, 순회교육, 직업교육 등을 규정한 획기적인 변화였다(이석진, 김삼섭, 2004). 그러나 새로운 특수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와 교육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하여 「특수교육진흥법」을 대신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2007년 새롭게 제정되고 시행되었다. 이렇다 보니 「제3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08~’12)」에서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새롭게 규정된 장애영아 무상교육,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 확대, 치료교육제도 폐지, 치료지원제도 신설, 특수교육지원센터 법제화, 학생 수 기준 특수교사 정원 산정 등과 같은 제도의 현장 도입 및 적용이 주요하게 고려되었다.

제3차 계획의 비전은 ‘장애유형·장애정도를 고려한 교육지원으로 모든 장애인의 자아실현과 사회통합 기여’로 설정되었다. 특히, 해당 계획에서는 학령기 학생과 더불어 생애주기별 교육 지원체계가 강조되며 장애인 고등교육 및 성인교육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었고, 통합교육 내실화를 위한 장애이해교육 강화, 관련서비스 및 진로·직업교육 체계 확립 등이 추진과제로 포함되어 장애 학생들의 사회참여에 필요한 역량을 교육하고 이들을 둘러싼 통합문화 향상에 노력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1994년 「특수교육진흥법」 전문 개정과 함께 법적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한 통합교육이 해당 계획에 처음 포함되어 주요 과제로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제3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의 개요는 [그림 2-1-4]와 같다.

격동기 계획으로 불렸던 「제3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의 시행은 무상교육 및 의무교육 확대, 생애주기별 교육지원 체계 구축, 특수교육 지원확대 등 목표에 따른 성과가 있었으나(국립특수교육원, 2012), 다수의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적용되면서 현장에서는 다양한 혼란이 야기되기도 하였다(국립특수교육원, 2016). 이에 「제4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13~’17)」에서는 제3차 계획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다양한 제도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비전과 목표가 수립되었다. 제4차 계획의 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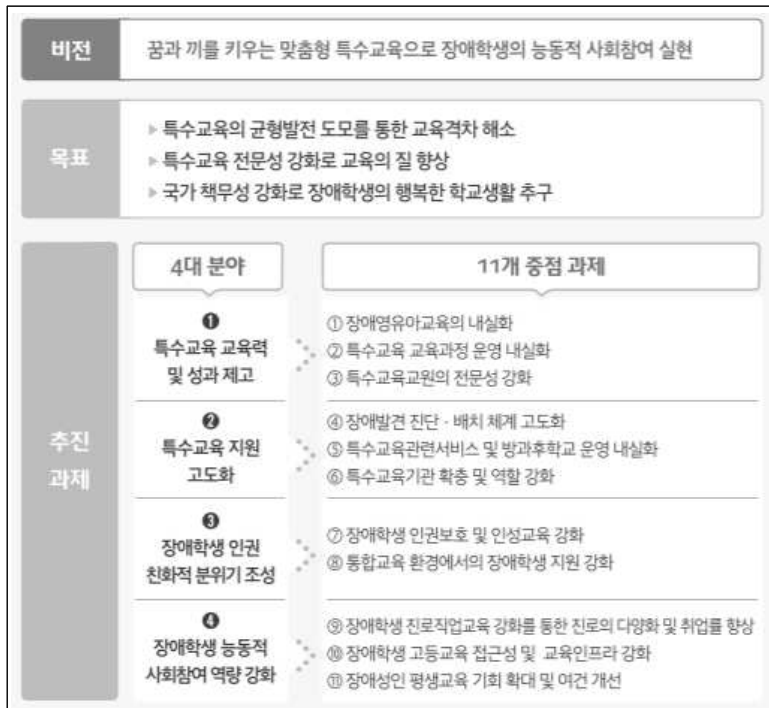


출처: 국립특수교육원(2016).

[그림 2-1-4] 「제3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 개요

전은 ‘꿈과 끼를 키우는 맞춤형 특수교육으로 장애학생의 능동적 사회참여 실현’으로 설정되었으며, 정책의 안정화를 위한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특수교육 내 성범죄로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도가니 사건’으로 필요성이 강조된 학생 인권문제, 제3차 계획인 학교기업 사업, 직업교육 거점학교 등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 주요한 과제로 포함되었다([그림 2-1-5] 참고). 이러한 노력으로 특수교육대상영아 무상교육 및 유아 의무교육 법제화, 관련서비스 지원 확대 등을 통한 교육여건 개선, 인권친화적 분위기 조성, 진로·직업교육, 고등교육,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통한 사회참여 역량 강화 등의 성과를 얻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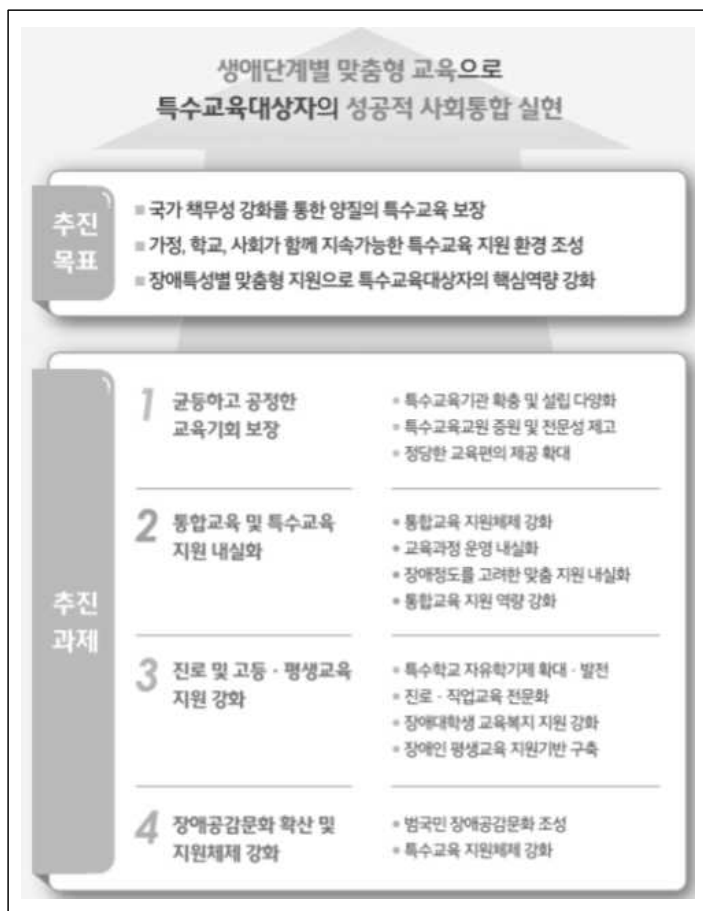


출처: 교육부(2017).

[그림 2-1-5] 「제4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 개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5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18~'22)」의 비전은 '생애단계별 맞춤형 교육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성공적 사회통합 실현'이며, 해당 계획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의 원거리 통학과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고,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국정 철학에 따라 국가의 책무성이 강조된 생애단계별 맞춤형 교육이 강조되었다(교육부, 2017). 이와 같은 맥락에서 2014년 고시된 「발달장애인법」에서도 발달 장애인들의 생애단계별 지원을 강조하였고, 해당 법안 추진 과정에서 특수교육대상자들을 위한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신·증설 등의 계획이 국가 수준에서 발표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 과제 4개 영역은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진로 및 고등·평생교육 지원 강화',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강화'로 설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중 통합교육과 특수교육

의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지원을 내실화하고자 하는 것은 이전 계획과 유사한 성격을 띤다. 그러나 제5차 계획에 포함된 장애대학생의 교육복지 지원 강화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진로 및 고등·평생교육 지원 강화’와 범국민을 대상으로 장애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강화’ 영역을 통해 사회통합을 위한 국가차원의 노력이 성인장애인과 사회 전체로 확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그림 2-1-6] 참고).



출처: 교육부(2017).

[그림 2-1-6] 「제5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 개요

## 나.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

교육과정은 ‘교육 목표와 경험 혹은 내용, 방법, 평가를 체계적으로 조직한 교육 계획’으로 학교에서 제공하는 경험과 학생이 경험하는 것을 의미하는 중요한 개념이다(교육부, 2015). 특수교육 교육과정은 1967년 제정·공포된 제1차 특수교육 교육과정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10차례에 걸쳐 교육과정이 고시되었다. 제1차부터 제6차 특수교육 교육과정은 맹학교, 농아학교, 정신박약학교, 지체부자유학교 등과 같이 장애유형별 교육과정으로 구분되었는데, 제7차부터는 교육과정 유형별로 개정되어 고시되고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개정 차수와 동일하게 개정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은 「교육기본법」과 「초등교육법」에 근거로 마련되며, 이를 기준으로 하는 특수교육 교육과정은 이미 언급된 법령 이외에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법적 근거로 하여 법적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특정 장애유형이 아닌 교육과정 유형별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 함께 개정되었던 제7차 특수교육 교육과정부터 현재까지 변화해온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특징을 교육부(2015) 자료를 바탕으로 특수교육 관련 주요 법령의 변화와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1998년 6월 30일 고시된 제7차 특수학교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 1998-11호)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 개정 및 적용시기를 동일하고, 초등학교 1학년부터 10학년까지의 국민 공통 교육 기간을 기준으로 교육과정별 교육과정을 구분하였다는 특징을 가진다. 해당 교육과정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기본방향을 유지하면서, 학생을 중심으로 완전 통합교육이 보장되며, 장애 특성에 따른 교육적 요구에 적절한 내용이 구성될 수 있도록 수정되었다. 이와 같은 제7차 특수학교 교육과정의 변화는 장애유형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모든 특수교육대상자들의 배치를 강조한 「제1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97~’01)」과 맥을 같이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완전 통합교육을 강조하는 내용을 통해 결함이 아닌 기능중심으로 장애를 바라보는 패러다임의 변화와 1994년 전문 개정된

「특수교육진흥법」에 포함된 통합교육의 개념이 교육과정에도 적용되었다는 특징을 가진다.

2008년 2월 26일에 고시된 2008년 특수학교 교육과정(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8-3호)은 이전까지 개정 차시 순서대로 명칭이 부여된 것과 다르게 개정되는 연도를 기준으로 교육과정 명칭이 부여되었다는 특징을 가진다. 2008년은 「특수교육진흥법」이 폐지되고 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시행된 해로 특수교육에서 다양한 변화가 이루어진 시기이다. 특수교육 교육과정 또한 특수교육 관련 법령 수정 내용과 통합교육을 강조하는 정책 방향을 반영하고, 현장에서 야기된 중도·중복화 경향 심화, 치료교육 폐지, 직업·진로교육 내실화 등과 같은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배경으로 하여 교육과정이 개정되었다. 이전 교육과정에서 치료교육이 폐지로 인해 ‘치료교육활동’으로 편제되어 있던 교육과정이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로 변경되었음을 고려할 때, 2008년 특수학교 교육과정의 주요 변화는 앞서 살펴본 「제3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08~’12)」의 주요과제로 포함된 생애주기별 지원체계 구축, 통합교육 내실화, 특수교육 지원 강화와 유사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010년 12월 20일에 고시된 2011 특수교육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0-44호)은 2011년 11월 16일(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501호)과 2012년 12월 14일(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32호)에 걸쳐 개정되었다. 통합교육을 지향하는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통합교육 환경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들의 비율이 높아져 이전 교육과정 명칭인 ‘특수학교’가 아닌 ‘특수교육’이 2011 개정된 교육과정 명칭에 수정·반영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국내 특수교육에서 통합교육의 중요성이 매우 높아졌음을 반증하는 결과로 수시 개정된 2011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배경이기도 하다. 특수교육 교육과정이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기초로 하며, 다수의 특수교육대상자들이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일반교육 현장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2011 특수교육 교육과정은 복수의 개정을 통해 2009 개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수정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특히, 2011년도 개정된 제2010-44호는 교육내용 개선 중심의 교과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장애학생들을 역량 강화에 주안점을 두었고, 2012년 개정된 제2012-32호에서는 장애학생들의 요구 및 사회 변화에 따른 특성화 교육 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부분 수정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마지막으로, 2015년 12월 1일 고시된 20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5-81호)은 2011 특수교육 교육과정에서 더 나아가 통합 교육 현장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들의 교육과정 통합과 장애 특성 및 수준을 고려한 교과 교육과정의 필요성을 근거로 개정되었다.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일반 교육과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20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이 개발되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가장 큰 변화는 창의융합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문·이과의 경계를 허물고 교육과정 전반에 걸친 기초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이에 20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또한 사회 통합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장애 특성에 맞게 함양하게 하여 장애 학생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개정되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20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은 2017년 2월 10일(교육부 고시 제2017-112호), 2017년 9월 29일(교육부 고시 제2017-132호), 2018년 4월 19일(교육부 고시 제2018-151호), 2018년 7월 27일(교육부 고시 제2018-163호) 총 4차례에 걸쳐 부분 개정되고 고시되었다. 살펴본 바와 같이, 교육과정 간의 연계성을 강화시키고, 사회 참여를 위한 특수교육대상자들의 역량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20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방향성은 「제4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13~'17)」의 추진과제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 제 2 절 빅데이터와 언론보도분석

### 1. 빅데이터의 정의

데이터가 범람하는 오늘날, ‘빅데이터(Big Data)’는 어디에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개념이다. 전통적으로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이 처리할 수 없는 대규모 데이터’로 정의되어 오던 빅데이터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기술이 빠르게 발달함에 따라 그 정의가 점차 확장되었다(Kaisler et al., 2013; Manyika et al., 2011). Laney(2001)은 데이터의 크기(volume), 다양성(variety), 속도(velocity)로 개념을 정의하였고, ‘3V’로도 불리는 이 개념은 빅데이터를 정의하는 일반적인 프레임으로 사용된다(McAfee, Brynjolfsson, Evenport, Patil, & Barton, 2012; Kwon, Lee, & Shin, 2014; Russom, 2011). 그러나 빅데이터의 개념은 비교적 새로운 것으로 해당 개념을 정의하려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빅데이터의 일반적인 3가지 속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빅데이터의 가장 큰 속성은 대규모의 데이터 크기이다. 2012년 중반 IBM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144명의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이 1테라바이트 이상의 데이터를 빅데이터로 정의하였다(Schroeck et al., 2012). 그러나 2012년도를 기준으로 매일 2.5 엑사바이트의 데이터가 형성되고, 이는 약 40개월마다 두 배로 증가하는 것을 고려할 때(McAfee, Brynjolfsson, Evenport, Patil, & Barton, 2012), 크기에 대한 정의는 시간이나 데이터의 유형에 따라 상대적으로 변할 수 있다. 따라서 일부 학자들은 빅데이터의 크기가 절대적인 숫자 보다 데이터의 종류나 영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주장한다(Russom, 2011).

둘째, 빅데이터는 정형, 반정형 및 비정형 데이터와 같은 구조적 다양성을 가진다. 정형 데이터는 스프레드시트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발견되는 테이블 형식의 데이터로 전체 데이터의 약 5%를 차지한다(Cukier, 2010). 대부분의 데이터는 반정형 또는 비정형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반정형 데이터는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이나 RSS

피드(Rich Site Summary Feed)와 같이 전형적인 데이터의 구조를 따르지 않지만 사용자가 정의한 데이터 태그가 포함되어 기계가 바로 읽을 수 있는 구조의 데이터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비정형 데이터는 텍스트, 이미지, 비디오 등과 같은 사람의 언어로 기계분석을 위한 구조적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는 자료이다(Gandomi & Haider, 2015). 이와 같이 빅데이터는 정형 데이터를 대상으로 한 분석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기존에는 알 수 없었던 새로운 정보를 다양한 형태의 자료로부터 추출해낼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셋째, 빅데이터는 데이터가 빠르게 생성되고, 이를 수집하여 분석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속도적 특징이 있다. 컴퓨터, 스마트폰, 센서 등과 같은 디지털 장치의 확산으로 인해 전례 없는 데이터 생성물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데이터에 대한 실시간 분석 및 증거 기반 계획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 인터넷 사용자들이 클릭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경영전략을 수립하거나 고객 가치를 창출하는 등 빅데이터 분석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처럼 빠르게 생성되는 대규모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은 빅데이터의 큰 특징 중 하나이다.

이에 더해, 최근에는 부정확하고 불확실한 정보를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정확성(veracity)을 높이고, 가변성(variability)을 가진 데이터를 정리하고 변환시키며, 의사결정에 필요한 가치(value)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등이 빅데이터의 새로운 속성들로 제안되며, 그 개념은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다(Gandomi & Haider, 2015; Kaisler et al., 2013; Kitchen, & McArdle, 2016). 이처럼 빅데이터는 빠르게 생성되는 방대한 양의 이질적인 비정형 데이터를 정확하게 분석하여 의사결정을 위한 가치 있는 정보를 추출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 2. 텍스트 빅데이터 분석기법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 오피니언

마이닝(opinion mining), 예측 분석(predictive analytic) 등 앞서 언급된 특성으로 정의되는 빅데이터의 다양한 형태에 따른 분석기법이 존재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텍스트를 분석 자료로 하여 연구를 수행하였기에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텍스트 분석(text analysis)이라고도 불리는 텍스트 마이닝은 기존에 분석대상으로 삼기 어려웠던 소셜 네트워크 피드, 댓글, 블로그, 뉴스 등의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를 수집하여 의미있는 정보나 지식을 도출하는 방법이다(Gandomi & Haider, 2015). 텍스트 마이닝은 자연어 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 NLP)와 정보 추출(Information Extraction: IE) 기술을 기초로 한 방법으로(Jusoh & Alfawareh, 2012) 문서가 작성되는 자연어의 구조와 의미에 대한 자연어 처리를 통해 비정형 텍스트에서 정형 텍스트를 추출하여 새로운 정보를 얻는 것을 말한다(Hale & Officer, 2005). 이러한 방법은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정보와 잠재적인 정보들 사이의 내용을 통계적으로 검증하는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진다(Carley, 1993, 1997; 박형용, 2016).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으로 관리되는 정형 데이터와 다르게 비정형 데이터는 검색 엔진을 통해 관리된다. 이러한 특징에 따라 텍스트 마이닝 관련 연구는 비정형 데이터를 편리하게 수집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등 정보 활용 촉진 방법에 대한 연구가 다수 이루어졌고, 이와 더불어 비정형 데이터에서 추세와 같이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하고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과 분석기법이 연구되기도 하였다(Aggarwal & Zahi, 2012).

## 가. 주제어 빈도 분석

텍스트 마이닝의 가장 간단하고 대표적인 분석기법인 주제어 빈도 분석(keyword frequency analysis)은 각 문서에 출현하는 단어의 빈도(Term Frequency: TF)를 통해 전체 문서에 대한 추상적 요약を提供하는 추출에 중점을 둔 분석 방법이다(Nenkova & Mckeown, 2012). TF는



문서에 출현하는 단어의 빈도가 높을수록 단어의 중요도가 높다는 것을 가정하지만, 특정 단어가 모든 문서에서 빈번하게 출현하는 경우는 개별 문서의 주요 속성을 설명하는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 이처럼 모든 문서에 빈번하게 출현하는 상투어는 문서 단어(document frequency: DF)라고 불리며, 이러한 문제를 수정하기 위한 두 가지 방법으로 불용어 처리와 TF-IDF(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y)가 있다. 첫 번째 방법은 DF가 높은 단어를 불용어로 처리하여 삭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불용어 목록에 포함될 단어를 결정하는 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니므로 단어에 가중치를 할당하여 분석하는 TF-IDF가 더 나은 대안으로 평가된다. TF-IDF는 개별 문서에서의 출현하는 단어 빈도와 전체 문서 집합에서 특정 단어를 포함하는 문서의 수를 모두 고려하여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아래의 수식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Nenkova & Mckeown, 2012).

$$TF*IDF_w = c(w) \cdot \log \frac{D}{d(w)}$$

$w$ : 단어

$c(w)$ :  $w$ 가 개별 문서에서 출현한 빈도

$d(w)$ :  $w$ 를 포함한 문서의 수

$D$ : 전체 문서 집합

TF와 TF-IDF를 활용하는 주제어 빈도 분석은 전체 문서에 주요 속성과 관련된 상위빈출 주제어들을 빠르고 객관적으로 추출하고, 이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통해 핵심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에 큰 활용 가치를 갖는다.

## 나. 주제어 네트워크 분석

주제어 네트워크 분석(keyword network analysis)은 비정형데이터 내에 포함된 주제어 간의 동시출현(co-occurrence) 빈도를 바탕으로 관계

를 추출하는 텍스트 마이닝의 한 분석기법이다(He, 1999). 각 주제어는 하나의 노드(node)로 형성되고, 이들을 연결하는 연결선(edge)이 있는 경우 주제어 사이에 관계가 있다고 해석된다. 관계가 있는 주제어들이 함께 쓰이는 빈도가 높음을 나타내주는 연결 가중치(weight)를 통해 주제어 간의 관계의 중요도 또한 파악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특정 주제어가 다른 주제어와 연결된 수를 나타내는 연결정도(degree)와 전체 관계에서 중심에 위치하는 정도인 중심성(centrality) 등을 통해 중심 되는 주제어와 이를 중심으로 존재하는 주제어들을 파악할 수 있다. 네트워크 중심에 위치한 노드일수록 다른 노드와의 관계를 촉진 또는 방해할 수 있기에 노드의 중심성은 노드 간의 관계 결과를 예측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Borgatti, Everett, & Johnson, 2013).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주제어들의 중요도와 역할은 일반적으로 네트워크의 중심성(centrality)을 통해 분석된다. 중심성은 네트워크에서 각 노드가 가지는 속성으로 상대적인 중요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웃하는 노드를 중심으로 두드러지는 지역(local) 중심성과 전체 네트워크에서 노드가 두드러지는 것을 의미하는 광역(global) 중심성으로 설명된다. 중심성 지표는 노드의 정도와 거리에 따라 네트워크의 중심성을 계산하는 Freeman(1979)의 접근과 중심성이 높은 노드에 연결된 노드 또한 높은 중심성을 가진다고 주장하며 주변의 중심성을 고려하여 가중치를 부여하여 중심성을 계산하는 Bonacich(1972, 1987)의 접근이 있다(김효동, 김광재, 2012).

지역 중심성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방법은 노드에 직접적으로 연결된 다른 노드들의 개수를 의미하는 연결 중심성(degree centrality)으로 노드와 많이 연결될수록 네트워크에서 많이 보이고 큰 영향력을 가진다고 해석된다. Freeman(1979)은 친밀성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노드들이 가까운 거리에 존재할 때 중심성이 높음을 나타내는 근접 중심성(closeness centrality)과 간성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특정 노드가 다른 노드들 사이에 존재하여 중개자의 역할을 하는 매개 중심성(between centrality)의 정도를 통해 네트워크의 광역 중심성을 설명하였다. 반면,

Bonacich(1972, 1987)는 특정 노드에 연결된 노드의 개수와 함께 연결된 노드 중심성을 함께 고려하여 가중치를 부여하는 고유벡터 중심성(eigenvector centrality)로 연결 중심성의 개념을 확장하였다. 연결된 노드의 중심성이 클수록 고유벡터 중심성이 커지기 때문에 네트워크에서 노드가 가지는 영향력을 설명할 수 있는 지표이다. 또한 Bonacich(1987)는 경쟁적이거나 부적인 관계에서 비일관적인 결과가 산출될 수 있다는 단점을 발견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베타 중심성(beta centrality)의 개념을 제안하였다. 해당 지표는 노드의 중심성을 계산하는데 있어서 전체 네트워크의 구조를 고려하는 것으로 직접적 혹은 간접적 경로를 통해 노드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 영향의 총량을 고려하여 계산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중심성 지수의 산출 수식은 <표 2-2-1>에 제시하였다.

<표 2-2-1> 네트워크 중심성 지수 산출 수식

중심성 지수	산출 수식
연결 중심성	$d_i = \sum_j x_{ij}$ $d_i: i\text{노드의 연결 중심성}, x_{ij}: \text{인접 행렬의 } (i, j) \text{ 항목}$
고유벡터 중심성	$e_i = \lambda \sum_j x_{ij} e_j$ $e: \text{고유벡터 중심성 지수 값}, \lambda: \text{고유 값(비례 상수)}$
베타 중심성	$c = (I - \beta A)^{-1} A 1$ $c: \text{행렬의 행의 합}$

박형용(2016)은 이와 같은 특징을 가진 주제어 네트워크 분석이 기존의 방법들과 비교하여 가지는 장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주제어들 간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파악하여 일차원적 선형 텍스트에서 드러내지 못했던 주제어들 간의 주요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 둘째, 텍스트에서 명시적으로 나타나는 내용과 잠재된 내용을 추출하고 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할 수 실증적인 분석이 가능하다(Carley, 1993, 1997). 셋

째, 네트워크 중심성 분석을 통해 텍스트를 대표하는 개념과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박치성, 정지원, 2013). 마지막으로, 특정 개념 또는 어휘를 추출하기 위해서 출현 빈도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관련된 다양한 관계를 고려하여 보다 풍부하고 의미있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장점을 가진 주제어 네트워크 분석은 학술연구, 신문 기사, SNS 등의 텍스트 자료의 축약된 정보를 통해 종합적인 경향을 파악하는데 많이 사용되는 분석기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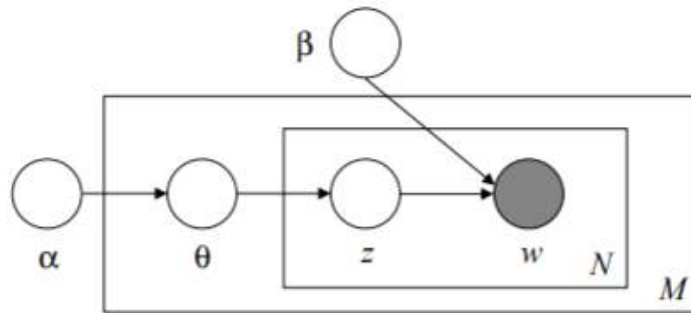
이밖에도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노드의 연결정도와 상관관계를 바탕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군집을 생성하고, 전체 구조를 분석하는 기법으로 CONCOR 분석이 있다. CONCOR 분석은 구조적 등위성 분석에 포함되는데, 이는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두 노드가 서로 직접 연결되지 않고 동일한 다른 노드를 통해 간접적으로 연결되는 경우에 두 노드는 구조적으로 동일하다고 가정하는 것을 의미한다(Barnett et al., 1992). 해당 분석은 분석 자료를 두 개의 군집으로 분할하고, 이들의 행렬의 행(또는 열) 간의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유사도가 높은 주제어들을 계층적으로 군집하는 하향식 방식으로 수행된다(Richard & Seary, 2000). 생성된 군집은 결과 해석 가능성에 따라 연구자에 의해 결정되고 해석된다(Tong & Lifset, 2007). 이와 같은 분석은 네트워크 구조에 대한 시각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은 물론 복잡한 구조를 단순화시켜 네트워크 구조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 다. 잠재 디리클레 할당(LDA) 기반 토픽 모델링 분석

텍스트 마이닝의 또 다른 기법 중 하나로 토픽 모델링을 들 수 있다. 토픽 모델링은 확률적 문서 클러스터링에 사용되는 방법으로 전체 문서 집합에 포함된 텍스트 문서들의 확률 생성 모델을 만드는 개념이다. 토픽 모델링은 두 가지 가정을 가진다. 첫째, 모든 문서 집합에 포함된  $n$  개의 문서들이 개의 주제 중 하나의 주제에 포함될 확률을 가지며, 특정 주제가 여러 개의 문서를 포함할 수 있고, 특정 문서가 여러 개의 주

제를 포함할 수 있다. 둘째, 각 주제는 토픽을 나타내는 어휘집에 포함될 확률을 정량화한 확률 벡터와 연관된다(Aggarwal & Zahi, 2012).

가장 대표적인 토픽 모델링 기법 중 하나인 잠재 디리클레 할당(Latent Dirichlet Allocation; 이하 LDA)은 Blei, Ng, & Jordan(2003)에 의해 제안된 개념으로 문서의 잠재된 토픽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특정 단어가 확률적으로 관측되었다고 가정한다. 또한 단어는 토픽에, 토픽은 문서에, 문서는 전체 문서 집합에 배속되어 있고 사후확률을 사전확률의 데이터 혼합으로 가정하여 추정할 매개 변수를 줄이는 베이지안 방법을 사용하기에 ‘생성적 확률 모형’ 또는 ‘3층 베이지안 위계 모형’으로 표현되기도 하는 통계적 모형이다(백영민, 2017; Aggarwal & Zahi, 2012; Gelman, Hwang, & Vehtari, 2014). 이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면 아래의 그림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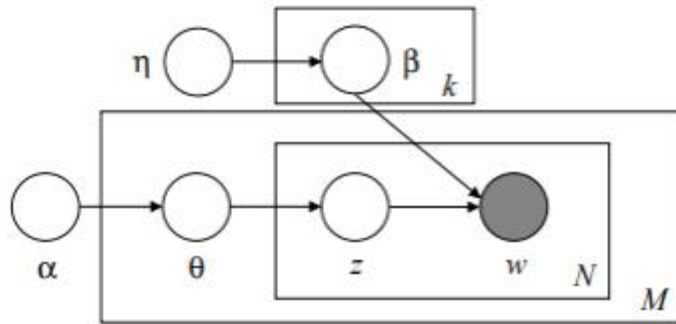
출처: Blei, Ng, & Jordan (2003, p. 997).

[그림 2-2-1] LDA 모형

‘3층 베이지안 위계 모형’이라는 이름과 함께 살펴보았듯이 [그림 2-2-1]의  $M$ 은 전체 문서의 집합,  $N$ 은 문서를,  $z$ 는 토픽을,  $w$ 는 관측되는 단어를 나타낸다. 또한  $\beta$ 는  $w$ 가  $z$ 에서 생성될 때 개입되는 확률 값이며,  $\theta$ 는 토픽의 개수와 동일한 차원을 갖는 디리클레 랜덤 변수( $k$ -dimensional Dirichlet random variable)로 인간의 언어에서 전체 문서 집합의 토픽을 생성하는 문서 수준에서의 모수이다. 마지막으로  $\alpha$ 는 전체 문서 집합을 생성하는 과정에 존재하는 외생 모수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LDA 모형의 핵심은 특정 문서에서 나타나는 토픽과 그것이 관찰되는 단어로 나타날 확률 값을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정 문서를  $i$ , 특정 토픽을  $k$ 라고 할 때, 특정 문서에서 나타나는 토픽은  $z_{ik}$ 이고, 이 토픽이 관측되는 단어는  $w_{ik}$ , 그리고 이 단어가 생성될 때 개입되는 가중치는  $\beta_{ik}$ 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를 종합하여 특정 문서에서 관측된 단어가 특정 토픽을 반영할 확률은  $p(w_{ik}|z_{ik}, \beta_{ik})$ 로 표현된다. 다음으로 특정 문서에서 특정 토픽이 출현할 확률은  $p(z_{ik}|\theta_i)$ 으로 이는  $\theta_i$ 를 생성하는  $\alpha$ 값이 주어졌을 때 산출될 수 있다(백영민, 2017).

그러나 이와 같은 LDA 모형은 훈련되지 않은 새로운 문서가 있을 경우, 새로운 문서에 포함된 단어에 대한 정확한 확률을 산출하지 못한다는 제한이 있다. 이를 수정하는 확장 모형으로 Blei, Ng, & Jordan(2003)는 다항식 모수에 디리클레 smoothing을 포함하는 smoothed LDA가 [그림 2-2-2]와 같이 제안하였다. 해당 모형에서  $\beta$ 는 각 행의 교환성이 허용된 디리클레 분포에서 독립적으로 추출되는  $k \times V$  랜덤 행렬로 보고, 임의변수에 대한 사후분포(posterior distribution)를 추정하게 된다.



출처: Blei, Ng, & Jordan (2003, p. 1007).

[그림 2-2-2] Smoothed LDA 모형

앞서 언급된 LDA 모형의 논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 모수와 토픽 수( )에 대한 정보가 연구자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 의 값이 작을수록 특정 문서가 하나 또는 소수의 토픽을 추정하기에 0의 가까운 값이

사용되는데, 일반적으로  $\alpha$ 는  $50/k$ 로 계산된다(백영민, 2017; Griffiths & Steyvers, 2004).  $\eta$  또한 경험적 실재를 바탕으로 0.01이 일반적으로 활용된다(신안나, 2019; Steyvers & Griffiths, 2007). 마지막으로  $k$ 는 분석 결과와 해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김지은, 2017; Griffiths & Steyvers, 2004). 토픽 수는 이론적 배경을 근거로 한 연구자의 의사결정이나 통계적 분석을 통해 지정될 수 있다. 적정 토픽 수 추정을 위한 통계적 방법으로 복잡도(perplexity)를 사용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Arun et al.(2010), Cao et al.(2009), Griffiths & Steyvers(2004), Deveaud et al.(2014)이 제안한 알고리즘 등이 있다.

첫째, Arun et al.(2010)은 LDA를 행렬 인수분해 매커니즘으로 바라보았다. 전체 문서의 집합  $C$ 는  $C_{d*w} = M1_{d*t} \times Q_{t*w}$  과 같은 계산을 통해  $M1$ 과  $M2$ 의 두 개 행렬 계수로 나뉜다. 추정값은 행렬 계수에서 파생된 두 확률 분포 사이의 차이를 K-L 거리측도 방법(Kullback-Leibler divergence method)을 사용하여 분석하며, 그 값이 최소화될 때 LDA 모델이 최적화 되었다고 판단한다.

둘째, Cao et al.(2009)는 주제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지 않는 LDA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LDA와 토픽의 상관연구를 바탕으로 주제의 평균 코사인 거리가 최소에 도달할 때 LDA 모형이 가장 잘 수행됨을 나타내는 알고리즘을 아래와 수식과 같이 제안하였다.

$$perplexity = \exp \left\{ - \frac{\sum_{d=1}^M p(d_d)}{\sum_{d=1}^M N_d} \right\}$$

$M$ : 문서의 집합

$N_d$ : 개별 문서의 길이

$p(d_d)$ : 문서  $d$ 가 모델에 의해 생성될 확률

셋째, Griffiths & Steyvers(2004)는 붕괴된 기브스 표집(collapsed Gibbs sampling)을 제안하였는데, 이는 smoothed LDA 모형에서 상위

확률 모수( $\alpha, \eta$ )를 제거하고, 조건부 분포를 활용하여 모수에 대한 확률을 반복적으로 추정하는 방법이다. 이와 같은 방법은 변수 간의 의존성을 줄이고 기브스 표집에 비해 결과 수렴이 빨라진다는 장점이 있다(신안나, 2019; 유예림, 2017; Steyvers & Griffiths, 2007). 붕괴된 기브스 표집을 통해 적정 토픽 수를 결정하는 알고리즘은 아래의 식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해당 값이 최대가 되었을 때 LDA 모형이 잘 수행되었다고 해석된다(Crain, Zhou, Yang, & Zha, 2012).

$$p(z_{dn}|\bar{z}_{dn}) \propto (N_{dz} + \alpha_z)(N_{zw} + \beta)$$

$z_{dn}$ :  $n$ 번째 문서의 주제

$N_{dz}$ : 문서를 나타내는 주제

$N_{zw}$ : 문서의 주제를 나타내는 단어

넷째, Deveaud et al.(2014)은 LDA 주제의 모든 쌍( $k_i, k_j$ ) 사이의 정보 분포(information divergence)  $D$ 를 최대화하여 잠재적 토픽의 수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J-S 거리측도(Jensen-Shannon divergence)를 통해 분포가 계산된다. 적정 토픽 수를 추정하는 수식은 아래와 같으며, 주제 간의 전반적인 비유사성이 최대가 되는 토픽의 수가 최적 값으로 제안된다.

$$\hat{K} = \operatorname{argmax}_K \frac{1}{K(K-1)} \sum_{(k, k') \in T_K} /D(k \parallel k')$$

$K$ : LDA에 매개 변수로 제공된 토픽 수

$T_K$ : LDA가 모델링 한 토픽 세트

$k$ : 토픽

LDA는 단어가 동시에 발생하는 패턴을 찾고 이러한 패턴을 사용하여 일관된 주제를 식별하기 때문에 높은 확률을 가진 단어들이 특정 문서에서 자주 출현하는 주제를 추출할 수 있다. 또한 LDA는 하나 이상의 뜻



을 가지고 있는 단어에 대해 맥락에 따라 다른 확률을 부여하여 이들의 뜻을 효과적으로 구분하여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는 토픽 모델링 기법이다(Crain, Zhou, Yang, & Zha, 2012).

### 3. 텍스트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한 언론보도분석

언론보도분석은 전통적으로 내용분석(content analysis)나 담화 분석(discourse analysis)을 통해 수동적으로 분석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러한 분석 방법은 대량의 자료를 분석하기 힘들고, 주관적인 분석과 해석의 가능성이 높다는 제한을 가진다. 최근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대량의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는 기법과 프로그램이 등장하였고, 이와 함께 방대한 양의 언론보도기사를 분석 자료한 확장된 연구가 가능해졌다.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언론보도분석을 실시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그 주제는 언론보도의 동향 및 보도특성 분석(박인준, 조성근, 2019; 박재연, 유용민, 2018; Vargo & Guo, 2017), 정책 및 관련 이슈분석(김지은, 백순근, 2016; 신안나, 백순근, 유예림, 김연경, 2017; 유예림, 백순근, 2016; Sudhahar, Veltri, & Cristianini, 2015), 인식 분석(김혜선, 박도원, 홍영은, 2018; 김은이, 송민호, 김용준, 2015), 특정 주제에 대한 토픽 분석(김옥태, 박대민, 2016; 김태중, 박상옥, 2019; 최진호, 이해수, 진은형, 2019; Kovanović et al., 2015)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주제 중에서도 특정 주제에 대한 토픽 분석은 언론보도를 통해 형성되는 담론을 이해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성찰함으로써 사회 현상에 대한 실천적 논의를 가능하게 한다. 해당 주제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구체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Kovanović et al.(2015)은 MOOCs와 관련된 주요 주제와 토픽을 탐색하기 위해 MOOC 관련 주요 뉴스 보도를 세계에서 가장 큰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Factiva에서 수집하였다. 2008년부터 2014년도 초반까지의 591개의 신문사에서 보도된 4,024건의 기사가 수집되었고, 이는 LDA를 활용하여 분석되었다. 그 결과, 2013년에 가장 높은 관심을 받았

던 MOOCs에 대한 논의가 2014년도 중반에 50%이상이 감소된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MOOCs와 관련된 주제 또한 제공, 투자, 협력관계 등과 같은 주제에서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 MOOCs가 초점을 맞춰야 하는 생산적인 주제나 정부 관련 이슈 등에 대한 논의로 변화되어 초반에 비해 MOOCs와 관련된 양질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그러나 MOOCs와 관련된 언론보도기사들이 사용자 집단에서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이슈들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며, 프로그램의 적용성과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김옥태, 박대민(2016)은 2006년부터 2015까지 언론에 보도된 아동 관련 기사 39,904건을 대상으로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여 국내 아동과 관련된 담론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아동 관련 언론보도기사가 청와대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를 주요 정보원으로 하여 보도되고 있으며, 아동 성범죄, 아동학대 등과 같은 보호 및 지원 관련 주제가 다수 보도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이 연구는 아동이 보호와 관리의 대상으로 언론에 비취지고 있으며, 아동의 주체적인 성장이나 능동적인 역량강화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김영옥, 함승경, 김영지(2017)는 국내 대표 일간지인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에서 2014년 4월 16일부터 2016년 4월 16일까지 보도된 세월호 침몰 사건 관련 기사 28,558건을 약 1년 주기로 구분하여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은 보수지와 진보지를 나누어 비판적 담론분석 관점에서 수행되었는데, 보수지에서는 ‘정부·사회적 책임’과 ‘원인조사’에 대한 담론을 중심으로 정부를 비롯해 사회를 포괄하는 책임론을 통해 정부의 책임을 축소하려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진보지는 ‘정부 책임’과 ‘진상규명’ 담론을 중심으로 정부의 무능과 사회구조 모순을 참사의 원인으로 지적하며 정부의 무능력을 비판하였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차이를 통해 중요한 사회 이슈에서 여전히 관찰되는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지적하며, 이데올로

기의 작용으로 사회구성원들이 다른 인식을 갖는 가능성을 차단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김태중, 박상옥(2019)은 평생교육의 주요 토픽을 추출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2018년까지 총 25개 매체에서 보도한 평생교육 관련 뉴스 21,391건을 수집하여 LDA기반 토픽 모델링 분석을 실시하였다.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이 수립된 5년을 기준으로 4개 시기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정치·경제적 차원에서 평생교육은 지역 발전 및 일자리창출, 기업 및 학교 인재 육성 수단으로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평생교육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원격학습이 부각되었으며, 교육소외계층을 위한 평생교육에 대한 보도 등도 꾸준히 이루어져온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 연구는 언론보도가 평생교육의 본 목적인 시민의 성장과 지역 공동체 형성을 실천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치·경제적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과 관련된 내용이 주요 토픽으로 분석되지 않은 것을 정책 행위자들과 이해 당사자들 간의 숙의과정의 부족을 반증한 결과로 해석하며 평생교육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강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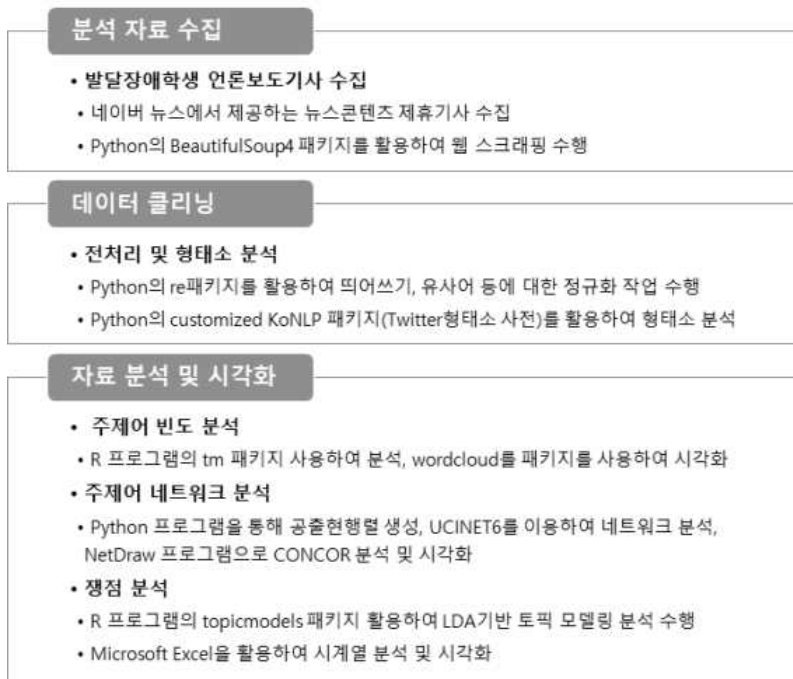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언론보도기사를 언론사 유형 및 주요시기에 따라 비교·분석한 최진호, 이해수, 진은형(2019)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7개의 종합일간지와 경제일간지에 2016년부터 2018년 9월까지 보도된 4차 산업혁명 관련 언론보도 기사 19,187건에 대한 토픽 모델링, 위계적 군집분석,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은 정치사회적 배경을 중심으로 4개 시기로 나누고, 언론사를 보수지, 진보지, 경제지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토픽은 언론사 유형과 주요시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보수지는 교육, 기업, 노동시장에 초점을 두었고, 진보지는 기술 변화, 경제사회적 문제, 일자리 정책 등과 관련된 주제를 다뤘으며, 경제지는 시장주의적 관점의 주제가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4차 산업혁명이 사회갈등적 이슈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언론사와 시기에 따라 해당 주제를 둘러싼 정치적 대립이 존재함을 발견하여 향후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생산

적 담론을 형성하는데 이러한 언론보도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빅데이터 기법을 활용한 언론보도분석 연구는 비교적 최근에 수행되기 시작하였으며, 주제어, 네트워크 분석, 그리고 토픽 모델링 등의 연구방법이 적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들의 연구는 대중의 인식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언론보도가 생성하는 쟁점에 대한 이해와 성찰을 바탕으로 주제와 관련된 새로운 제언을 제공하였다는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이와 같이 대량의 자료에서 잠재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텍스트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장애 또는 장애학생 언론보도를 분석한 연구는 전무하다. 장애인에 대한 언론보도가 비장애인의 인식과 태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 장애인들의 사회 통합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장애와 관련된 언론보도의 대한 체계적이고 실증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사회적 함의를 제시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할 필요가 있다.

## 제 3 장 연구 방법

빅데이터 분석은 기존의 방법으로 수집, 저장, 분석이 어려운 대량의 정형 및 비정형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데이터에 숨겨진 의미를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국립중앙과학관, 2018). 텍스트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한 연구에서는 표본 기반 분석을 통한 통계적 유추의 한계를 넘어 대량의 텍스트 데이터를 모두 분석하여 다양한 정보를 직접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한승희, 2018). 일반적으로 텍스트 빅데이터 분석은 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에 용이하게 자료를 가공하는 데이터 클리닝 단계와 자료를 분석하고 시각화하는 분석 단계로 이루어진다(김지은, 백순근, 2016; 박형용, 2016; 유예림, 백순근, 2016; Medhat, Hassan, & Korashy, 2014).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정리한 구체적인 분석 절차 및 방법은 [그림 3-1]에 제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3-1] 분석 절차 및 방법

## 제 1 절 분석 자료

### 1. 분석 자료 수집

온라인을 통해 제공되는 언론보도기사는 대중의 인식과 태도를 형성하고 반영하는 자료로 발달장애 학생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그 변화를 이해하고 발달장애 학생들의 통합교육 및 사회통합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온라인 뉴스 유통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는 네이버 뉴스(<http://news.naver.com>)에서 발달장애 학생 언론보도기사를 수집하였다. 국내 온라인 뉴스 서비스는 1998년 야후 코리아에 의해 처음 시작되었고, 네이버 뉴스는 2000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2012년 서비스를 철수한 야후를 포함하여 다양한 포털 뉴스서비스가 생기고 사라지기를 반복하였으나, 네이버 뉴스 서비스는 여전히 국내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송해엽, 양재훈, 2017). 코리안클릭의 2019년 10월 조사결과에 따르면 네이버는 2천 7백 명 이상의 순방문자를 가지며 89%의 도달률을 보이는 국내 1위 사이트이다. 순방문자는 특정 기간에 포털에 접속하는 방문자의 중복방문을 제거한 값으로 방문자가 포털을 여러 번 방문했다고 하더라도 고유 ID당 1회 방문횟수가 제한되는 방문자 추정 지표를 의미한다. 네이버 뉴스는 포털사이트 자체에서 선택한 개별 뉴스 단위로 기사를 제공하는 뉴스캐스트 방식과 언론사로 이동하여 뉴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뉴스스탠드 방식을 통해 기사를 제공한다(박광순, 안종묵, 2015). 본 연구에서는 전자의 방식을 통해 제공되는 뉴스콘텐츠 제휴 기사를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자료 수집을 위한 검색어는 ‘발달장애’, ‘자폐’, ‘지적장애’, ‘정신지체’ 등의 단어를 ‘학생’과 함께 조합하여 사용하였다. 발달장애 학생과 관련되어 보도되어진 언론보도의 동향과 그 변화를 탐색하고자 기간을 제한하지 않고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의 수집은 Python 프로그램의 BeautifulSoup4 패키지(Richardson, 2017)를 사용하여 분석에 필요한 정

보만 선택적으로 수집하는 웹 스크래핑(web scrapping)을 수행하였으며, 해당 과정에서 사용된 Python 프로그래밍 예시 코드는 [그림 3-1-1]과 같다.

```
def naver_aticle_list(query, count, sort):
    pageCount = 1
    queryString = quote(query)
    print("queryString : "+queryString)

    while True:
        searchUrl =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
& query="+queryString+"&sm=tab_pge&sort=" + sort + "&photo=0&field
=0&reporter_article=&pd=0&ds=&de=&docid=&nso=so:r,p:all,a:all&mynews=
0&start="+str(pageCount)+"&refresh_start=0"
        pageContainItemCount = get_aticle_url(searchUrl)
        pageCount += 10
        if pageContainItemCount <= 0 or pageCount > int(count):
            break
```

**[그림 3-1-1]** 웹 스크래핑 Python 프로그래밍 예시 코드

선택적으로 수집된 자료는 기사의 제목, 보도 날짜, 언론사명, 본문 내용 등을 포함한다. 수집된 기사 중, 기사 내용에 기사 분석 과정에서 사용된 키워드를 포함하지 않거나 기사의 보도 일자와 내용이 동일한 기사 2,149건을 분석에서 배제하였다. 그러나 언론사가 다르거나 보도의 시간이 상이하게 반복적으로 언론에 보도된 기사의 경우는 사회적 관심이 높은 기사로 간주하여 분석에 포함하였다. 그 결과, 1990년도부터 데이터 수집 시기인 2019년 4월까지 약 30년간 110개의 언론사를 통해 보도된 발달장애 학생 관련 기사 총 15,616건이 수집되었다(언론사별 분석대상 기사의 수는 [부록 1] 참고). 네이버 뉴스 서비스는 20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나, 해당 포털을 통해 제공되는 언론보도기사는 네이버

의 서비스 출시년도와 무관하게 제휴 언론사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유통하기 때문에 2000년도 이전의 자료도 수집할 수 있었다. 수집된 언론 보도기사의 시간 흐름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1990년부터 1999년까지 보도된 기사를 1주기, 2000년부터 2009년까지 보도된 기사를 2주기, 2010년부터 2019년 4월까지 보도된 기사를 3주기로 구분하였다. 일반적으로 10년은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며, 우리나라 특수교육 관련 법령의 주요 변화가 약 10년을 기준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주기를 10년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 2. 데이터 클리닝

데이터 클리닝은 수집된 자료를 분석에 용이하게 가공하는 절차로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통해 실시된다(유예림, 2017). 이 단계는 네트워크 분석을 위한 기초 단계이며, 전처리(pre-processing)와 형태소 분석을 포함한다. 데이터 클리닝은 아래와 같은 절차를 통해 수행되었다.

첫째, Python 프로그램의 re 패키지를 활용하여 띄어쓰기, 유사어, 축약어 등과 같은 동일한 의미로 분석해야 하는 단어를 통일하는 정규화(normalization) 작업이 수행되었다. 예를 들어, ‘지적장애’는 시대에 따라 ‘정신박약’, ‘정신지체’ 등으로 불려왔다. 현재는 사용되지 않거나 여전히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장애명을 통일하기 위하여 가장 최근에 사용하고 있는 ‘지적장애’로 띄어쓰기와 용어를 통일하였다. 또한 발달장애 학생 언론보도를 이해함에 있어 중요한 법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용어를 ‘발달장애인법’으로 통일하고, 통합교육을 제공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학교’로, 특수교육을 제공하는 ‘특수 학교’는 ‘특수학교’ 등으로 처리되었다. 이와 같은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작성된 Python 프로그래밍 예시 코드는 [그림 3-1-2]와 같다.



```

import re

for row in sheet.rows:
    try:
        replace = re.sub('자폐아', '자폐학생', row[4].value)
        replace = re.sub('부모', '학부모', replace)
        replace = re.sub('정신지체', '지적장애', replace)
        replace = re.sub('초등학교', '학교', replace)
        replace = re.sub('선생님', '교사', replace)

        get_data(row[0].value, replace)
    except Exception as error:
        errorCount += 1

```

**[그림 3-1-2]** 정규화 작업을 위한 Python 프로그래밍 예시 코드

둘째, Python 코드를 작성하여 분석에 불필요한 단어 및 어구를 불용어(stopwords) 처리하였다. 불용어 목록에 포함된 대표적인 용어로 모든 언론보도기사에 포함된 언론사명이나 ‘무단배포금지’와 같은 저작권 관련 용어들이 포함되었다. 또한 발달장애 학생 언론보도 기사를 분석할 때에 ‘발달장애’는 모든 기사에 포함되는 용어로 결과 해석에 유용한 차별적 의미를 제공하지 않는 단어를 불용어 처리하였다. 동일한 방법으로 자폐 성장애 학생 분석에는 ‘자폐성장애’를, 지적장애 학생 분석에서는 ‘지적장애’가 불용어 처리되었다.

마지막으로, 형태소 분석은 텍스트를 단어의 최소 단위인 어휘 형태소(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등) 또는 문법 형태소(조사, 어미 등)로 변환하는 작업이다. 본 연구에서는 Python 프로그램에 포함된 한국어 자연어처리 패키지인 customized KoNLPy([https://github.com/lovit/customized\\_konlpy](https://github.com/lovit/customized_konlpy))를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customized KoNLPy에 내장된 형태소 분석기는 Kkma, Komoran, Hannanum, Twitter, Mecab을 포함하며, 이중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에 맞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박은

정, 조성준, 2014). 본 연구에서는 대량의 자료 분석 시 사전 로딩 및 실행시간이 비교적 짧고 한글 신조어를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Twitter 형태소 분석기를 활용하였다(김남훈, 양형정, 2017; Park & Cho, 2014). Twitter 형태소 분석기는 텍스트 자료를 명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접속사, 감탄사, 조사, 선어말어미, 어미, 접미사 등 총 19개의 품사로 자연어를 처리한다. Twitter 형태소 분석기 사전에 포함되지 않은 단어로 분석에 필요한 단어가 분석 과정에서 누락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연구자는 사용자 사전을 구성하고 분석에 반영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사용자 사전에는 「발달장애인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복지법」과 같은 법령이나 이들 내에 포함된 장애명, ‘개별화교육’, ‘통합교육’, ‘무학년제’와 같은 특수교육 관련 용어 등이 포함되었다. 불용어 제거 및 형태소 분석을 위한 사용자 등록에 사용된 Python 예시 프로그래밍 코드는 [그림 3-2-2]에 제시하였다.

#### **#불용어 처리**

```
stopwords = {'무단전재', '재배포금지', '저작권자', ... '기자'}
```

#### **#사용자 사전 등록**

```
twitter = Twitter()
twitter.add_dictionary(['개별화교육', '통합교육', '전환교육', '관련서비스',
..., '발달장애인법'], 'Noun')
```

#### **#검색할 품사 종류**

```
passtags = {'Noun'}
```

```
postprocessor = Postprocessor(twitter, passtags=passtags, stopwords=stopwords)
```

[그림 3-1-3] 불용어 제거 및 사용자 사전 등록 Python 프로그래밍 예시 코드

## 제 2 절 자료 분석

본 연구는 비장애인들의 인식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언론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발달장애 학생 관련 언론보도의 동향과 쟁점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텍스트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주제어 분석과 토픽 분석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였다.

### 1. 주제어 분석

#### 가. 주제어 빈도 분석

텍스트 마이닝은 문자로 이루어진 비정형 데이터에서 자동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패턴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텍스트로부터 의미있는 지식이나 주제를 추출하는데 활용된다(박형용, 2016; 유예림, 2017; Clifton, Cooley, & Rennie, 2004). 텍스트 마이닝의 대표적인 방법으로 문서에 특정 단어가 출현한 횟수 또는 가중치를 수치화하여 표현하는 주제어 빈도 분석(keyword frequency analysis)이 있다(신안나, 2019).

이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된 절차에 따라 데이터 클리닝이 완료된 자료를 R 프로그램의 tm 패키지(Feinerer & Hornik, 2018)를 활용하여 분석이 가능한 문서-단어 행렬(Document-Term Matrix: DTM)을 생성하였다. 주제어 빈도 분석은 단어가 문서에 출현한 횟수, 즉 TF(Term Frequency)를 분석하였고, 거의 모든 문서에 등장하는 상투어의 중요도를 낮추고 전체 문서에서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가중치를 부여하는 TF-IDF(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y)를 산출하였다(김지은, 2017). 분석 결과는 R 프로그램의 wordcloud 패키지(Ian, 2014)를 이용하여 워드클라우드로 시각화하여 제시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예시 코드는 [그림 3-2-1]과 같다.

#### #주제어 파일 불러오기

```
Sys.setlocale("LC_CTYPE", "korean")
txt_noun <- read.csv(file.choose(), header=FALSE, col.names=c("v1", "v2",
"year"), fileEncoding="CP949", stringsAsFactors=FALSE)
txt <- unlist(subset(txt_noun, select="v2"))
docs <- Corpus(VectorSource(txt))
```

#### #문서-단어행렬(DTM)생성

```
dtm <- DocumentTermMatrix(docs, control = list(tokenize=ko.words,
removePunctuation=T,
removeNumbers=T,
stemming=T,
stopwords=myStopwords,
wordLengths=c(2,20),
weighting=weightBin))
```

#### #TF기준 워드 클라우드 작성

```
sumfreq <- colSums(as.matrix(dtm))
dev.new(width = 1000, height = 1000, unit = "px")
wordcloud(names(sumfreq), sumfreq,
scale = c(4, 0.5), max.words = 30,
random.order = 'False',
rot.per = 0,
colors = brewer.pal(7, 'Greys'))
```

[그림 3-2-1] 주제어 빈도 분석을 위한 R 프로그래밍 예시 코드

### 나. 주제어 네트워크 분석

주제어 빈도 분석을 통해 추출된 단어의 관계를 탐색하고자 주제어 네트워크 분석(keyword network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주제어 네트워크 분석은 주제어와 주제어 간의 관계가 형성하는 네트워크를 해석하는 기술적 분석과 주제어 간의 연관성을 규명하여 관계를 예측하는 추론적

분석이 가능하다(백승현, 김기탁, 2018; Borgatti et al., 2009). 네트워크는 크게 주제어를 나타내는 노드(node)와 이들의 관계를 연결하는 연결선인 엣지(edge)로 구성된다. 또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주제어들의 중요도와 역할을 파악하고, 어휘가 함께 출현하는 빈도(weight)와 각 어휘 사이의 근접도(proximity) 등을 분석하여 어휘 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주제어들의 중요도와 역할은 네트워크의 중심성(centrality)을 통해 분석될 수 있다. 중심성은 네트워크에서 각 노드가 가지는 속성으로 상대적인 중요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웃하는 노드를 중심으로 두드러지는 지역(local) 중심성과 전체 네트워크에서 노드가 두드러지는 것을 의미하는 광역(global) 중심성으로 설명된다. 중심성 지수는 노드의 정도와 거리에 따라 네트워크의 중심성을 계산하는 Freeman(1979)의 접근과 중심성이 높은 노드에 연결된 노드 또한 높은 중심성을 가진다고 주장하며 주변의 중심성을 고려하여 가중치를 부여하여 가중 중심성 지수를 계산하는 Bonacich(1972, 1987)의 접근이 있다(김효동, 김광재, 2012).

본 연구에서는 전체 문서에서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각 문서의 독특한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TF-IDF의 상위빈출 30개 단어를 노드를 설정하였다. 또한 해당 주제어들이 동일한 문서에 함께 출현할 때에 의미론적 연관성을 가진다고 정의되는 공출현행렬(co-occurrence matrix)을 Python 프로그램을 통해 산출하여 주제어 간의 관계를 완전 그래프(complete graph) 형태의 네트워크로 나타내었다(박형용, 2016; Leydesdorff & Welbers, 2011). 문서 전체의 주제어가 아닌 일부 단어로 생성한 네트워크를 노드의 정도와 거리를 기준으로 중심성을 Freeman의 지표를 통해 해석하는 것보다 노드 주변의 중심성을 고려하여 가중치를 부여하는 Bonacich의 연결 중심성, 고유벡터 중심성, 베타 중심성 지표를 사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주제어 네트워크 분석에는 UCINET6(Borgatti, Everett, & Freeman, 2002)가 활용되었으며, NetDraw 프로그램(Borgatti, 2002)을 이용하여 네트워크를 시각화하였다.

네트워크는 대부분 연결정도가 강한 노드들의 군집으로 이루어져 있

기 때문에 이러한 군집을 파악하는 것은 전체 네트워크의 구조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조이영, 안도현, 2016).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언론보도기사의 주요어를 중심으로 생성되는 네트워크 간의 연결 정도와 주제어 간 상관관계를 통해 계층적으로 군집을 형성하는 CONCOR(CONvergence of iterated CORrelations) 분석을 통해 주제어 간의 연결 구조 양상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 2. 토픽 분석

토픽 모델링(topic modeling)은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단어의 사용 패턴을 발견하고 유사한 패턴을 나타내는 문서를 연결함으로써 구조화되지 않은 자료에서 유용한 구조를 찾는 방법이다(Blei & Lafferty, 2009). 자동화된 통계분석을 통해 전체 데이터를 관통할 수 있는 주제를 분석한다는 점에서 단어의 존재 유무로 표현되는 내용을 분석하는 주제어 분석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쟁점 분석 시 유용하다(박종희, 박은정, 조동준, 2015; 유예림, 2017). 본 연구에서는 잠재 디리클레 할당(Latent Dirichlet Allocation: LDA) 기반의 토픽 모델링 분석을 수행하였다(Blei, Ng, & Jordan, 2003). LDA는 생성적 확률 모형(generative probabilistic model)로 맥락과 관련된 단서를 조합하여 특정 단어들의 집합을 형성하는 방식으로 주제를 추론하며, 각 문서에서 특정 주제가 나타날 확률을 계산한다(Blei, Ng, & Jordan, 2003; Steyvers & Griffiths, 2007). LDA 기반 토픽 모델링 분석에서도 TF 또는 TF-IDF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고유명사나 개념을 분석할 때에는 단어의 중요도가 과소 또는 과대평가될 수 있는 단점을 가진 TF-IDF가 아닌 TF를 선택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김지은, 2017; 유예림, 2017; 임화진, 박성현, 2015).

또한 해당 분석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토픽의 수를 지정해야 한다. 적정 토픽의 수는 토픽 수의 범위를 임의로 설정하고, 변수를 순차적으로 변경하며 표본을 수집하고 모형을 근사하여 로그우드(log

likelihood) 값의 조화평균(harmonic mean)이 최대가 되는 값으로 적정 토픽 수를 결정하는 붕괴된 깁스 표집(collapsed Gibbs sampling) 방식이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이와 같은 산출방식은 계산이 쉽고, 분석이 용이하여 많이 사용되지만, 추정치의 분산이 무한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Wallach et al., 2009).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적정 토픽 수를 탐색하기 위하여 잠재 토픽 수의 범위를 2부터 20까지로 설정하고, 개발된 복수의 알고리즘을 비교·분석하여 적정 토픽 수를 결정하였다. 분석에는 매트릭스와 곡선의 최대점으로 적정 토픽 수를 추정하는 Arun et al.(2010)과 Cao et al.(2009)의 알고리즘과 최소점으로 적정 토픽 수를 추정하는 Griffiths & Steyvers(2004), Deveaud et al.(2014)의 알고리즘이 사용되었다.

토픽 수를 결정한 이후에는 R 프로그램의 topicmodels 패키지(Hornik & Grün, 2011)를 활용하여 LDA 알고리즘 기반 토픽 모델링 분석을 수행하였다(관련 분석 코드는 [그림 3-2-2] 참고). 분석 결과에 따라 연구자는 추출된 주제어들을 조합하고 주제별 언론보도기사를 검토하여 발달장애 학생 언론보도기사에 포함된 토픽을 일차적으로 명명하였다. 연구자 일차적으로 명명한 토픽명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전문가를 대상으로 타당성 평정을 실시하였다. 평정에 참여한 교사들은 평균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교육전문직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문가 20명으로 구성하였다. 전문가는 특수교육과 일반교육의 입장에서 토픽을 해석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졌다고 판단되는 일반교사 11명(55.0%), 특수교사 9명(45.0%)를 포함하며, 일반교사 11명 중 통합교육 경험을 가진 전문가는 총 8명(72.7%)이었다. 전문가 평정 설문은 연구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연구자가 명명한 토픽명, 토픽에 포함된 10개 단어, 그리고 해당 토픽으로 분류된 예시 기사를 포함한다([부록 2] 참고). 전문가 평정에 앞서, 연구의 목적과 설문 실시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연구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설문에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평정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토픽명의 타당성을 5점 척도로 평정하였으며,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대체할 수 있는 토픽명을 제안하도

록 하였다. 전체 토픽명에 대한 전문가의 평점은 평균 3.7점으로 나타났으나, 토픽명 수정을 위한 대안명이 충분하게 제안되지 않아 평균 2개 이상의 대안이 제시된 3.5점을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전문가 평정 결과, 3.5점 이하의 평정 결과를 얻은 토픽명은 전문가들의 제안을 바탕으로 수정되어 최종 토픽명을 결정하였다.

```
#전체 발달장애 학생 언론보도기사 토픽 분석(적정 토픽 수(k)=16)
q_model <- LDA(dtm.matrix, k=16, method="Gibbs", control=list
(iter=1000))

#각 문서가 가지고 있는 잠재토픽의 확률점수 산출
posterier_lda <- posterior(q_model)
posterier_lda2 <- round(posterier_lda$topics,3)

#문서별 토픽
q_topics <- topics(q_model, 1)

#토픽별 10개 단어
q_terms <- as.data.frame(terms(q_model, 10), stringsAsFactors=FALSE)
```

**[그림 3-2-2] LDA 기반 토픽 모델링 분석 R 프로그래밍 예시 코드**

마지막으로 토픽이 지속되는 시간적 길이에 따라 변화되는 경향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분석 자료를 3주기로 구분하여 토픽의 연도별, 주기별 변화를 탐색하였다. 주기별 분석은 주제어 분석과 동일하게 1990년부터 1999년까지를 1주기, 2000년부터 2009년까지를 2주기, 2010년부터 2019년까지를 3주기로 설정하였다. 연도별 분석은 추출된 주제에 분류된 언론보도 기사를 연도에 따라 분류하고, Microsoft Excel의 피벗테이블 기능을 사용하여 이를 막대그래프의 형태로 시각화하였다. 또한 추출된 토픽의 주기별 변화와 언론의 사회적 관심도를 파악하고자 주기별 토픽 관심도를 계산하고 이들의 주기별 변화를 추세선을 나타냈다. 언론보도의



토픽 관심도는 해당 주기의 전체 언론보도기사 수를 해당 토픽 기사의 수를 나누어 계산하였고, 이들의 주기별 변화는 추세선의 선형식을 통해 분석하였다.

## 제 4 장 연구 결과

### 제 1 절 주제어 및 네트워크 분석

1990년도 1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수집된 15,616건의 언론보도 기사를 대상으로 주제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제어 분석은 TF와 TF-IDF를 기준으로 분석되었다. TF는 단어가 문서에 출현하는 횟수를 의미하고, TF-IDF는 거의 모든 문서에 출현하여 해석에 의미있는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투어의 중요도를 감소시키고, 전체 문서에서의 출현율을 고려하여 가중치를 부여하여 단어를 추출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TF와 TF-IDF를 모두 산출하여 발달장애 학생 언론보도기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주제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 1. 발달장애 학생 언론보도기사 분석

##### 가. 주제어 분석

##### 1) 전체 기간 분석

발달장애 학생과 관련된 언론보도 15,616건의 언론보도 기사를 대상으로 주제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TF를 기준으로 전체 언론보도기사에서 높은 빈도로 출현하여 주제어로 분류된 30개의 단어는 <표 4-1-1>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학교’가 언론보도기사에서 가장 많이 출현한 단어로 나타났으며, ‘지적장애’, ‘사회’, ‘교육’, ‘학부모’ 등이 그 뒤를 따랐다. 상대적으로 높은 출현빈도를 보인 단어들은 학교 교육, 지역사회 지원 및 활동 등과 관련된 다양한 단어들을 포함하였다. 또한 상위빈출 단어로 분석된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를 통해 오랫동안 개념과 정의가 불분명했던 발달장애가 일반적으로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1-1> 발달장애 학생 TF기준 상위빈출 30개 단어

순위	주제어	빈도	순위	주제어	빈도
1	학교	19,686	16	운영	7,258
2	지적장애	15,346	17	자폐성장애	7,228
3	사회	14,334	18	생활	7,136
4	교육	13,122	19	행사	6,870
5	학부모	13,036	20	전국	6,838
6	서울	11,958	21	문제	6,828
7	지원	10,688	22	마련	6,642
8	지역	9,834	23	계획	6,610
9	교사	9,706	24	문화	6,484
10	활동	8,760	25	시설	6,062
11	진행	8,598	26	가족	6,030
12	제공	8,018	27	특수학교	6,022
13	참여	7,768	28	결과	5,826
14	센터	7,766	29	조사	5,756
15	프로그램	7,340	30	필요	5,6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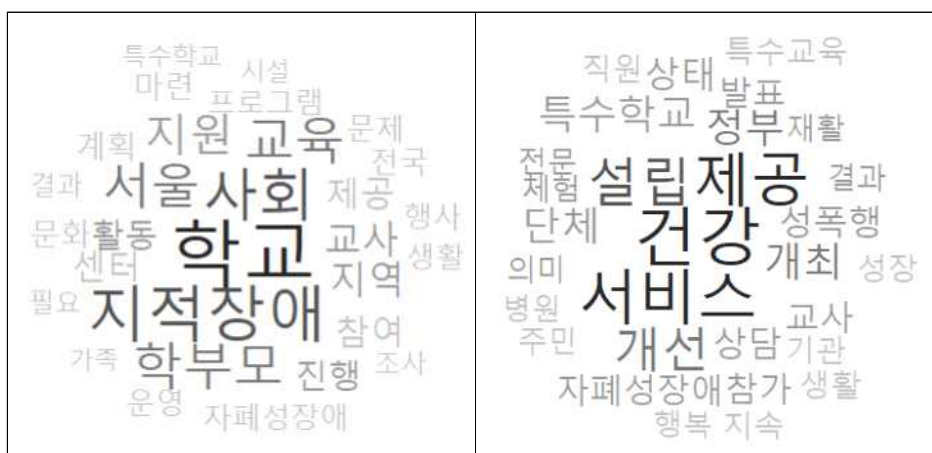
문서에 반복적으로 출현하는 단어의 중요도를 낮추고, 전체 문서에서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가중치를 부여하는 TF-IDF를 기준으로 주제어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1-2>와 같다. 가장 많은 언론보도기사에서 출현한 주제어는 ‘건강’으로 나타났으며, 이밖에도 ‘서비스’, ‘제공’, ‘설립’, ‘개선’ 등의 단어가 상위빈출 단어로 분석되었다. TF-IDF를 기준으로 분석된 주제어는 발달장애 학생의 건강, 재활, 또는 성장을 지원하는 서비스 관련 단어들과 더불어 이러한 서비스 지원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 관련 단어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비교적 높은 순위로 분석된 주제어에 ‘성폭행’이 포함되어 발달장애 학생들과 관련한 성폭행 범죄가 언론보도기사를 통해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TF와 TF-IDF를 활용하여 주제어를 분석한 결과를 워드클라우드를 통해 시각화하였으며, 그 결과는 [그림 4-1-1]과 같다. 워드클라우드에서

중심에 위치하고, 진하게 표시되는 단어일수록 발달장애 학생 언론보도 기사에서 높은 빈도로 출현하였음을 의미한다.

<표 4-1-2> 발달장애 학생 TF-IDF기준 상위빈출 30개 단어

순위	주제어	빈도	순위	주제어	빈도
1	건강	1.061	16	상태	0.502
2	서비스	0.998	17	결과	0.485
3	제공	0.981	18	전문	0.482
4	설립	0.811	19	체험	0.467
5	개선	0.756	20	의미	0.466
6	개최	0.633	21	재활	0.464
7	정부	0.621	22	병원	0.453
8	특수학교	0.594	23	주민	0.448
9	단체	0.584	24	행복	0.443
10	상담	0.568	25	기관	0.441
11	교사	0.562	26	직원	0.437
12	성폭행	0.549	27	지속	0.427
13	발표	0.541	28	특수교육	0.426
14	자폐성장장애	0.528	29	성장	0.426
15	참가	0.519	30	생활	0.4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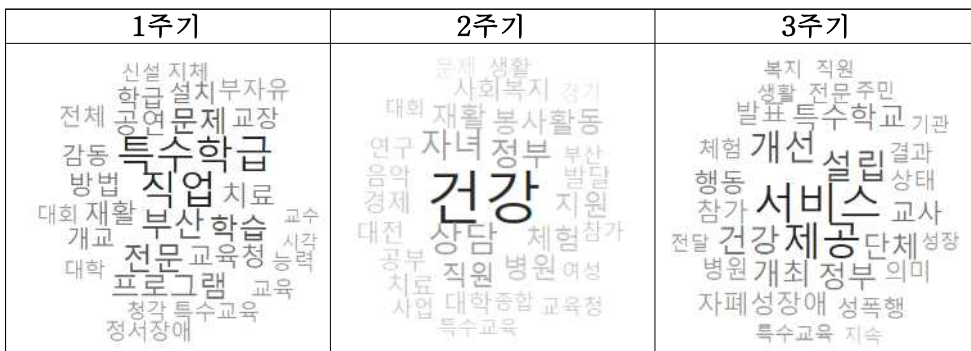


[그림 4-1-1] 발달장애 학생 언론보도기사 주제어 비교(TF, TF-IDF)

## 2) 주기별 분석

발달장애 학생 언론보도기사에서 나타난 주제어가 주기별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에는 여러 문서에 반복적으로 출현하는 상투어를 제외한 TF-IDF를 기준으로 상위빈출 단어 30개를 분석하여 [그림 4-1-2]와 <표 4-1-3>에 제시하였다.

84건의 기사를 포함하는 1주기에서는 ‘직업’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단어로 분석되었으며, ‘특수학급’, ‘부산’, ‘전문’, ‘문제’ 등이 그 뒤를 따랐다. 3,172건의 기사를 포함하는 2주기에서는 ‘건강’, ‘상담’, ‘정부’, ‘자녀’, ‘직원’ 등의 주제어가, 12,360건의 기사를 포함하는 3주기에서는 ‘서비스’, ‘제공’, ‘설립’, ‘개선’, ‘건강’이 상위빈출 주제어로 나타났다. 정리해볼 때, 1주기에 나타나는 주제어들은 그 유형이 다양하여 특정한 패턴이 관찰되지 않았다. 또한 발달장애로 분류되는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 이외에 ‘청각’, ‘시각’, ‘지체’ 등 타 장애유형이 높은 빈도를 나타내어 1주기에 발달장애라는 개념이 확립되지 않았음을 간접적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2주기에서는 ‘건강’이라는 주제어가 다른 주제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를 보였고, 3주기에는 ‘건강’을 비롯하여 ‘서비스’와 ‘제공’ 등의 단어를 중심으로 주제어들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나 발달장애 학생들의 건강과 이를 위한 관련서비스들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점차 확대되어왔음을 알 수 있다. 더불어, 모든 주기에 ‘특수교육’이 주제어로 나타나 발달장애 학생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은 지속되어 왔다고 해석된다.



[그림 4-1-2] 발달장애 학생 주기별 주제어 비교(TF-IDF기준)

<표 4-1-3> 발달장애 학생 주기별 상위빈출 30개 단어(TF-IDF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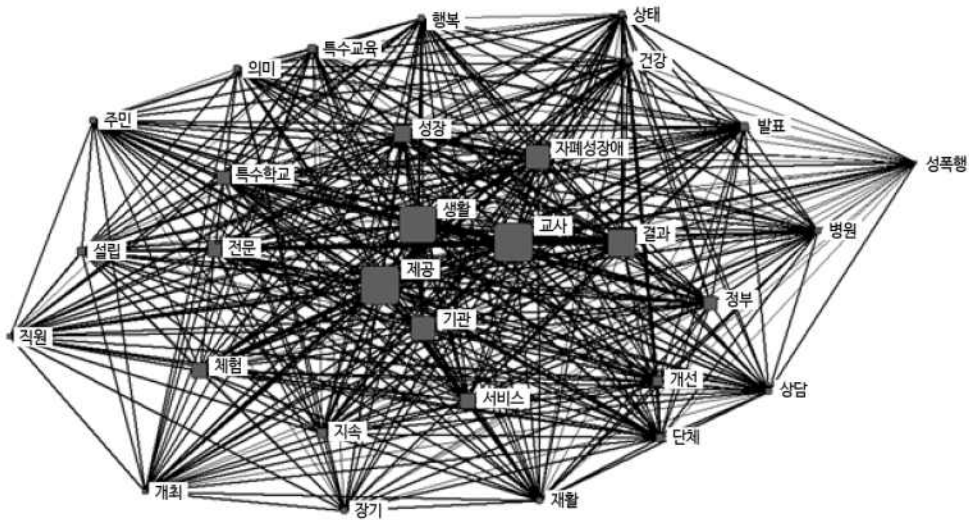
구분 순위	1주기 (1990년~1999년)		2주기 (2000년~2009년)		3주기 (2010년~2019년)	
	주제어	빈도	주제어	빈도	주제어	빈도
1	직업	0.309	건강	1.024	서비스	0.959
2	특수학급	0.308	상담	0.549	제공	0.921
3	부산	0.254	정부	0.536	설립	0.787
4	전문	0.249	자녀	0.476	개선	0.734
5	문제	0.223	직원	0.470	건강	0.676
6	학습	0.223	병원	0.426	개최	0.621
7	프로그램	0.219	체험	0.417	정부	0.616
8	치료	0.198	지원	0.416	특수학교	0.592
9	공연	0.197	봉사활동	0.412	단체	0.583
10	방법	0.194	재활	0.410	교사	0.575
11	교육청	0.191	연구	0.383	행동	0.552
12	재활	0.188	음악	0.364	참가	0.543
13	감동	0.187	경제	0.349	자폐성장애	0.538
14	교장	0.187	발달	0.346	발표	0.528
15	설치	0.183	대전	0.342	성폭행	0.511
16	학급	0.177	공부	0.341	상태	0.495
17	개교	0.176	치료	0.338	체험	0.475
18	부자유	0.173	대학	0.331	결과	0.473
19	전체	0.170	사회복지	0.330	전문	0.473
20	지체	0.162	부산	0.329	의미	0.463
21	대회	0.160	종합	0.328	병원	0.453
22	대학	0.158	대회	0.318	생활	0.444
23	청각	0.155	여성	0.314	<b>특수교육</b>	0.438
24	신설	0.154	<b>특수교육</b>	0.313	주민	0.434
25	<b>특수교육</b>	0.148	생활	0.302	성장	0.430
26	정서장애	0.147	사업	0.298	직원	0.428
27	교육	0.144	교육청	0.296	기관	0.428
28	능력	0.143	참가	0.295	복지	0.415

## 나. 주제어 네트워크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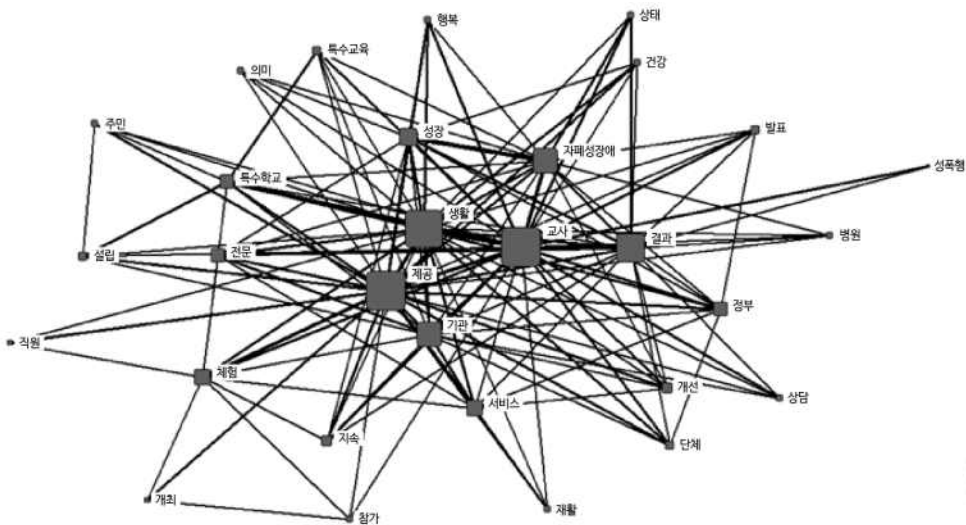
발달장애 학생 언론보도기사를 보다 심도 있게 이해하기 위하여 주제어로 분석된 상위빈출 30개 단어 간의 관계를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은 각 주제어를 나타내는 노드와 이들을 연결하는 엣지로 구성된다. 노드의 크기는 주제어의 연결 중심성의 비례하며, 엣지는 특정 단어가 같이 출현하는 빈도, 즉 공출현빈도가 높을수록 진하게 표현된다. 더불어, 네트워크에서 각 노드가 가지는 영향 정도를 중심성 분석을 통해 분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노드가 가지는 연결의 수를 통해 네트워크상에 위치하는 노드의 정보를 제공하는 연결 중심성, 연결 중심성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노드의 중심성을 측정하는 고유벡터 중심성, 그리고 베타의 크기에 따라 가중치가 부여되는 베타 중심성 지수를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 1) 전체 기간 분석

주제어 분석을 통해 상위빈출어로 분석된 30개 단어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30개의 주제어는 870개의 엣지로 구성되었으며 이는 [그림 4-1-3]과 같다. 단어 간의 관계를 보다 시각적으로 분명하게 살펴보기 위하여 모든 주제어의 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최소 공출현빈도 450 미만의 엣지를 기준으로 하여 네트워크를 간소화하였으며, 그 결과는 [그림 4-1-4]와 같다.



[그림 4-1-3] 발달장애 학생 주제어 네트워크(TF-IDF기준)



[그림 4-1-4] 발달장애 학생 주제어 간소화 네트워크(TF-IDF기준)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각 주제어의 영향 정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네트워크의 중심성을 분석한 결과, 네트워크 구성에 상대적으로 높은 영향 정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 상위 15개의 주제어를 <표 4-1-4>에 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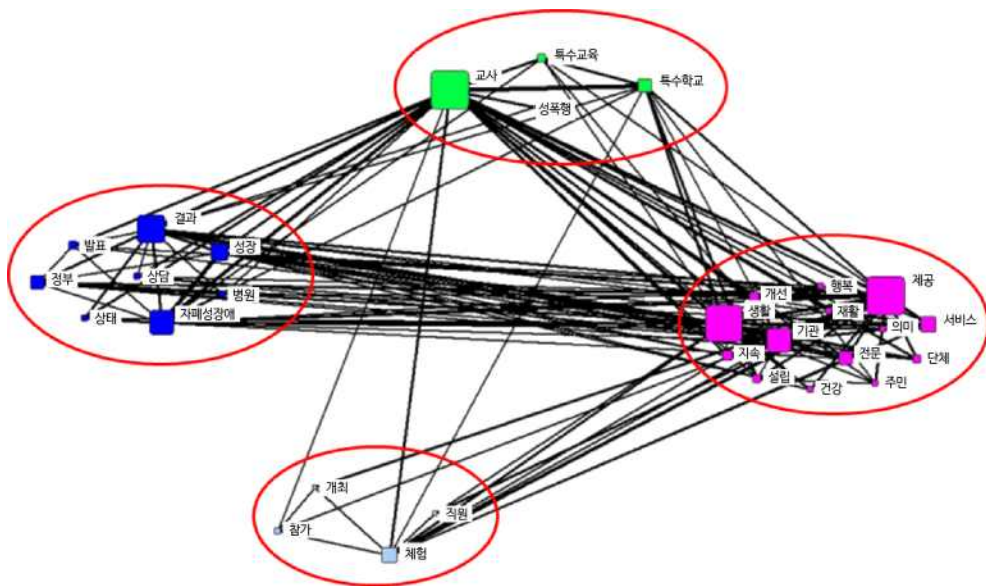
시하였다. 발달장애 학생 언론보도기사의 네트워크를 구성함에 있어 비교적 높은 영향력을 가지는 주제어는 ‘교사’, ‘제공’, ‘생활’, ‘자폐성장애’, ‘기관’, ‘성장’ 등을 포함한다. 특히, 모든 중심성 분석에서 1, 2 순위로 나타난 ‘교사’와 ‘제공’을 통해 이들이 발달장애 학생 언론보도기사를 설명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1-4> 발달장애 학생 네트워크 중심성 분석 결과

순위	연결 중심성		고유벡터 중심성		베타 중심성	
1	교사	0.456	교사	43.224	교사	1.674
2	제공	0.449	제공	42.414	제공	1.643
3	생활	0.396	생활	38.205	자폐성장애	1.302
4	자폐성장애	0.336	자폐성장애	33.631	생활	1.480
5	기관	0.310	성장	30.534	성장	1.182
6	성장	0.304	결과	30.419	결과	1.178
7	결과	0.310	기관	30.272	기관	1.172
8	특수학교	0.278	특수학교	27.925	특수학교	1.081
9	전문	0.265	전문	26.361	전문	1.021
10	체험	0.262	체험	26.041	체험	1.009
11	서비스	0.261	서비스	25.902	서비스	1.003
12	개선	0.247	개선	24.283	개선	0.940
13	단체	0.246	정부	23.993	정부	0.929
14	정부	0.242	단체	23.979	단체	0.929
15	건강	0.222	지속	23.519	지속	0.911

높은 중심성을 보인 주제어를 중심으로 전체 네트워크 구조를 시각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CONCOR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림 4-1-5]와 같이 발달장애 학생 언론보도기사는 4개의 집단을 형성하였다. 우선, 상위 빈출 30개의 주제어 중 가장 큰 집단은 ‘제공’, ‘생활’, ‘전문’, ‘서비스’, ‘개선’, ‘설립’, ‘주민’, ‘단체’ 등의 주제어를 포함하여 발달장애 학생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와 관련된 주요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선 분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발달장애인법」 개정 및 시행과정에서 높아진 언론의 높은 관심을 뒷받침한다. 8개

의 주제어를 포함한 두 번째 집단에서는 ‘결과’, ‘자폐성장애’, ‘성장’, ‘정부’ 등의 주제어를 통해 발달장애 학생의 성장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결정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세 번째 집단은 ‘교사’를 중심으로 ‘특수학교’, ‘특수교육’, ‘성폭행’으로 구성되어 발달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이 특수학교 교사와 높은 연관성을 가지며, 이와 관련된 특수교육에 대한 언론보도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 집단은 ‘체험’, ‘참가’, ‘개최’, ‘직원’으로 구성되어 발달장애 학생 관련 행사를 개최하고 참여하는데 직원들이 관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특정 기업들을 통해 행사가 운영되고 홍보되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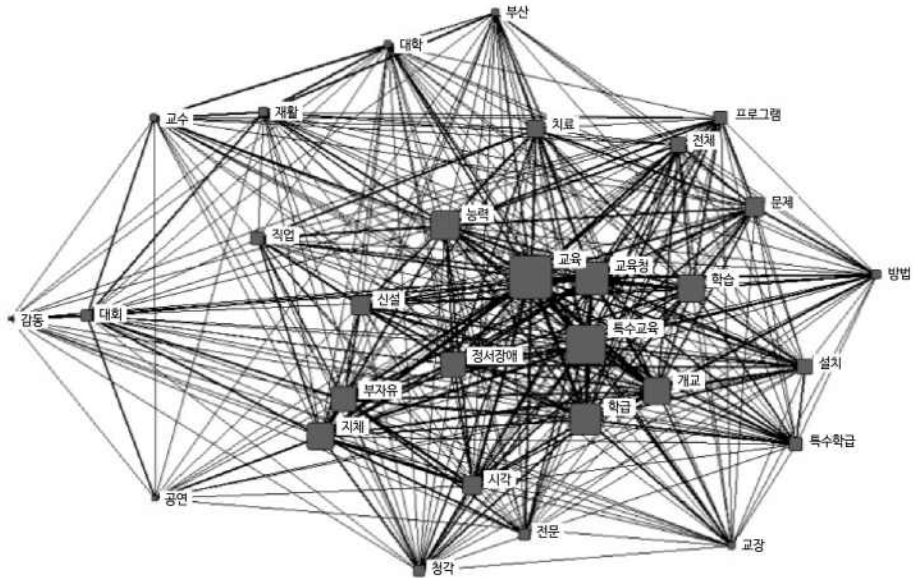
[그림 4-1-5] 발달장애 학생 네트워크 CONCOR 분석 결과

## 2) 주기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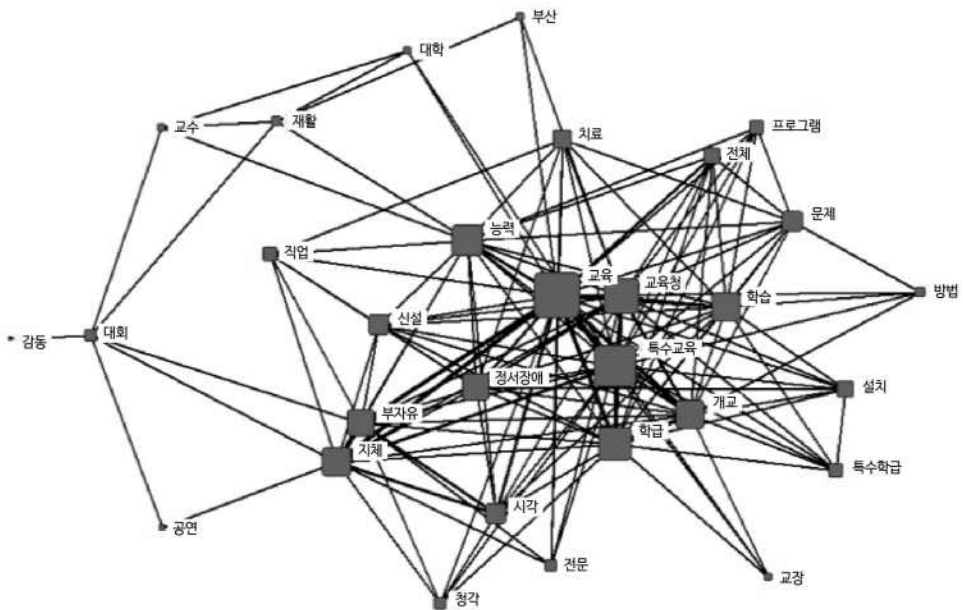
### (1) 1주기(1990년~1999년) 분석 결과

1주기 언론보도기사를 네트워크로 시각화한 결과, 상위빈출 30개의 주제어는 744개의 엣지로 [그림 4-1-6]과 같이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

으며, 3 미만의 엣지를 삭제한 간소화 네트워크는 [그림 4-1-7]과 같다.



[그림 4-1-6] 발달장애 학생 1주기 주제어 네트워크(TF-IDF기준)



[그림 4-1-7] 발달장애 학생 1주기 주제어 간소화 네트워크(TF-IDF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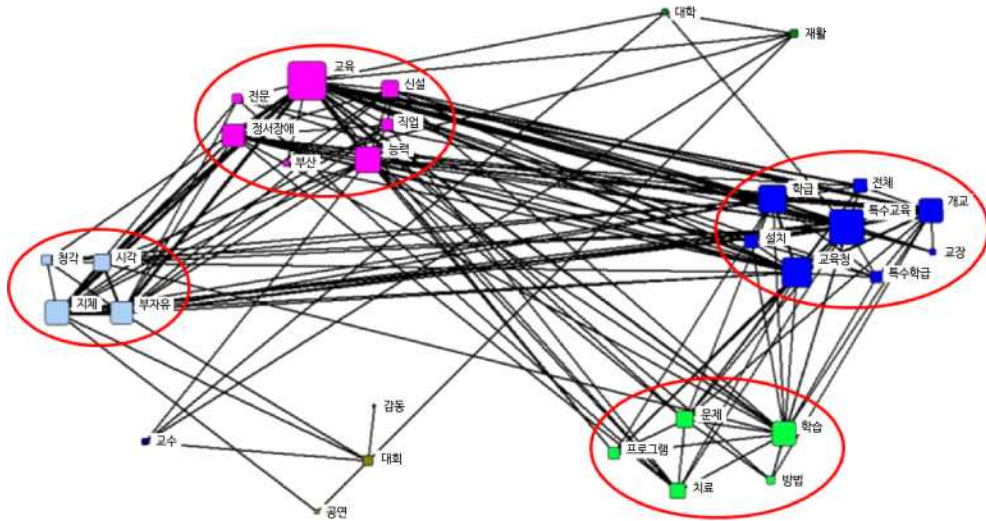
형성된 네트워크의 중심성을 분석하여 상위 15개의 주제어를 <표 4-1-5>에 제시하였다. 모든 중심성 분석 결과에서 가장 높은 지수를 보인 단어는 ‘교육’이며, ‘특수교육’, ‘교육청’, ‘학급’, ‘지체’, ‘개교’, ‘부자유’, ‘정서장애’ 순으로 중심성 지수가 높았다. 상위 15개로 분석된 단어들 중에서도 네트워크는 ‘교육’, ‘특수교육’ ‘교육청’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어 1주기에 발달장애 학생들을 위한 교육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주를 이룬 것으로 해석된다.

CONCOR 분석을 통해 발달장애 학생 언론보도 1주기 네트워크의 구성을 파악한 결과, 총 4개의 집단이 나타났다. 첫 번째 집단은 주제어 30개 중 8개의 주제어로 구성된 집단으로 가장 큰 집단이다. 해당 집단은 ‘특수교육’을 중심으로 ‘교육청’, ‘학급’, ‘설치’, ‘개교’, ‘특수학급’ 등 발달장애 학생들에게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환경구축과 관련된 주제어 집단으로 해석된다. 7개의 주제어를 포함한 두 번째 집단은 ‘교육’을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으며, ‘정서장애’, ‘능력’, ‘직업’ 등 사회 참여를

<표 4-1-5> 발달장애 학생 1주기 네트워크 중심성 분석 결과

순위	연결 중심성		고유벡터 중심성		베타 중심성	
1	교육	0.403	교육	58.103	교육	2.251
2	특수교육	0.277	특수교육	43.805	특수교육	1.696
3	교육청	0.249	교육청	39.610	교육청	1.534
4	학급	0.238	학급	38.895	학급	1.506
5	지체	0.237	지체	36.951	지체	1.431
6	개교	0.227	개교	36.938	개교	1.430
7	부자유	0.215	부자유	34.489	부자유	1.336
8	정서장애	0.185	정서장애	30.930	정서장애	1.197
9	능력	0.179	시각	27.943	시각	1.082
10	시각	0.169	능력	27.467	능력	1.064
11	학습	0.154	학습	23.905	학습	0.926
12	특수학급	0.132	특수학급	20.747	특수학급	0.8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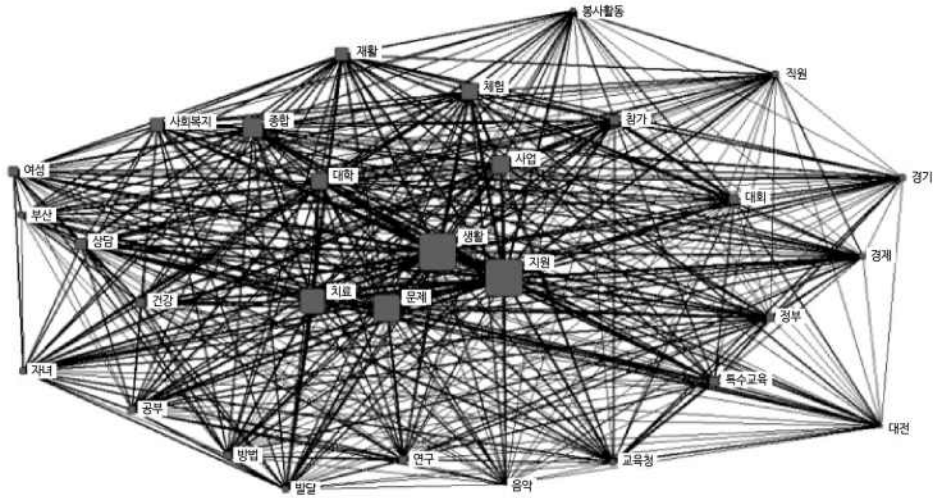
위한 개인의 능력 향상이나 직업교육에 대한 논의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1주기 특수교육은 직업교육보다는 모든 특수교육대상자들을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맞게 교육 현장에 배치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목표로 학습 도움실과 특수학급 등의 시설을 확보해나가는 시기였다. 때문에 해당 집단의 논의는 발달장애 학생들을 위한 개별교육이나 직업교육 보다 특수교육 현장에서 발달장애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교사를 구인·구직하는 성격을 가졌다고 해석되며, 이러한 해석은 특정 지역을 나타내는 ‘부산’이라는 주제어와 ‘신설’ ‘전문’ 등의 주제어를 통해서도 뒷받침된다. 정서장애는 진단명이나 장애명은 아니나 복지행정 및 교육행정상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복지대상이 되는 정서장애인의 대부분이 발달장애를 겸하고 있어 자폐성장애를 정서장애로도 지칭하기 때문에 본 분석에서도 정서장애가 주제어로 분석된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집단은 ‘학습’, ‘프로그램’, ‘문제’, ‘치료’, ‘방법’의 주제어를 포함한 집단이다. 이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해당 집단은 발달장애 학생들이 교육현장에서 보이는 문제를 고려하여 제공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방법과 관련된 집단임을 알 수 있다. 마지막 집단은 ‘청각’, ‘시각’, ‘지체’, ‘부자유’로 타 장애관련 용어로 구성되었다. 1990년부터 1999년을 의미하는 1주기에는 1999년 2월부터 공식적으로 사용된 발달장애라는 용어가 아직 보편적으로 사용되지 않아 타 장애관련 용어가 다수 분석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데이터 전처리 과정에서 지체부자유를 하나의 단어로 처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애관련 용어들과 함께 ‘부자유’라는 용어가 주제어로 분석된 것이 특징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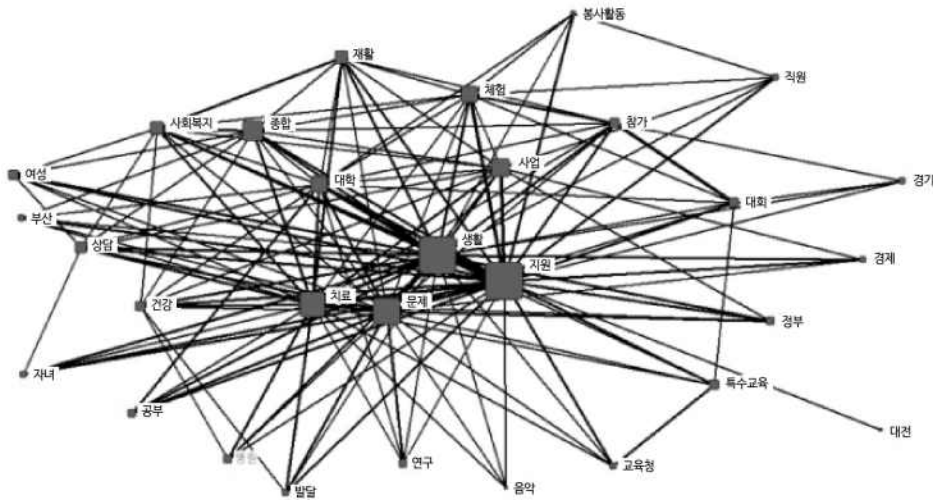
[그림 4-1-8] 발달장애 학생 1주기 네트워크 CONCOR 분석결과

## (2) 2주기(2000년~2009년) 분석 결과

2000년부터 2009년을 의미하는 2주기의 주제어 네트워크를 분석한 결과는 [그림 4-1-9]에 제시하였다. 30개의 주제어는 870개의 엣지로 구성되어있으며, 90개 미만의 엣지를 삭제하여 간소화 한 네트워크는 [그림 4-1-10]과 같다. 2주기의 네트워크는 ‘지원’과 ‘생활’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교육이 주가 되던 1주기의 관심이 발달장애 학생들의 생활과 지원으로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1-9] 발달장애 학생 2주기 주제어 네트워크(TF-IDF기준)



[그림 4-1-10] 발달장애 학생 2주기 주제어 간소화 네트워크(TF-IDF기준)

네트워크의 중심성 분석을 통해 2주기 언론보도기사 네트워크의 구조를 보다 확인한 결과를 <표 4-1-6>에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네트워크의 중심에 위치한 ‘지원’, ‘생활’에 이어 ‘치료’와 ‘문제’가 높은 중심성을 보

였는데 이는 2주기 언론보도기사에 주를 이루고 있는 지원의 종류와 성격에 대한 논의와 함께 해당 시기에 발달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지원에 대한 문제점도 함께 논의되었음을 시사한다. 이밖에 높은 중심성을 보인 주제어를 통해 언급된 논의가 ‘사회복지’, ‘재활’, ‘상담’, ‘대학’ 등의 지원 및 문제와 관련되었다고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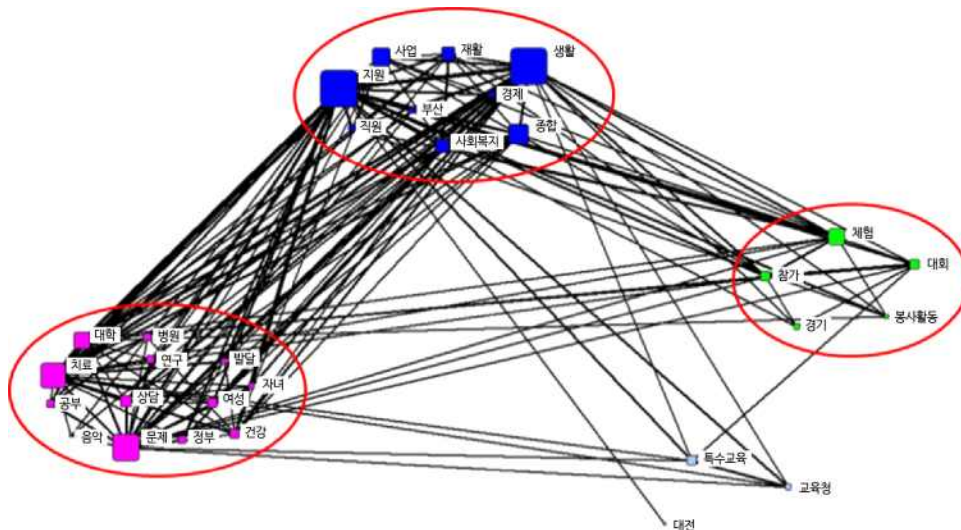
<표 4-1-6> 발달장애 학생 2주기 네트워크 중심성 분석 결과

순위	연결 중심성		고유벡터 중심성		베타 중심성	
1	지원	0.502	지원	47.731	지원	1.849
2	생활	0.459	생활	44.570	생활	1.726
3	문제	0.363	치료	35.772	치료	1.386
4	치료	0.362	문제	35.663	문제	1.381
5	대학	0.307	대학	31.039	대학	1.202
6	사업	0.288	사업	29.593	사업	1.146
7	체험	0.285	체험	28.484	체험	1.103
8	종합	0.277	종합	27.936	종합	1.082
9	사회복지	0.261	사회복지	27.001	사회복지	1.046
10	재활	0.253	재활	25.819	재활	1.000
11	참가	0.241	상담	24.759	상담	0.959
12	건강	0.239	건강	24.461	건강	0.947
13	상담	0.238	참가	23.841	참가	0.923
14	공부	0.228	공부	23.539	공부	0.912
15	대회	0.217	여성	21.851	자녀	0.856

2주기 네트워크의 CONCOR 분석 결과, 3개의 집단이 확인되었다. 첫 번째 집단은 가장 많은 13개의 주제어로 구성된 집단이다. 연결 중심성에 비례하는 노드의 크기를 통해 해당 집단은 ‘치료’와 ‘문제’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 주제어로 ‘대학’, ‘병원’, ‘연구’, ‘발달’, ‘건강’, ‘공부’ 등을 포함한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문제’와 ‘대학’의 관계로 ‘특수교육’, ‘특수학급’ 등의 주제어를 통해 학령기 학생들의 교육에 집중되었던 논의가 발달장애 학생들의 고등교육에 대한 논의로 확장되었으며, ‘대학’, ‘연구’, ‘정부’ 등의 주제어 관계를 통해 문제해결이나 치료 제공 과정에서



연구가 이루어졌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1995년 특수교육 대상자 대학특례입학제도가 시작되고, 「제3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03~'12)」에서 특수교육대상자들의 고등교육 지원 강화를 주요 과제로 추진한 국가 정책 방향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두 번째 집단은 ‘지원’, ‘생활’을 중심으로 구성된 집단으로 ‘사업’, ‘종합’, ‘재활’ 등 발달장애 학생들의 생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과 그 형태를 나타내는 집단이다. 마지막으로 ‘체험’, ‘대회’, ‘참가’, ‘경기’, ‘봉사활동’의 주제어로 구성된 세 번째 집단을 통해 발달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회나 경기 또는 봉사활동과 같은 체험이 언론보도기사에서 다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1-11] 발달장애 학생 2주기 네트워크 CONCOR 분석 결과

### (3) 3주기(2010년~2019년) 분석 결과

3주기 발달장애 학생 언론보도기사의 상위빈출 30개 주제어의 네트워크를 분석한 결과, [그림 4-1-12]와 같이 네트워크는 ‘제공’, ‘교사’, ‘생활’을 중심으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총 866개의 엣지 중, 340개 미만의 엣지를 제거하여 간소화 네트워크를 생성한 [그림 4-1-13]에서 공출현빈도의 비례하는 엣지로 상대적으로 높은 관계를 보이는 주제어 간의 관계

– 9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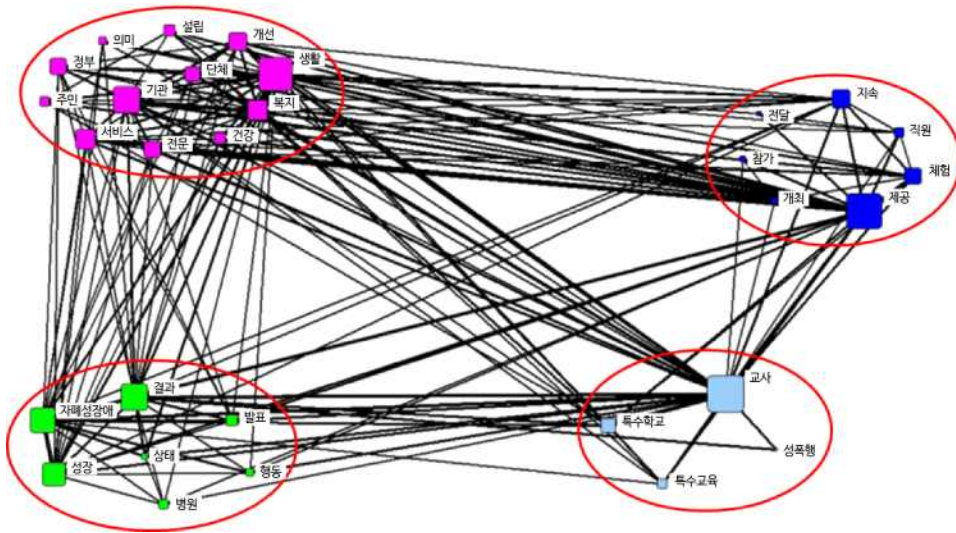
3주기 발달장애 학생 언론보도기사 주제어의 네트워크 중심성을 분석한 결과는 <표 4-7>과 같으며, ‘제공’, ‘교사’, ‘생활’, ‘자폐성장애’가 모든 분석에서 높은 지수를 보여 해당 네트워크에서 이들이 가지는 영향력이 다른 주제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표 4-1-7> 발달장애 학생 3주기 네트워크 중심성 분석 결과

순위	연결 중심성		고유벡터 중심성		베타 중심성	
1	제공	0.524	제공	44.166	제공	1.711
2	교사	0.485	교사	41.069	교사	1.591
3	생활	0.417	생활	36.257	생활	1.404
4	자폐성장애	0.362	자폐성장애	32.106	자폐성장애	1.243
5	결과	0.354	기관	31.156	기관	1.207
6	기관	0.354	결과	30.767	결과	1.192
7	성장	0.334	성장	29.751	성장	1.152
8	특수학교	0.311	특수학교	27.720	특수학교	1.074
9	서비스	0.301	서비스	27.108	서비스	1.050
10	전문	0.296	전문	26.476	전문	1.025
11	복지	0.295	복지	26.094	복지	1.011
12	개선	0.286	개선	25.233	개선	0.977
13	지속	0.282	체험	25.164	체험	0.975
14	체험	0.280	지속	24.912	지속	0.965
15	단체	0.274	정부	24.133	정부	0.935

3주기 네트워크를 CONCOR 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4개의 집단이 생성되었다. 첫 번째 집단에는 ‘생활’, ‘개선’, ‘복지’, ‘서비스’, ‘기관’ 등 총 12개의 주제어를 포함하고 있어 발달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관련된 집단임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집단은 앞선 분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폐성장애’, ‘성장’, ‘결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형성된 집단으로 자폐성장애 학생을 포함한 발달장애 학생들의 ‘상태’, ‘행동’ 및 ‘병원’, ‘치료’와 관련된 주제어 7개를 포함한다. 세 번째 집단 또한 ‘제공’을 포함한 7개의 주제어로 구성되어 있다. 이 집단에 포함된 ‘지속’, ‘체험’, ‘개최’, ‘직원’ 등의 주제어를 통해 발달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활동이나 체험이 기업들의 직원들을 위주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들이 기사를 통해 보도되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 집단은 ‘교사’를 중심으로 생성된 집단으로 ‘특수학교’, ‘특수교육’, ‘성폭행’의 주제어를 포함한다. 이 집단을 통해 발달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이 특수학교와 특수교육 테두리 안에서 발생하였음을 유추할 수 있다.



[그림 4-1-14] 발달장애 학생 3주기 네트워크 CONCOR 분석 결과

## 2. 지적장애 학생 언론보도기사 분석

### 가. 주제어 분석

#### 1) 전체 기간 분석

발달장애로 통칭되는 자폐성장애와 지적장애 중, 지적장애 학생 언론 보도기사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1990년 1월부터 2019년 4월까지 보도된 8,890건의 자료를 대상으로 주제어 및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TF를 기준으로 언론보도기사를 분석한 결과는 <표 4-1-8>과 같다.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단어는 ‘학교’로 나타났으며, ‘사회’, ‘학부모’, ‘교육’, ‘서울’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그림 4-1-15]를 통해서도 나타나는 것처럼 지적장애 학생 언론보도들은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이나 활동과 관련된 내용이 다수 다루어지고 있으며, 사회적 지원 시설이나 프로그램과 관련된 단어, 그리고 범죄와 연관이 있다고 판단되는 ‘조사’, ‘사건’, ‘혐의’ 등의 단어도 포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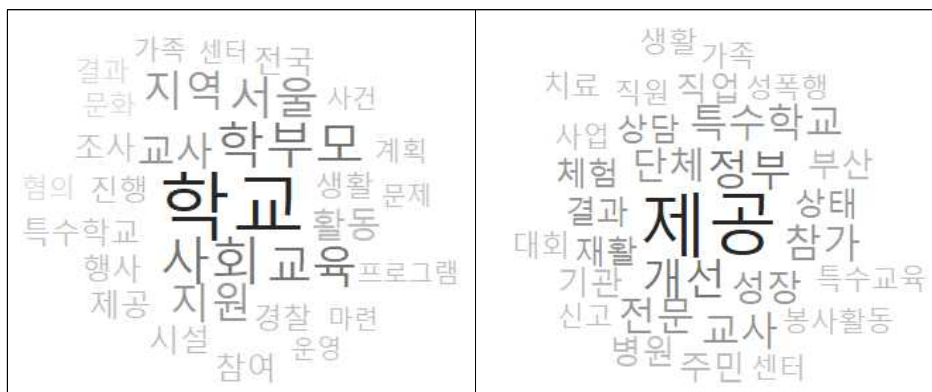
<표 4-1-8> 지적장애 학생 TF기준 상위빈출 30개 단어

순위	주제어	빈도	순위	주제어	빈도
1	학교	11,480	16	제공	3,812
2	사회	7,420	17	시설	3,768
3	학부모	7,102	18	전국	3,758
4	교육	6,694	19	참여	3,742
5	서울	6,170	20	운영	3,670
6	교사	5,798	21	마련	3,588
7	지역	5,518	22	사건	3,570
8	지원	5,404	23	센터	3,558
9	활동	4,698	24	프로그램	3,480
10	진행	4,254	25	문제	3,450
11	생활	4,174	26	가족	3,386
12	특수학교	4,112	27	계획	3,362
13	경찰	4,016	28	결과	3,216
14	행사	3,998	29	문화	3,200
15	조사	3,854	30	혐의	3,192

TF-IDF를 기준으로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1-9>와 같으며, ‘제공’, ‘정부’, ‘개선’, ‘단체’, ‘성장’ 등 정부의 지원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높은 빈도를 보였다. 이밖에도 학생들의 교육, 체험, 활동과 관련된 단어들은 물론 TF 분석에 나타난 ‘조사’, ‘사건’, ‘혐의’와 유사한 맥락으로 보이는 ‘성폭행’ 단어가 높은 빈도를 보이는 주제어로 분석됨을 알 수 있다.

<표 4-1-9> 지적장애 학생 TF-IDF기준 상위빈출 30개 단어

순위	주제어	빈도	순위	주제어	빈도
1	제공	1.111	16	부산	0.462
2	정부	0.662	17	병원	0.456
3	개선	0.652	18	주민	0.445
4	단체	0.580	19	직업	0.441
5	성장	0.553	20	성폭행	0.431
6	전문	0.542	21	직원	0.426
7	교사	0.539	22	봉사활동	0.423
8	특수학교	0.528	23	특수교육	0.406
9	참가	0.516	24	가족	0.399
10	상태	0.513	25	신고	0.393
11	상담	0.507	26	사업	0.387
12	체험	0.504	27	센터	0.387
13	결과	0.493	28	생활	0.380
14	재활	0.489	29	대회	0.369
15	기관	0.462	30	치료	0.3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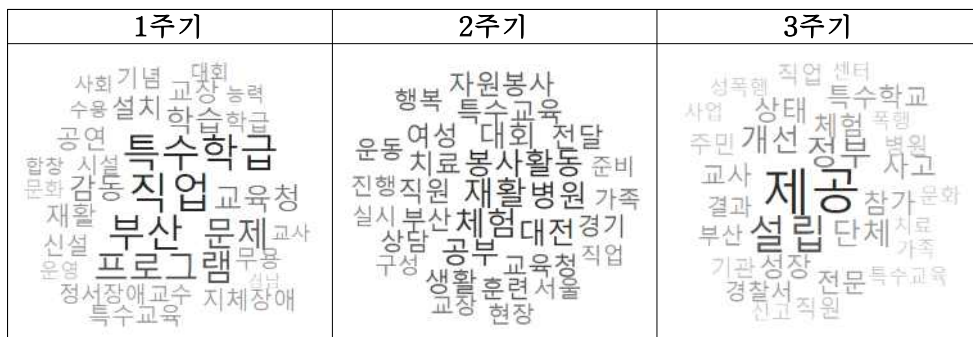


[그림 4-1-15] 지적장애 학생 언론보도기사 주제어 비교(TF, TF-IDF)

## 2) 주기별 분석

지적장애 학생 언론보도기사의 주기별 주제어를 TF-IDF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는 [그림 4-1-16], <표 4-1-10>과 같다. 62건의 언론보도기사

를 포함하는 1주기의 주제어는 ‘직업’, ‘부산’, ‘특수학급’, ‘프로그램’, ‘문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간에 주제어로 분석된 ‘직업’, ‘재활’, ‘시설’, ‘능력’, ‘수용’과 같은 단어들을 통해 지적장애 학생들의 진로와 관련된 언론의 관심이 비교적 높았다고 유추된다. 또한 ‘공연’, ‘무용’, ‘대회’, ‘합창’ 등의 단어와 ‘감동’이라는 주제어가 함께 분석되어 1990년대 지적장애 학생들의 대상 언론의 시각이 비교적 감정적인 성격을 가졌다고 보이며, ‘부산’, ‘경남’과 같은 지역 관련 단어가 주제어로 분석된 것이 특징적이다. 1,708건의 기사를 포함하는 2주기에는 ‘재활’, ‘체험’, ‘봉사활동’, ‘공부’, ‘병원’ 등의 주제어가 분석되었다. [그림 4-1-16]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2주기 주제어들의 빈도는 매우 유사한 정도를 보이고 단어들 또한 매우 다양한 특정 주제보다는 다양한 주제의 기사들이 보도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7,120건의 기사를 포함하는 3주기에는 ‘제공’의 빈도가 가장 높았고, 이를 중심으로 ‘설립’, ‘정부’, ‘개선’, ‘단체’ 등의 단어가 주제어로 분석되어 지적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지원을 개선하거나 향상시키는 것과 관련된 기사들과 ‘사고’, ‘경찰서’, ‘폭행’, ‘성폭행’ 등과 같이 범죄와 관련된 기사들이 언론에 다수 노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1주기부터 3주기 모두에서 주제어로 분석된 단어들은 ‘직업’, ‘부산’, ‘특수교육’이다.



[그림 4-1-16] 지적장애 학생 주기별 주제어 비교(TF-IDF기준)

<표 4-1-10> 지적장애 학생 주기별 상위빈출 30개 단어(TF-IDF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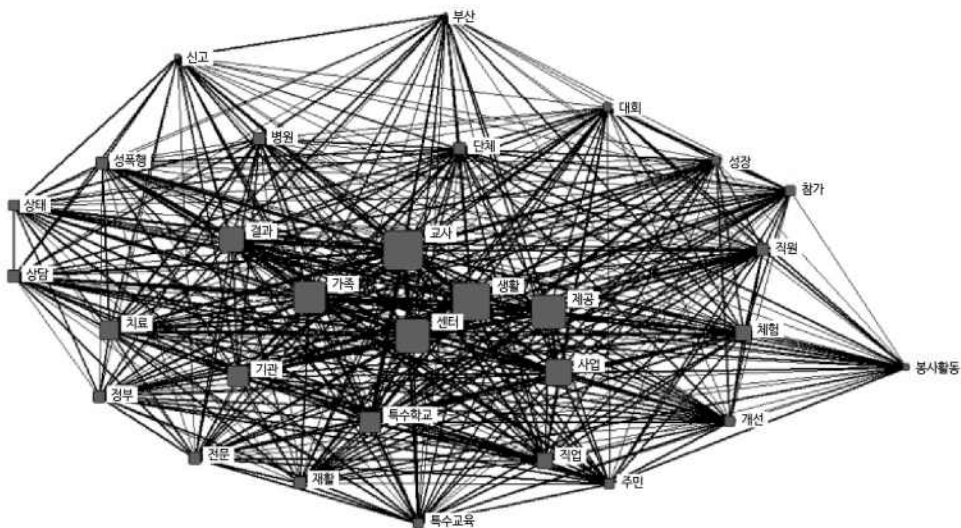
구분 순위	1주기 (1990년~1999년)		2주기 (2000년~2009년)		3주기 (2010년~2019년)	
	주제어	빈도	주제어	빈도	주제어	빈도
1	직업	0.302	재활	0.401	제공	1.064
2	부산	0.274	체험	0.394	설립	0.817
3	특수학급	0.269	봉사활동	0.382	정부	0.658
4	프로그램	0.249	공부	0.366	개선	0.639
5	문제	0.245	병원	0.352	단체	0.585
6	학습	0.199	대전	0.345	참가	0.550
7	교육청	0.191	대회	0.343	성장	0.546
8	감동	0.186	특수교육	0.331	체험	0.539
9	설치	0.180	치료	0.331	교사	0.539
10	공연	0.167	직원	0.331	전문	0.536
11	교장	0.166	교육청	0.329	특수학교	0.524
12	재활	0.164	부산	0.324	상태	0.498
13	학급	0.159	여성	0.316	사고	0.498
14	교수	0.149	생활	0.315	결과	0.473
15	정서장애	0.148	자원봉사	0.312	부산	0.472
16	시설	0.148	전달	0.312	경찰서	0.462
17	기념	0.147	상담	0.300	병원	0.454
18	특수교육	0.142	훈련	0.293	기관	0.449
19	신설	0.142	행복	0.293	직업	0.434
20	무용	0.141	경기	0.293	주민	0.433
21	지체장애	0.140	운동	0.292	직원	0.424
22	능력	0.138	서울	0.282	특수교육	0.416
23	수용	0.138	가족	0.281	가족	0.405
24	대회	0.135	교장	0.277	폭행	0.395
25	합창	0.132	진행	0.275	센터	0.382
26	교사	0.132	현장	0.275	성폭행	0.381
27	사회	0.130	실시	0.268	사업	0.3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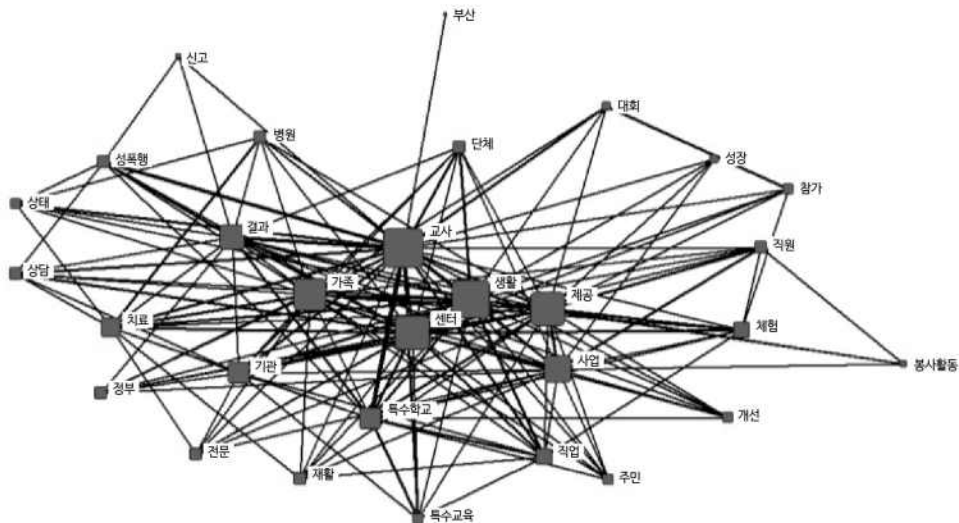
## 나. 네트워크 분석

## 1) 전체 기간 분석

지적장애 학생 언론보도기사 전체에서 상위빈출 30개 주제어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그림 4-1-17]과 같다. 해당 네트워크는 총 870개의 엣지로 구성되었다. 네트워크의 구조를 분명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250개 미만의 엣지를 제거한 간소화 네트워크를 [그림 4-1-18]과 같이 제시하였고, ‘교사’와 ‘생활’을 중심으로 네트워크가 구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중에서도 네트워크 중심에 위치한 ‘교사’는 ‘성폭행’, ‘특수학교’, ‘센터’ 등과의 높은 공출현빈도를 나타냈다.



[그림 4-1-17] 지적장애 학생 주제어 네트워크(TF-IDF기준)



[그림 4-1-18] 지적장애 학생 주제어 간소화 네트워크(TF-IDF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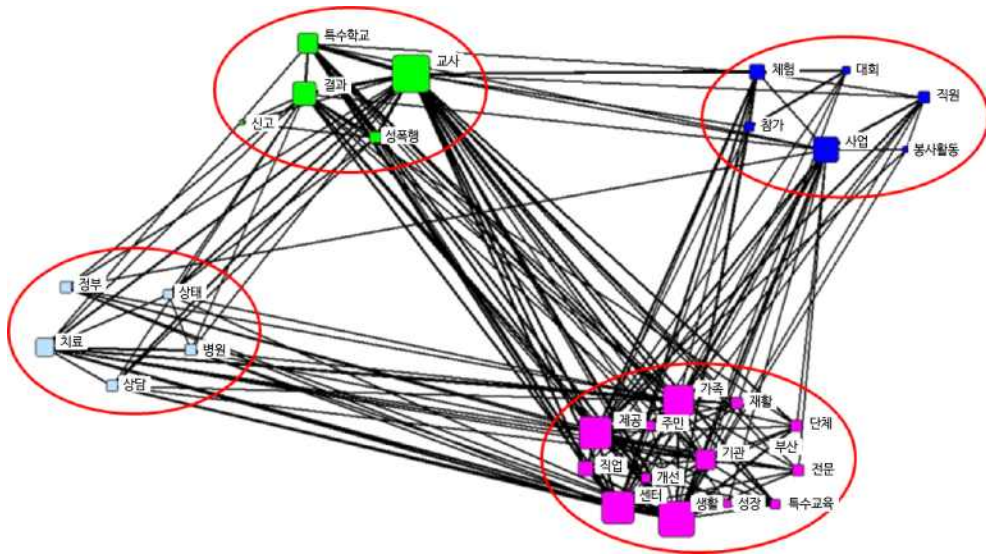
중심성 분석을 통해 각 주제어가 네트워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1-11>과 같다. 1위부터 10위까지의 중심성 지수 순위는 모든 중심성 지수 분석에서 동일하게 분석되었으며, 이하 순위에서는 분석별로 다소 상이한 결과가 나타났다. 특히, ‘특수교육’은 연결 중심성 지수에서 상위 15개의 주제어로 분석되지 않았으나 고유벡터와 베타 중심에서 14위로 순위가 상승하였다.

네트워크의 구조를 시각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CONCOR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그림 4-1-19]와 같다. 지적장애 학생 언론보도기사 네트워크에서 네 개의 집단이 형성되었으며, 가장 큰 집단은 ‘생활’, ‘가족’, ‘제공’, ‘센터’ 등의 13개 주제어를 포함한다. 해당 집단에서는 ‘특수교육’, ‘직업’, ‘재활’, ‘개선’ 등의 주제어를 통해 지적장애 학생과 그 가족들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기관 및 지역사회의 지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음을 시사한다. 두 번째 집단은 6개의 주제어로 구성된 집단으로 ‘사업’을 중심으로 ‘체험’, ‘대회’, ‘직원’, ‘봉사활동’, 그리고 ‘참가’의 주제어를 포함한다. 이는 지적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봉사활동이 기업의 직원들을 주체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련 대회에 대한 홍보가 언론을 통해

<표 4-1-11> 지적장애 학생 네트워크 중심성 분석 결과

순위	연결 중심성		고유벡터 중심성		베타 중심성	
1	교사	0.435	교사	44.529	교사	1.725
2	생활	0.376	생활	39.256	생활	1.521
3	센터	0.355	센터	37.131	센터	1.438
4	제공	0.347	제공	36.312	제공	1.406
5	가족	0.313	가족	32.882	가족	1.274
6	특수학교	0.303	특수학교	32.815	특수학교	1.271
7	결과	0.275	결과	29.404	결과	1.139
8	사업	0.275	사업	29.127	사업	1.128
9	기관	0.270	기관	28.849	기관	1.117
10	치료	0.247	치료	26.371	치료	1.021
11	단체	0.232	직업	24.735	직업	0.958
12	직업	0.226	단체	24.591	단체	0.952
13	체험	0.213	체험	23.028	체험	0.892
14	주민	0.202	특수교육	21.828	특수교육	0.845
15	직원	0.202	상담	21.528	주민	0.844

보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집단은 ‘교사’를 중심으로 ‘특수학교’, ‘결과’, ‘성폭행’, ‘신고’로 구성된 집단으로 특수학교 교사가 지적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당한 사건과 그와 관련된 결과에 대한 논의가 지적장애 학생 언론보도기사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네 번째 집단은 ‘치료’, ‘상담’, ‘상태’ 등의 치료지원서비스와 관련된 단어로 구성된 집단으로 상대적으로 연결 중심성을 가지는 집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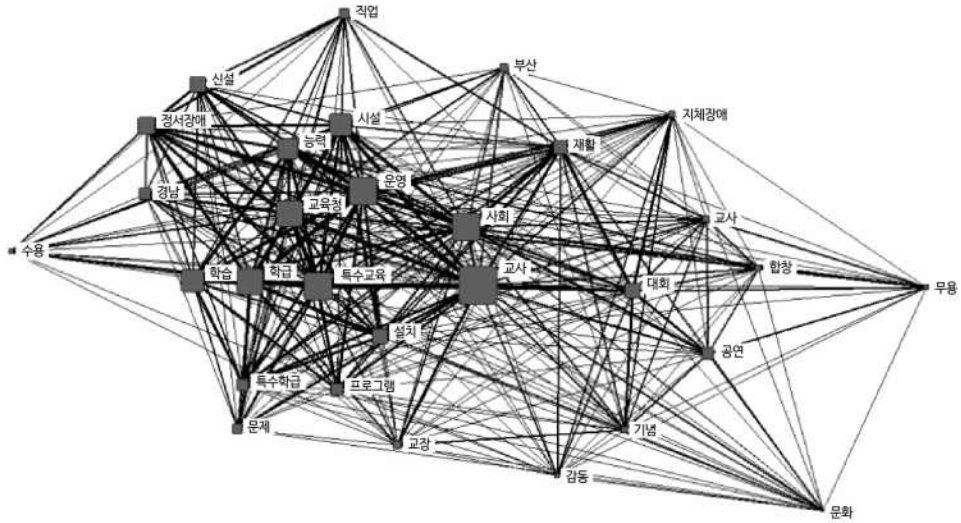


[그림 4-1-19] 지적장애 학생 네트워크 CONCOR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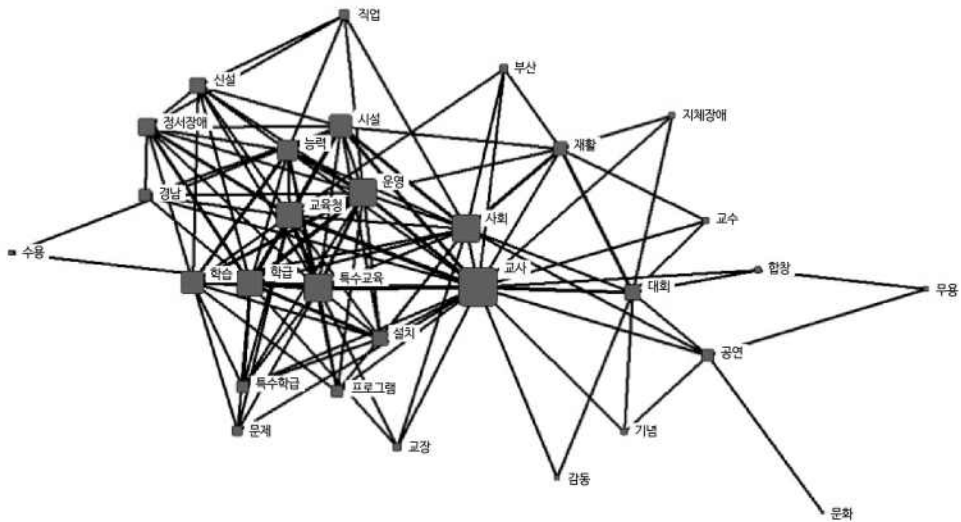
## 2) 주기별 분석

### (1) 1주기(1990년~1999년) 분석 결과

시간의 흐름에 따른 지적장애 학생 1주기 언론보도기사의 주제어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림 4-1-20]과 1주기 언론보도기사의 상위 빈출 30개 주제어는 684개의 엣지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3개 미만의 엣지를 제거한 간소화 네트워크가 [그림 4-1-21]과 같이 분석되었다. 네트워크는 ‘교사’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이는 ‘특수교육’, ‘교육청’ 등의 주제어와 높은 공출현빈도를 보였다.



[그림 4-1-20] 지적장애 학생 1주기 주제어 네트워크(TF-IDF기준)



[그림 4-1-21] 지적장애 학생 1주기 주제어 간소화 네트워크(TF-IDF기준)

중심성 분석을 통해 각 주제어가 전체 네트워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표 4-1-12>와 같으며, 모든 중심성 분석 결과에서 ‘교사’가 가장 큰 중심성 지수를 보였고 ‘학급’, ‘교육청’, ‘운영’, ‘특수교육’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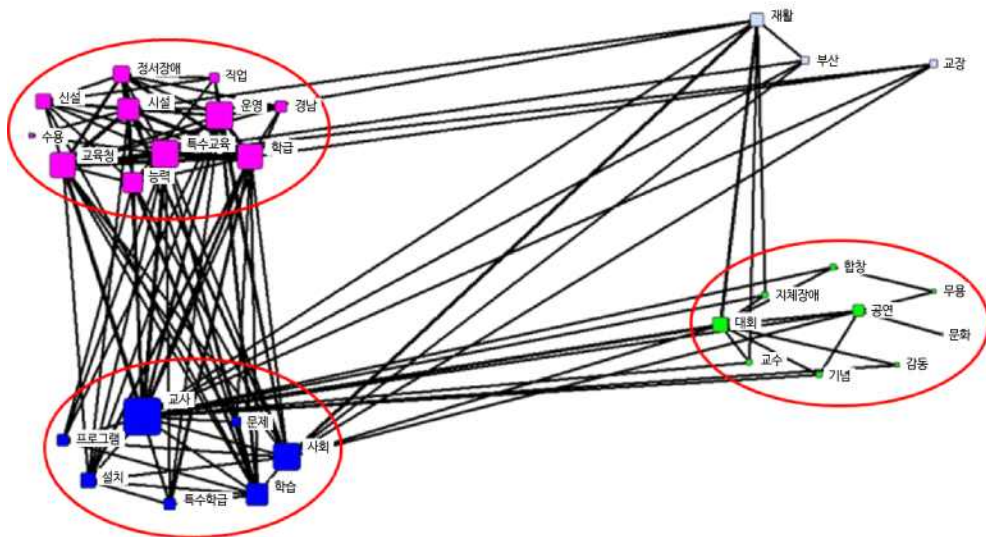
그 뒤를 따랐다. 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지적장애 학생을 담당하는 교사의 학급 운영과 특수교육에 대한 행정적 책임을 가지는 교육청이 1주기의 네트워크를 설명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더불어 다른 1주기 분석과 다르게 해당 분석에서는 정식 장애명이 아니나 일반적으로 자폐성장애와 지적장애 등을 지칭하는데 사용된 정서장애 이외에 다른 장애관련 용어가 주제어로 분석되지 않는다. 이를 통해 다른 장애 특성과 함께 논의되었던 앞선 분석 결과와 달리 지적장애 학생들에 대한 논의는 비교적 타 장애와 구분되어 이루어졌다고 해석된다.

<표 4-1-12> 지적장애 학생 1주기 네트워크 중심성 분석 결과

순위	연결 중심성		고유벡터 중심성		베타 중심성	
1	교사	0.507	교사	45.812	교사	1.775
2	학급	0.407	학급	42.850	학급	1.659
3	교육청	0.393	교육청	40.382	교육청	1.564
4	운영	0.390	운영	39.826	운영	1.542
5	특수교육	0.383	특수교육	39.546	특수교육	1.531
6	사회	0.372	시설	35.482	시설	1.374
7	시설	0.338	사회	33.385	사회	1.294
8	재활	0.307	능력	31.034	능력	1.202
9	능력	0.307	학습	30.581	학습	1.184
10	정서장애	0.286	정서장애	30.057	정서장애	1.164
11	학습	0.283	특수학급	27.478	특수학급	1.064
12	대회	0.262	재활	26.420	재활	1.024
13	특수학급	0.252	설치	26.407	설치	1.022
14	설치	0.245	신설	21.893	신설	0.847
15	신설	0.200	대회	20.467	프로그램	0.800

1주기 네트워크의 구조적 등위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한 CONCOR 분석 결과는 [그림 4-1-22]와 같으며, 세 개의 집단이 분석되었다. 첫 번째 집단은 ‘특수교육’, ‘운영’, ‘학급’, ‘교육청’과 같이 연결 중심성이 높은 주제어들로 구성된 집단으로 지적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교육 운영 방향과 관련된 내용이 1주기에 주요하게 다루어졌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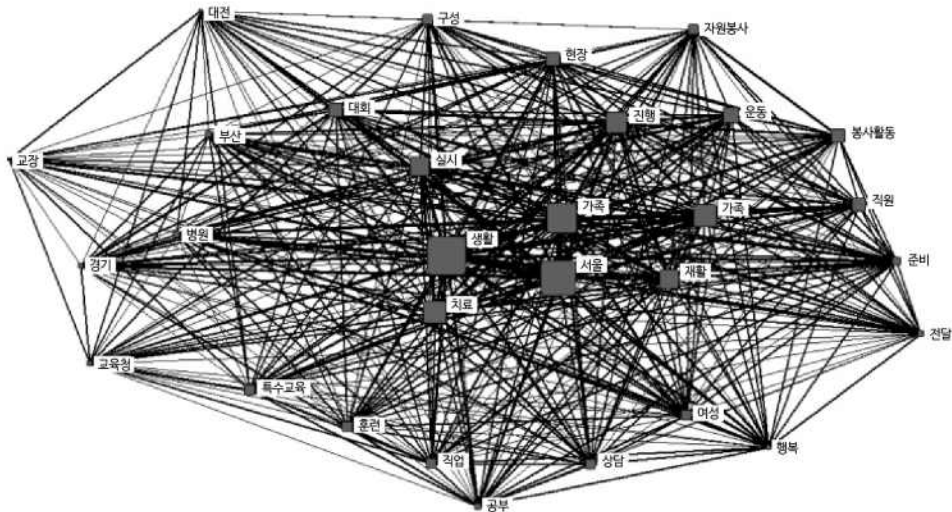
을 나타낸다. 두 번째 집단은 ‘교사’를 중심으로 구성된 집단으로 ‘특수학급’, ‘프로그램’, ‘학습’, ‘문제’ 등의 주제어로 구성되어 학급 단위에서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교사의 교육프로그램 관련된 논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모든 특수교육대상자들을 교육 현장에 배치하고자 하는 특수교육 정책 기조에 따라 분리교육 또는 통합교육 환경에 배치된 학생들을 지원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집단은 지적장애 학생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문화예술 행사들과 관련된 단어들로 구성되었다. 지적장애인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행사들이 1주기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으며, 해당 집단에 포함된 ‘감동’이라는 주제어를 통해 언론이 지적장애 학생들에 대한 연민의 감정을 촉진하는 보도형태를 가졌음을 간접적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정리해 볼 때, 지적장애 학생 1주기 네트워크에서는 특수교육에 대한 행정적·실질적 논의와 함께 이들을 중심으로 한 문화예술 행사에 대한 언론 보도가 이루어졌음을 시사한다.



[그림 4-1-22] 지적장애 학생 1주기 네트워크 CONCOR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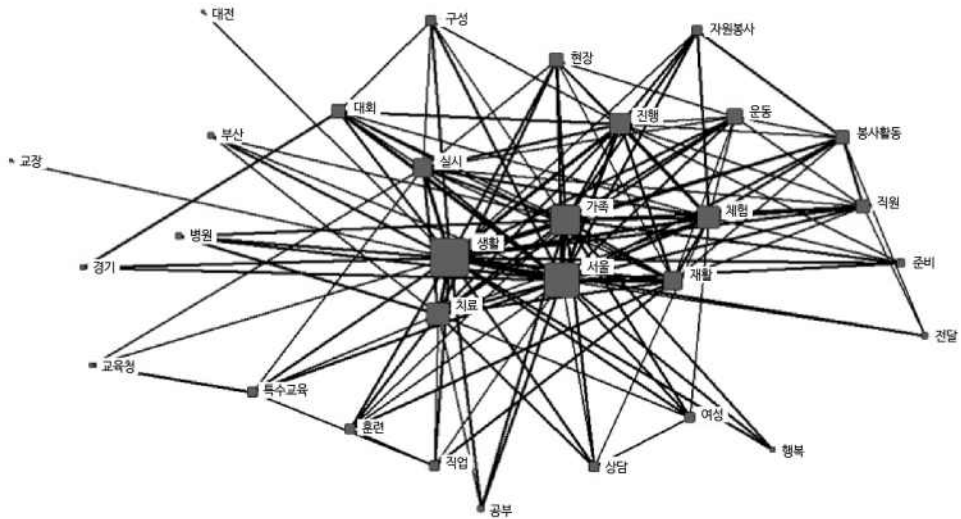
## (2) 2주기(2000년~2009년) 분석 결과

지적장애 학생 언론보도기사의 상위빈출 30개의 주제어를 분석한 결과, 870개의 엽지로 [그림 4-1-23]과 같은 네트워크가 분석되었다. 60개 미만의 엽지를 삭제하여 나타낸 [그림 4-1-24]의 간소화 네트워크에서도 볼 수 있듯이 ‘생활’, ‘서울’, ‘가족’이 네트워크의 중심에 위치하여 전체 네트워크를 설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그 외의 주제어들이 가지는 연결 중심성은 상대적으로 작은 것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1-23] 지적장애 학생 2주기 주제어 네트워크(TF-IDF기준)





[그림 4-1-24] 지적장애 학생 2주기 주제어 간소화 네트워크(TF-IDF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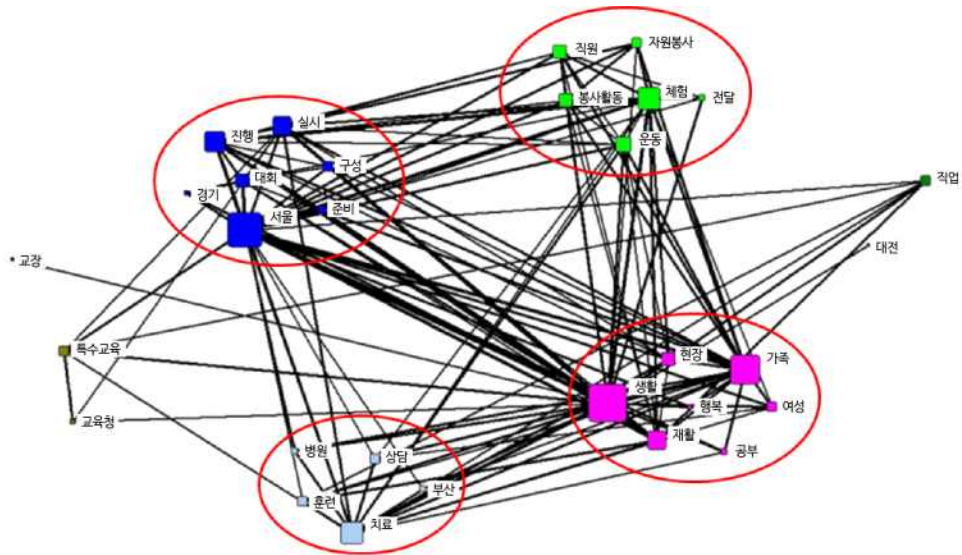
중심성 분석을 통해 각 주제어가 네트워크에 미치는 정도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표 4-1-13>과 같이 중심성 지수의 순위는 모든 분석유형에서 매우 유사하게 분석되었으며, 상위 중심성 지수를 보이는 15개의 주제어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2주기 네트워크에서 가장 높은 중심성 지수를 보인 주제어는 ‘생활’이었으며, ‘서울’, ‘가족’, ‘체험’, ‘진행’, ‘치료’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교육 관련 주제어가 주를 이루었던 1주기 결과와 달리, 2주기에는 지적장애 학생들이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생활적인 측면과 치료 및 재활과 관련된 주제어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기에 따른 언론의 관심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

CONCOR 분석 결과, 총 4개의 집단이 [그림 4-1-25]와 같이 나타났다. 첫 번째 집단은 연결 중심성이 높은 ‘생활’과 ‘가족’을 중심을 생성된 집단으로 ‘재활’, ‘현장’, ‘여성’, ‘공부’, ‘행복’의 주제어를 포함한다. 이 중에서 ‘행복’은 전체 네트워크에서는 상대적으로 작은 연결 중심성을 가지지만, 해당 집단에서는 가운데 위치하여 다른 주제어를 설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지적장애 학생의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이 2주기 네트워크의 주요 내용으로 해석된다. 두 번

<표 4-1-13> 지적장애 학생 2주기 네트워크 중심성 분석 결과

순위	연결 중심성		고유벡터 중심성		베타 중심성	
1	생활	0.543	생활	47.234	생활	1.830
2	서울	0.504	서울	44.413	서울	1.720
3	가족	0.415	가족	37.758	가족	1.462
4	체험	0.360	체험	32.891	체험	1.274
5	진행	0.352	진행	32.655	진행	1.265
6	치료	0.350	치료	31.817	치료	1.232
7	실시	0.326	실시	29.871	실시	1.157
8	재활	0.315	재활	29.255	재활	1.133
9	운동	0.271	운동	25.605	운동	0.992
10	현장	0.270	현장	25.175	현장	0.975
11	대회	0.259	대회	23.892	대회	0.925
12	준비	0.255	준비	23.726	준비	0.919
13	봉사활동	0.242	직원	23.110	직원	0.895
14	직원	0.242	봉사활동	22.517	봉사활동	0.872
15	상담	0.236	상담	22.210	상담	0.8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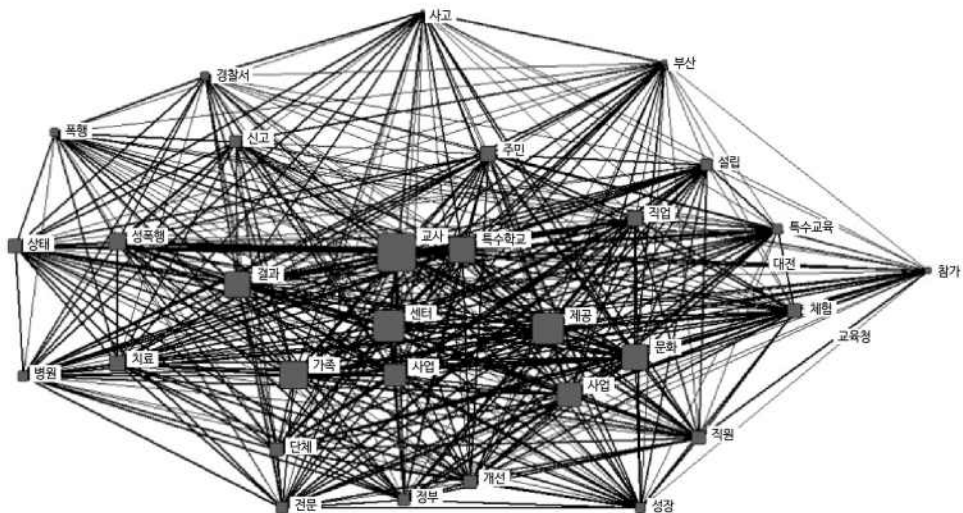
째 집단은 ‘서울’을 중심으로 ‘진행’, ‘실시’, ‘대회’ 등의 주제어로 구성된 집단으로 지적장애 학생들을 참가 또는 참석한 다양한 행사가 서울에서 진행되었으며,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는 ‘체험’을 중심으로 ‘봉사활동’, ‘자원봉사’, ‘운동’ 등으로 이루어진 세 번째 집단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마지막 네 번째 집단은 ‘치료’, ‘훈련’, ‘상담’ 등의 치료지원서비스 관련 주제어로 구성되었다. 1주기 네트워크에서 높은 영향력을 보인 ‘특수교육’과 ‘교육청’의 주제어는 2주기 네트워크에서 집단을 형성하지 못하였으나 ‘치료’가 그 역할을 대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치료교육제도가 폐지되고 치료지원제도가 신설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과 2008년부터 ‘관련서비스’가 포함된 「제3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의 변화를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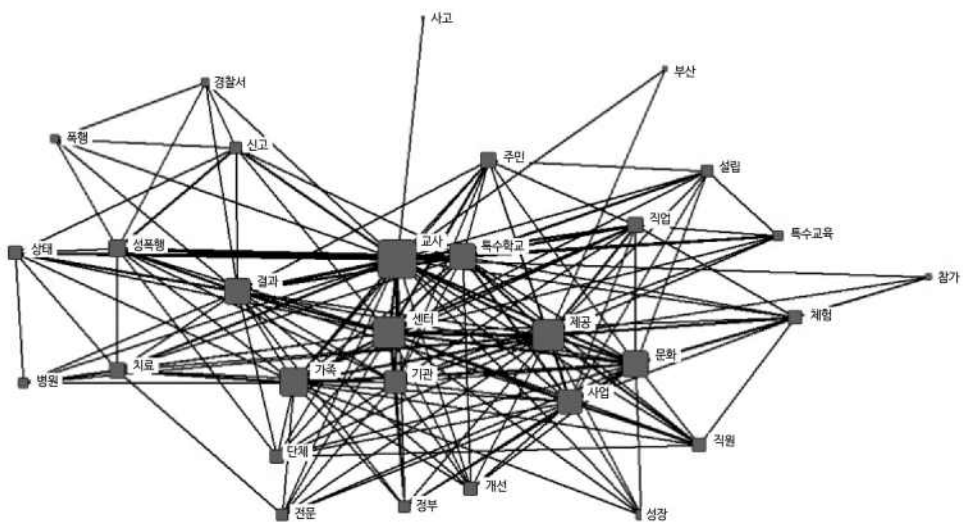
[그림 4-1-25] 지적장애 학생 2주기 네트워크 CONCOR 분석 결과

### (3) 3주기(2010년~2019년) 분석 결과

지적장애 학생 언론보도기사에서 추출된 30개의 주제어는 786개의 엣지로 연결되어 [그림 4-1-26]과 같은 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 네트워크의 구조를 보다 분명하게 파악하고자 180개 미만의 엣지를 삭제하여 간소화한 네트워크를 [그림 4-1-27]과 같이 제시하였다. 3주기 네트워크는 ‘교사’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다른 주제어 간의 관계에 비해 연결성을 보이는 ‘성폭행’, ‘특수학교’를 통해 이들의 높은 공출현행렬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이밖에도 네트워크에서 상대적으로 중심에 위치하여 네트워크를 설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이는 주제어들로 ‘센터’, ‘제공’, ‘가족’, ‘문화’, ‘결과’ 등이 있다.



[그림 4-1-26] 지적장애 학생 3주기 주제어 네트워크(TF-IDF기준)



[그림 4-1-27] 지적장애 학생 3주기 주제어 간소화 네트워크(TF-IDF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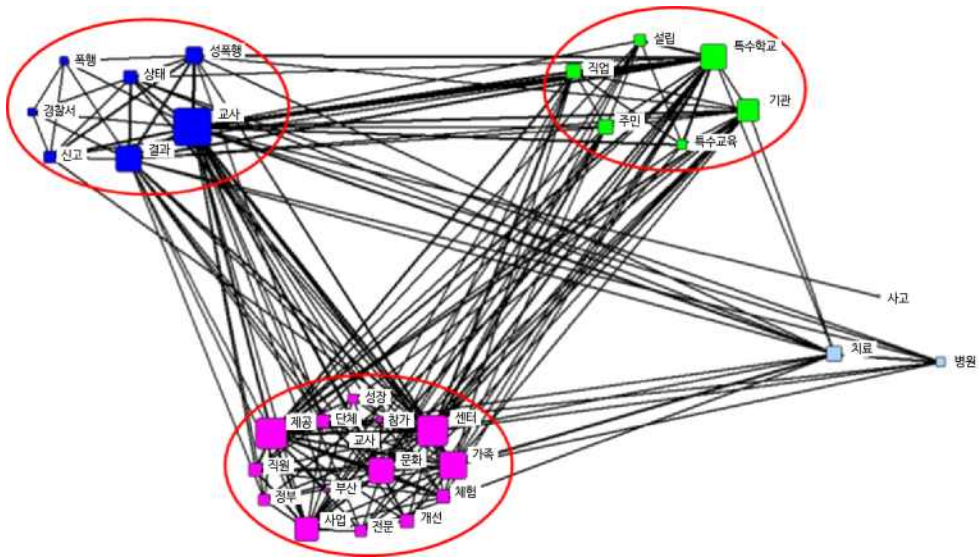
중심성 분석 결과, 모든 분석에서 1, 2위의 중심성 지수를 보인 주제어는 ‘교사’와 ‘제공’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주제어들은 분석 방법에 따라 그 순위가 다르게 나타났는데, 연결 중심성 분석 결과 7위와 13위였던

‘결과’와 ‘성폭행’이 고유벡터 중심성과 베타 중심성에서 각각 5위와 11위로 상승하였다.

<표 4-1-14> 지적장애 학생 3주기 네트워크 중심성 분석 결과

순위	연결 중심성		고유벡터 중심성		베타 중심성	
1	교사	0.414	교사	45.022	교사	1.744
2	제공	0.340	제공	37.744	제공	1.462
3	센터	0.334	특수학교	35.994	센터	1.450
4	특수학교	0.315	센터	37.447	특수학교	1.394
5	가족	0.287	결과	32.445	결과	1.257
6	문화	0.271	가족	31.843	가족	1.233
7	결과	0.292	문화	30.651	문화	1.187
8	기관	0.269	기관	30.444	기관	1.179
9	사업	0.260	사업	29.604	사업	1.147
10	직업	0.218	직업	25.520	직업	0.988
11	단체	0.217	성폭행	25.151	성폭행	0.974
12	치료	0.217	단체	24.635	단체	0.954
13	성폭행	0.216	치료	24.262	치료	0.940
14	주민	0.209	주민	23.820	주민	0.922
15	상태	0.195	전문	22.151	전문	0.858

네트워크의 구조적 등위성을 파악할 수 있는 CONCOR 분석을 통해 3주기 네트워크는 [그림 4-1-28]과 같이 세 개의 집단으로 구성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공’, ‘센터’, ‘가족’ 등의 주제어를 중심으로 ‘문화’, ‘사업’, ‘체험’ 등의 가장 많은 주제어를 포함한 첫 번째 집단은 지적장애 학생들과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과 참여프로그램과 관련된 집단으로 풀이된다. 두 번째 집단은 ‘교사’와 ‘결과’를 중심으로 구성된 집단으로 ‘성폭행’, ‘폭행’, ‘신고’ 등과 같이 지적장애 학생과 관련된 사건·사고가 3주기 네트워크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 집단은 ‘특수학교’를 중심으로 ‘기관’, ‘설립’, ‘특수교육’, ‘주민’ 등의 주제어가 집단을 이루고 있어 특수학교 설립과 관련된 사회적 논란을 본 분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4-1-28] 지적장애 학생 3주기 네트워크 CONCOR 분석 결과

### 3. 자폐성장애 학생 언론보도기사 분석

#### 가. 주제어 분석

##### 1) 전체 기간 분석

발달장애 학생 언론보도기사 중, 자폐성장애 학생과 관련된 언론보도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1990년 5월 26일부터 2019년 4월 30일까지 보도된 3,575건의 기사를 대상으로 주제어 및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TF를 기준으로 언론보도기사에 가장 많이 출현한 30개의 단어는 <표 4-1-15>와 같다. ‘학교’가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사회’, ‘학부모’, ‘교육’, ‘성장’ 등의 주제어를 포함한다. 주제어로 분석된 단어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학교를 중심으로 자폐성장애 학생의 성장과 위한 학부모, 교사, 가족 등 주변인들의 관심 및 사회적 지원 등과 관련된 단어들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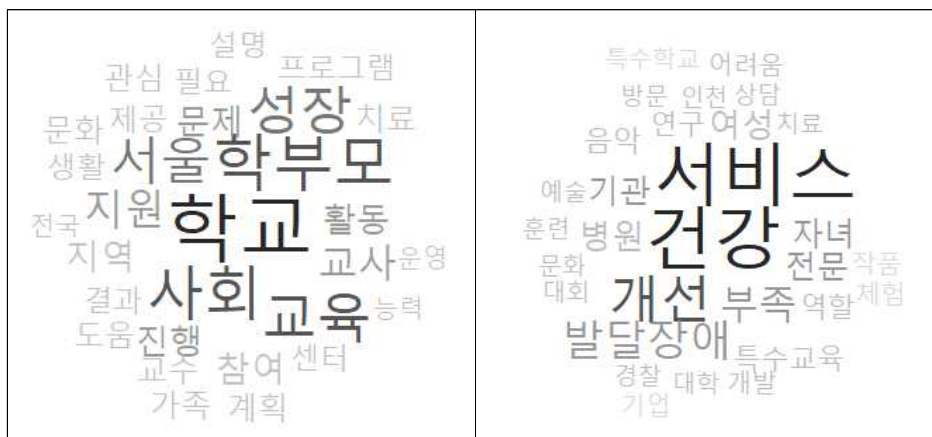
<표 4-1-15> 자폐성장애 학생 TF기준 상위빈출 30개 단어

순위	주제어	빈도	순위	주제어	빈도
1	학교	4,590	16	센터	1,718
2	사회	3,696	17	필요	1,716
3	학부모	3,622	18	프로그램	1,714
4	교육	3,292	19	생활	1,662
5	성장	3,208	20	설명	1,612
6	서울	3,026	21	관심	1,566
7	교사	2,406	22	도움	1,566
8	지원	2,224	23	교수	1,550
9	문제	2,118	24	가족	1,538
10	진행	1,990	25	계획	1,500
11	활동	1,976	26	치료	1,496
12	지역	1,908	27	문화	1,486
13	참여	1,832	28	전국	1,466
14	제공	1,786	29	능력	1,454
15	결과	1,746	30	운영	1,452

TF-IDF를 기준으로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1-16>과 같으며, ‘건강’, ‘서비스’, ‘개선’, ‘발달장애’, ‘부족’ 등의 주제어가 높은 빈도를 보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제어로 분석된 단어들은 특수교육, 치료 서비스, 예술 관련 행사 등과 관련된 단어로 해석된다. TF와 TF-IDF의 분석 결과를 워드클라우드로 표현하여 제시한 그림은 [그림 4-1-29]와 같다.

<표 4-1-16> 자폐성장애 학생 TF-IDF기준 상위빈출 30개 단어

순위	주제어	빈도	순위	주제어	빈도
1	건강	1.038	16	상담	0.331
2	서비스	1.003	17	인천	0.328
3	개선	0.751	18	문화	0.324
4	발달장애	0.578	19	대회	0.322
5	부족	0.503	20	예술	0.319
6	기관	0.473	21	방문	0.312
7	전문	0.455	22	훈련	0.311
8	자녀	0.446	23	경찰	0.311
9	병원	0.428	24	대학	0.311
10	여성	0.419	25	개발	0.305
11	특수교육	0.394	26	어려움	0.303
12	연구	0.375	27	기업	0.294
13	역할	0.370	28	체험	0.291
14	음악	0.342	29	작품	0.285
15	치료	0.333	30	특수학교	0.2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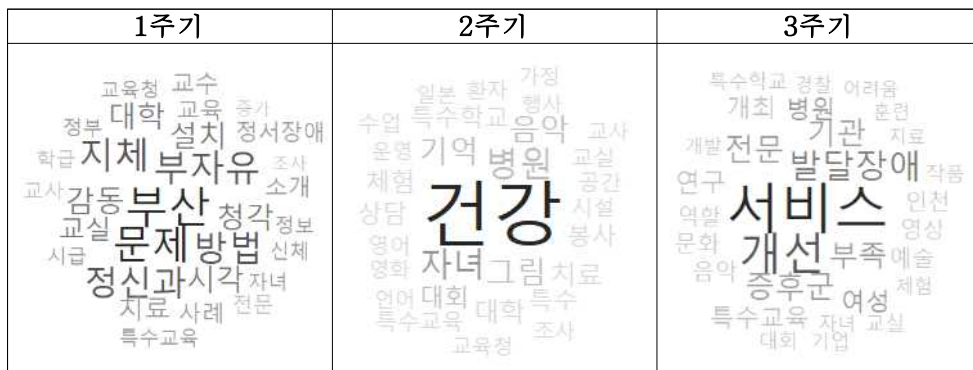


[그림 4-1-29] 자폐성장애 학생 언론보도기사 주제어 비교(TF, TF-IDF)



## 2) 주기별 분석

자폐성장애 학생 언론보도기사의 주기별 주제어의 변화를 TF-IDF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는 [그림 4-1-30]과 <표 4-1-17>에 제시하였다. 1주기에는 30편의 언론보도가 포함되었으며, ‘부산’, ‘문제’, ‘부자유’, ‘지체’, ‘정신과’ 등의 단어가 포함되었는데, 주제어 간의 빈도 차이가 크지 않고 출현하는 단어들 또한 다양한 성격을 띄고 있었다. 특히, 1주기에는 ‘부자유’, ‘지체’, ‘시각’, ‘청각’, ‘정서장애’, ‘신체’ 등과 같이 자폐성장애가 아닌 다른 장애를 연상시키는 단어가 다수 포함된 것이 특징적이다. 2주기에는 812편의 언론보도가 포함되었으며, ‘건강’이 가장 높은 출현을 보인 단어로 나타났으며, 뒤를 따르는 ‘자녀’, ‘병원’, ‘기억’, ‘그림’ 등의 주제어 출현빈도와 큰 차이를 보여 2주기의 언론보도가 건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3주기에는 2,733건의 언론보도기사가 포함되었으며, ‘서비스’, ‘개선’, ‘발달장애’, ‘부족’, ‘기관’ 등의 순으로 주제어가 나타났다. 3주기의 주제어들은 서비스 개선 및 문화 예술 활동과 관련된 단어들이 분석되었고, ‘발달장애’라는 용어가 주요어로 나타나 2010년부터 자폐성장애가 일반적으로 발달장애라는 용어로 지칭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1주기부터 3주기까지 반복되어 등장한 단어는 ‘교실’, ‘치료’, ‘자녀’, ‘특수교육’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폐성장애 학생들의 교육과 치료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과 노력이 언론보도를 통해 꾸준히 노출되었다고 해석된다.



[그림 4-1-30] 자폐성장애 학생 주기별 주제어 비교(TF-IDF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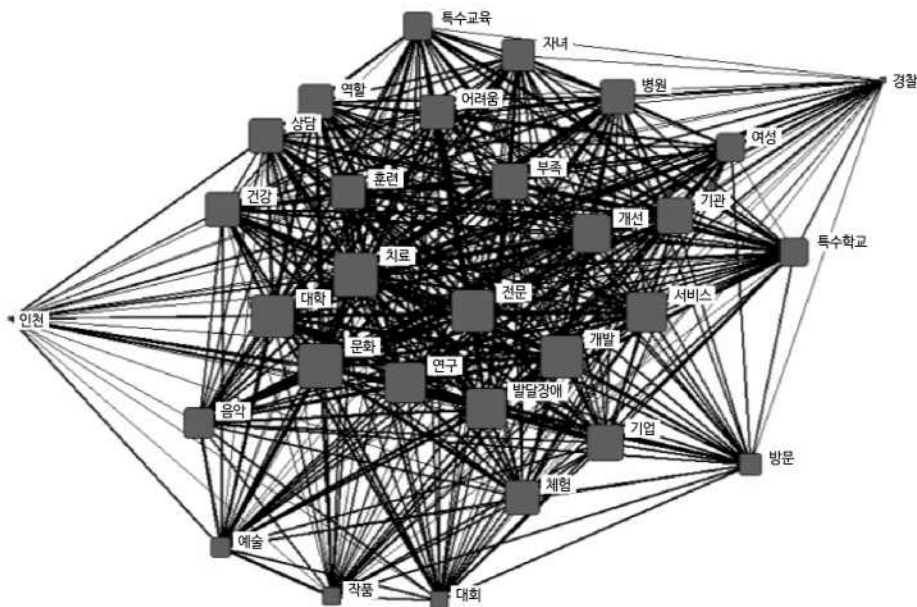
<표 4-1-17> 자폐성장애 학생 주기별 상위빈출 30개 단어(TF-IDF기준)

구분 순위	1주기 (1990년 ~ 1999년)		2주기 (2000년 ~ 2009년)		3주기 (2010년 ~ 2019년)	
	주제어	빈도	주제어	빈도	주제어	빈도
1	부산	0.249	건강	1.027	서비스	0.963
2	문제	0.216	<b>자녀</b>	0.447	개선	0.731
3	부자유	0.208	병원	0.412	발달장애	0.556
4	지체	0.208	기억	0.348	부족	0.503
5	정신과	0.202	그림	0.338	기관	0.462
6	방법	0.193	음악	0.336	증후군	0.460
7	감동	0.160	대회	0.330	전문	0.452
8	설치	0.155	대학	0.286	병원	0.424
9	시각	0.153	<b>치료</b>	0.282	여성	0.423
10	청각	0.153	특수	0.276	개최	0.412
11	대학	0.151	특수학교	0.271	<b>특수교육</b>	0.409
12	<b>교실</b>	0.143	체험	0.265	연구	0.385
13	<b>치료</b>	0.137	봉사	0.259	역할	0.356
14	교육	0.131	상담	0.257	문화	0.329
15	사례	0.128	시설	0.256	음악	0.322
16	소개	0.128	영어	0.250	예술	0.314
17	정서장애	0.122	<b>특수교육</b>	0.245	영상	0.314
18	교수	0.119	공간	0.242	인천	0.313
19	교육청	0.115	<b>교실</b>	0.239	<b>치료</b>	0.310
20	<b>자녀</b>	0.114	운영	0.231	훈련	0.309
21	시급	0.112	영화	0.227	<b>자녀</b>	0.302
22	신체	0.112	교육청	0.226	어려움	0.295
23	<b>특수교육</b>	0.112	조사	0.226	개발	0.292
24	정보	0.110	행사	0.222	경찰	0.291
25	정부	0.107	교사	0.221	체험	0.291
26	학급	0.104	가정	0.215	대회	0.286
27	교사	0.100	언어	0.213	기업	0.2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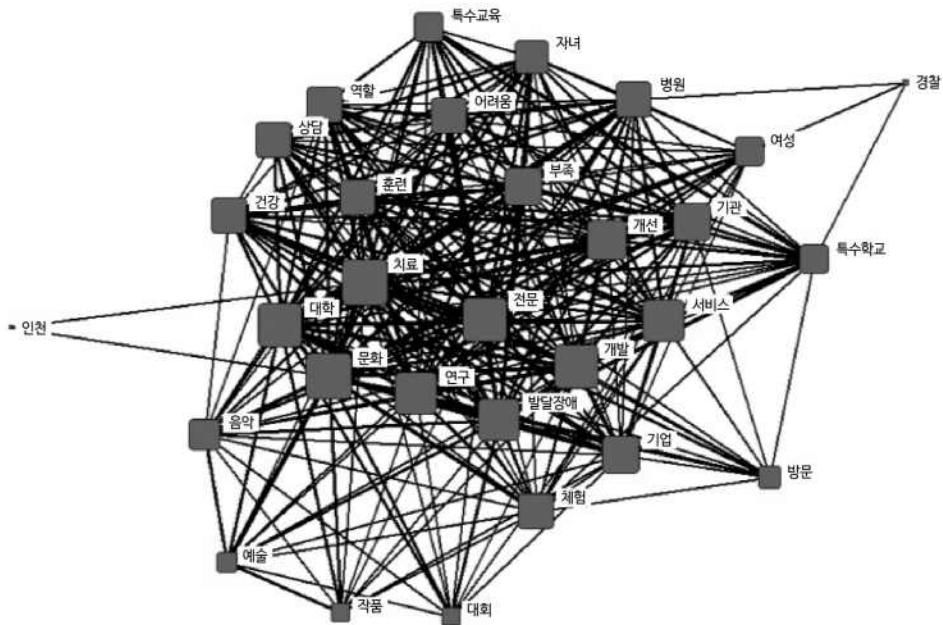
## 나. 네트워크 분석

### 1) 전체 기간 분석

자폐성장애 학생 언론보도기사에서 추출된 상위빈출 30개 주제어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제어 간 870개의 엣지를 통해 형성된 네트워크는 [그림 4-1-31]과 같으며, 56개 미만의 엣지를 삭제한 간소화 네트워크는 [그림 4-1-32]와 같다. 자폐성장애 학생 네트워크를 살펴보면, 다른 네트워크와는 다르게 노드의 크기들이 매우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네트워크 내에 각 주제어가 가지는 연결 중심성 정도가 유사함을 의미한다.



[그림 4-1-31] 자폐성장애 학생 주제어 네트워크(TF-IDF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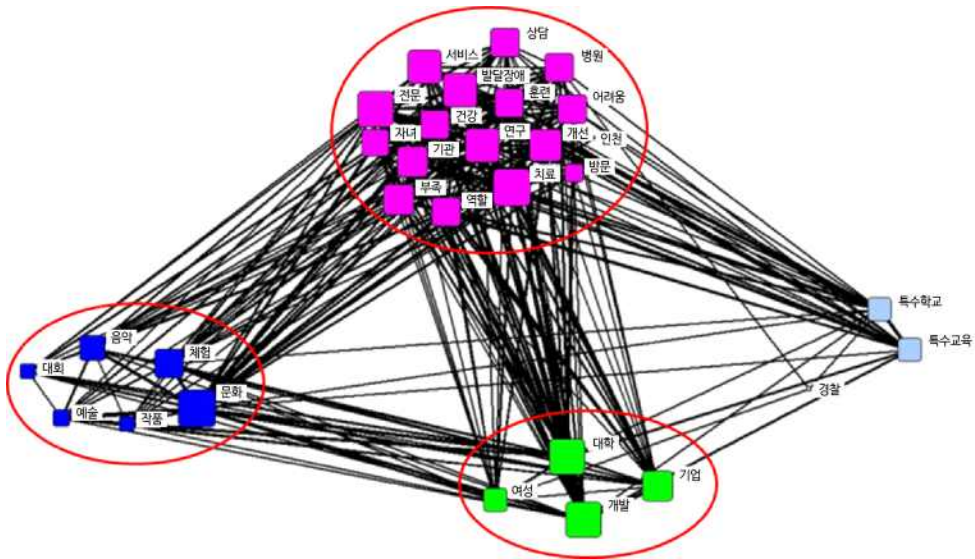
[그림 4-1-32] 자폐성장애 학생 주제어 간소화 네트워크(TF-IDF기준)

네트워크를 보다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하여 중심성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1-18>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모든 중심성 지수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 주제어는 ‘치료’로 나타나 자폐성장애 학생 언론보도 기사를 이해함에 있어 ‘치료’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문화’, ‘대학’, ‘개발’, ‘연구’ 등과 같은 주제어들이 높은 순위를 보였다. 네트워크가 ‘치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높은 중심성 지수를 보인 ‘연구’, ‘서비스’, ‘병원’ 등의 주제어들을 종합해보았을 때, 자폐성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언론기사들은 교육보다는 치료의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1-18> 자폐성장애 학생 네트워크 중심성 분석 결과

순위	연결 중심성		고유벡터 중심성		베타 중심성	
1	치료	0.556	치료	40.285	치료	1.560
2	문화	0.517	대학	33.928	문화	1.420
3	발달장애	0.470	문화	36.661	발달장애	1.321
4	대학	0.466	발달장애	34.116	대학	1.314
5	개발	0.429	개발	31.851	개발	1.234
6	전문	0.424	전문	31.433	전문	1.217
7	연구	0.411	연구	30.940	연구	1.198
8	기관	0.408	기관	30.222	기관	1.170
9	서비스	0.366	서비스	27.007	서비스	1.046
10	병원	0.345	병원	26.122	병원	1.012
11	개선	0.344	부족	25.529	부족	0.989
12	부족	0.343	개선	25.513	개선	0.988
13	기업	0.334	역할	25.040	건강	0.970
14	역할	0.333	건강	25.036	역할	0.970
15	건강	0.331	기업	24.993	자녀	0.935

네트워크의 구조를 보다 시각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CONCOR 분석을 실시한 결과, 세 개의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첫 번째 집단은 비교적 연결 중심성이 높은 노드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집단의 주제어들은 ‘발달장애’, ‘연구’, ‘서비스’, ‘개선’ 등을 포함하여 자폐성장애 학생 언론보도에서는 자폐성장애 학생을 포함하는 발달장애 관련 서비스 개선을 위한 연구 및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동일한 집단에 있는 ‘상담’, ‘치료’, ‘건강’ 등을 통해 서비스의 종류가 학생들의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문화’, ‘체험’, ‘음악’, ‘예술’ 등으로 구성된 두 번째 집단은 자폐성장애 학생들의 대회 또는 행사 활동이 음악과 예술을 중심으로 하는 것을 보여주는 집단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집단은 ‘대학’, ‘기업’, ‘개발’, ‘여성’의 적은 수의 주제어로 구성된 집단이다. 제한된 수를 가진 해당 집단은 이전 주제어 분석 결과와 함께 연구를 바탕으로 한 지원 및 서비스를 설명하는 집단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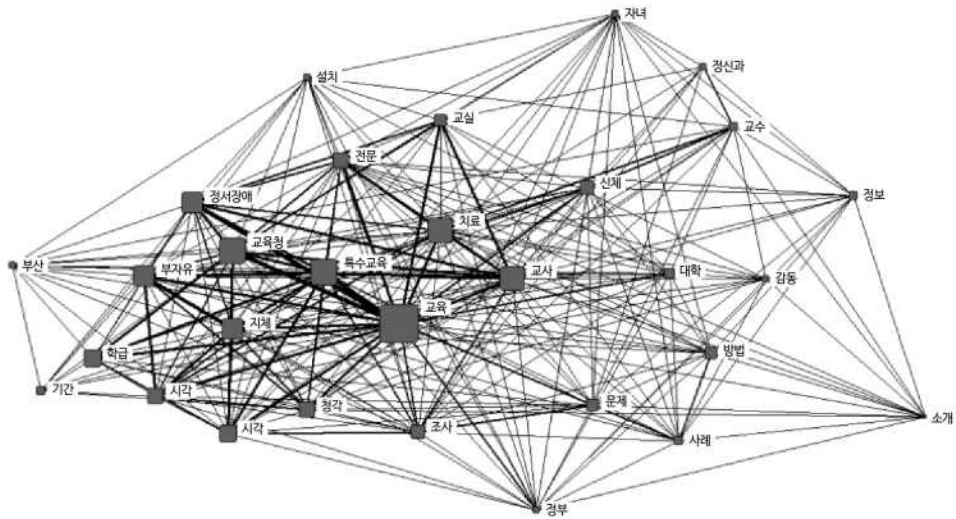


[그림 4-1-33] 자폐성장애 학생 네트워크 CONCOR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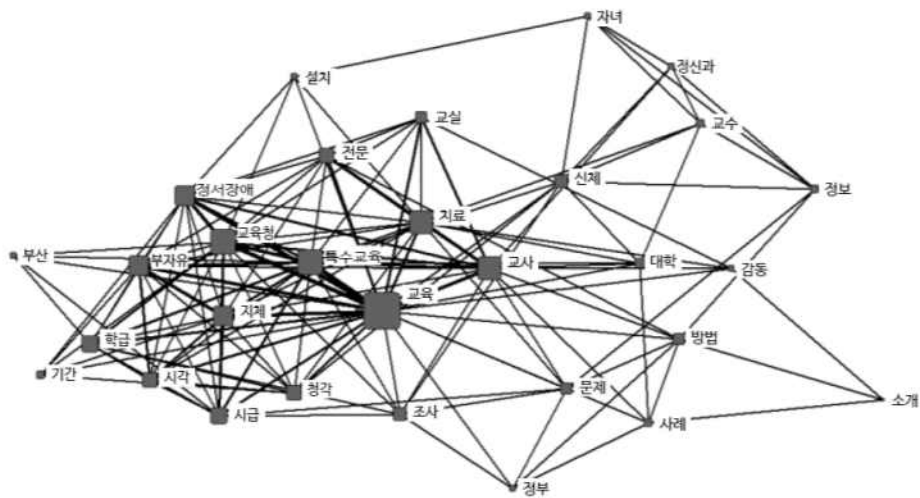
## 2) 주기별 분석

### (1) 1주기(1990년~1999년) 분석 결과

1주기에 보도된 자폐성장애 학생 언론기사의 상위빈출 30개의 주제어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 결과는 [그림 4-1-34]와 같다. 해당 네트워크는 30개의 노드와 558개의 엣지로 이루어졌으며, 네트워크의 관계를 보다 분명하게 살펴보기 위하여 2개 미만의 엣지를 삭제한 간소화 네트워크를 [그림 4-1-35]과 같이 제시하였다. 해당 네트워크는 ‘교육’을 중심으로 있으며, ‘특수교육’, ‘교육청’, ‘전문’, ‘교사’, ‘치료’ 등과의 주제어와 높은 공출현빈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1주기 네트워크가 교육을 비롯하여 치료를 지원하는 주체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4-1-34] 자폐성장애 학생 1주기 주제어 네트워크(TF-IDF기준)



[그림 4-1-35] 자폐성장애 학생 1주기 주제어 간소화 네트워크(TF-IDF기준)

이전 분석과 마찬가지로 모든 중심성 분석 결과에서 ‘교육’과 ‘특수교육’이 높은 순위를 보였으며, ‘교육청’, ‘교사’, ‘정서장애’, ‘부자유’ 등이 그 뒤를 따랐다. 교육이 강조되고, 타 장애용어가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나타

난 결과는 발달장애 학생 전체 분석의 분석 결과와 매우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연결 중심성 분석 결과에서 5위와 12위에 있던 ‘치료’와 ‘조사’는 고유벡터 중심성과 베타 중심성에서 각각 8위와 15위로 그 순위가 급격히 떨어진 반면, ‘학급’은 15위에서 12위로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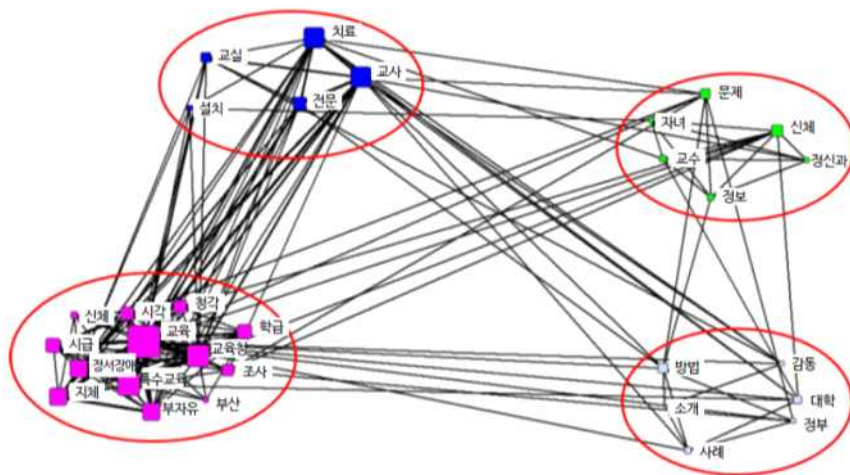
CONCOR 분석을 통해 네트워크의 구조를 파악한 결과, 네 개의 집단이 확인되었다. 첫 번째 집단은 ‘교육’을 중심으로 ‘교육청’, ‘교육’ 등의 주제어가 자폐성장애를 포함하는 ‘정서장애’는 물론 ‘지체’, ‘시각’, ‘청각’ 등의 다른 장애집단과 함께 집단을 형성하여 자폐성장애를 비롯한 다양한 집단의 교육 관련 논의가 이루어졌음을 시사한다. 두 번째는 ‘치료’, ‘교사’, ‘전문’, ‘교실’, ‘설치’의 주제어를 포함하는 집단으로 이는 1994년 「특수교육진흥법」에 포함되고, 2008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과 함께 폐지되어 많은 논란이 있었던 치료교육 또는 치료교사 관련 논의와 자폐성장애 학생들의 교육 배치를 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논의가 1주기에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세 번째 집단은 ‘문제’, ‘자

<표 4-1-19> 자폐성장애 학생 1주기 네트워크 중심성 분석 결과

순위	연결 중심성		고유벡터 중심성		베타 중심성	
1	교육	0.406	교육	60.868	교육	2.358
2	특수교육	0.257	특수교육	44.775	특수교육	1.733
3	교사	0.249	교육청	42.339	교육청	1.639
4	교육청	0.238	교사	37.725	교사	1.462
5	치료	0.203	정서장애	37.212	정서장애	1.440
6	정서장애	0.195	부자유	33.788	부자유	1.308
7	부자유	0.188	지체	33.788	지체	1.308
8	지체	0.188	치료	30.516	치료	1.183
9	전문	0.172	전문	28.791	전문	1.115
10	시각	0.153	시각	28.046	시각	1.085
11	시급	0.146	시급	25.485	시급	0.987
12	조사	0.146	학급	24.292	학급	0.9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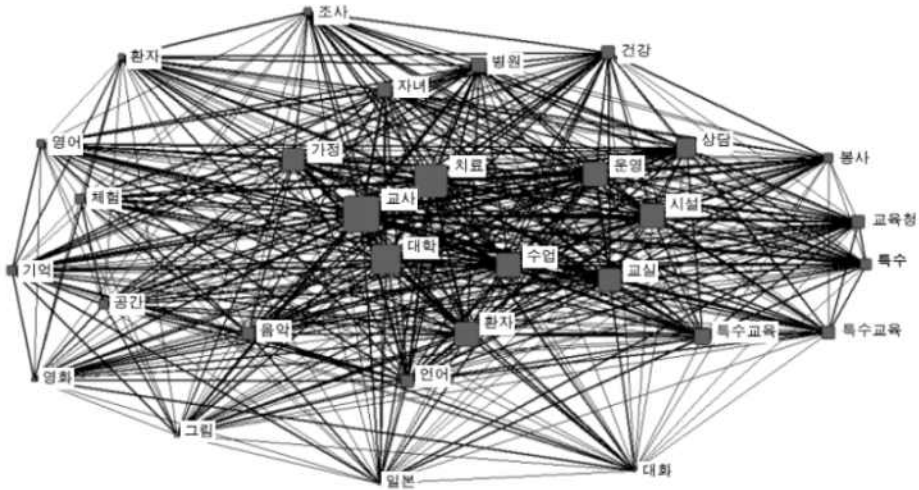
녀’, ‘신체’, ‘정신과’, ‘정보’ 등 6개의 주제어로 구성된 집단으로 해당 집단은 자녀가 보이는 자폐성장에 관련 문제나 정보를 포함한 언론보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방법’, ‘대학’, ‘사례’, ‘감동’ 등의 주제어를 포함한 네 번째 집단은 대중의 관심을 끌고 많은 이에게 감동을 전할 수 있는 자폐성장애 학생의 성공사례나 미담이 소개된 언론보도를 나타내는 집단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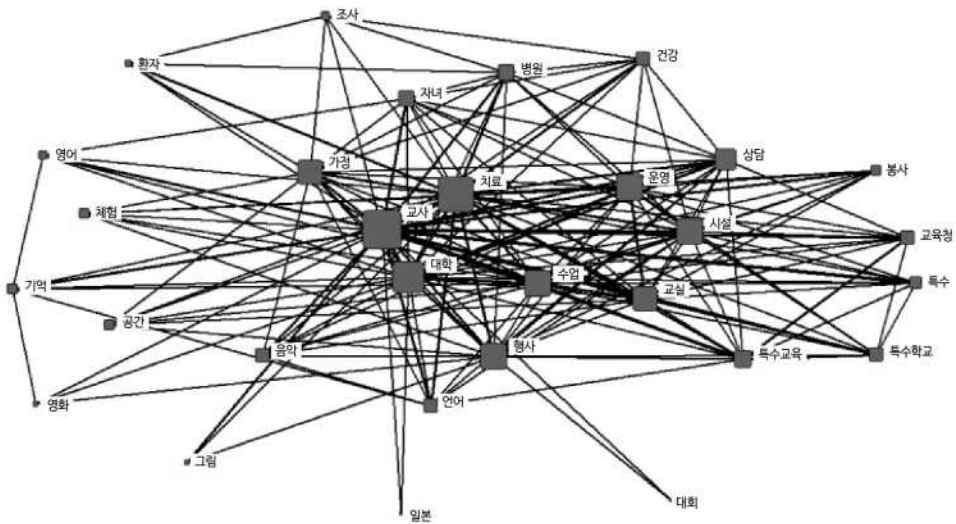
[그림 4-1-36] 자폐성장애 학생 1주기 네트워크 CONCOR 분석 결과

## (2) 2주기(2000년~2009년) 분석 결과

자폐성장애 학생 언론보도기사의 2주기 주제어 네트워크 분석 결과, 30개의 주제어가 868개의 엣지를 통해 [그림 4-1-37]과 같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개 미만의 엣지를 삭제한 간소화 네트워크를 통해 그 구조를 살펴본 결과, ‘치료’, ‘교사’, ‘대학’ 등의 주제어가 2주기 네트워크를 설명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 네트워크에 중심에 위한 ‘치료’와 ‘교사’가 ‘교실’, ‘수업’, ‘운영’ 등의 주제어 사이에 높은 공출현빈도는 1주기에 나타난 치료교육 및 치료교사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음을 시사한다.



[그림 4-1-37] 자폐성장애 학생 2주기 주제어 네트워크(TF-IDF기준)



[그림 4-1-38] 자폐성장애 학생 2주기 주제어 간소화 네트워크(TF-IDF기준)

중심성 분석 결과, 높은 중심성을 보인 상위 15개 주제어는 <표 4-1-20>에 순위에 따라 제시하였다. 모든 분석에서 ‘교사’가 가장 높은 중심성을 보였으며, ‘치료’, ‘수업’, ‘대학’, ‘운영’, ‘가정’이 그 뒤를 이었다. 다수의 주제어의 순위는 분석에 따라 변하지 않았으나, 연결 중심성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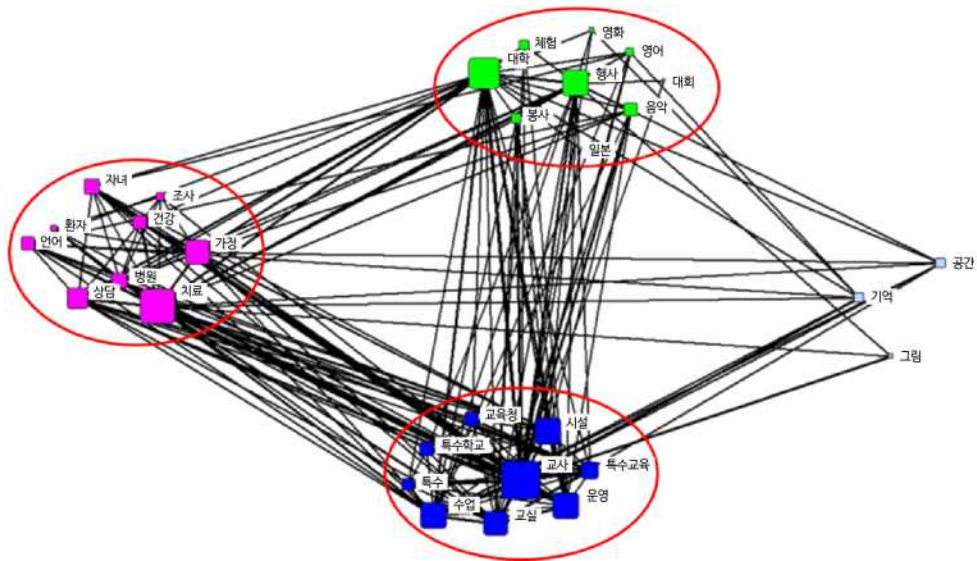
수에서 9위를 보인 ‘교실’이 고유벡터 및 베타 중심성 지수에서 7위로 그 순위가 높아졌다. 연결 및 고유베타 중심성에서 13위를 보인 ‘음악’ 또한 베타 중심성에서는 12위로 순위가 변화하였다.

<표 4-1-20> 자폐성장애 학생 2주기 네트워크 중심성 분석 결과

순위	연결 중심성		고유벡터 중심성		베타 중심성	
1	교사	0.504	교사	55.466	교사	2.149
2	치료	0.374	치료	43.189	치료	1.673
3	수업	0.285	수업	35.363	수업	1.369
4	대학	0.283	대학	33.420	대학	1.294
5	운영	0.265	운영	31.804	운영	1.232
6	가정	0.239	가정	29.032	가정	1.124
7	행사	0.236	교실	28.885	교실	1.119
8	시설	0.235	시설	28.290	시설	1.096
9	교실	0.233	행사	27.911	행사	1.081
10	상담	0.220	상담	26.908	상담	1.042
11	특수교육	0.211	특수교육	26.613	특수교육	1.030
12	언어	0.195	언어	23.227	음악	0.910
13	음악	0.193	음악	23.499	언어	0.900
14	병원	0.190	병원	23.005	병원	0.891
15	자녀	0.187	자녀	22.983	자녀	0.890

2주기 네트워크의 CONCOR 분석 결과, 총 세 개의 집단이 형성되었으며, 이들 집단은 모두 비슷한 수의 주제어들로 구성되었다. 비교적 높은 중심성을 가진 주제어로 구성된 첫 번째 집단은 ‘교사’를 중심으로 ‘운영’, ‘수업’, ‘교실’, ‘시설’, ‘특수교육’, ‘특수학교’ 등을 포함한다. 해당 집단은 자폐성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어떠한 형태와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주제어들로 네트워크가 형성됨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집단은 ‘치료’를 중심으로 구성된 집단으로 ‘가정’, ‘자녀’, ‘상담’ 등의 주제어를 포함한다. 이 집단에서 사용되는 주제어들을 통해 자폐성장애 학생 언론보도기사에서 언급된 ‘치료’가 자폐성장애 학생은 물론 이들의 가족을 고려한 내용임을 의미한다. 마지막 세 번째 집단은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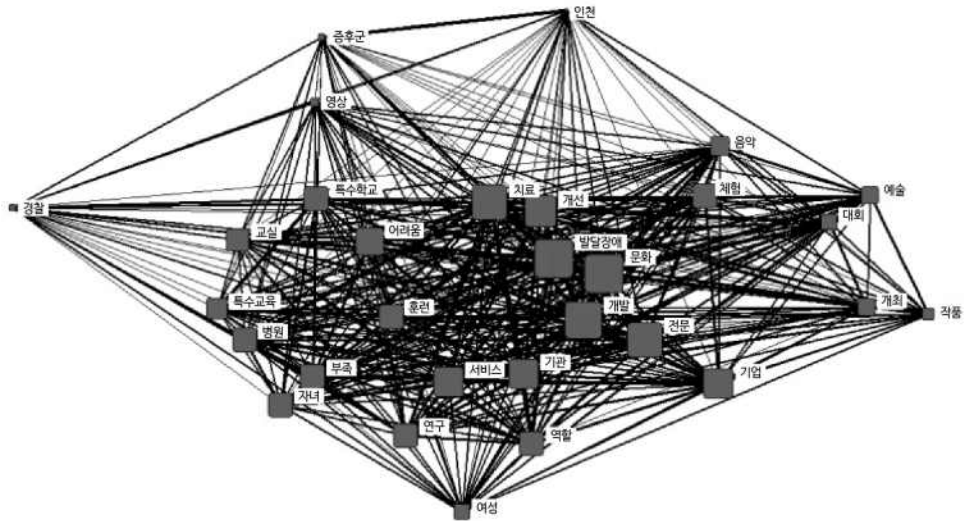
학’과 ‘행사’를 중심으로 구성된 네트워크로 ‘체험’, ‘봉사’, ‘음악’, ‘영화’ 등의 주제어를 포함한다. 이는 대학에서 자폐성장애 학생과 관련된 다양한 체험과 봉사를 실시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결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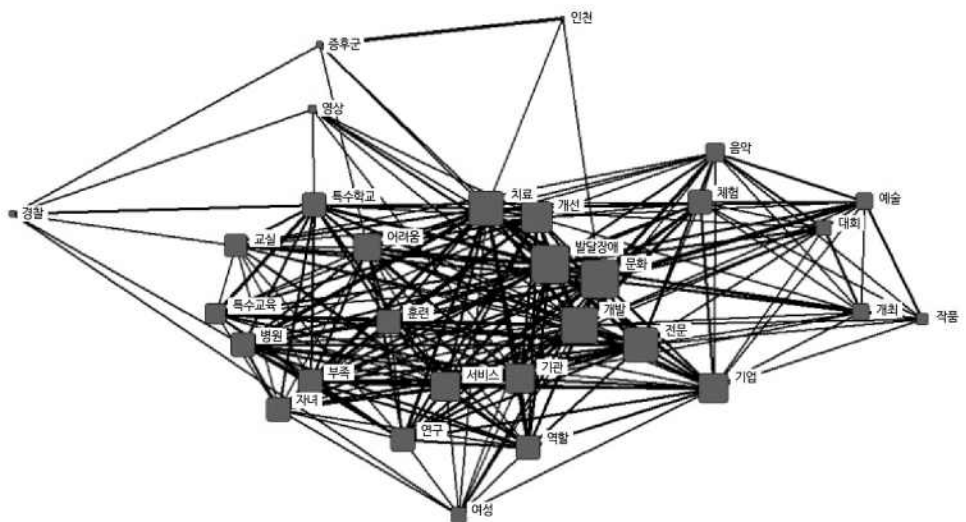
[그림 4-1-39] 자폐성장애 학생 2주기 네트워크 CONCOR 분석 결과

### (3) 3주기(2010년~2019년) 분석 결과

2010년부터 2019년 4월까지의 자폐성장애 학생 언론보도기사의 상위 빈출 30개의 주제어의 네트워크를 분석한 결과는 [그림 4-1-40]과 같다. 3주기의 네트워크는 ‘치료’, ‘발달장애’, ‘문화’, ‘개발’ 등의 주제어를 중심으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관계를 보다 분명하게 살펴보기 위해 830개의 엣지 중, 공출현빈도가 50개 미만인 엣지를 삭제하여 [그림 4-1-41]과 같이 표현되었는데, 여러 주제어 중에서도 ‘치료’, ‘기관’, ‘역할’ 등의 관계가 상대적으로 강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1-40] 자폐성장애 학생 3주기 주제어 네트워크(TF-IDF기준)



[그림 4-1-41] 자폐성장애 학생 3주기 주제어 네트워크(TF-IDF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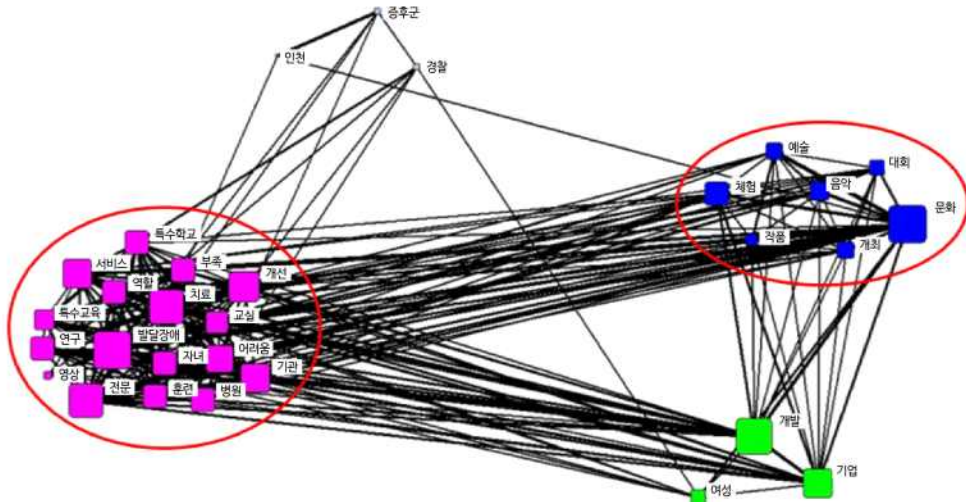
3주기 네트워크에서 각 주제어가 가지는 상대적 영향 정도를 살펴보기 위한 중심성 분석 결과는 <표 4-1-21>와 같다. 분석 결과, 연결 중심성, 고유벡터 중심성, 그리고 베타 중심성의 순위는 비슷하게 관찰되었

으며, 모든 분석에서 ‘발달장애’가 가장 높은 중심성 지수를 보였다. 이는 발달장애 학생 주기별 분석에서 처음 관찰된 주제어로 자폐성장애를 포함하는 발달장애 용어가 일반화됨에 따라 나타난 현상으로 해석된다. 학교 또는 교육과 관련된 이전 분석과는 다르게 ‘문화’, ‘서비스’, ‘기업’ 등의 다양한 주제가 3주기에 주요하게 다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21> 자폐성장애 학생 3주기 네트워크 중심성 분석 결과

순위	연결 중심성		고유벡터 중심성		베타 중심성	
1	발달장애	0.516	발달장애	39.518	발달장애	1.531
2	치료	0.490	치료	38.238	치료	1.481
3	문화	0.484	문화	36.568	문화	1.417
4	개발	0.422	개발	33.330	개발	1.291
5	전문	0.410	전문	32.459	전문	1.257
6	기관	0.402	기관	32.078	기관	1.242
7	연구	0.366	연구	29.385	연구	1.138
8	서비스	0.355	서비스	28.217	서비스	1.093
9	개선	0.348	개선	27.658	개선	1.071
10	부족	0.334	부족	26.763	부족	1.036
11	기업	0.329	병원	26.609	병원	1.030
12	병원	0.328	기업	26.302	기업	1.019
13	특수학교	0.328	훈련	25.849	역할	1.006
14	역할	0.325	어려움	25.663	훈련	1.001
15	어려움	0.324	특수학교	25.633	어려움	0.994

네트워크를 보다 시각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CONCOR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그림 4-1-42]와 같다. 3주기 네트워크는 크게 두 개의 집단으로 구분되는데, ‘발달장애’, ‘치료’ 등의 주제어로 구성된 첫 번째 집단은 교육 및 서비스 관련 문제와 개선 방안과 관련된 주제어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또한 두 번째 집단에서는 ‘문화’를 중심으로 ‘체험’, ‘음악’, ‘예술’, ‘작품’ 등의 주제어가 포함되어 있어 자폐성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 행사와 관련된 집단으로 해석된다.



[그림 4-1-42] 자폐성장애 학생 3주기 네트워크 CONCOR 분석 결과

## 제 2 절 토픽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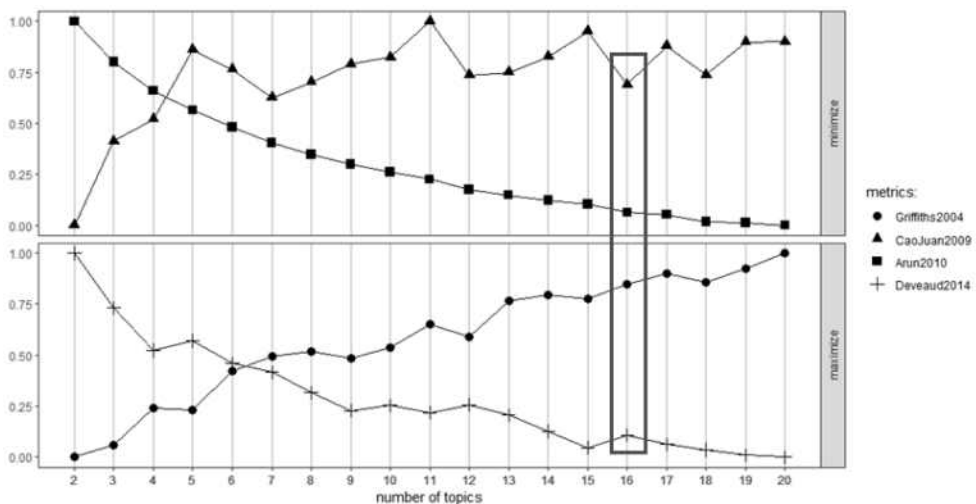
잠재 디리클레 할당(LDA) 기법은 관련 단어들의 토픽을 감지하여 잠재적인 대량의 자료에 잠재된 토픽을 추출하고 해당 토픽에 단어를 할당하는 일반적인 텍스트 분류 알고리즘이다(Arun et al., 2010; Blei et al. 2003). LDA는 대량의 자료에서 주제를 요약하고 제시할 수 있으며, 안정적이고 반복 가능한 결과를 제공한다는 장점을 가진다(Cao et al., 2009; Nkhoma et al., 2019; Ponweiser, 2012). 이하에서는 LDA 기반 토픽 모델링 분석을 수행하여 발달장애 학생, 지적장애 학생, 자폐성장애 학생 언론보도기사의 토픽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 1. 발달장애 학생 언론보도기사 토픽 분석

#### 가. 전체 기간 분석

발달장애 학생과 관련된 언론보도는 총 15,616건으로 1990년 1월부터

데이터 수집시기인 2019년 4월까지의 기사를 포함한다. 수집된 전체 언론보도기사에 잠재된 토픽의 수를 탐색한 결과는 [그림 4-2-1]과 같다. Cao et al.(2009)의 알고리즘을 제외한 다른 매트릭스들은 완만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곡선을 나타내며 특정한 추정치를 제공하지 않기에 Cao et al.(2009)의 결과를 기준으로 적정 토픽 수를 제공하였다. 이와 같이 하나의 결과를 분석할 때에는 하나의 곡선에서 낮은 점 3개를 선택하여 범위를 지정하게 된다(Guillemette, Zhou, & Mills, 2018). 본 분석에서 가장 낮은 점은 10, 16, 18로 토픽의 수가 10개에서 18개 사이에 위치하는 것이 적정함을 의미한다. 이에 발달장애 학생 언론보도기사의 적정 토픽 수는 산출된 범위 내에 가장 낮은 값을 보인 16개로 최종 결정하였다.



[그림 4-2-1] LDA 모델의 적정 토픽 수 탐색 결과

발달장애 학생 언론보도기사에 잠재된 토픽의 수를 16개로 설정하여 LDA 기반 토픽 모델링 분석을 수행하였다. 15,616건의 언론보도기사 중, 분석에 충분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은 기사 62건을 제외한 분석 결과는 <표 4-2-1>에 제시하였다. LDA분석은 하나의 언론보도기사가 여러 개의 토픽을 포함할 수 있음을 가정한다. 이에 해당 문서가 모든 토픽에



포함될 수 있는 확률점수를 계산하고, 그 중 가장 큰 점수가 해당 문서를 대표하는 토픽으로 결정하였다. 추출된 토픽에 포함된 10개 단어는 LDA 기반 토픽 모델링 분석 결과 토픽에 할당된 단어로 이들의 제시 순서는 출현빈도를 의미하지 않는다. 연구자는 산출된 토픽에 할당된 단어와 토픽별 언론보도기사를 검토하여 토픽명을 부여하였으며, 특수 및 일반 교육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토픽명의 타당성을 평정하였다. 타당성 평정 결과, 3.5점 이하의 토픽명은 수정되었는데, 토픽 16개 모두 3.5점 이상으로 초기 토픽명을 유지하였다([부록 3] 참고).

<표 4-2-1> 발달장애 학생 언론보도기사 토픽 및 포함단어 10개

토픽 단어	1	2	3	4	5	6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통합교육	대회 및 행사	사회보호 관리	특수교육	체험활동 프로그램
1	진행	교사	행사	종합	학교	진행
2	경제	학교	전국	이용	특수학교	프로그램
3	참여	수업	대회	지역	교육청	체험
4	제공	교실	참가	상담	특수교육	제공
5	활동	지적장애	개최	센터	지적장애	참여
6	기업	학부모	경기	시설	교사	활동
7	사회	지도	협회	생활	교육	마련
8	프로그램	교육	진행	사회	학부모	실시
9	지속	서울	참여	보호	서울	운영
10	구성	현장	지적장애	관리	전국	문화
문서 수 (%)	1,251 (8.04)	1,179 (7.58)	1,477 (9.50)	829 (5.33)	1,150 (7.39)	848 (5.45)
토픽 단어	7	8	9	10	11	12
	조사결과 발표	교육시설 설립	성범죄	자폐성장애 학생사례	장애이해	서비스 지원확대
1	문제	지역	사건	자폐성장애	이해	지원
2	내용	계획	조사	성장	인식	개발

6	발표	사업	피해자	서울	노력	활용
7	수준	추진	성폭행	사회	설명	교육
8	방법	운영	발생	대학	문제	사업
9	설명	지원	보호	설명	방법	서비스
10	사용	센터	여성	관심	능력	현장
문서 수 (%)	900 (5.79)	785 (5.05)	2,443 (15.71)	772 (4.96)	695 (4.47)	700 (4.50)
토픽 단어	13	14	15	16		
	지적장애 학생사례	사회봉사활동	직업훈련센터	발달모니터링		
1	지적장애	봉사	직업	학부모		
2	서울	활동	훈련	치료		
3	사랑	전달	교육	병원		
4	생활	사랑	발달	학교		
5	사회	직원	센터	도움		
6	가족	사회	지원	가족		
7	희망	방문	제공	필요		
8	준비	가정	프로그램	상태		
9	학교	단체	전문	건강		
10	행사	행복	기관	생활		
문서 수 (%)	586 (3.77)	705 (4.53)	692 (4.45)	542 (3.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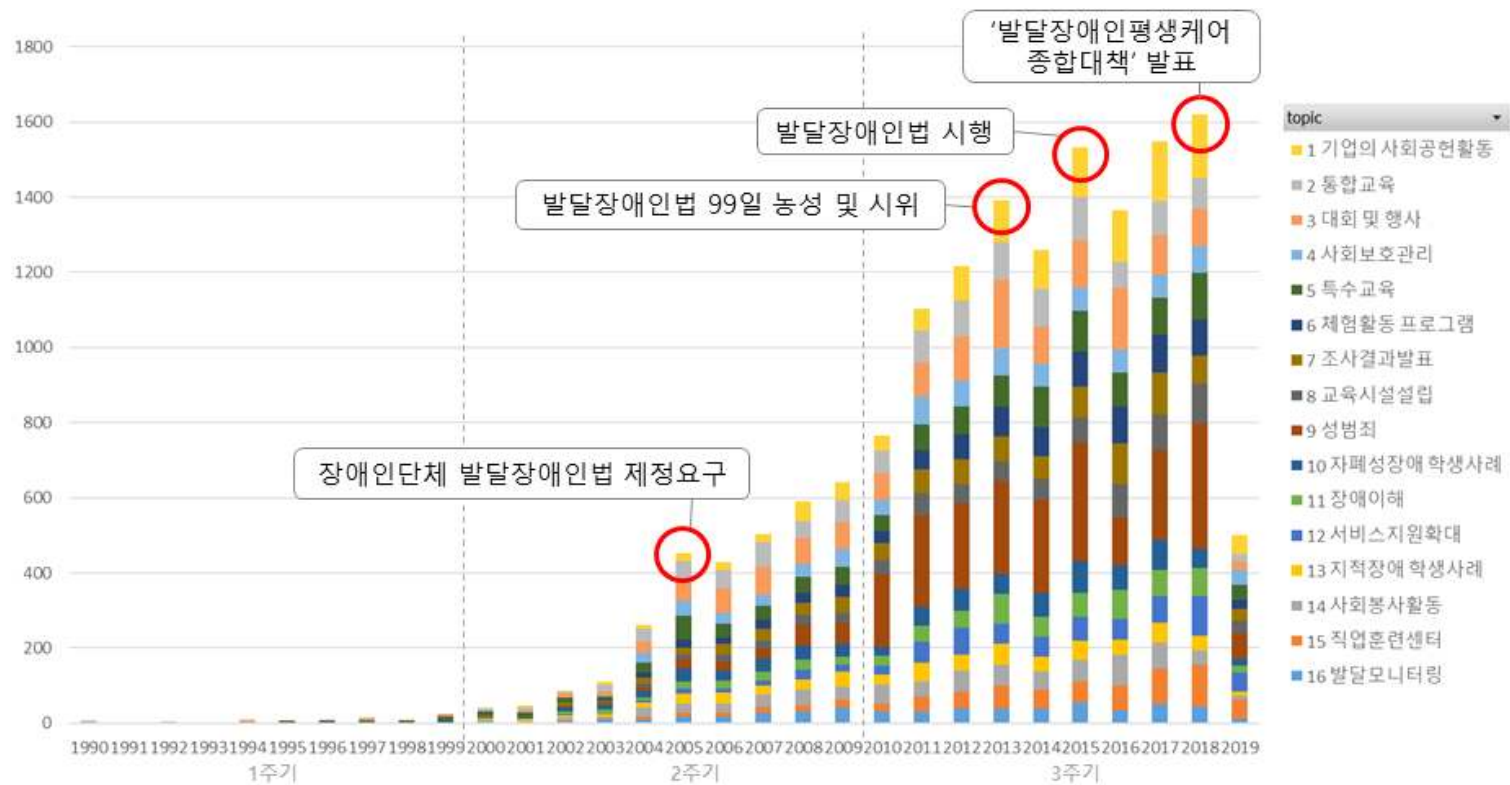
16개 토픽 중 가장 많은 문서를 포함하고 있는 토픽은 ⑨성범죄로 나타났다으며, ③대회 및 행사, ①기업의 사회공헌활동, ②통합교육, ⑤특수교육 등이 그 뒤를 따랐다. 분석기간 동안 이들의 변화 경향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30년간의 언론보도기사의 연도별 토픽 기사의 빈도를 [그림 4-2-2]와 같이 나타내었다.

발달장애 학생과 관련된 언론보도는 2000년대에 점차 그 빈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이는 1999년 2월 8일 장애인복지법 전문과 1999년 12월 30일 동일 법령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발달장애’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처음 사용됨에 따른 변화로 해석된다. 특히, 2005년에 언론보도기사의 빈도가 비교적 급격하게 상승하는 양상을 보여 발달장애 학생에 대

한 언론보도의 관심이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를 의미하는 3주기 발달장애 학생 언론보도기사의 빈도분석 결과 중, 2019년도의 분석 결과는 4개월의 언론보도만을 포함하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가 요구된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이들에 대한 언론의 관심은 꾸준히 높아졌고, 2013년, 2015년, 그리고 2018년도에 언론의 관심이 특히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를 야기한 주요 원인으로 「발달장애인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을 꼽을 수 있다. 발달장애인법에 대한 요구는 장애인단체들에 의해 2005년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발달장애인법」은 2007년 지적장애인 등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성안된 이후, 약 9년 동안 장애인 부모단체들의 절박한 호소와 노력으로 법제화되었다. 장애인 부모단체들은 「발달장애인법」 제정 간담회를 개최함은 물론 2012년 한국장애인부모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한국장애인사랑협회는 발달장애인법 제정추진연대를 구성하고, 2013년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요구하는 99일간의 농성 및 시위를 진행하는 등의 지속적인 노력 끝에 「발달장애인법」은 2014년 5월 20일 입법 고시되고, 2015년 11월 21일 시행되었다(김희선, 2018). 법이 고시되고 시행되기까지도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어 법령 시행에 있어 실제적인 검토 절차가 비교적 오랜 시간 이루어졌으며, 이와 관련된 논의도 다수 이루어졌음을 시사한다. 이밖에도 2015년 10월 21일 서울 동대문구에 발달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센터(서울커리어월드)가 착공되기 시작하면서 또 다른 갈등이 고조되는 시기였다.

또한 2018년도는 학령인구 감소에도 장애학생 수가 계속 늘어나 9만 명을 넘으면서 국가 및 국민의 특수교육필요성 및 인식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시기이다. 본 연구의 분석에 포함된 약 30년의 기간 중, 가장 높은 언론보도기사 빈도를 보인 것도 이를 반증하는 결과로 보인다. 더불어 2018년도 문재인 정부가 9월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 발표 및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2018년까지 논란이 되었던 특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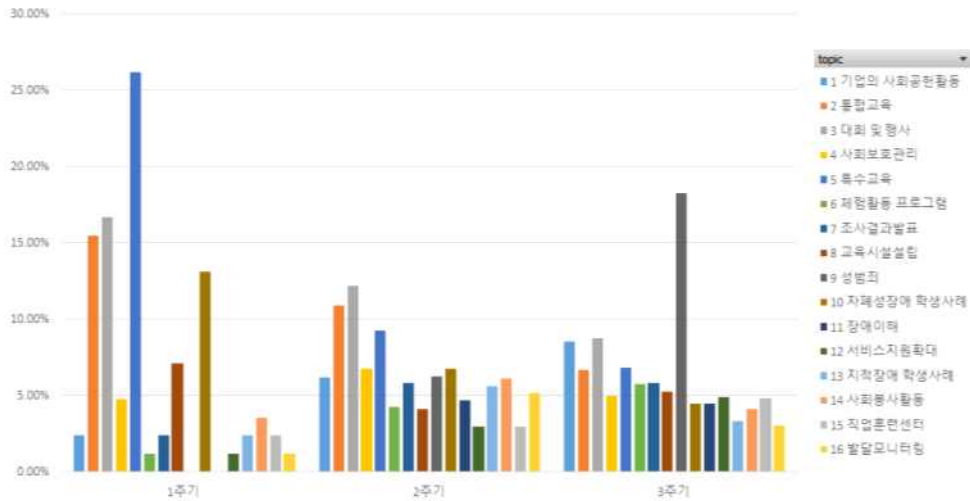
[그림 4-2-2] 발달장애 학생 언론보도기사 연도별 토픽 기사 빈도

학교의 설립을 보장하고, 다양한 지원에 대해 공포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다양한 논의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이는 ⑧교육시설설립, ⑫서비스지원확대, ⑮직업훈련센터 등의 토픽이 3주기부터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그림 4-2-2]의 변화를 통해서도 설명된다. 이처럼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이들의 생애주기 특성에 따른 지원서비스와 관련된 다양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발달장애인법」 제정은 발달장애 학생에 대한 높아진 언론의 관심을 설명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 나. 주기별 분석

LDA 기반 토픽 모델링 분석을 통해 추출된 16개 토픽에 대한 언론의 주기별 관심도를 분석하여 주기별로 변화해온 언론보도기사의 변화 경향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주기는 1900년부터 1999년까지 1주기, 2000년부터 2009년까지는 2주기, 그리고 2010년부터 2019년 4월까지 3주기로 구분되었다. 언론의 주기별 관심도는 특정 토픽의 언론보도기사 수가 주기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되었으며, 이를 [그림 4-2-3]과 같이 제시하였다.

주기별 토픽 관심도를 살펴보면, 1주기에서 다루어지는 토픽의 수가 다른 주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알 수 있으며, 토픽 간의 관심도 편차가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1주기에 가장 높은 관심을 받은 토픽은 ⑤특수교육으로 나타났으며, ③대회 및 행사, ②통합교육, ⑩자폐성장애 학생사례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언론의 관심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주기의 경우, 1주기에 보도되지 않았던 ⑨성범죄와 ⑪장애이해에 대한 언론보도기사가 새롭게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대회 및 행사, ②통합교육, ⑤특수교육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지만, 2주기에서 다루어지는 토픽의 관심도의 편차가 비교적 고른 형태를 보여 1주기에 관찰된 토픽 간 편차가 많이 완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마지막으로 3주기에 경우, 토픽 간 편차가 더욱 더 고른 형태를 보이고 있으나 ⑨성범죄에 대한 언론의 관심도가 현저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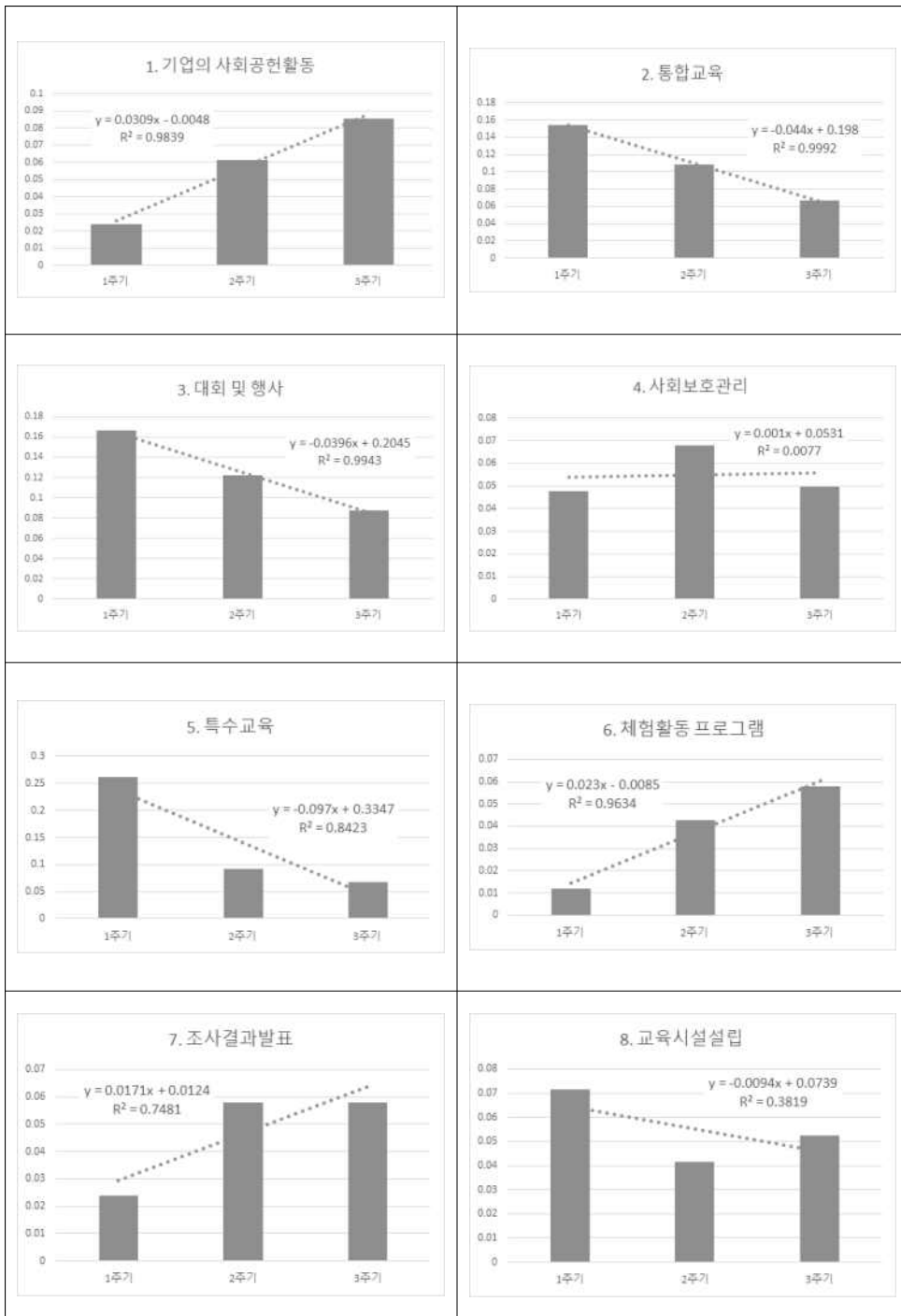


[그림 4-2-3] 발달장애 학생 언론보도기사 주기별 토픽 관심도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1주기에는 전혀 보도되지 않은 성범죄 관련 언론기사가 3주기에 가장 높은 관심도를 보인 것은 우리사회에 높아진 성범죄율 또는 자극적인 기사를 반복적으로 보도하는 언론보도 경향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발달장애 학생관련 언론보도는 1900년대 특수교육, 통합교육과 같이 교육 관련 토픽에 대한 집중된 관심이 2000년대 이후 점차 다양해짐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교육 위주의 논의가 생활지원과 서비스 지원 관련 논의로 확장되었음을 검증한 이전의 분석들과 같은 경향성을 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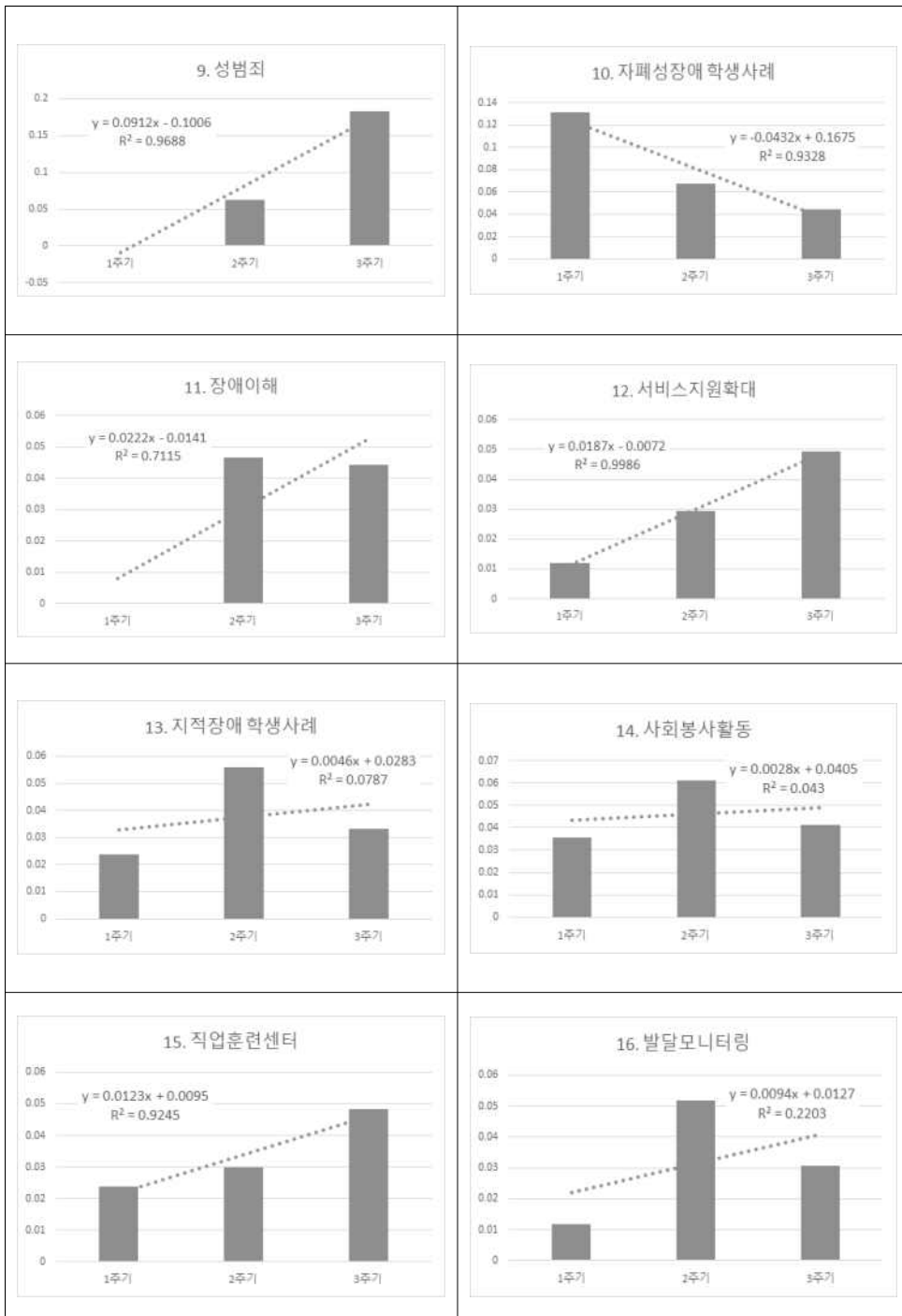
주기별 토픽의 관심도 변화 경향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토픽별 변화 추세를 [그림 4-2-4]와 같이 나타내었다. 추세선의 기울기를 통해 토픽 관심도의 주기별 변화 경향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주기에 따라 언론의 관심이 높아진 토픽은 ⑨성범죄(.091), ①기업의 사회공헌활동(.039), ⑥체험활동 프로그램(.023), ⑪장애이해(.022), ⑫서비스지원확대(.019), ⑦조사결과발표(.017), ⑮직업훈련센터(.012)로 나타났다. 반면, 주기에 따라 언론의 관심이 감소된 토픽은 ⑤특수교육(-.097), ②통합교육(-.044), ⑩자폐성장애 학생사례(-.043), ③대회 및 행사(-.040)이다. 추세선의 기울기가 0에 가까운 값을 보여 언론의 지속적

인 관심을 알 수 있었던 토픽은 ④사회보호관리(.001), ⑭사회봉사활동(.003), ⑬지적장애 학생사례(.005), ⑧교육시설설립(-.009), ⑯발달모니터링(.009)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4-2-4] 발달장애 학생 언론보도기사 토픽 관심도 변화 경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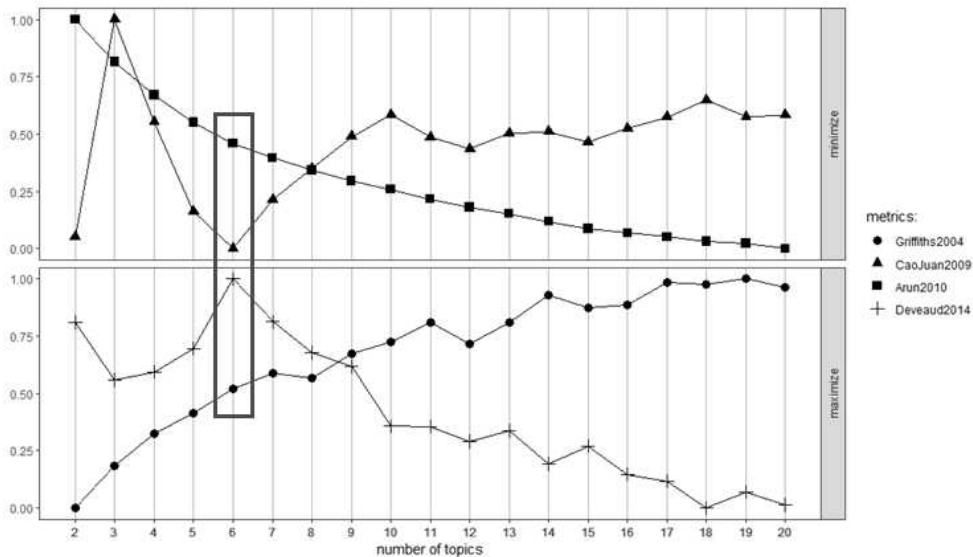


[그림 4-2-4] 발달장애 학생 언론보도기사 토픽 관심도 변화 경향(계속)

## 2. 지적장애 학생 언론보도기사 토픽 분석

### 가. 전체 기간 분석

발달장애 학생 언론보도의 동향 및 관심도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언론보도기사를 발달장애의 유형인 지적장애 학생과 자폐성장애 학생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지적장애 학생 언론보도기사는 1990년 1월부터 30년간 총 8,890건이 수집되었으며, 이들에 대한 적정 토픽 수 분석 결과는 [그림 4-2-5]과 같다. 분석 결과, 완만한 곡선을 보이는 Arun et al.(2010)와 Griffiths & Steyvers(2004)의 알고리즘을 제외하고 Cao et al.(2009)와 Deveaud et al.(2014)의 알고리즘에서 생성된 매트릭스가 최저점과 최고점이 되는 6개가 지적장애 학생 언론보도기사의 적정 토픽 수로 분석되었다.



[그림 4-2-5] LDA 모델의 적정 토픽 수 탐색 결과

지적장애 학생 언론보도기사의 잠재 토픽 수를 6개로 설정하여 LD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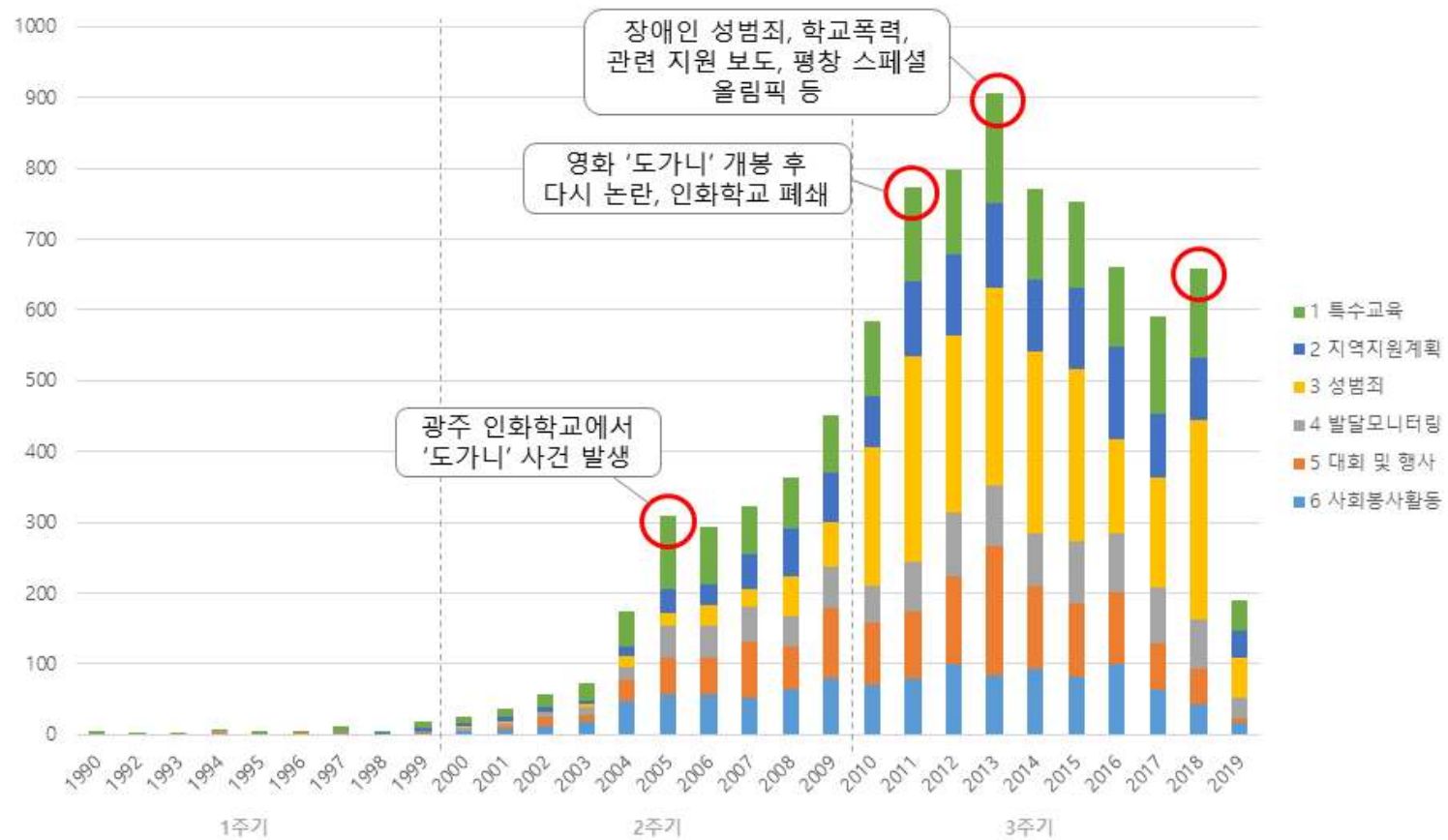
기반 토픽 모델링 분석을 수행하였다. 총 8,890건의 언론보도기사 중, 분석에 충분한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은 35건의 언론보도기사를 제외한 분석 8,855건의 언론보도기사를 분석한 결과, 총 6개의 토픽이 추출되었으며, 이들에 대한 타당성 평정 결과 3.5점 이하의 토픽명을 수정하여 <표 4-2-2>에 제시하였다([부록 4] 참고).

<표 4-2-2> 지적장애 학생 언론보도기사의 토픽 및 포함단어 10개

토픽 단어	1	2	3	4	5	6
	특수교육	지역 지원계획	성범죄	발달 모니터링	대회 및 행사	사회 봉사활동
1	학교	지원	경찰	학부모	행사	사회
2	교사	운영	조사	문제	참여	활동
3	교육	계획	사건	필요	전국	사랑
4	특수학교	기관	혐의	치료	진행	생활
5	학부모	실시	성폭행	서울	기회	봉사
6	교육청	센터	피해	설명	문화	가정
7	특수교육	경제	보호	가족	대회	시설
8	교실	제공	여성	관심	프로그램	지원
9	수업	교육	결과	병원	체험	복지
10	서울	사업	피해자	교수	협회	방문
문서 수 (%)	1,740 (19.65)	1,273 (14..38)	2,348 (26.52)	1,015 (11.46)	1,338 (15.11)	1,141 (12.89)

지적장애 학생 언론보도기사를 나타내는 6개 토픽 중, ③성범죄가 가장 많은 기사를 포함하였으며, ①특수교육, ⑤대회 및 행사, ②지역지원 계획 등의 토픽 순으로 많은 기사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적장애 학생 언론보도는 1990년 1월부터 30년간 총 8,890건으로 자폐성장애 관련 언론보도에 비해 2배 이상의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이들의 빈도를 연도별로 분석한 결과는 [그림 4-2-6]과 같다. 이전 분석 결과와 동일하게 2000년대를 시작으로 지적장애 학생에 대한 언론에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하였으며, 그 관심이 빠르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10년 이후를 의미하는 3주기에서도 지속적으로 높아지던 발달



[그림 4-2-6] 지적장애 학생 언론보도기사 연도별 토픽 기사 빈도

장애 학생 언론보도기사 전체분석 결과와 다르게 지적장애 학생 언론보도는 2013년을 기준으로 점차 감소하다가 2017년을 기점으로 다시 향상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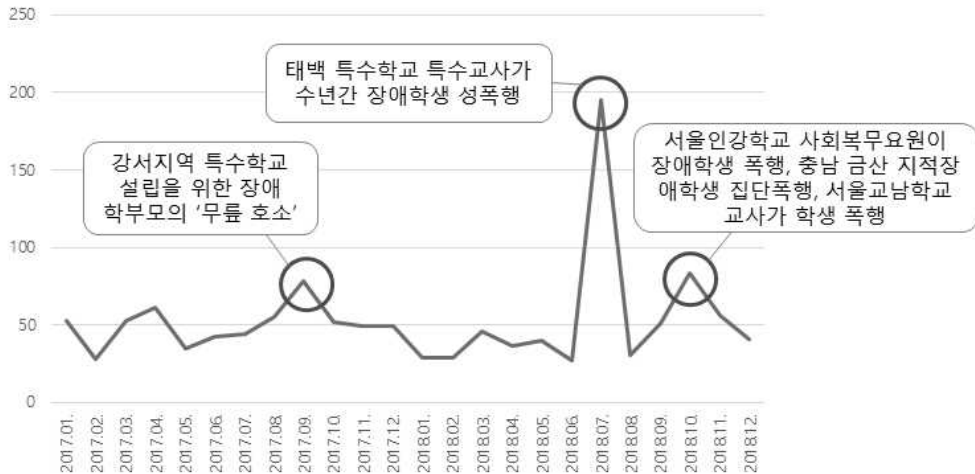
비교적 낮은 빈도를 보이던 지적장애 학생 언론보도는 2005년도에 급격하게 상승하였고, 상승곡선은 2013년까지 유지되었다. 발달장애 학생 언론보도의 약 56%를 차지하고 있는 지적장애 학생 언론보도기사 빈도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5년부터 2011년도까지 언론보도 변화는 ‘도가니’ 사건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고 해석된다. 도가니 사건은 2005년도 광주 청각장애 특수학교인 인화학교에서 청각장애와 지적장애를 가진 중복장애학생 등을 대상으로 상습적인 성범죄가 이루어진 사건으로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이는 2005년도부터 급격하게 증가하는 ③성범죄의 빈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그림 4-2-6] 참고). 해당 사건으로 인해 장애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성범죄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매우 높아졌으며, 인화학교 도가니 사건을 비롯하여 장애학생들을 대상으로 발생한 성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특수교육의 문제 등에 대한 언론의 질타가 이어지기도 했다. 이 사건은 2009년 소설가 공지영이 해당 사건을 책으로 출간되고, 2011년에는 영화로 개봉되며 다시 논란이 되었다. 영화가 개봉된 2011년에 광주 인화학교의 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되었는데, 이는 사회적 논란을 의식하여 취한 ‘뒷북행정’으로 평가되어 언론의 비난을 피하지 못하였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종합치안대책을 발표하거나 친고죄 규정, 항거불능 조항 등을 삭제하는 등 국가 차원의 대응 또한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도되었으며, 이는 [그림 4-2-6]의 ②지역지원계획 및 ④발달모니터링의 비율로도 나타난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도 성범죄나 학교폭력 같은 사건들이 생길 때마다 언론의 주목을 받았는데, 2013년도에 유독 높은 빈도가 나타난 이유는 평창에서 진행된 스페셜올림픽과 관련하여 선수들의 이야기와 다짐과 함께 올림픽과 관련된 장애학생들의 봉사 및 응원활동 등이 다양한 형태로 언론에 보도된 결과로 해석된다.

2013년 이후 하락세를 보이던 지적장애 학생 언론보도는 2017년을 기점으로 다시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2017년도 9월 서울시 강서지역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주민토론회에 장애학생들의 학부모들이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무릎을 꿇고 호소하는 모습이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회적 갈등은 그 다음해인 2018년 9월 4일에 강서 특수학교 설립 합의문이 발표되기까지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이와 별개로 2018년도 언론보도를 상승세로 변화시킨 다른 원인으로 앞서 살펴본 ‘도가니’ 사건과 유사한 성범죄를 들 수 있다. 2018년 7월 11일, 강원도 태백의 한 특수학교에서 특수학교 교사가 2014년부터 지적장애 학생 3명을 수차례 성폭행한 것이 알려지면서 특수학교가 여전히 장애학생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문제가 다시 한 번 주목받았다. 이 사건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이후, 해당 특수학교 교장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특수학교 관련 논란이 일파만파 커졌다. 하지만, 이 사건이 잠잠해지기도 전에 2018년 10월 4일 발달장애 학생들이 다니는 서울인강학교 사회복지요원 3명이 장애학생을 폭행하고, 다음날인 10월 5일 충남 금산에서 10~20대 6명이 지적장애 고등학생을 집단폭행, 10월 10일 서울 교남학교 교사들이 지적장애 학생을 폭행하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며, 특수교육 전반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해당 사건을 계기로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장애학생 폭행 긴급 감담회를 개최하고 사회복지요원 배치 특수학교 150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지적장애 학생들에게 높아진 사회적 관심을 알 수 있다. 해당시기의 언론보도기사 빈도 분석 결과는 [그림 4-2-7]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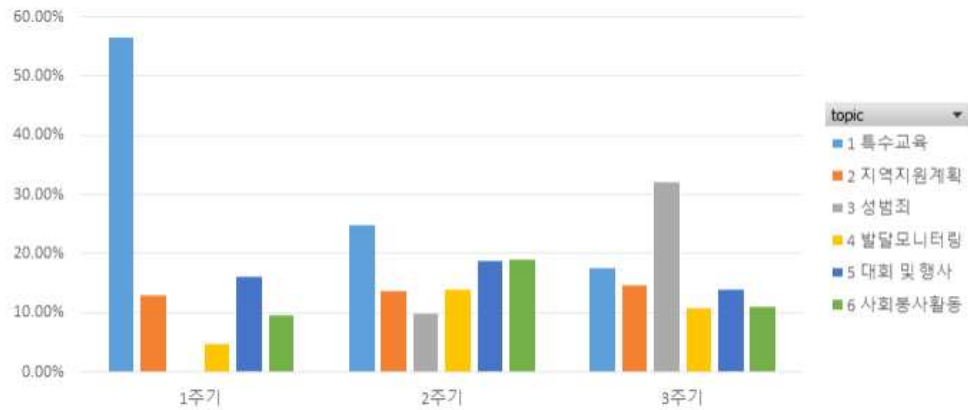
종합해볼 때, 지적장애 학생 언론보도기사 빈도 분석 결과는 특수학교 설립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과 특수학교 내에서 발생한 다양한 성범죄 또는 폭행 등의 사건으로 인해 학생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학생들이 언론을 통해 노출되고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분석된다.



[그림 4-2-7] 2017~2018년 지적장애 학생 언론보도기사 빈도

## 나. 주기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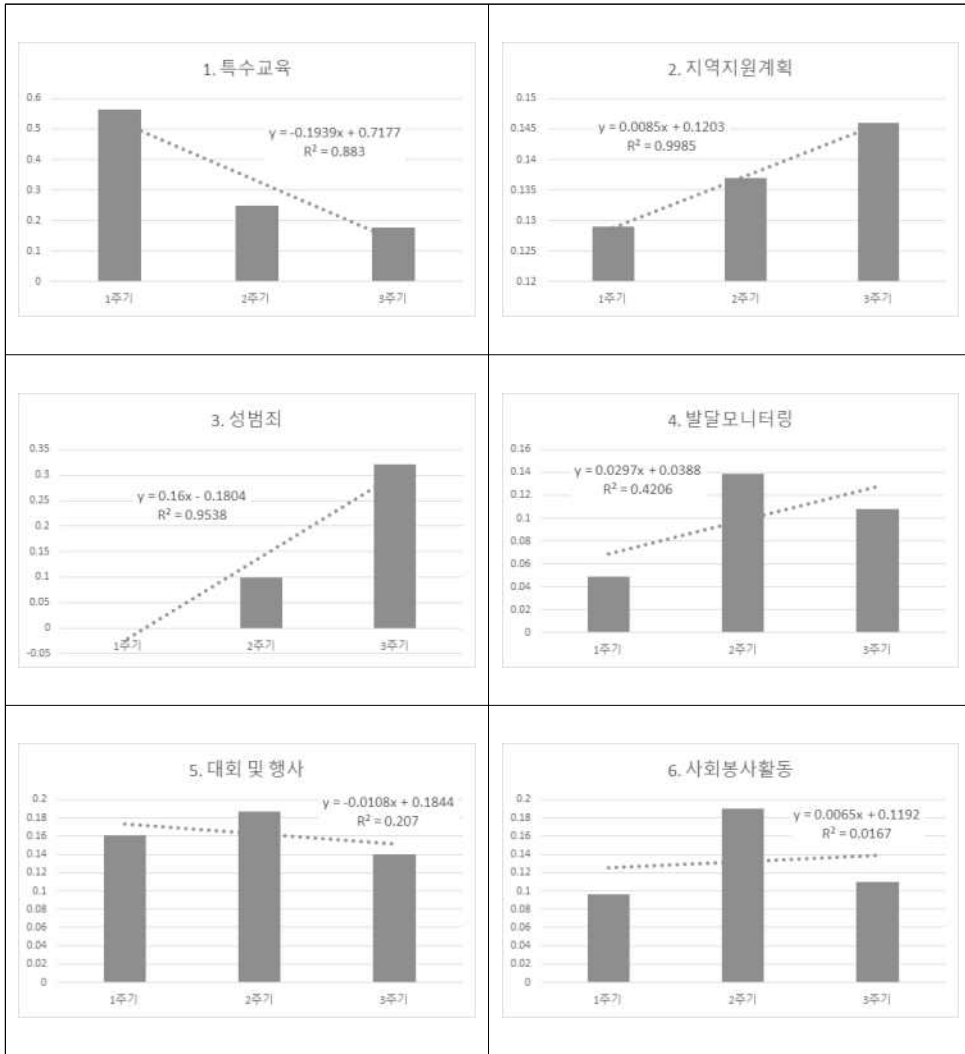
지적장애 학생 언론보도기사에서 추출된 6개 토픽의 주기별 토픽 관심도를 분석한 결과는 [그림 4-2-8]에 제시하였다. 주기별 토픽에 대한 언론의 관심도를 살펴보면, 1990년부터 1999년도를 포함하는 1주기에는 ③성범죄를 제외한 5개의 토픽이 다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①특수교육에 대한 언론의 관심도가 다른 토픽에 비해 현저하게 높았다. 2000년부터 2009년을 의미하는 2주기에 또 여전히 ①특수교육에 대한 언론의 관심도가 가장 높았으나, 전체 언론보도기사 분석의 결과와 동일하게 상대적으로 고르게 모든 토픽들이 언론에서 다루어지고 있었다. 2010년부터 2019년 4월에 보도된 기사를 포함하는 3주기에는 ③성범죄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아 앞서 살펴본 도가니 사건의 사회적 파장이 얼마나 컸는지를 유추해볼 수 있다. 더불어, 3주기에 해당하는 2018년은 성폭행이나 성희롱을 고발하는 미투운동이 사회 전반에 퍼져나간 시기로 3주기에 높은 성범죄 관련 언론보도기사 또한 이러한 사회 운동에 영향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림 4-2-8] 지적장애 학생 언론보도기사 주기별 토픽 관심도

지적장애 학생 언론보도기사의 주기별 토픽 관심도 변화 경향은 [그림 4-2-9]와 같다. 해당 분석에서 주기에 따라 언론의 관심이 증가된 토픽은 ③성범죄(.160), ④발달모니터링(.030), ②지역지원계획(.009)으로 성범죄를 포함한 다양한 문제가 증가함과 동시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계획이 함께 논의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①특수교육(-.194)과 ⑤대회 및 행사(-.011)와 관련된 언론보도의 관심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교육의 추세선이 가장 큰 감소치를 보여 특수교육에 대한 논의가 상대적으로 낮아진 것으로 분석되지만, 앞서 살펴본 언론보도기사 빈도 분석에서 특수교육 기사 수가 여전히 높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⑥사회봉사활동(.007)에 대한 토픽 관심도 변화는 0에 가깝게 나타나 지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봉사활동이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도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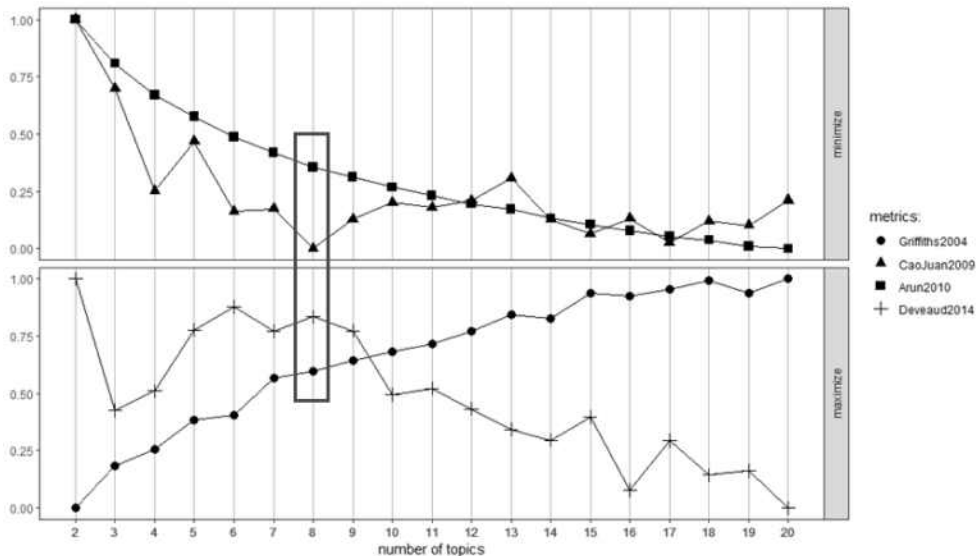


[그림 4-2-9] 지적장애 학생 언론보도기사 토픽 관심도 변화 경향

### 3. 자폐성장애 학생 언론보도기사 토픽 분석

#### 가. 전체 기간 분석

자폐성장애 학생 언론보도기사는 1990년 5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총 3,575건이 수집되었다. 분석 자료에 잠재된 적정 토픽 수를 탐색한 결과는 [그림 4-2-10]과 같다. 분석 결과, 변화를 보이는 Cao et al.(2009)와 Deveaud et al.(2014)의 알고리즘 매트릭스를 통해 적정 토픽 수를 측정할 수 있다. Cao et al.(2009)의 알고리즘에서 가장 낮은 점을 보인 토픽 수는 8개로 나타났다. Deveaud et al.(2014)의 알고리즘은 6개와 8개가 높은 점을 나타냈다. 6개의 토픽 수가 조금 더 높은 수치를 보이기는 하였으나, Cao et al.(2009)의 분석 결과와 종합하였을 때, 8개의 토픽이 LDA 분석에 적정하다고 판단되었다.



[그림 4-2-10] LDA 모델의 적정 토픽 수 탐색 결과

자폐성장애 학생 언론보도기사 총 3,575건의 언론보도기사에서 내용이

불충분한 6건을 제외한 3,569건의 기사의 잠재 토픽 수를 8개로 설정하여 LDA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로 추출된 8개 토픽에 대한 이름을 부여하고 전문가 타당성 평정을 실시한 결과, 모든 토픽명이 3.5점 이상의 점수를 보여 초기 토픽명이 <표 4-2-3>와 같이 유지되었다([부록 5]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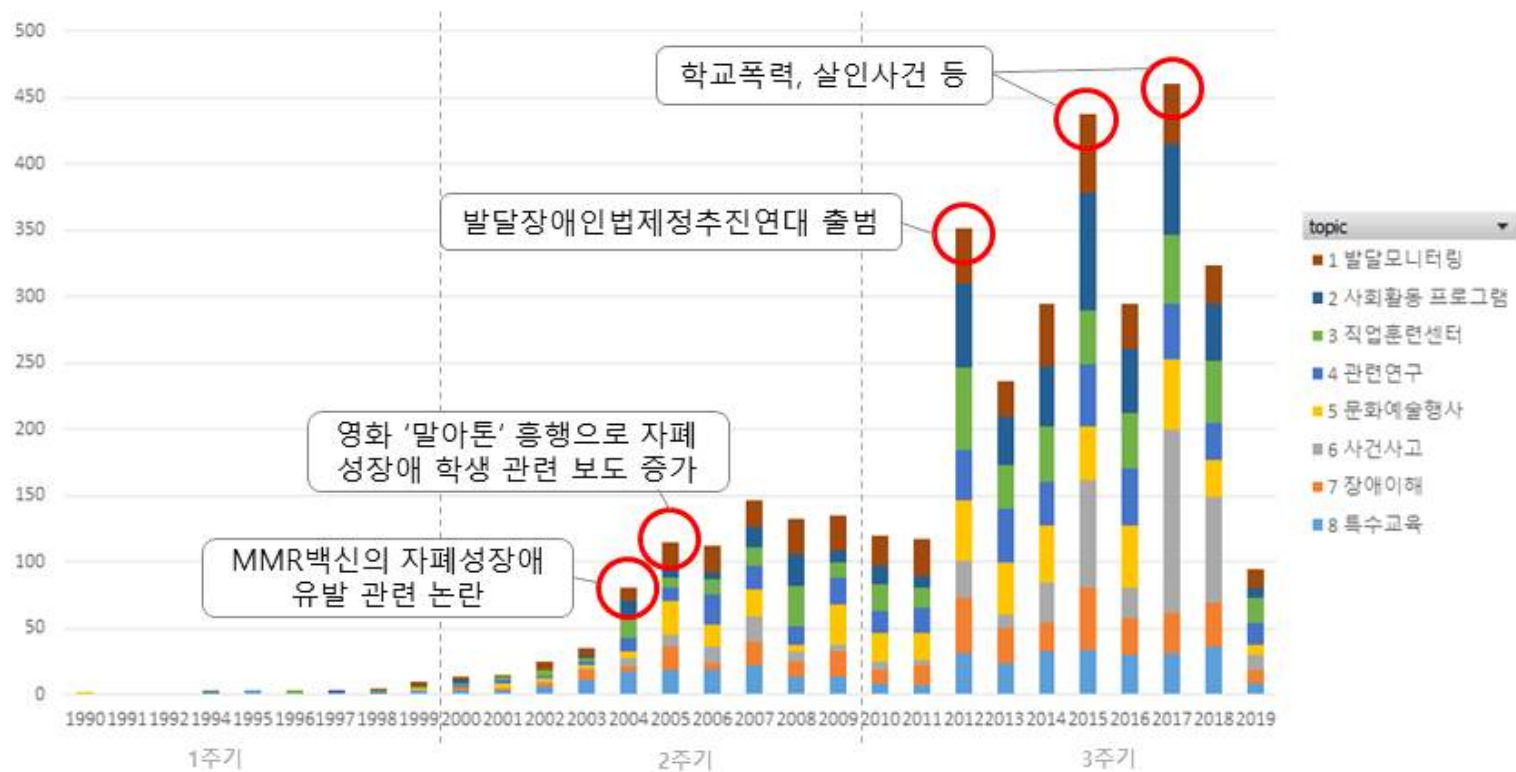
<표 4-2-3> 자폐성장애 학생 언론보도기사 토픽 및 포함단어 10개

토픽 단어	1	2	3	4
	발달모니터링	체험활동 프로그램	직업훈련센터	관련연구
1	성장	진행	지원	연구
2	학부모	참여	교육	교수
3	치료	사회	센터	수준
4	도움	프로그램	지역	대학
5	발달	제공	시설	평가
6	가정	활동	기관	강조
7	병원	경제	실시	효과
8	가족	활용	서비스	발표
9	자녀	지원	사업	설명
10	행동	기업	직업	문제
문서 수(%)	491(13.76)	505(14.15)	480(13.45)	427(11.96)
토픽 단어	5	6	7	8
	문화예술행사	사건·사고	장애이해	특수교육
1	행사	상태	이해	학교
2	문화	결과	표현	교사
3	사회	서울	의미	교육
4	사랑	학교	관심	지적장애
5	희망	사건	경험	수업
6	음악	조사	친구	발달장애
7	협회	학부모	문제	특수학교
8	행복	인정	거리	학부모

LDA 기반 토픽 모델링 분석 결과, 8개의 토픽은 비슷한 수의 언론보도 기사를 포함하고 있었는데, 그중 가장 많은 언론보도를 포함하는 토픽은 ②체험활동 프로그램으로 분석되었다. ①발달모니터링, ③직업훈련센터, ⑥사건·사고 또한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언론보도 기사를 포함하고 있었다. 자폐성장애 학생 언론보도 기사를 이해하기 위하여 연도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는 [그림 4-2-11]과 같다.

자폐성장애 학생 언론보도는 2000년도부터 꾸준히 빈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 분석들과 마찬가지로 2주기에 급격한 언론보도 기사 수의 증가가 관찰되었다. 2007년을 기점으로 약간의 감소를 보이던 언론보도 기사의 빈도가 2012년도에 급격히 증가하고 유지되었는데, 언론의 관심은 급작스럽게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현상이 반복되는 특징을 보였다. 특정 토픽이 전체적인 토픽 기사의 빈도 변화를 설명하기 보다는 연도별 토픽의 분포가 유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전반적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주요 원인들을 중심으로 결과를 해석하고자 한다.

첫째, 언론보도 기사의 빈도가 2004년과 2005년에 급격하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1998년부터 꾸준히 논란이 되어온 MMR 백신(홍역, 볼거리, 풍진 혼합백신)으로 설명될 수 있다. MMR 백신과 관련된 논란은 Wakefield라는 학자가 1998년 영국 의학전문지에 MMR 백신이 자폐성 장애를 유발한다는 연구를 소개하면서 큰 사회적 파장을 낳았다. 해당 연구는 자폐성장애 아동 12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로 많은 제한점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백신에 대한 불신과 함께 백신 반대 운동이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2004년 이 연구가 거짓으로 밝혀지며, 의사면허 박탈과 논문 철회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반 백신 풍조는 쉽게 가라앉지 않아 MMR 백신 접종률이 1990년대 후반부터 2003년도 사이에 약 80%까지 감소하기도 하였다. 이후 공중보건 캠페인을 통해 접종률을 높이려는 시도가 꾸준히 이루어져왔지만(BBC NEWS 코리아, 2018.11.04), 2019년 세계보건기구(WHO)는 전세계 홍역환자가 30% 증가하였고 세계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10대 요인 중 하나로 백신거부를 뽑아 MMR 백신에 대한 여전한 불신이 여전히 존재함을 알 수 있다(한경닷컴, 2019.01.25.).



[그림 4-2-11] 자폐성장애 학생 언론보도기사 연도별 토픽 기사 빈도

국내에서도 2002년 전염병 예방법 개정을 통해 MMR 백신접종 의무화 하였지만,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은 꾸준히 있어왔다. 특히, 2013년부터 한 한의사를 중심으로 개설된 ‘약 안쓰고 아이 키우기(약칭 안아키)’ 카페가 활성화되며, 약을 쓰지 않고 자녀를 의학적으로 방치하는 부모의 결정이 사회적 논란을 지속적으로 야기하였고, 결국 2017년 경찰 수사로 까지 이어졌다. 이는 연도별 토픽 기사 빈도에서 꾸준히 높은 비율을 보이는 ①발달모니터링을 통해 설명된다. 해당 토픽은 발달기 아동에 대한 적절한 모니터링과 관심이 자폐성장애 유발을 예방할 수 있다는 다수의 기사를 포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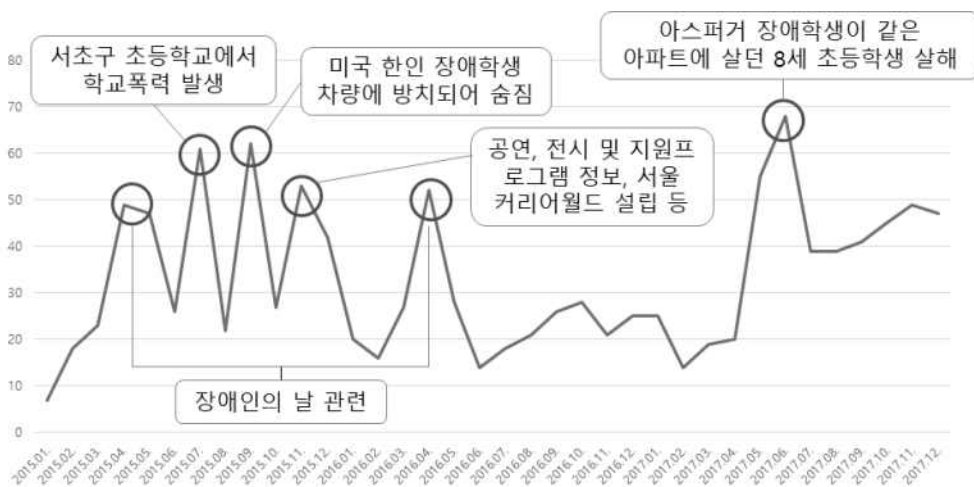
둘째, 2005년도에 자폐성장애 학생 언론보도기사의 빈도가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해당 연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는 ⑤문화예술행사를 통해 이러한 변화를 설명해볼 수 있다. 2004년 10월부터 2005년 6월까지 방영된 KBS 주말연속극 ‘부모님전상서’와 2005년 개봉되어 400만 이상의 관객을 동원하며 흥행한 영화 ‘말아톤’의 영향이 컸다고 보인다. ‘부모님전상서’는 자폐성장애를 가진 아들을 홀로 양육하는 여인을 그린 드라마로 시청자들의 높은 관심에 18회가 연장되어 방송된 주말 연속극이다. 또한 ‘말아톤’은 자폐성장애를 가진 20살 청년을 그린 영화로 사회적으로 높은 관심을 받았다. 이처럼 2005년에 급격하게 높아진 언론의 관심은 언론을 통해 비춰진 자폐성장애에 대한 대중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폐성장애는 서번트증후군과 같이 문화예술분야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는 학생들이 관찰되는 경우가 많으며, 자폐성장애 아동의 대부분이 소리 자극에 민감한 특성을 보이기에 관련 문화예술행사들이 다른 장애에 비해 더 많이 이루어져 전반적으로 ⑤문화예술행사가 높은 비율을 보였다고 해석된다.

셋째, 2012년도 급격히 증가한 자폐성장애 학생 언론보도기사의 분포를 살펴보면, 이전에 비해 모든 토픽의 빈도가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②사회활동 프로그램, ③직업훈련센터, ⑦장애이해에 대한 언론보도기사의 빈도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언론보도는 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 출범과 연관성을 가진다고 해석된

다. 발달장애인법 제정추진연대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지원체계의 보장을 위한 별도의 법적장치를 요구하며 한국장애인부모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한국장애인사랑협회를 주축으로 2012년 2월 출범하였다. 앞서 발달장애 학생 언론보도기사 분석에서 살펴보았듯이, 연대가 출범함과 동시에 결의대회나 농성 등의 다양한 활동이 진행되었고 이들에 대한 언론보도기사 또한 그 빈도가 높아졌다. 또한 높은 빈도를 보이는 언론보도의 토픽이 ②사회활동 프로그램, ③직업훈련센터, ⑦장애이해와 같이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임을 고려할 때, 2012년도 언론보도의 급격한 변화는 「발달장애인법」 제정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고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2015년도와 2017년도에 자폐성장애 학생 언론보도기사 빈도의 급격한 변화가 관찰되었는데, 이때 ⑥사건·사고에 대한 언론보도의 빈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를 자세히 이해하기 위하여 약 2년간의 언론보도빈도를 [그림 4-2-12]와 같이 나타내었다. 그 결과, 2015년 7월에는 서울 서초구 소재 초등학교 자폐성장애 학생이 동급생에게 폭행을 당하고 학부모가 증거 사진과 글을 인터넷에 올리면서 논란이 되었다. 같은 해 9월에도 미국 로스엔젤레스에서 중증 자폐성장애를 가진 19세 학생이 차량에 방치되어 숨진 사건과 관련한 많은 기사가 보도되었고, 이와 같은 사건들과 관련된 장애인권, 학교폭력 등과 관련된 기사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2015년도에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이 있는 4월에 ⑦장애이해 관련된 언론보도기사가 다수 관찰되었으며, 이는 2016년 4월에도 동일하게 관찰되었다. 이밖에 2015년 11월에도 높은 빈도가 관찰되었는데 이달의 언론보도의 주제는 비교적 다양하였다. 우선 자폐성장애 학생들로 구성된 합창단, 오케스트라, 또는 전시와 관련된 ⑤문화예술행사 언론보도를 찾을 수 있었고, 특정 기관에서 진행하는 장애학생 대상 ②사회활동 프로그램 정보,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달장애 학생 빈도 분석 결과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서울커리어월드 설립 반대와 자폐성장애 학생들의 진로 직업 실태와 관련된 ③직업훈련센터 언론보도가 포함되었다. 이후 2016년도에는 자폐성학생 언론보도가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2017년 5월에서 7월 사이에 매우 높은 빈도 분석 결과를 보였다. 2017년 3월 29일 인천에 사는 10대 소녀가 같은 아파트에 사는 8세 초등학생을 잔인하게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범인이 자폐성장애의 한 유형인 아스퍼거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건 전반에 대한 기사는 물론 범인의 형량 등이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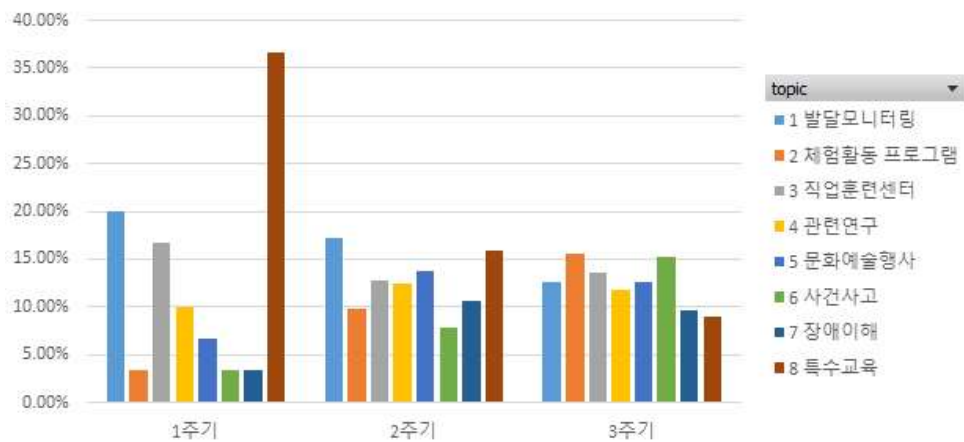


[그림 4-2-12] 2015년~2017년도 자폐성장애 학생 언론보도기사 빈도

## 나. 주기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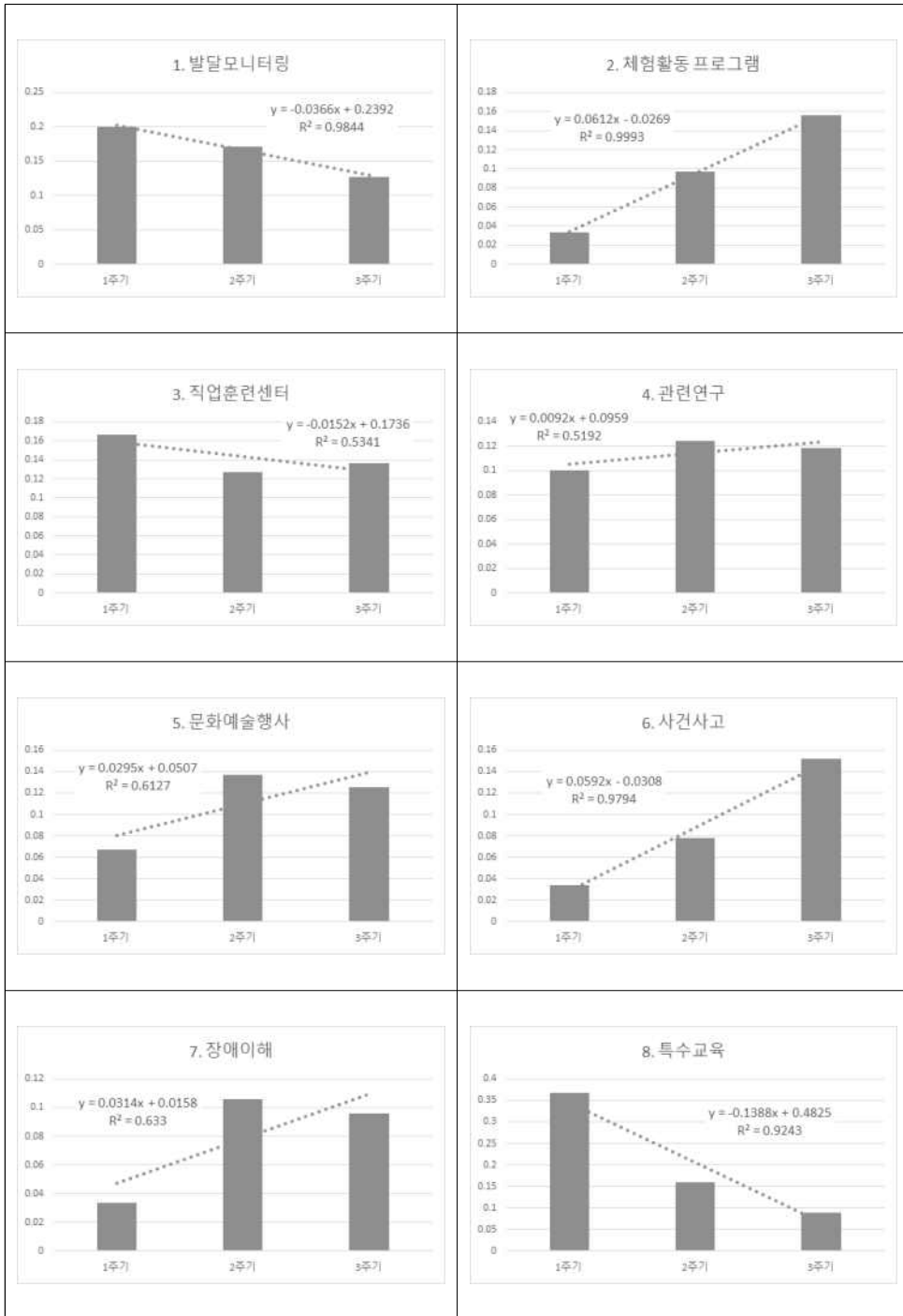
자폐성장애 학생 언론보도기사에서 추출된 8개 토픽에 대한 주기별 관심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1주기에서는 ⑧특수교육, ①발달모니터링, ③직업훈련센터에 대한 언론보도가 다른 토픽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비율로 보도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2주기의 경우, ①발달모니터링과 ⑧특수교육의 비율은 여전히 높은 편이었으나 다른 토픽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졌다. 마지막으로 3주기에는 모든 토픽이 유사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②체험활동 프로그램과 ⑥사건·사고가 상대적으로 약간 높은 관심도를 보였다([그림 4-2-13] 참고).





[그림 4-2-13] 자폐성장애 학생 언론보도기사 주기별 토픽 관심도

주기별 자폐성장애 학생 토픽 관심도 변화 경향성 분석 결과는 [그림 4-2-14]과 같다. 분석 결과, 주기에 따라 언론보도의 관심도가 높아진 토픽은 ②체험활동 프로그램(.061), ⑤문화예술행사(.030), ⑥사건·사고(.060), ⑦장애이해(.031)로 나타났으며, ①발달모니터링(-.037), ③직업훈련센터(-.015), ⑧특수교육(-.139)에 대한 언론보도기사의 관심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④관련연구(.009)는 3주기 모두에서 비슷한 관심도를 보였다.



[그림 4-2-14] 자폐성장애 학생 언론보도기사 토픽 관심도 변화 경향

발달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학생 언론보도기사에서 추출된 토픽을 종합하면 <표 4-2-4>와 같다. 발달장애 학생 언론보도기사에서 추출된 16개의 토픽은 해당 분석 내 출현율이 높은 순위대로 제시하였고, 이를 기준으로 지적장애 학생과 자폐성장애 학생의 토픽을 제시하였다.

<표 4-2-4> 발달장애 학생 언론보도기사 토픽 분석 결과 종합

발달장애 학생		지적장애 학생		자폐성장애 학생	
1	⑨성범죄(+)	1	③성범죄(+)		-
2	③대회 및 행사(-)	3	⑤대회 및 행사(-)		-
3	①기업의 사회공헌활동(+)		-		-
4	②통합교육(-)		-		-
5	⑤특수교육(-)	2	①특수교육(-)	7	⑧특수교육(-)
6	⑦조사결과발표(+)		-		-
7	⑥체험활동 프로그램(+)		-	1	②체험활동 프로그램(+)
8	④사회보호시설(•)		-		-
9	⑧교육시설설립(•)		-		-
10	⑩자폐성장애 학생사례(-)		-		-
11	⑭사회봉사활동(•)	5	⑥사회봉사활동(•)		-
12	⑫서비스지원확대(+)		-		-
13	⑪장애이해(+)		-	8	⑦장애이해(+)
14	⑮직업훈련센터(+)		-	3	③직업훈련센터(-)
15	⑬지적장애 학생사례(-)		-		-
16	⑯발달모니터링(•)	6	④발달모니터링(+)	2	①발달모니터링(-)
	-	4	②지역지원계획(+)		-
	-		-	4	⑥사건·사고(+)
	-		-	5	⑤문화예술행사(+)
	-		-	6	④관련연구(•)

(+): 주기별 관심도 증가, (-): 주기별 관심도 감소, (•): 주기별 관심도 유지

모든 토픽 분석에서 추출된 토픽은 ‘특수교육’과 ‘발달모니터링’이다. 모든 분석에서 토픽으로 추출되었다는 것은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의 구분에 상관없이 해당 제가 모든 학생들과 관련하여 주요하게 논의되어 왔음을 시사한다. 특수교육의 경우, 모든 주기별 분석에서 관심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앞선 주제어 분석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전반적으로 교육에만 집중되어 있던 언론보도의 내용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 다양한 논의로 확장되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발달모니터링은 아동이 발달과정상에서 보이는 특징을 인식하고, 필요시 적절한 교육과 치료의 개입을 요구하는 언론보도기사를 포함하는 토픽으로 장애학생 뿐 아니라 비장애학생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지적장애 학생 언론보도기사에서 발달모니터링에 대한 관심도는 높아진 반면, 자폐성장애 학생에서는 낮아져 이들을 종합한 전체 분석에서는 언론의 관심도가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토픽 관심도의 경향성은 상이하지만, 발달모니터링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은 발달장애가 발달과정상에서 진단되는 장애이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발달장애 학생과 지적장애 학생 분석에서 동일하게 추출된 토픽은 ‘성범죄’, ‘대회 및 행사’와 ‘사회봉사활동’으로 나타났다. 성범죄는 발달장애 학생과 지적장애 학생 언론보도기사에서 가장 높은 출현율을 보인 토픽이다. 지적장애 학생 분석에서 가장 높게 출현한 성범죄 관련 언론보도기사가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 학생을 종합하여 분석한 발달장애 학생 분석에서도 가장 높은 출현율을 보이는 것은 지적장애 학생과 관련된 성범죄 보도의 양이 상당히 많았음을 반증하는 결과이다. 대회 및 행사 또한 발달장애와 지적장애 학생 분석에서 높은 출현율을 보인 토픽이나 주기별 분석에서 점차 관심도가 감소되는 경향성을 보였고, 사회봉사활동은 언론의 관심도가 지속되는 경향성이 관찰되었다.

발달장애 학생과 자폐성장애 학생 언론보도기사 토픽 분석에서 동일하게 나타난 주제는 ‘체험활동 프로그램’, ‘장애이해’, ‘직업훈련센터’로 나타났다. 체험활동 프로그램과 장애이해는 모두 관심도가 주기에 따라 증가하는 동일한 경향성을 보였지만, 직업훈련센터에서는 상이한 경향성이

관찰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두 가지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다. 첫째, 자폐성장애 학생 언론보도기사에서 증가 경향성을 보인 다른 주제에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어 상대적인 관심도가 낮아진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둘째, 지적장애 학생 언론보도분석에서 추출된 ‘지역지원계획’은 발달장애 학생 토픽의 ‘사회보호시설’, ‘교육시설설립’, ‘서비스지원확대’, ‘직업훈련센터’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 주제로 보인다. 즉, 지적장애 학생 분석에서 지역지원계획으로 분류된 언론보도기사들이 언급된 발달장애 학생의 토픽으로 분류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때 직업훈련센터로 분류된 높은 비율이 상이한 경향성을 야기한 것으로 의심해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명시적인 결과는 아니기에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자폐성장애 학생 분석에서만 분석된 토픽으로 ‘사건·사고’, ‘문화예술행사’, ‘관련연구’가 있다. 이들은 앞서 분석한 연도별 토픽 분석 결과와 함께 이해할 수 있다. 자폐성장애 학생 언론보도기사는 지적장애 학생 분석에서 두드러졌던 성범죄가 아닌 살인사건이나 학교폭력 등의 보도가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넓은 범위에서 사건·사고는 성범죄를 포함할 수 있으나 분석 자료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인 주제 중 하나로 보인다. 문화예술행사 또한 주제어 분석 결과와 동일한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다. 지적장애 학생 언론보도기사에서 추출된 대회 및 행사 토픽을 구성하는 단어들이 ‘프로그램’, ‘체험’ 등을 포함하고 주제어 분석에서는 ‘운동’, ‘경기’ 등의 주제어가 관찰된 반면, 자폐성장애 학생 분석에서는 ‘희망’, ‘사랑’, ‘작품’ 등의 단어로 토픽이 관찰되고 주제어 분석에서는 ‘음악’, ‘예술’ 등이 다수 출현하여 행사의 성격이 장애유형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분석된다. 마지막으로 ‘관련연구’는 발달장애 학생 토픽의 ‘조사결과발표’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데, 조사결과발표에서는 실태조사나 사건 조사 결과 등이 강조된다면, 자폐성장애에서 추출된 관련연구는 대학의 연구 결과나 효과성 발표 등의 성격이 더 강한 것으로 분석되어 조사 내용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는 주제로 해석된다.

## 제 5 장 요약 및 논의

### 제 1 절 요약

특수학교 설립 반대, 장애학생 학교폭력, 성폭행, 인권침해 등 장애학생과 관련된 다양한 사회적 논란과 갈등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논란은 장애를 이해하고 통합하고자 하는 공유된 인식 부재에 기인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사회 구성원이 장애학생에 대해 가지는 인식과 태도를 이해하기 위하여 특정 주제에 대한 사회적 담론을 생성하고 구성원들의 인식과 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언론보도기사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수교육의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발달장애 학생으로 초점을 맞추었으며, 「발달장애인법」에서 하위유형으로 명시하고 있는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를 발달장애로 정의하여 분석 자료를 수집하였다. 텍스트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발달장애 학생 언론보도기사의 주제어와 그 관계를 통해 명시적 내용을 파악하고, 문서에 잠재된 토픽을 분석하여 그 변화를 탐색하고자 한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아래와 같다.

첫째, 발달장애 학생과 발달장애 하위유형(지적장애 학생/자폐성장애 학생) 언론보도기사의 주제어는 무엇인가?

둘째, 발달장애 학생과 발달장애 하위유형(지적장애 학생/자폐성장애 학생) 언론보도기사의 토픽은 무엇인가?

사회 구성원의 대부분이 인터넷을 통해 언론보도기사를 접하는 오늘날의 특징을 고려하여 분석 자료는 국내 최대 포털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네이버 뉴스로 설정하였다. 웹 스크래핑 기법을 활용하여 약 30년간 보도된 발달장애 학생 언론보도기사 15,616건을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텍스트 빅데이터 분석 절차에 따라 가공되고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교육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분석을 통해 추출된 언론보도기사 토픽의 예시 기사의 뉴스 프레임을 분류하도록 하여 발달장애 학생 언론 보도기사의 언론보도 형태 양상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산출된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발달장애 학생 언론보도기사의 TF와 TF-IDF를 기준으로 주제어 분석을 실시한 결과, TF는 학교 교육, 지역사회 지원 및 활동 등을 나타내는 주제어들이 추출되었고, TF-IDF는 발달장애 학생들의 건강, 재활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 관련 주제어들로 구성되었다. 주제어들 간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TF-IDF를 기준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그 구조를 분석한 결과, 발달장애 학생 언론보도기사는 학생의 전반적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 정부의 지원, 특수교사의 성폭행, 대회 및 행사운영과 홍보에 대한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내용의 변화를 10년 주기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학교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언론보도의 관심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발달장애 학생의 생활 지원과 구체적인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로 확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적장애 학생 언론보도기사의 주제어를 TF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학교를 중심으로 한 교육활동과 관련된 주제어가 다수 분석되었고, 사건·사고를 나타내는 주제어 또한 포함되었다. TF-IDF 결과는 정부, 개선, 성장 등의 주제어가 ‘제공’을 중심으로 나타나 정부의 지원이 강조되었으며, 성폭행이라는 단어가 주제어로 포함되어 지적장애를 대상으로 한 사건·사고의 형태가 성폭행이었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 주제어 간의 관계를 통해 언론보도기사의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지적장애 학생 네트워크는 크게 생활지원을 위한 기관 및 지역사회 지원,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특수교사 성범죄, 치료와 상담 등의 치료지원의 주제로 구성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 1주기에는 특수교육 운영 및 행사와 관련된 언론보도가 2주기에는 지적장애 학생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내용으로 확장되어 발달장애 학생 주제어 분석과 동일한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3주기에 경우는 지원 사업 및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과 더

불어 사건·사고, 특수학교 설립과 관련된 네트워크 집단이 분석되어 사회적 논란과 갈등 드러난 시기로 분석되었다.

셋째, 자폐성장애 학생 언론보도기사에서 TF기준으로 추출된 주제어는 다른 분석들과 마찬가지로 학교 중심의 주제어들이 다수 분석되었으나, TF-IDF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는 건강, 서비스, 개선 등의 주제어가 언론보도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TF-IDF를 중심으로 주제어 간의 관계를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서비스 개선을 위한 연구와 논의, 문화예술행사, 기업이나 대학의 서비스 개발 연구의 군집이 발견되었다. 자폐성장애 학생 언론보도 전반에서 ‘치료’가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었으며, 특수교육과 치료를 운영하는 주체와 관련된 1주기의 논의가 2주기에는 수업 운영과 관련된 내용으로 변화하였으며, 마지막 3주기에는 이전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서비스 및 지원 개선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더불어 흥미롭게도 해당 분석에서는 문화예술활동과 관련된 단어들이 다수 관찰되었는데, ‘대회’, ‘경기’와 같은 주제어를 포함한 지적장애 학생 언론보도 분석 결과와 달리 ‘음악’이라는 주제어가 지속적으로 관찰되어 자폐성장애 학생과 관련된 행사의 성격이 지적장애 학생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넷째, LDA 기반 토픽 모델링 분석을 통해 전체 발달장애 학생 언론보도기사에서 총 16개의 토픽(①기업의 사회공헌활동, ②통합교육, ③대회 및 행사, ④사회보호시설, ⑤특수교육, ⑥체험활동 프로그램, ⑦조사결과발표, ⑧교육시설설립, ⑨성범죄, ⑩자폐성장애 학생사례, ⑪장애이해, ⑫서비스지원확대, ⑬지적장애 학생사례, ⑭사회봉사활동, ⑮직업훈련센터, ⑯발달모니터링)이 추출되었으며, 이중, ⑤특수교육이 가장 많은 언론보도 기사를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언론보도의 관심도가 높아진 토픽은 ①기업의 사회공헌활동, ⑥체험활동 프로그램, ⑦조사결과발표, ⑪장애이해, ⑫서비스지원확대, ⑮직업훈련센터, 낮아진 토픽은 ②통합교육, ③대회 및 행사, ⑤특수교육, ⑩자폐성장애 학생사례, ⑬지적장애 학생사례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관심도가 지속적으로 유지된 토픽은 ④사회보호시설, ⑧교육시설설립, ⑭사회봉사활동,



⑩발달모니터링이다.

다섯째, 지적장애 학생 언론보도기사는 6개의 토픽(①특수교육, ②지역지원계획, ③성범죄, ④발달모니터링, ⑤대회 및 행사, ⑥사회봉사활동)으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의 관심도가 주기에 따라 높아진 토픽은 ②지역지원계획, ③성범죄, ④발달모니터링이었으며, 관심도가 낮아진 토픽은 ①특수교육과 ⑤대회 및 행사이다. ⑥사회봉사활동에 대한 언론의 관심은 모든 분석 주기에서 유사한 언론의 관심도를 나타냈다.

여섯째, 자폐성장애 학생 언론보도기사에서 총 8개의 토픽(①발달모니터링, ②체험활동 프로그램, ③직업훈련센터, ④관련연구, ⑤문화예술행사, ⑥사건·사고, ⑦장애이해, ⑧특수교육)이 추출되었다. 이들의 주기별 변화를 분석한 결과, ②체험활동 프로그램, ⑤문화예술행사, ⑥사건·사고, ⑦장애이해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증가한 반면, ①발달모니터링, ③직업훈련센터, ⑧특수교육에 대한 관심은 감소하였다. ④관련연구는 주기에 따른 관심도의 변화를 보이지 않아 지속적으로 보도되어 온 주제임을 알 수 있다.

## 제 2 절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발달장애 학생 언론보도기사의 내용과 주제를 이해하기 위하여 주제어 및 토픽 분석을 수행하고 주기에 따른 변화를 분석하였다. 또한 발달장애로 정의되는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를 구분하여 장애의 유형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았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논의가 가능하다.

첫째, 학교교육에 초점이 맞춰졌던 언론보도가 점차 생활지원과 구체적인 지원방법과 관련된 논의로 확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현장에 제한되어 있던 논의가 장애학생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통합을 촉진하는 사회적 통합에 대한 논의로 확장되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된다. 특히, 이러한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1주기에

다른 장애유형과 함께 주제어로 분석된 ‘감동’과 같은 감정적인 표현이 2주기부터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를 중심으로 ‘개선’, ‘제공’, ‘서비스’ 등과 같은 객관적 성격의 주제어로 변화된 것은 주목할 만한 변화이다. 미담을 다수 포함한 특정학생의 사례 또한 주기별 분석에서 점차 감소되는 양상을 보여 장애학생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발달장애 학생들의 요구에 맞게 초점화되어 보다 객관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으로 변화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김진훈, 박정식(2012)에서 1990년부터 2010년까지 지적장애인 관련 언론보도가 단순한 사건·사고를 나열하는 형태였음을 지적한 것보다 발전된 결과이다. 또한 통합교육과 더불어 사회에서의 통합을 공공의 노력으로 지원하는 사회제도적 사전준비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며, 차별적 제도 개선, 지역 공공시설 개선 및 확립, 창업활동 지원 등의 필요성을 강조한 김남순(2002)의 국내 발달장애아동 통합교육모델과 성공적인 사회통합 실현을 위한 국가수준의 법적·제도적 방향성에 부합하는 긍정적인 변화로 해석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발달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와 지원이 강조되는 언론보도기사를 통해 발달장애 학생을 연민 또는 사회보호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 또한 간접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인을 봉사와 희생의 대상이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한 미담위주의 기사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바른 인식 형성을 방해한다는 선행연구들의 주장을 지지하는 결과로도 이해할 수 있다(함미애, 박원희, 1999; Bie & Tang, 2015; Cater, Parmenter, & Watter, 1996; Muhamad & Yang, 2017). 발달장애 학생들의 사회통합을 위해 사회 공공의 노력은 필수적이지만, 이들을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사회의 한 구성원이 아닌 연민의 대상이라는 인식을 강화시키는 언론보도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지적장애 학생 언론보도기사에서 성범죄 관련 기사의 비율은 자폐성장애 학생 분석에 비해 굉장히 높게 분석되었다. 자폐성장애에 비해 높은 지적장애 학생 성범죄 관련 기사를 통해 성범죄에 취약한 지적장애 학생들의 특성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들 또한 지적장애 학생이 제한된 지적능력과 적응행동 특성으로 인하여 본능적인 욕구에 의존하고, 순종

적이며, 원인과 결과를 구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독립적으로 외부와 접촉하는 기회가 제한적이기에 성적 파트너를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을 권리를 알지 못하면 성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더 많이 하거나 성범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한다(김황용, 채밀임, 2011; 유정미, 방명애, 장역방, 2016; Carmody, 1991; Reiter, Bryen, & Shachar, 2007). 이처럼 본 연구는 성범죄에 대한 지적장애 학생의 취약성을 주장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경험적인 분석을 통해 뒷받침한다.

성범죄에 대한 지적장애 학생의 취약성에 대한 높아진 인식과 반복되는 사건·사고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유의미한 교육적 변화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현재 교육현장에서 지적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성교육 프로그램조차도 비장애학생 성교육 프로그램에 비해 적절한 내용 전달이 이루어지지 않고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된다(박상희, 2015; 유정미, 방명애, 장역방, 2016). 지적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이나 자기옹호능력 증진 훈련이 성범죄 예방율을 높일 수 있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고려할 때 (Schaafsma, Kok, Stoffele, & Curfs, 2015; Whitehouse & McCabe, 1997), 교육전문가는 지적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율을 낮추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간구하여 동일한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예방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셋째, 절대적인 사건·사고와 성범죄 관련 언론보도기사의 양을 통해 자극적이고 부정적인 기사가 생산되고 재생산하는 언론보도의 부정편향 보도특성이 나타났다. 부정한 사회 힘에 대한 비판기능을 수행하는 언론의 본질을 고려할 때(남궁협, 2018), 언론보도는 다양한 관점에서 사건을 관찰하고 사실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범죄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이들을 위한 사회제도와 체계에 대한 비판을 통해 실질적인 논의와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실제로 언론보도의 비판기능을 통해 사회적 담론이 형성되고 변화를 위한 발판이 마련된 대표적인 사건으로 ‘도가니’가 있다. 지적장애와 감각장애를 동반한 학생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성폭행을 했던 특수교사에 관한 도가니 사건은 언론보도를 통해 세상에 알려지

고, 장애인 인권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얻어 ‘도가니법’이라고도 불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통과로까지 이어졌다. 이밖에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장애아동 성폭력과 관련된 법적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그런데 자극성과 대중의 흥미에 초점을 맞추어 생산되고 재생산되는 대량의 범죄 관련 보도는 사회적 담화를 이끌어내는 동시에 발달장애 학생을 범죄의 피해자 또는 가해자라는 대중의 인식을 강화시켜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형성할 수 있다. 특수학교가 들어오면 ‘집값 떨어진다’, ‘장애인은 위험하다’라는 비장애인들의 인식과 이를 나타내는 님비 현상이 부적편향성을 가진 언론보도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는 이유이다. 커뮤니케이션학을 기초로 하는 언론은 커뮤니케이션의 기본 본질인 윤리성(morality)을 기초로 비판기능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때 윤리성은 서로의 주체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공동체의 연대감을 갖게 하는 것을 의미하기에, 언론은 성범죄와 같이 부정한 개인 또는 사회로부터 고통받는 장애인에 대한 기사를 생산하고 보도할 때에 이들에 대한 보다 세심한 배려와 관심이 기초되어야 할 것이다(남궁협, 2018). 또한, 사회통합의 첫 단계를 지원하는 특수교사, 일반교사를 비롯한 교육전문가들은 발달장애 학생 관련 보도를 생산하고 배포하는 언론의 보도경향성과 이를 통해 생성되는 사회적 담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교육자로서 자극성이 강조된 특정 언론보도로 형성된 인식이 장애학생 전체로 일반화되지 않았는지, 장애학생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균형잡힌 시각을 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넷째, 발달장애로 정의되는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를 구분하여 주제어 및 토픽 분석을 실시한 결과 장애유형에 따른 차이가 관찰되었다. 모든 분석에서 주제어로 분석된 ‘특수교육’을 통해 발달장애 학생과 관련된 교육적 논의가 많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자폐성장애 학생을 구분하여 분석한 주제어 분석에서는 교육적인 주제어들과 더불어 ‘치료’, ‘건강’, ‘병원’ 등이 다수 관찰되어 자폐성장애의 치료적인 측면이 강조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픽 분석에서도 사건·사고의 유형이나 대회 및 행사의 성격이 장애유형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 발달장애로 통합된 두 장애유형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었다. 「발달장애인법」 개정 및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과 함께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지원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변화를 본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를 발달장애로 통합하는 것은 이와 같은 지원과 서비스를 논의하고 제공하는 측면에서 유용할 수 있으나, 본 연구를 통해서도 나타났듯이 각 장애가 가지는 독특한 특성이 존재하기에 장애유형에 따른 요구가 세심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특수교육의 기반이라고도 할 수 있는 ‘개별화’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개별화교육은 개인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장애유형 및 특성에 맞는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는 교육을 말하는 것으로 특수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특수교사는 법적 근거를 기초로 개별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개별화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으나, 계획이 실제 교육 내용과 다르게 수립되거나 학교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이 부족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되고 있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김은하, 최승숙, 송승민, 강창욱, 2019). 이는 ‘개인별 지원계획’이라는 개념으로 최근 시행된 「발달장애인법」에도 적용되어 발달장애인과 그의 가족의 생애주기별 욕구에 따른 적합한 지원과 권리옹호 등이 제공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이승기, 2015). 그러나 해당 법령 또한 지원 인력과 자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포함하지 않고 있어 개별화교육계획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김기룡, 김삼섭, 나경은, 2016; 김진우, 2014). 발달장애 학생들의 교육은 물론 학령기 이후 개인이 경험하는 독특한 어려움을 생애주기별로 연계성 있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재 언급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개별화교육과 개인별 지원계획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와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제1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97~’01)」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들을 장애에 따라 학습도움실, 특수학급, 특수학교, 재택 교실에 배치할 수 시설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고, 모든 1주기 주제어

분석 결과에서 교육 시설 확보와 관련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었다. 그러나 지적장애 학생 3주기 주제어 분석 결과에서는 특수교육 기관 설립과 관련된 사회적 논란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후의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에서 지속적인 주요 과제로 포함된 ‘모든 학생의 교육요구와 능력을 존중하는 학교문화 창조(제2차)’, ‘통합교육 지원 확대 및 장애이해교육 강화(제3차)’, ‘장애학생 인권 친화적 분위기 조성(제4차)’,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강화(제5차)’를 통해 발달장애 학생을 배치할 수 있는 교육 시설이 여전히 충분하지 않으며, 이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학교 문화가 형성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교육 현장에 직접 적으로 적용되는 특수교육 교육과정 또한 통합교육 환경에 맞게 수시로 개정되고 있지만, 학교의 통합문화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다. 실제,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장애이해 교육이나 장애인식개선 교육은 의무가 아닌 실시를 권장하고 있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민천식, 2013). 현장에서 실시되고 있는 교육마저도 장애학생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나 태도의 원인을 바탕으로 하기보다는 선행연구들의 중재 내용을 필요에 따라 수정하여 사용하는 지식이나 정보 전달 수준으로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한 프로그램은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전병운, 박현옥, 장영애, 박현주, 2006; 정광조, 김동일, 2017). 따라서 발달장애 학생과 관련된 인식에 대한 실천적인 근거를 제공한 본 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장애인식개선 목표에 부합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개발되고 적용되어야 하며, 이러한 교육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수정하거나 관련 정책을 마련하는 등 발달장애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근본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이처럼 본 연구는 약 30년 동안 보도된 발달장애 학생 관련 언론보도 기사 분석을 통해 특수교육의 시대적·사회적 변화를 살펴보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특수교육의 발전을 위한 국가 수준의 정책과 노력이 현장에서 어떻게 드러났는지 또한 평가할 수 있다. 분석 결과의 상당 부분은 특수교육의 중장기 계획인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이나 관련 법령 및 교육과정의 변화와 맥을 함께하고 있었으며, 특수교육의 발전을 위한 국

가 수준의 정책과 노력이 현장에서 어떻게 드러났는지를 보여준다. 따라서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특수교육 발전을 위해 수립된 국가 수준 정책의 성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시행가능성이 높은 발전을 계획해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특수교육의 변화를 주도해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이 1997년부터 지금까지 20년이 넘게 추진되고 있으며, 특수교육 양질의 확대와 현장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새롭게 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시행된지도 10년이 넘는 현 시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가 과거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고찰을 바탕으로 미래를 계획해나가는데 주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 기대한다.

이 연구는 기존에 사용되지 않았던 텍스트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대량의 발달장애 학생 언론보도 기사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지난 30년간 변화되어온 발달장애 학생에 대한 사회의 인식과 태도를 점검하고 이들과 관련된 사회적 담론을 확인한 연구이다. 담론은 사회적으로 논의되는 주장과 관점을 나타내는 것으로(김태종, 박상욱, 2019),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현장에서 논의되는 다양한 주장과 관점, 즉 발달장애 학생과 관련된 토픽과 비장애인의 인식과 태도를 설명한다. 통합교육 현장에서 생성된 담론을 깊이 있게 성찰하는 것은 발달장애 학생의 성공적인 통합교육과 사회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오늘날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과 논쟁의 원인을 이해하고, 통합교육 및 사회로의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특수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고 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는데 의의를 가진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발달장애 학생 언론보도 기사를 통해 나타나는 특수교육의 시대적·사회적 변화를 개관하였다. 사회적 현상을 통해 특수교육을 평가하는 것은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특수교육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고 특수교육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30년이라는 긴 시간

을 탐색적으로 분석한 본 연구는 특수교육 현장을 설명하는데 필요한 세부 정보를 제공하는데 제한을 가진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기능을 중심으로 정의되는 발달장애의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중심의 패러다임이나 특수교육 중장기 계획,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발달장애인법」과 같은 특정 정책이 적용되는 시기를 기준으로 한 연구를 실시하여 발달장애 학생과 관련된 사회적 현상을 다각적인 측면으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네이버 뉴스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언론보도 기사를 분석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네이버 뉴스 서비스가 국내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는 포털이지만, 네이버 뉴스 외에도 다음(<https://media.daum.net>)과 네이트(<https://news.nate.com>) 등의 포털 뉴스 서비스가 존재하며, 포털마다 제휴 서비스를 받는 언론사가 상이할 수 있다. 언론보도의 종류 또한 영상이나 신문 등 다양하기 때문에 향후 연구에서는 분석대상의 범위를 확장하여 본 연구를 통해 살펴보지 못한 추가적인 정보를 탐색해볼 수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주제어 및 토픽 분석을 통해 대량의 언론보도기사에 존재하는 발달장애 학생 관련 정보를 추출하였다. 해당 정보는 발달장애 학생에 대한 비장애인들의 인식과 태도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담론을 나타낼 수 있지만, 정보가 가지고 있는 긍정 또는 부정적 성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는 못한다. 본 연구를 통해 분석된 토픽의 언론보도기사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적 성격을 분석하는 것은 대중의 인식을 이해하는데 보다 풍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특정 토픽 관련 언론보도기사에 대한 감성 분석(sentiment analysis)을 수행하는 후속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위영, 정대영, 박찬웅(1993). **발달장애아 조기교육 프로그램**. 서울: 도서출판 특수교육.
- 강종구, 김라경(2012). 사회구성주의 관점에서 본 지적장애의 개념과 시스템 고찰. **지적장애연구**, 14(2), 1-23.
- 교육부(2012). **특수교육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2-32호.
- 교육부(2015). **20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총론 해설서**. 세종: 교육부.
- 교육부(2017). **특수교육대상자의 사회통합 실현을 위한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18~'22) 계획**. 세종: 교육부.
- 교육부(2019). **2019년 특수교육연차보고서**. 세종: 교육부.
- 국립중앙과학관(2019). **빅데이터**. Retrived from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386304&cid=58370&categoryId=58370docId=3386304&cid=58370&categoryId=58370>
- 국립특수교육원(2016). **제5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 기초 연구**. 아산: 국립특수교육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2019). 2018 인터넷이용실태조사. Retrived from [https://www.nia.or.kr/site/nia\\_kor/ex/bbs/View.do;JSESSIONID=DF3F7A43415B3D79CEDEB3AB2E4EC6D8.005e46dc85f867161?cbIdx=99870&bcIdx=21013&parentSeq=21013](https://www.nia.or.kr/site/nia_kor/ex/bbs/View.do;JSESSIONID=DF3F7A43415B3D79CEDEB3AB2E4EC6D8.005e46dc85f867161?cbIdx=99870&bcIdx=21013&parentSeq=21013)
- 권주석(2016).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장애학생 부모의 수용태도 및 인식 분석. **발달장애연구**, 20(3), 23-42.
- 김건희, 장수정(2013). 특수교육대상자에 있어 국내 마음이론 연구 동향. **정서·행동장애연구**, 29(4), 143-173.
- 김기룡, 김삼섭, 나경은(2016). 한국, 미국 및 일본 발달장애인법 비교: 장애인 정책의 핵심 개념에 기반한 비교 분석. **발달장애연구**, 20(2), 129-174.

- 김남순(2002). 발달장애아동의 사회통합을 위한 통합교육 방략. **발달장애 연구**, 6(1), 75-90.
- 김남훈, 양형정(2017). 단어의 의미와 순서를 고려하는 문서색인방법을 이용한 CNN 기반 한글문서분류. **한국컴퓨터교육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21(2), 41-45.
- 김동윤, 김성해(2012). 정당한 기대와 부당한 현실 - 한국 신문의 뉴스콘텐츠 평가를 중심으로.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27, 35-73.
- 김동일, 고은영, 고혜정, 김우리, 박춘성, 손지영, ..., 홍성두(2019). **특수교육의 이해**. 서울: 학지사.
- 김동일, 손승현, 전병운, 한경근(2010). **특수교육학개론: 장애·영재아동의 이해**. 서울: 학지사.
- 김미혜, 박순천, 조수민, 손지혜(2004). 독립형 인터넷 신문 오마이 뉴스의 장애관련 보도경향에 대한 내용 분석: 종속형 인터넷 신문 조선일보와 비교하여. **이화사회복지연구**, 5, 43-78.
- 김병철(2005). **온라인 저널리즘의 이해**.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 김상원, 신의진, 이경숙(1997). 자폐아동의 애착 안정성. **소아청소년정신의학**, 8(2), 175-182.
- 김영옥, 함승경, 김영지(2017). 세월호 침몰 사건의 미디어 담론 분석: 비판적 담론분석(CDA)과 빅데이터 언어네트워크 분석의 결합. **한국언론정보학보**, 83(3), 7-38.
- 김옥태, 박대민(2016). 뉴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본 아동담론 10년. **통합인문학연구**, 8(2), 63-87.
- 김은이, 송민호, 김용준(2015). 신문의 자살보도가 자살 관련 인식에 미치는 영향: 자살보도 내용과 웹 검색 활동의 동적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회**, 59(3), 94-124.
- 김은하, 최승숙, 송승민, 강창욱(2019). 개별화교육계획 운영 및 개선 방안에 대한 특수교육 전문가들의 인식. **특수교육학연구**, 53(4), 1-27.
- 김지은(2017). 빅데이터를 활용한 대학구조개혁 평가의 키워드 및 토

- 픽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지은, 백순근(2016). 텍스트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활용한 대학구조개혁 평가의 쟁점 분석. **아시아교육연구**, 17(3), 409-436.
- 김진우(2014).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연구**. 세종: 보건복지부.
- 김진훈, 박정식(2012). 지적장애에 대한 종합일간지 신문보도의 경향분석(1990-2010년). **지적장애연구**, 14(1), 125-141.
- 김태중, 박상옥(2019). 뉴스 빅데이터를 활용한 평생교육 토픽 분석. **평생교육학연구**, 25(3), 29-63.
- 김호연(2005). 시사주간지에 나타난 장애인 관련 기사 보도의 내용 분석: 1991년부터 2003년까지의 Time지를 바탕으로. **특수교육연구**, 12(1), 99-118.
- 김황용, 채밀임(2011). “동그라미”를 활용한 사회-성 교육프로그램이 지적장애아동의 사회-성 행동에 미치는 효과. **지적장애연구**, 13(1), 77-99.
- 김혜선, 박도원, 홍영은(2018). 정신장애 범죄에 대한 언론보도 경향과 범죄위험성 인식: 신문기사 분석과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장애의 재해석**, 2018(1), 208-250.
- 김희선(2018).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에 관한 법적 고찰 -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사회법연구**, 36, 203-237.
- 김형일, 신현기(2003). 사회적 상황에 따른 정신지체학생의 사회적 정보처리 능력 연구. **특수교육학연구**, 38(1), 229-249.
- 남궁협(2018). ‘타자의 고통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언론의 역할. **한국언론정보학보**, 91, 41-75.
- 류재성(2018). 프레이밍효과에 대한 설문실험연구. **미래정치연구**, 8(3), 35-64.
- 민천식(2003). 정신지체 정의의 역사적 변천과정 특징에 관한 연구. **지적장애연구**, 5, 173-187.

- 민천식(2013). 한국 통합교육의 현황과 해결과제.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4(3), 49-69.
- 박광순, 안종묵(2015). 온라인 저널리즘의 추천기사가 뉴스 이용자의 뉴스기사 선택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6(3), 1795-1805.
- 박대민(2013). 뉴스 기사의 빅데이터 분석 방법으로서 뉴스정보원연결망 분석. **한국언론학보**, 57(6), 234-262.
- 박인준, 조성균(2019). 빅데이터를 활용한 비인기 스포츠 종목에 대한 언론보도 분석 - 2018 평창올림픽 컬링 종목을 중심으로. **한국체육과 학회지**, 28(2), 121-132.
- 박은정, 조성준(2014). KoNLPy: 쉽고 간결한 한국어 정보처리 파이썬 패키지. **제26회 한글 및 한국어 정보처리 학술대회 논문집**, 133-136.
- 박은혜, 김영욱(2007). 언론 프레이밍과 이미지회복전략이 공중의 위기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정보학보**, 38(2), 73-118.
- 박재연, 유용민(2018). 빅데이터 활용 선거 기사의 특성과 문제점.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학보**, 35(2), 89-140.
- 박정식(2010). AAIDD 11차 지적장애 정의와 분류 체계의 함의. **지적장애연구**, 12(4), 1-19.
- 박종희, 박은정, 조동준(2015). 북한 신년사(1946-2015)에 대한 자동화된 텍스트 분석. **한국정치학회보**, 49(2), 27-62.
- 박치성, 정지원(2013).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사회적 인식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정책이해관계자 간 공유된 의미 파악 사례. **정부학연구**, 19(2), 73-108.
- 박형용(2016). 개념 관계망 분석을 통한 2009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생명 영역의 핵심 주제 및 연계성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백승현, 김기탁(2018). 소셜 네트워크의 빅데이터 분석을 이용한 골프연습장 인식변화. **골프연구**, 12(2), 101-117.
- 백영민(2017). **R를 이용한 텍스트 마이닝**. 경기: 한울아카데미 한울애플

- 러스.
- 반현, 권영순(2007). 포털 뉴스와 기존 뉴스 매체의 이용행위에 대한 상관관계성 연구. **한국언론학보**, 51(1), 399-426.
- 변찬석(1996). 자폐성 아동의 정서인지 특성. **정서·행동장애연구**, 12(1), 43-61.
- 서지형(1993). **주요 일간신문의 장애인 관련기사 분석에 관한 일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효정(2014). 청소년기 지적장애 학생의 적응행동 관련 연구동향과 과제: 2002-2013년 국내 중재연구를 중심으로. **지적장애연구**, 16(2), 55-86.
- 신안나(2019). **빅데이터를 활용한 자유학기제 정책의 키워드 및 토픽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신안나, 백순근, 유예림, 김연경(2017). Keyword network analysis on 'Free Semester Policy' with Korean newspaper articles. *The SNU Journal of Education Research*, 26(4), 17-42.
- 신현기(1998). 「마음 읽기 이론」에서 본 자폐성 장애아동의 특성 연구. **특수교육요구 아동연구**, 7, 125-148.
- 송경재(2006). 포털의 의제 설정 과정에 관한 연구: 네이버, 네이트, 다음 뉴스 서비스를 중심으로. **사회이론**, (29), 178-208.
- 송해엽, 양재훈(2017). 포털 뉴스 서비스와 뉴스 유통 변화: 2000-2017 네이버 뉴스 빅데이터 분석. **한국언론학보**, 61(4), 74-109.
- 손승혜, 황하성, 장윤재(2011). 한국 언론의 교육보도 특성과 뉴스 가치 분석. **미디어와 교육**, 1(1), 115-145.
- 안종묵(2011). 인터넷 포털미디어의 저널리즘 특성에 관한 고찰: <네이버 뉴스>와 <야후 미디어>의 속보성, 상호작용성, 관련기사 서비스를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11(1), 187-218.
-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2018). **여론집중도조사보고서**.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 오진희, 김은정, 유윤영(2010). 마음이론의 본질과 발달에 대한 이론적 고

- 찰. **유아교육학논집**, 14(3), 293-316.
- 유예림(2017).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활용한 2015 개정 교육과정 정책에 대한 언론보도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유예림, 백순근(2016). 자동화된 텍스트 분석을 활용한 2015개정 교육과정 정책에 대한 언론 보도의 쟁점 분석. **교육과정평가연구**, 19(3), 127-156.
- 유정미, 방명애, 장역방(2016). 상황중심 성폭력 예방프로그램이 특수학급 지적장애 중학생의 성폭력 지식과 성 태도에 미치는 영향. **지적장애연구**, 18(1), 99-117.
- 이대식(2007). 성공적인 통합교육에 필요한 일반교육의 조건. **통합교육연구**, 2(1), 1-27.
- 이주영, 문덕수, 신석호, 유희정, 변희정, 서동수 (2017). 국내 자폐스펙트럼장애 아동의 병원 기반 조기 집중 실태 조사. **소아청소년정신의학**, 28(4), 213-219.
- 임화진, 박성현(2015). 빅데이터를 이용한 지역미래전략 수립에 관한 시론적 연구. **한국지적정보학회지**, 17(1), 75-90.
- 이소현, 박은혜(2011). **특수아동교육**. 서울: 학지사.
- 이승희, 조홍중(2001). ‘발달장애’ 개념에 대한 특수교육학적 고찰. **발달장애연구**, 5(2), 17-30.
- 이은지, 나은영(2013). 메시지 프레이밍과 정보원 유형이 학교폭력예방 캠페인의 설득효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회**, 57(5), 34-55.
- 이영철(2007). “정신지체”라는 명칭의 해체를 위한 담론. **지적장애연구**, 9(1), 23-42.
- 이효성(2006). 미디어 이용이 정당 지지에 미치는 효과: 미디어 이용의 역동성 모델과 점화효과 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회**, 50(1), 285-308.
- 이희란(2007). **고기능 자폐아동의 전제능력: 새로운 정보의 처리와 부정문 이해과정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희영, 김정기(2016). 질적 메타분석을 통한 뉴스프레임의 유형. **한국언**

- 론학회, 60(4), 7-38.
- 이창희, 박범영(2018). 대중매체에 나타난 패럴림픽에 대한 분석 및 발전 방향. **한국융합학회논문지**, 9(6), 235-240.
- 임영호(2000). 언론개혁운동의 과제와 전망. **창작과 비평**, 28(2), 48-61.
-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2017). **2017년 모니터 보고서**.
- 조이영, 안도현(2016). 국내 뉴스 보도 연구 동향에 관한 주제어 연결망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8), 278-291.
- 조홍중, 이미정(2012). ‘발달장애’의 개념에 관한 고찰 - 관련 법률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발달장애연구**, 16(3), 1-21.
- 전병운, 박현옥, 강영애, 박현주(2006). 우리나라 통합교육 관련 장애이해 활동 프로그램 연구의 내용과 방법에 관한 경향 분석.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7(4), 153-174.
- 정광조, 김동일(2017). 일반 중학교에서 장애인식개선교육과 통합교육의 효과와 개선 사항-비장애 중학생 대상 포커스 그룹 면담을 중심으로-. **특수교육연구**, 24(1), 266-290.
- 정대영(2006). 통합교육의 개념과 쟁점 고찰. **통합교육연구**, 1(1), 1-21.
- 정승화, 홍경훈(2011). 마음읽기 중재가 자폐범주성장애 아동의 마음상태 관련 어휘의 산출에 미치는 효과. **자폐성 장애연구**, 11(2), 1-23.
- 정승현(2008). 인터넷 언론의 보도 프레임 비교 분석: 「삼성특검」 보도를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진범섭(2016).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 치료 행위의 메시지 프레이밍 설득 효과: 관여도와 주관적 지식의 역할을 중심으로. **홍보학연구**, 20(3), 33-59.
- 채정화(2014). 포털 뉴스의 재매개 서비스 유형별 관점 다양성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28(5), 237-284.
- 최진호, 이해수, 진은형(2019). 4차산업혁명에 관한 뉴스 빅데이터 활용 토픽 분석: 언론사 유형 및 주요시기에 따른 비교를 중심으로.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학보**, 36(2), 173-220.
- 한경닷컴(2019.01.25.). 백신거부 늘면서 다시 고개 드는 홍역... 두 번 접종

- 하면 97% 예방.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9012530751>
- 한승희(2018). 뉴스 빅데이터를 이용한 우리나라 언론의 기록관리 분야  
보도 특성 분석: 1999-2018 뉴스를 중심으로. **정보관리학회지**,  
**35**(3), 41-75.
- 함미애, 박원희(1999). 한국신문의 장애 보도 경향에 대한 연구:  
1977-1997년까지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교육논총**, **14**, 17-32.
- 허미나, 이경숙, 변종석, 조숙환, 유희정(2014). 자폐성 장애 유아의 애착  
유형에 따른 언어발화와 공동주의 하기 비교. **자폐성 장애연구**,  
**14**(2), 1-21.
- 홍성두, 김원호(2019).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현황 및  
쟁점과 제안. **한국특수교육학회 2019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61-78.
- Aggarwal, C. C., & Zhai, C. (2012). An introduction to text mining. In  
*Mining Text Data* (pp. 1-10). Boston, MA: Springer.
- Arun, R., Suresh, V., Madhavan, C. V., & Murthy, M. N. (2010). On  
finding the natural number of topics with Latent Dirichlet  
allocation: Some observations. In M. J. Zaki, J. Xu Yu, B.  
Ravindran, & V. Pudi (Eds.), *Pacific-Asia Conference on  
Knowledge Discovery and Data Mining: 14th Pacific-Asia  
Conference, PAKDD 2010, Hyderabad, India, June 21 - 24,  
2010. Proceedings. Part I* (pp. 391 - 402). Berlin, Germany:  
Springer, Lecture Notes in Computer Science: Vol. 6118.
- Baron-Cohen, S. (1989). The autistic child's theory of mind: A case  
of specific developmental delay.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0**(2), 285-297.
- Baron-Cohen, S. (1991). The development of a theory of mind in  
autism: Deviance and delay?. *Psychiatric Clinics*, **14**(1), 33-51.
- Baron-Cohen, S., Leslie, A. M., & Frith, U. (1985). Does the autistic  
child have a "theory of mind"?. *Cognition*, **21**(1), 37-46.



- Bartak, L. & Rutter, M. (1974). The use of personal pronouns by autistic children. *Journal of Autism and Childhood Schizophrenia*, 4(3), 217-222.
- Barton, L. (1996). *Disability and Society: Emerging Issues and Insights*. London: Longman.
- BBC NEWS 코리아 (2018.11.04.). SNS 내 ‘백신 불신’ 퍼지고 있다... 영국 판 ‘안아키’. Retrived from <https://www.bbc.com/korean/news-46054006>
- Berzon, M. & Maran, F. (1989). Employment of social work students in projects for attitude change: A teaching-learning process. *Society and Welfare*, 1(1), 48-57.
- Blei, D. M. & Lafferty, J. D. (2009). Topic models. In Srivastava, A. & Sahami, M. (eds.). *Text Mining: Theory and Applications*. London: Taylor and Francis.
- Blei, D. M., Ng, A. Y., & Jordan, M. I. (2003). Latent dirichlet allocation. *Journal of Machine Learning Research*, 3(Jan), 993-1022.
- Bie, B. & Tang, L. (2015). Representation of autism in leading newspapers in China: A content analysis. *Health Communication*, 30(9), 884-893.
- Biklen, D. (1987). The culture of policy: disability images and their analogues in public policy. *Policy Studies Journal*, 15(3), 515-535.
- Bird, S. E. & Dardenne, R. W. (1988). Myth, chronicle, and story-exploring the narrative qualities of news. In J. Carey (ed.) *Media, Myths and Narratives* (pp. 67-86). Thousand Oaks, CA: Sage.
- Bogdan, R., Biklen, D., Shapiro, A. & Spelkoman, D. (1982). The disabled: Media's monster. *Social Policy*, 13(2), 32-35.
- Bonacich, P. (1972). Factoring and weighting approaches to status

- scores and clique identification, *Journal of Mathematical Sociology*, 21(1), 113–120, DOI:10.1080/0022250X.1972.9989806
- Bonacich, P. (1987). Power and centrality: A family of measur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2(5), 1170–1182.
- Borgatti, S. P., Mehra, A., Brass, D. J., & Labianca, G. (2009). Network analysis in the social sciences. *Science*, 323(5916), 892–895.
- Borgatti, S. P., Everett, M. G., & Freeman, L. C. (2002). *Ucinet 6 for Windows: Software for Social Network Analysis*. Harvard, MA: Analytic Technologies.
- Borgatti, S. P. (2002). *NetDraw: Graph Visualization Software*. Harvard, MA: Analytic Technologies.
- Boyce, T. (2006). Journalism and expertise. *Journalism Studies*, 7, 889–906.
- Bricker, D. (1995). The challenge of inclusion. *Journal of Early Intervention*, 19(3), 179–194.
- Byrd, E. K. (1997). Television news reports related to disability. *International Journal of Rehabilitation Research*, 20(1), 81–84.
- Byrd, E. K. & Elliot, T. R. (1988). Disability in full-length feature films: frequency and quality of films over an 11 year span. *International Journal of Rehabilitation Research*, 11(2), 143–148.
- Cao, J., Xia, T., Li, J., Zhang, Y., & Tang, S. (2009). A density-based method for adaptive LDA model selection. *Neurocomputing*, 72(7–9), 1775–1781.
- Capps, L., Kasari, C., Yirmiya, N., & Sigman, M. (1993). Parental perception of emotional expressiveness in children with autism.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1(3), 475.
- Carley, K. (1993). Coding choices for textual analysis: A comparison of content analysis and map analysis. *Sociological Methodology*,

23, 75–126.

- Carley, K. M. (1997). Network text analysis: The network position of concepts. In C. Roberts (Ed.), *Text analysis for the social sciences: Methods for drawing statistical inference from texts and transcripts* (pp. 79–100). Mahwah, NJ: Lawrence Erlbaum.
- Carmody, M. (1991). Invisible victims: Sexual assault of people with an intellectual disability. *Australia and New Zealand Journal of Developmental Disabilities*, 17(2), 229–236.
- Carter, M., Parmenter, T. R., & Watters, M. (1996). National, metropolitan and local newsprint coverage of developmental disability. *Journal of Intellectual and Developmental Disability*, 21(3), 173–198.
- Chadwick, O., Cuddy, M., Kusel, Y., & Taylor, E. (2005). Handicaps and the development of skills between childhood and early adolescence in young people with severe intellectual disabilities. *Journal of Intellectual Disability Research*, 49(12), 877–888.
- Clarke, C. (2008). A question of balance: The autism–vaccine controversy in the British and American elite press. *Science Communication*, 30(1), 77–107.
- Clifton, C., Cooley, R., & Rennie, J. (2004). Topcat: Data mining for topic identification in a text corpus. *IEEE transactions on knowledge and data engineering*, 16(8), 949–964.
- Craig, R. (2005). *Online Journalism: Reporting, Writing, and Editing for New Media*.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 Crain, S. P., Zhou, K., Yang, S. H., & Zha, H. (2012). Dimensionality reduction and topic modeling: From latent semantic indexing to latent dirichlet allocation and beyond. In Aggarwal, C. & Zhai, C. (Eds.). *Mining Text Data* (pp. 129–161). NY: Springer.
- Cukier, K. (2010). Data, data everywhere. *The Economist*, 25

February.

- Dawson, G., & McKissick, F. C. (1984). Self-recognition in autistic children. *Journal of Autism and Developmental Disorders*, 14(4), 383-394.
- DePloy, E., & Gilson, S. F. (2004). *Rethinking Disability: Principles for Professional and Social Change*. Belmont, CA: Thompson Brooks/Cole.
- Deveaud, R., SanJuan, E., & Bellot, P. (2014). Accurate and effective latent concept modeling for ad hoc information retrieval. *Document Numérique*, 17(1), 61-84.
- De Vreese, C. H. (2005). News framing: Theory and typology. *Information Design Journal & Document Design*, 13(1), 51-62.
- Dissanayake, C. & Crossley, S. A. (1997). Autistic children's responses to separation and reunion with their mothers. *Journal of Autism and Developmental Disorders*, 27(3), 295-312.
- Dixon, G. N. & Clarke, C. E. (2013). Heightening uncertainty around certain science: Media coverage, false balance, and the autism-vaccine controversy. *Science Communication*, 35(3), 358-382.
- Doll, E. A. (1941). The essentials of an inclusive concept of mental deficiency. *American Journal of Mental Deficiency*, 46, 214-219.
- Doll, E. A. (1941). Is mental deficiency curable?. *American Journal of Mental Deficiency*, 51, 420-428.
- Duvdevany, I., Rimmerman, A., & Portowicz, D. (1995). Knowledge about and attitudes toward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 assessment of Israeli social work stud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Rehabilitation Research*, 18(4), 362-367.
- Dyson, A., Howes, A., & Roberts, B. (2003). What do we really know about inclusive schools? *A Systematic Review of the Research*

- Schools?* Paper presented at the AERA Annual Meeting.
- Eichinger, J., Rozzo, T., & Sitornik, B. (1992). Attributes related to attitudes towards people with disabilities. *International of Rehabilitation Research*, 15, 53-56.
- Elliott, T. R., & Byrd, E. K. (1982). Media and disability. *Rehabilitation Literature*, 43(11-12), 348-355.
- Entman, R. M. (1993). Framing: Toward clarification of a fractured paradigm. *Journal of Communication*, 43(4), 51-58.
- Entman, R. M. (2007). Framing bias: Media in the distribution of power. *Journal of Communication*, 57(1), 163-173.
- Fay, W. H. (1979). Personal pronouns and the autistic child. *Journal of Autism and Developmental Disorders*, 9(3), 247-260.
- Fay, W. H., & Butler, B. V. (1968). Echolalia, IQ, and the developmental dichotomy of speech and language systems.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Research*, 11(2), 365-371.
- Feinerer, I., Hornik, K., & Feinerer, M. I. (2018). *Package 'tm'*. Corpus, 10, 1.
- Finlay, W. M. & Lyons, E. (2005). Rejecting the label: A social constructionist analysis. *Mental Retardation*, 43(2), 120-134.
- Freeman, L. C. (1979). Centrality in social networks: Conceptual clarification. *Social Networks*, 1, 215-239.
- Frith, U., Morton, J., & Leslie, A. M. (1991). The cognitive basis of a biological disorder: Autism. *Trends in Neurosciences*, 14(10), 433-438.
- Gamson, W. A., & Modigliani, A. (1989). Media discourse and public opinion on nuclear power: A constructionist approach.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5(1), 1 - 37.
- Gandomi, A., & Haider, M. (2015). Beyond the hype: Big data concepts, methods, and analytics. *International Journal of*

- Information Management*, 35(2), 137–144.
- Gardner, J. M., & Radel, M. S. (1978). Portrait of the disabled in the media.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6(3), 269–274.
- Gelman, A., Hwang, J., & Vehtari, A. (2014). Understanding predictive information criteria for Bayesian models. *Statistics and Computing*, 24(6), 997–1016.
- Gleeson, B. (1995). Disability: a state of mind?. *Australian Journal of Social Issues*, 30(1), 10–23.
- Gitlin, T. (1978). Media sociology: The dominant paradigm. *Theory and Society*, 6(2), 205–253.
- Goffman, E. (1974). *Frame Analysis: An Essay on the Organization of Experience*. Harvard University Press.
- Gold, N. & Auslander, G. (1999). Newspaper coverage of people with disabilities in Canada and Israel: An international comparison. *Disability & Society*, 14(6), 709–731. DOI:10.1080/09687599925858
- Graber, D. (1993). *Mass Media and American Politics*. Washington, DC: Congressional Quarterly Press.
- Griffiths, T. L. & Steyvers, M. (2004). Finding scientific topics.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01(suppl 1), 5228–5235.
- Grossman, H. J. (Ed.). (1973). *A Manual on Terminology and Classification in Mental Retardation* (Rev. ed.). Washington, DC: American Association on Mental Deficiency.
- Guillemette, J., Simms, B., Zhou, D., & Mills, S. (2018). Applying Latent Dirichlet Allocation to Yelp Reviews.
- Guralnick, M. J., & Groom, J. M. (1988). Friendships of preschool children in mainstreamed playgroups. *Developmental Psychology*, 24(4), 595–604.
- Hafferty, F. W. & Foster, S. (1994). Decontextualizing disability in

- the crime mystery genre: The case of the invisible handicap. *Disability & Society*, 9(2), 185-206.
- Hahn, H. & Pool Hegamin, A. (2001). Assessing scientific measures of disability. *Journal of Disability Policy Studies*, 12(2), 114-121.
- Hale, R. & Officer, C. O. (2005). Text Mining: Getting more value from literature resources. *Drug Discovery Today*, 10(6), 377-379.
- Hayden, M. F. & Nelis, T. (2002). Self-advocacy. In R. L. Schalock, P. C. Baker, & M. D. Croser (Eds.), *Embarking on a New Century: Mental Retardation at the End of the 20th Century* (pp. 221 - 234). Washington, DC: American Association on Mental Retardation.
- He, Q. (1999). Knowledge discovery through co-word analysis. *Library Trends*, 48(1), 133 - 159.
- Heflin, L., & Simpson, R. L. (1998). Interventions for children and youth with autism: Prudent choices in a world of exaggerated claims and empty promises. Part I: Intervention and treatment option review. *Focus on Autism and Other Developmental Disabilities*, 13(4), 194-211.
- Heber, R. (1959). A manual on terminology and classification in mental retardation. *A Monograph Supplement to the American Journal on Mental Deficiency*, 64(Monograph Suppl.).
- Heber, R. (1961). *A manual on Terminology and Classification on Mental Retardation* (Rev. ed.). Washington, DC: American Association on Mental Deficiency.
- Hobson, R. P. (1986). The autistic child's appraisal of expressions of emotion.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27(3), 321-342.

- Holton, A., Weberling, B., Clarke, C. E., & Smith, M. J. (2012). The blame frame: Media attribution of culpability about the MMR-autism vaccination scare. *Health Communication*. Advance online publication. DOI:10.1080/10410236.2011.633158
- Hornik, K., & Grün, B. (2011). topicmodels: An R package for fitting topic models. *Journal of Statistical Software*, 40(13), 1-30.
- Horn, E., & Fuchs, D. (1987). Using adaptive behavior in assessment and intervention: An overview.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21(1), 11-26.
- Howlin, P. (1982). Echolalic and spontaneous phrase speech in autistic children.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23(3), 281-293.
- Ian, F. (2014). *wordcloud: Word Clouds*. R package version, 2.
- Iyengar, S. (1991). *Is Anyone Responsible? How Television Frames Political Issues*.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Iyengar, S. & Kinder, D. R. (1987). *News that Matters: Agenda-Setting and Priming in a Television Ag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Jo, E. & Berkowitz, L. (1994). A priming effect analysis of media influences: An update. In Bryant, J. & Zillmann, D. (Eds.), *Media Effects: Advances in Theory and Research* (pp. 43 - 60). Hillsdale, NJ: Erlbaum.
- Johnson, J. C., Borgatti, S. P., & Everett, M. E. (2013). *Analyzing Social Networks*. London: Sage Publications.
- Joseph, R. M. & Tager-Flusberg, H. (1997). An investigation of attention and affect in children with autism and Down syndrome. *Journal of Autism and Developmental Disorders*, 27(4), 385-396.
- Jusoh, S. & Alfawareh, H. M. (2012). Techniques, applications and



- challenging issue in text mining.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Issues (IJCSI)*, 9(6), 431-436.
- Kahneman, D., & Tversky, A. (1979). Prospect theory: An analysis of decision under risk. *Econometrica*, 47, 263-291.
- Kanner, L. (1943). Autistic disturbances of affective contact. *Nervous Child*, 2(3), 217-250.
- Kaisler, S., Armour, F., Espinosa, J. A., & Money, W. (2013). Big data: Issues and challenges moving forward. In *2013 46th Hawaii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ystem Sciences* (pp. 995-1004). IEEE.
- Keller, C. E., Hallahan, D. P., McShane, E. A., Crowley, E. P., & Blandford, B. J. (1990). The coverag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American newspapers.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24(3), 271-282.
- Klin, A., Jones, W., Schultz, R., Volkmar, F., & Cohen, D. (2002). Visual fixation patterns during viewing of naturalistic social situations as predictors of social competence in individuals with autism.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59(9), 809-816.
- Kitchin, R. & McArdle, G. (2016). What makes Big Data, Big Data? Exploring the ontological characteristics of 26 datasets. *Big Data & Society*, 3(1), 1-10.
- Kovanović, V., Joksimović, S., Gašević, D., Siemens, G., & Hatala, M. (2015). What public media reveals about MOOCs: A systematic analysis of news reports.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Technology*, 46(3), 510-527.
- Kwon, O., Lee, N., & Shin, B. (2014). Data quality management, data usage experience and acquisition intention of big data analytics. *International Journal of Information Management*, 34(3), 387-394.

- Laney, D. (2001). 3-D *Data Management: Controlling Data Volume, Velocity and Variety*. META Gr. Res. Note 1 - 4.
- Leslie, A. M. & Frith, U. (1988). Autistic children's understanding of seeing, knowing and believing.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6(4), 315-324.
- Leydesdorff, L. & Welbers, K. (2011). The semantic mapping of words and co-words in contexts. *Journal of Informetrics*, 5(3), 469-475.
- Loveland, K. A. & Tunali-Kotoski, B. (2005). The school-age child with an autism spectrum disorder. In F. R. Volkmar, R. Paul, A. Klin, & D. Cohen (Eds.), *Handbook of Autism and Pervasive Developmental Disorders* (3rd ed., pp. 247-287). New York, NJ: John Wiley.
- Luckasson, R., Coulter, D. L., Polloway, E. A., Reese, S., Schalock, R. L., Snell, M. E., Spitalnik, D. M. & Stark, J. A. (1992). *Mental Retardation: Definition, Classification, and Systems of Supports* (9th ed.). Washington, DC: American Association on Mental Retardation.
- Mamula, R. A. & Newman, N. (1973). *Community Placement of the Mentally Retarded: A Handbook for Community Agencies and Social Work Practitioners*. Charles C. Thomas Publisher.
- Manyika, J., Chui, M., Brown, B., Bughin, J., Dobbs, R., Roxburgh, C., & Byers, A. H. (2011). *Big data: The Next Frontier for Innovation, Competition, and Productivity*. Retrieved from [http://www.mckinsey.com/Insights/MGI/Research/Technology\\_and\\_Innovation/Big\\_data\\_The\\_next\\_frontier\\_for\\_innovation](http://www.mckinsey.com/Insights/MGI/Research/Technology_and_Innovation/Big_data_The_next_frontier_for_innovation)
- Margolis, H., Shapiro, A., & Anderson, P. M. (1990). Reading, writing, and thinking about prejudice: stereotyped images of disability in the popular press. *Social Education*, 54(1), 28-30.

- Matson, J. L., Dempsey, T., & Fodstad, J. C. (2009). The effect of autism spectrum disorders on adaptive independent living skills in adults with severe intellectual disability. *Research in Developmental Disabilities, 30*(6), 1203-1211.
- McAfee, A., Brynjolfsson, E., Davenport, T. H., Patil, D. J., & Barton, D. (2012). Big data: the management revolution. *Harvard Business Review, 90*(10), 60-68.
- McEvoy, R. E., Loveland, K. A., & Landry, S. H. (1988). The functions of immediate echolalia in autistic children: A developmental perspective. *Journal of Autism and Developmental Disorders, 18*(4), 657-668.
- McGill, P. & Cummings, R. (1990). An analysis of the representation of people with mental handicaps in a British newspaper. *Mental Handicap Research, 3*(1), 60-69.
- McKeever, B. W. (2013). News framing of autism: Understanding media advocacy and the combating autism act. *Science Communication, 35*(2), 213-240.
- Medhat, W., Hassan, A., & Korashy, H. (2014). Sentiment analysis algorithms and applications: A survey. *Ain Shams Engineering Journal, 5*(4), 1093-1113.
- Michael-Smith, H. (1987). Presidential address 1987: Hollywood's portrayal of disability. *American Association on Mental Retardation, 25*(5), 259-266.
- Muhamad, J. & Yang, F. (2017). Framing autism: A content analysis of five major news frames in US-based newspapers. *Journal of Health Communication, 22*(3), 190-197.
- Nenkova, A. & McKeown, K. (2012). A survey of text summarization techniques, mining text data. In Aggarwal, C. & Zhai, C. (Eds.). *Mining Text Data* (pp. 43-76). NY: Springer.

- Neuendorf, K. A. (1990). Health images in the mass media. In Eileen Berlin Ray & Lewis Donohew (Eds.), *Communication and Health: Systems and Applications* (pp. 111 - 135).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Neuman, R. W., Just, M. R., & Crigler, A. N. (1992). *Common Knowledge: News and the Construction of Political Meaning*.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Nkhoma, C., Dang-Pham, D., Hoang, A. P., Nkhoma, M., Le-Hoai, T., & Thomas, S. (2019). Learning analytics techniques and visualisation with textual data for determining causes of academic failure. *Behaviour & Information Technology*, 1-16. DOI:10.1080/0144929X2019.1617349
- Ozonoff, S., Pennington, B. F., & Rogers, S. J. (1990). Are there emotion perception deficits in young autistic children?.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1(3), 343-361.
- Pan, Z. & Kosicki, G. M. (1993). Framing analysis: An approach to news discourse. *Political Communication*, 10(1), 55-75.
- Park, E. L. & Cho, S. (2014, October). KoNLPy: Korean natural language processing in Python. In *Proceedings of the 26th Annual Conference on Human & Cognitive Language Technology* (Vol. 6).
- Parmenter, T. R. (1991). Has social policy left research behind?. *Australia and New Zealand Journal of Developmental Disabilities*, 17, 1-6.
- Perner, J., Frith, U., Leslie, A. M., & Leekam, S. R. (1989). Exploration of the autistic child's theory of mind: Knowledge, belief, and communication. *Child Development*, 689-700.
- Pierce, K., Glad, K. S., & Schreibman, L. (1997). Social perception in children with autism: An attentional deficit?. *Journal of Autism*

- and Developmental Disorders*, 27(3), 265–282.
- Ponweiser, M. (2012). *Latent Dirichlet Allocation in R* (Diploma thesis). Vienna, Austria: Institute for Statistics and Mathematics, Vienna University of Business and Economics.
- Price, V. & Tewksbury, D. (1997). News values and public opinion: A theoretical account of media priming and framing. In G. A. Barnett & F. J. Boster (Eds.), *Progress in Communication Sciences: Advances in Persuasion* (Vol. 13, pp. 173 - 212). Greenwich, CT: Ablex.
- Price, V., Tewksbury, D., & Powers, E. (1997). Switching trains of thought: The impact of news frames on readers' cognitive responses. *Communication Research*, 24(5), 481–506.
- Prior, M., Dahlstrom, B., & Squires, T. L. (1990). Autistic children's knowledge of thinking and feeling states in other peopl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1(4), 587–601.
- Prizant, B. (1983). Echolalia in autism: Assessment and intervention. *Seminars in Speech and Language*, 4, 63 - 77.
- Rapley, M. (2004). *The Social Construction of Intellectual Disabili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eiter, S., Bryen, D. N., & Shachar, I. (2007). Adolesc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as victims of abuse. *Journal of Intellectual Disabilities*, 11(4), 371–387.
- Richards, W. & Seary, A. (2000). Eigen analysis of networks. *Journal of Social Structure*, 1(2), 1–17.
- Richardson, L. (2017). *Beautiful Soup*. <https://www.crummy.com/software>.
- Rogers, S. J., Ozonoff, S., & Maslin–Cole, C. (1993). Developmental aspects of attachment behavior in young children with pervasive developmental disorder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32(6), 1274–1282.

- Rumsey, J. M., & Hamburger, S. D. (1988). Neuropsychological findings in high-functioning men with infantile autism, residual state. *Journal of Clinical and Experimental Neuropsychology*, 10(2), 201-221.
- Russom, P. (2011). Big data analytics. *TDWI Best Practices Report, Fourth Quarter, 19(4)*, 1-34.
- Rutter, M. (1968). Concepts of autism: a review of research. *Child Psychology & Psychiatry & Allied Disciplines*, 9, 1-25.
- Rutgers, A. H., Bakermans Kranenburg, M. J., van Ijzendoorn, M. H., & van Berckelaer Onnes, I. A. (2004). Autism and attachment: a meta analytic review.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5(6), 1123-1134.
- Rutter, M., & Garmez, N. (1983).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4, 775-911.
- Schaafsma, D., Kok, G., Stoffelen, J. M., & Curfs, L. M. (2015). Identifying effective methods for teaching sex education to individual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A systematic review. *Journal of Sex Research*, 52(4), 412-432.
- Schalock, R. L., Buntinx, W., Borthwick-Duffy, A., Luckasson, R., Snell, M., Tasse', M., & Wehmeyer, M. (2007). *User's Guide: Mental Retardation: Definition, Classification, and Systems of Supports* (10th ed.). Washington, DC: American Association on Intellectual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 Schroeck, M., Shockley, R., Smart, J., Romero-Morales, D., & Tufano, P. (2012). *Analytics: the Real-world Use of Big Data*. IBM Institute for Business Value, IBM Institute for Business Value-Executive Report.
- Scheufele, D. A. & Tewksbury, D. (2006). Framing, agenda setting, and priming: The evolution of three media effects models.

- Journal of Communication*, 57(1), 9-20.
- Scott, J. (2012). *소셜 네트워크 분석* (김효동, 김광재, 역).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Semetko, H. A., & Valkenburg, P. M. (2000). Framing European politics: A content analysis of press and television news. *Journal of Communication*, 50(2), 93-109.
- Steyvers, M., & Griffiths, T. (2007). Probabilistic topic models. *Handbook of Latent Semantic Analysis*, 427(7), 424-440.
- Sudhahar, S., Veltri, G. A., & Cristianini, N. (2015). Automated analysis of the US presidential elections using Big Data and network analysis. *Big Data & Society*, 2(1), 1-28.
- Swanton, S., Walsh, S., O'Murchu, R., & O'Flynn, P. (2010). A tool to determine support needs for community life. *Learning Disability Practice*, 13(8), 24-26.
- Tager-Flusberg, H., & Calkins, S. (1990). Does imitation facilitate the acquisition of grammar? Evidence from a study of autistic, Down's syndrome and normal children. *Journal of Child Language*, 17(3), 591-606.
- Tait, A. A. (1992).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Mass Media: Literature Review*. Proceedings of the Annual Meeting of the Association for Education in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Montreal).
- Tassé, M. J., Schalock, R. L., Balboni, G., Bersani Jr, H., Borthwick-Duffy, S. A., Spreat, S., Thissen, D., Widaman, K. & Zhang, D. (2012). The construct of adaptive behavior: Its conceptualization, measurement, and use in the field of intellectual disability. *American Journal on Intellectual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117(4), 291-303.
- Tewksbury, D. & Scheufele, D. A. (2009). News framing theory and

- research. In Bryant, J. & Oliver, M. B. (3rd Ed.) *Media Effects: Advances in Theory and Research* (pp. 33-49). NJ: Routledge.
- Tong, X. & Lifset, R. (2007). International copper flow network: A blockmodel analysis. *Ecological Economics*, 61(2-3), 345-354.
- Tuchman, G. (1978). *Making News: A Study in the Construction of Reality (Vol. 256)*. New York: Free Press.
- UNESCO(1989). **장애인에 관한 사회인식 핸드북**. 서울: 유네스코 한국 위원회.
- Vargo, C. J. & Guo, L. (2017). Networks, big data, and intermedia agenda setting: An analysis of traditional, partisan, and emerging online US news.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94(4), 1031-1055.
- Wallach, H. M., Murray, I., Salakhutdinov, R., & Mimno, D. (2009). Evaluation methods for topic models. In *Proceedings of the 26th Annual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achine Learning* (pp. 1105-1112). ACM.
- Wehmeyer, M. L., Buntinx, W. H., Lachapelle, Y., Luckasson, R. A., Schalock, R. L., Verdugo, M. A., ... & Gomez, S. C. (2008). The intellectual disability construct and its relation to human functioning. *Intellectual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46(4), 311-318.
- Whitehouse, M. A. & McCabe, M. P. (1997). Sex education programs for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How effective are they?. *Education and Training in Mental Retardation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32(3), 229-240.
- Wilkinson, P., & McGill, P. (2009). Representation of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in a British newspaper in 1983 and 2001. *Journal of Applied Research in Intellectual Disabilities*, 22(1), 65-76.



- Willemsen-Swinkels, S. H., Bakermans-Kranenburg, M. J., Buitelaar, J. K., Van IJzendoorn, M. H., & van Engeland, H. (2000). Insecure and disorganised attachment in children with a pervasive developmental disorder: Relationship with social interaction and heart rate. *Th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and Allied Disciplines*, 41(6), 759-767.
- Wimmer, H., & Perner, J. (1983). Beliefs about beliefs: Representation and constraining function of wrong beliefs in young children's understanding of deception. *Cognition*, 13(1), 103-128.
- Wing, L., & Gould, J. (1979). Severe impairments of social interaction and associated abnormalities in children: Epidemiology and classification. *Journal of Autism and Developmental Disorders*, 9(1), 11-29.
- Yirmiya, N., Kasari, C., Sigman, M., & Mundy, P. (1989). Facial expressions of affect in autistic, mentally retarded and normal children.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0(5), 725-735.
- Yoshida, R. K., Wasilewski, L., & Friedman, D. L. (1990). Recent newspaper coverage about persons with disabilities. *Exceptional Children*, 56(5), 418-423.

## 부 록

### [부록 1] 언론사별 분석대상 기사 수

No.	언론사명	기사 수	%	No.	언론사명	기사 수	%
1	강원일보	220	1.41	31	바른미래당	2	0.01
2	경향신문	469	3.00	32	바른정당	1	0.01
3	교육인적자원부	4	0.03	33	부산일보	353	2.26
4	국민일보	732	4.69	34	블로터	15	0.10
5	국정브리핑	13	0.08	35	서울경제	254	1.63
6	국회	8	0.05	36	서울신문	348	2.23
7	기자협회보	6	0.04	37	선진통일당	3	0.02
8	내일신문	236	1.51	38	세계일보	467	2.99
9	노컷뉴스	456	2.92	39	스타뉴스	2	0.01
10	뉴스1	600	3.84	40	스포츠경향	45	0.29
11	뉴스위크 한국판	2	0.01	41	스포츠동아	31	0.20
12	뉴시스	1489	9.54	42	스포츠서울	20	0.13
13	대전일보	93	0.60	43	스포츠월드	27	0.17
14	더불어민주당	5	0.03	44	스포츠조선	66	0.42
15	데일리e스포츠	5	0.03	45	시사IN	28	0.18
16	데일리안	119	0.76	46	시사저널	7	0.04
17	동아사이언스	3	0.02	47	신동아	34	0.22
18	동아일보	596	3.82	48	씨네21	8	0.05
19	디스이즈게임	2	0.01	49	아시아경제	418	2.68
20	디지털데일리	33	0.21	50	아이뉴스24	79	0.51
21	디지털타임스	111	0.71	51	엑스포즈뉴스	9	0.06
22	레이디경향	30	0.19	52	여성신문	94	0.60
23	마이데일리	11	0.07	53	연합뉴스	1654	10.59
24	매경이코노미	13	0.08	54	연합뉴스TV	73	0.47
25	매일경제	387	2.48	55	연합인포맥스	2	0.01
26	매일신문	292	1.87	56	오마이뉴스	308	1.97
27	머니S	61	0.39	57	원타뉴스 코리아	1	0.01
28	머니투데이	473	3.03	58	이데일리	222	1.42
29	문화일보	238	1.52	59	이코노미스트	1	0.01
30	미디어오늘	28	0.18	60	인벤	1	0.01

No.	언론사명	기사 수	%	No.	언론사명	기사 수	%
61	일간스포츠	2	0.01	86	환경비즈니스	20	0.13
62	일다	25	0.16	87	한국경제	256	1.64
63	자유한국당	10	0.06	88	한국경제TV	74	0.47
64	전자신문	132	0.85	89	한국일보	217	1.39
65	정의당	5	0.03	90	헤럴드경제	317	2.03
66	정책브리핑	232	1.49	91	헤럴드POP	152	0.97
67	제주일보	37	0.24	92	헬스조선	9	0.06
68	조선비즈	34	0.22	93	환경부	2	0.01
69	조선일보	9	0.06	94	EPA연합뉴스	1	0.01
70	조세일보	46	0.29	95	JTBC	43	0.28
71	조이뉴스24	3	0.02	96	JTBC GOLF	1	0.01
72	주간경향	44	0.28	97	KBS	216	1.38
73	주간동아	16	0.10	98	MBC	151	0.97
74	중앙SUNDAY	23	0.15	99	MBC iMTV	1	0.01
75	중앙일보	54	0.35	100	MBC연예	1	0.01
76	참세상	37	0.24	101	MBN	256	1.64
77	채널A	25	0.16	102	OSEN	23	0.15
78	코리아헤럴드	5	0.03	103	SBS	145	0.93
79	코메디닷컴	16	0.10	104	SBS CNBC	16	0.10
80	쿠키뉴스	127	0.81	105	SBS funE	11	0.07
81	파이낸셜뉴스	391	2.50	106	SBS(text)	75	0.48
82	포모스	9	0.06	107	TV리포트	8	0.05
83	프레시안	113	0.72	108	TV조선	31	0.20
84	한겨레	521	3.34	109	YTN	254	1.63
85	한겨레21	67	0.43	110	ZDNet Korea	45	0.29

[부록 2] 토픽명 타당성 검토 설문지

**발달장애 학생 언론보도기사 토픽명 타당성 검토**

안녕하세요. 바쁘신 중에 연구 참여를 승낙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설문은 연구자의 박사학위논문의 일환으로 1990년부터 2019년 4월까지 보도된 발달장애 학생 관련 언론보도기사에서 추출된 주제명(이하 토픽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설문은 크게 발달장애 학생, 지적장애 학생, 자폐범주성장애(이하 자폐성장애) 학생 관련 언론보도기사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출된 주제, 주제에 포함된 단어, 그리고 주제에 포함된 기사의 예시를 살펴보고, **토픽명의 타당성을 평정**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토픽명의 타당성을 평정하실 때에는 포함된 단어를 최대한 활용하여 평정 또는 명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는 하나의 예시로 참고해주세요.)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는 약 만 원 상당의 기프트콘이 발송됩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19년 11월

연구자 안예지 드림

(010-8946-4551 / yan13@snu.ac.kr)

**응답자 기본정보**

1. 성함	
2. 소속	
3. 교원자격종류	<input type="checkbox"/> 일반교사 (통합교육경험 <input type="checkbox"/> 있음 또는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특수교사
4. 학교급	<input type="checkbox"/> 초등학교 <input type="checkbox"/> 중학교 <input type="checkbox"/> 고등학교
5. 경력	(        )년 (        )개월
6. 최종 학력	<input type="checkbox"/> 대학교 졸업 <input type="checkbox"/> 석사학위 취득 <input type="checkbox"/> 박사학위 취득
7. 전공 분야	
8. 연락처	

## 1. 발달장애 학생 언론보도 전체

발달장애 학생 관련 언론보도기사는 15,616건으로 해당 분석에서 총 16개의 토픽이 아래와 같이 추출되었습니다. 토픽에 포함된 10개의 단어와 예시 기사를 보고 토픽명의 타당성을 평정해주세요. 진하게 표시된 단어는 예시기사에 포함된 단어입니다.

### <토픽 1>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포함단어	전혀 타당하지 않음	타당하지 않음	보통	타당함	매우 타당함
<b>진행</b> , 경제, <b>참여</b> , 제공, <b>활동</b> , <b>기업</b> , 사회, 프로그램, <b>지속</b> , <b>구성</b>	①	②	③	④	⑤

1)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 대체할 수 있는 토픽명은? ( )

<2013.08.13. 한국경제> **효성, '찾아가는 클래식 음악회'로 이웃에게 희망을**  
 효성은 다양한 문화활동을 통해 임직원은 물론 소외된 계층을 아우르는 화합을 실천하고 있다. 대표적인 메세나 활동이 '효성 킷치 시리즈'다. 효성은 지난해 다문화가정 청소년 50명으로 구성된 세종꿈나무하모니 오케스트라 단원을 '요요마와 실크로드 앙상블' 공연에 초청했다. 세계적인 첼리스트 요요마와 실크로드 앙상블 단원들로부터 직접 연주 지도를 받을 수 있는 특별 티칭클래스를 열기도 했다. 문화활동을 자유롭게 즐기기 어려운 이웃을 위해 직접 음악회도 개최한다. 효성의 산업자재PG(Performance Group)는 지난 6월 중증 뇌병변 장애아동 40여명이 생활하는 요양 시설인 영락애니아의 집에서 '찾아가는 클래식 음악회'를 열었다. 산업자재PG는 장애아동들이 음악을 들으며 기쁨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트하트 오케스트라' 내 하트 금관 앙상블과 마포문화재단 상주 단체인 '환경오페라단 더 뮤즈'를 섭외해 특별한 무대를 기획했다. 하트하트 오케스트라는 발달장애인들이 단원으로 활동하는 오케스트라다. (이하생략)

## <토픽 2> 통합교육

포함단어	전혀 타당하지 않음	타당하지 않음	보통	타당함	매우 타당함
교사, 학교, 수업, 교실, 지적장애, 학부모, 지도, 교육, 서울, 현장	①	②	③	④	⑤

1)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 대체할 수 있는 토픽명은? ( )

### <2002.06.07. 동아일보> 장애-일반학생 첫 통합교육

7일 오전 10시 대전 동구 삼성동 삼성초등학교 교정. 정신지체 특수학교에 다니는 대전 혜광학교 초등학생 49명이 버스에서 내리자 기다리고 있던 삼성초 재학생 500여명이 다가가 사탕으로 만든 목걸이를 걸어 주었다. 혜광학교 강영자 교장과 삼성초 김병기 교장의 인사말에 이어 두 학교 학생들은 서로 인사를 나눈 뒤 삼삼오오 짝을 지어 각 교실로 들어갔다. 장애 학생 1명에 정상적인 학생 2명씩이 붙어 이동을 도왔다. 정신지체 장애 학생과 일반 학생들의 통합교육이 처음 시작되는 날 표정이다. 대전시교육청은 올해부터 2년 동안 혜광학교와 일반 학교인 대전 삼성초, 가오중 등 3개 학교에서 통합교육을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 해 대전맹학교 학생과 중앙초, 가오중이 통합교육을 실시한 적은 있으나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정신지체 학생들과의 통합교육은 이번이 처음. 각 교실로 들어간 혜광학교 학생들은 학급별로 선정한 도우미 학생들의 도움을 받아 2교시 80분간의 수업을 마쳤다. 삼성초 유주리양(12·6학년)은 “처음엔 이상했지만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다”고 말했다. 중등부 학생 20명도 14일 오전 10시부터 가오중에서 첫 통합교육을 받을 예정.시 교육청 특수교육담당 최재선(崔在善·50) 장학사는 “올 1학기는 격주로 하지만 2학기부터는 매주 1회씩 늘리고 교과수업 뿐만 아니라 운동회 등산 갯벌탐사활동 등 각종 캠프활동도 함께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토픽 3> 대회 및 행사

포함 단어	전혀 타당하지 않음	타당하지 않음	보통	타당함	매우 타당함
행사, 전국, 대회, 참가, 개최, 경기, 협회, 진행, 참여, 지적장애	①	②	③	④	⑤

1)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 대체할 수 있는 토픽명은? ( )

<2009.09.07. 지디넷코리아> **한콘진, 전국 장애학생 e스포츠 대회 개최**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이재웅)은 ‘제5회 전국 장애학생 e스포츠 대회’를 오는 8일과 9일 양일간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국립특수교육원(원장 이효자)과 CJ인터넷(대표 정영종)이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등이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e스포츠를 활용한 장애학생들과의 교류 기회 제공함으로서 이들의 새로운 여가문화를 제공하고 인식개선 및 관심제고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전국 16개 시도 600여명이 참가하며 특수학교부문과 비장애 학생 및 학부모와 장애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특수학교 부문은 정신지체,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4개 부문으로, 통합부문은 일반학급 학생이 참여하는 2개 부문과 학부모와 장애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2개 부문 등 총 4개 부문으로 구성된다. 대회 종목은 교육용 게임인 구구단레이싱(재미나라), 마구마구(씨제이인터넷), 카트라이더(넥슨), 테트리스(NHN), 피파온라인(네오위즈), 피퍼(조엔) 총 6개다. 이재웅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은 “장애학생들이 모두와 함께 직접 소통하고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e스포츠를 활용한 특수교육의 발전 기반을 도모하는 행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 <토픽 4> 사회보호관리

포함단어	전혀 타당하지 않음	타당하지 않음	보통	타당함	매우 타당함
<b>종합, 이용, 지역, 상담, 센터, 시설, 생활, 사회, 보호, 관리</b>	①	②	③	④	⑤

1)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 대체할 수 있는 토픽명은? ( )

#### <2018.09.12. 매일경제> 발달장애인 통합유치원·특수학교 늘린다…2022년까지 '평생케어 종합대책' 추진

혼자서는 생활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에게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지원을 하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교육부는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먼저 영유아기에 발달장애에 대한 조기진단과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대상 소득 기준을 현행 하위 30%에서 2019년 하위 50%까지 우선 확대하고, 전체 영유아로 점차 넓힐 방침이다. 발달장애 진단을 받으면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해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해 재활·치료 등 필요서비스 제공한다.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을 2022년까지 5년간 60곳 신설해 발달장애아의 보육서비스 접근성을 높인다. 2022년까지 통합유치원을 1곳에서 17곳으로, 유치원 특수학급을 731개 학급에서 1131개 학급으로 늘려서 특수교육대상 유아 교육지원을 강화한다. 발달장애아를 둔 부모의 양육역량 제고에도 힘쓴다. '발달장애 조기개입 국가 표준안'을 마련하고 발달장애 정보가 부족한 부모에게 동료 부모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공해 초기 적응을 돕고 지역사회 관계 형성을 지원한다. 청소년기에는 청소년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신설해 일반 중·고교 발달장애 학생에게 방과 후에 하루 2시간 돌봄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한다. 2022년까지 특수학교를 174개 학교에서 197개 학교로 23개 학교 이상 새로 만들고, 특수학급은 1만325개 학급에서 1만575개 학교로 1000개 늘려 과밀학급 및 원거리 통학 문제를 해소한다. 고용연계 직업훈련, 직업체험 등을 통한 장애학생 직무·취업 역량 향상 위해 '발달장애인훈련센터'를 올해 7곳에서 2022년까지 17곳으로 늘린다. (이하생략)



## <토픽 5> 특수교육

포함단어	전혀 타당하지 않음	타당하지 않음	보통	타당함	매우 타당함
<b>학교, 특수학교, 교육청, 특수교육, 지적장애, 교사, 교육, 학부모, 서울, 전국</b>	①	②	③	④	⑤

1)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 대체할 수 있는 토픽명은? ( )

### <2005.07.27. 서울신문> 장애인 특수교육 ‘중대 장애’

발달장애 2급 자녀를 둔 학부모 이모(가명)씨는 매일 아침 기도를 한다. 고등학생인 아들이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에 다니느라 버스와 지하철을 두 차례나 갈아타며 한 시간 넘게 통학을 하고 있어 불안한 탓이다. 가까운 학교에서 다니게 해달라고 서울시교육청에 민원도 제기했지만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김모(여)씨는 지난해 정신지체 2급인 아들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려다 퇴짜를 맞았다. 일반 학교에서 가르칠 수 없다는 이유였다. 특수학급에서 배울 수 있다는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졌다. 장애인 자녀를 두고 있는 학부모라면 누구나 고개를 끄덕이는 특수교육의 현주소다. (중략) 어렵게 학교에 들어가더라도 감수해야 할 것은 또 있다. 통학 시간은 가장 큰 고민이다. 30분 안에 학교에 갈 수 있는 학생들은 1만 1925명, 전체의 50.9%로 절반뿐이다. 2시간 이상 걸려 통학하는 학생도 141명이나 된다. 학교를 졸업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고등학교 졸업 이후 취업률은 30.9%에 불과하다. 장애인 취업에 유리하다는 공예와 제과제빵 등 특수학교 전공과목을 이수한 학생들의 취업률도 30.3%에 불과하다. 당국의 무관심도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전국 182개 시·군·구교육청에서 특수교육 업무를 맡고 있는 장학사 203명 가운데 125명은 관련 자격증조차 갖고 있지 않은 ‘특수교육 문외한’이다. 서울과 경기, 부산 등 7개 시·도교육청은 담당 장학관조차 자격증이 없다. 교원도 크게 부족하다. 유·초·중·고 통합학급 교원 중 특수교육 연수를 받은 교원은 8.0%. 치료교사는 학생 162명당 1명, 직업교사는 438명당 1명에 그친다. 이것도 특수학교에만 배치돼 있으며, 일반 학교의 특수학급에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특수교육 예산도 너무 적다. 지난해는 전체 교육 예산의 2.5% 수준이다. (이하생략)

## <토픽 6> 체험활동 프로그램

포함단어	전혀 타당하지 않음	타당하지 않음	보통	타당함	매우 타당함
진행, 프로그램, 체험, 제공, 참여, 활동, 마련, 실시, 운영, 문화	①	②	③	④	⑤

1)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 대체할 수 있는 토픽명은? ( )

### <2012.06.02.연합뉴스> 인천 산곡남초 장애학생 7명, 제주도서 트레킹

인천 산곡남초등학교는 특수학급 3~6학년생 7명이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제주도를 여행하는 자연·문화체험 기회를 가졌다고 2일 밝혔다. 이들 장애 학생은 다른 또래들에 비해 지능이 많이 떨어지는 정신지체 1·2급 학생이고 특히 2명은 제대로 걸지 못하는 신체장애까지 갖고 있다. 이들 학생은 교장과 교사 3명의 안내와 지도로 한라산 중턱 휴양림과 둘레길 18번 코스를 걸으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협동심도 키웠다. 유리의성, 에코랜드 등 테마공원도 둘러봤다. 학생들은 가는 곳마다 웃고 소리를 지르며 모처럼의 나들이에 흠뻑 빠졌다. 주변 사람들은 이 학생들의 괴성에 놀라워하며 쳐다보기도 했지만 학생들은 마냥 즐거워했다고 이 학교 김동래 교장은 전했다. 김 교장은 "아이들이 비행기를 타면서부터 돌아올 때까지 시종 큰 소리로 떠들고 웃으며 지냈다"며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교장과 교사는 잠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다. 학교에서도 1대1 또는 1대2로 돌봐야 할 만큼 아이들이 돌발적인 행동을 자주 하기 때문이다. 다행히 사고 없이 모두 안전하게 돌아왔다. 이들 학생의 제주도 체험 여행은 학부모들의 요청을 학교가 수용해 이뤄졌다. 학생들 대부분 가정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제주도 여행을 한 적이 없는 점도 고려됐다. 학교 측은 안전사고에 대비, 교사를 가능한 한 많이 참여시키려 했으나 역시 비용 문제가 걸려 최소 인원만으로 체험단을 꾸렸다. 김동래 교장은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 내년에도 제주도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토픽 7> 조사결과발표

포함단어	전혀 타당하지 않음	타당하지 않음	보통	타당함	매우 타당함
문제, 내용, <b>결과, 실제, 포함, 발표</b> , 수준, 방법, 설명, 사용	①	②	③	④	⑤

1)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 대체할 수 있는 토픽명은? ( )

### <2011.12.28. 매일경제> 광주 인화원, 생활교사가 중증장애인에 안마 강요와 폭행

인권위, 광주 인화원 직권조사 결과 발표. 영화 '도가니'의 실제 무대였던 광주인화학교와 인접한 광주인화원에서 인권 침해가 공공연히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중증장애인시설 광주 인화원에서 안마 강요행위와 폭행 등의 인권 침해 행위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생활교사 7명을 광주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28일 밝혔다. 인권위는 인화원이 지난 10월31일 폐교된 점을 고려해 시설장에 별도의 책임은 묻지 않기로 했으며,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영화 도가니로 인화학교 사태가 재조명되고 인화원에서 생활하는 인화학교 학생 성폭행 사건이 발생하자 사회복지법인 우석 소속 기관에 대해 지난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인화원 생활인 42명을 대상으로 2차례에 걸친 심층조사를 진행한 결과 지적 장애와 언어 장애를 동시에 가진 여성 생활인이 야간에 생활교사 2명에게 불려가 안마를 강요받았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또 조사결과 인화원은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지 않고 생활인에게 단순 작업 노동 대가로 월 3만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 최저임금법을 위반해왔음이 드러났다. 장향숙 인권위 상임위원은 "영화 도가니를 본 국민들의 분노의 영향으로 현재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논의가 국회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사회복지법인이 투명하게 운영되려면 현재 법안에 '공익이사제'가 반드시 포함돼야한다"고 말했다.

## <토픽 8> 교육시설 설립

포함단어	전혀 타당하지 않음	타당하지 않음	보통	타당함	매우 타당함
<b>지역, 계획, 주민, 설립, 시설, 사업, 추진, 운영, 지원, 센터</b>	①	②	③	④	⑤

1)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 대체할 수 있는 토픽명은? ( )

### <2015.10.22. 세계일보> “장애아 돌발사고 우려” 편견에… 발달장애인 교육시설 공사 표류

발달장애 학생을 위한 교육시설이 지역 주민의 반대로 착공 이후 한 달째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22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착공된 ‘발달장애 학생 직업능력개발센터’ 공사가 이틀 만에 중지된 이후 한 달째 표류 중이다. (중략) 서울 동대문구 성일중학교 부지에 들어설 예정인 이 센터는 서울시교육청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공동으로 설립, 운영하는 발달장애 학생 대상 직업교육 시설이다. (중략) 교육청은 착공 전에 세 차례에 걸쳐 주민 대상 설명회를 진행했고 착공 이후에도 두 차례에 걸쳐 주민 간담회를 진행했으나 주민들은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발달장애 성인과 중학생이 같은 공간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반대하고 있다. 성일중학교 학부모와 인근 주민들은 ‘성일중학교 내 장애인직업센터 설립 반대 위원회’(위원회)를 구성해 지난달 23일부터 현재까지 성일중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교육청은 “시설을 이용하는 발달장애인은 특수학교를 갓 마친 18~19세의 미성년자들이며 해당 시설과 성일중은 분리돼 있어 발달장애인과 중학생이 같은 공간을 이용하지는 않는다”면서 주민을 설득하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계자는 “어렵게 확보한 예산인데 공사가 연말까지 진행되지 못하면 불용 처리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교육청 관계자도 “성일중 부지처럼 조건이 좋은 공간을 서울 시내에서 찾기는 어렵다”며 “주민들을 최대한 설득해 올해 안에 공사 마무리 지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박인용 서울장애인부모회 대표는 “장애학생들의 돌발행동을 우려하는 반대 의견도 있지만 이는 편견에 불과하다”며 “시설 이용 학생은 각 특수학교에서 선발과정을 거친 학생들”이라고 반박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장애인 시설이 들어서면 집값이 떨어진다면서 일단 반대하고 보는 주민들도 많은 것으로 안다”고 “결국 약자에 대한 배려 없는 지역이기주의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 <토픽 9> 성범죄

포함단어	전혀 타당하지 않음	타당하지 않음	보통	타당함	매우 타당함
사건, 조사, 경찰, 피해, 혐의, 피해자, 성폭행, 발생, 보호, 여성	①	②	③	④	⑤

1)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 대체할 수 있는 토픽명은? ( )

### <2003.12.22. 경향신문> 성폭행 피해아동 ‘악몽’ 두번 겪는다

경찰이 성폭행 피해아동이 조사과정에서 당하는 제2의 피해를 막기 위해 각종 제도적 보호장치를 도입하고 있지만 막상 현장에서는 제대로 먹혀들지 않고 있다. (중략) ◇사건발생=지난 20일 밤 9시40분 서울 ○지하도. 정신지체 3급인 초등학생 ㅂ양이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본 노숙자 조모씨(56)는 “딸 기우유 사줄게”라며 ㅂ양을 유인, 인근 노래방 건물 화장실로 데려가 옷을 벗기고 성폭행했다. ㅂ양의 비명을 들은 시민이 경찰에 신고해 조씨를 붙잡았으나 ㅂ양은 이후 무려 20시간 이상 경찰서와 병원, 상담소를 전전하며 조사를 받아야 했다. ◇녹초 만든 조사=다음날 0시40분 서울 모 경찰서 형사계. ㅂ양은 이미 울다 지쳐 기진맥진해 있었지만 어린 정신지체아의 부모를 찾는 데는 2시간 가깝게 걸렸다. 새벽 3시15분쯤 서울 모 병원에서 검사를 받게 한 경찰은 ㅂ양을 집에 돌려보낼 경우 다시 불러내야 하는 등 일처리가 늦어질 것을 우려, 이날 아침까지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는 경찰서 형사계에 대기시켰다. (중략) ◇되살아난 악몽=비디오 녹화는 했지만 경찰은 “진술서 작성에 미진한 부분이 많다”며 ㅂ양과 어머니를 경찰서 여성청소년계가 아닌 형사계에 대기시킨 채 중복성 질문을 계속했다. 일요일이라 담당 여성 경찰관은 없었고 남자 형사가 조사를 맡았다. 담당 형사는 오후 3시10분쯤부터 약 1시간20분 동안 가해자가 앞에 앉아있는 자신의 자리 옆에 ㅂ양을 앉혀놓고 “이 아저씨가 아는 사람인가” “속옷을 누가 벗겼나” “어떻게 아저씨를 따라갔나” 등의 질문을 계속했다. (중략) 한국성폭력상담소 이미경 소장은 “장시간 계속 조사와 비디오 채증후 재조사는 성폭력 아동보호제도의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한 채 상처만 더해준 사례”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비디오 진술 한번만으로도 법정까지 하자가 없도록 진담 경찰관이 한 번에 일을 끝낼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토픽 10> 자폐성장애 학생사례

포함단어	전혀 타당하지 않음	타당하지 않음	보통	타당함	매우 타당함
<b>자폐성장애, 성장, 학부모, 교수, 학교, 서울, 사회, 대학, 설명, 관심</b>	①	②	③	④	⑤

1)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 대체할 수 있는 토픽명은? ( )

<2015.11.30. 한겨레> **자폐 아들의 전시회…그 뒤에 ‘조금 다른’ 엄마 있었다**  
 고유경 참학 수석부회장 ‘특별한 양육’아들 정다운 작가 캘리그래피 전시  
 맹목적 치료 대신 함께 시간 보내고 24시간 밀착육아 대신 자립심 키워  
 (생략) ‘캘리그래퍼’(글씨예술가)가 된 자폐성 장애 2급 아들을 포함해 3남 1  
 녀를 키우며 ‘학부모 운동가’가 된 한 어머니의 ‘평범한 듯 평범하지 않은 교  
 육법’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중략) 고 부회장은 정 작가에게 ‘올인’하  
 지 않고 네 자녀 모두에게 ‘한뼉씩’ 사랑을 쏟았다. 다른 자녀의 교육비와 정  
 작가의 치료 효과를 고려해 치료비는 ‘쏟아붓기’가 아닌 ‘선택과 집중’을 택했  
 다. 놀이치료와 사회성치료, 미술치료, 언어치료 가운데 두 개 이상 중복하지  
 않았다. 정 작가의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덕분에 가능한 일이기도 했지만  
 발달장애인한테 흔한 ‘24시간 밀착 육아’도 없었다. 정 작가는 형과 함께 일  
 반 초등학교를 다녔다. 담임이 없어 혼자 다니기 벅찬 대학 진학은 보류했다.  
 가족들의 힘으로 벅찬 부분은 서울미술고와 강남장애인복지관 등 기관과 외  
 부 활동을 하면서 이어진 ‘고마운 인연’으로 메웠다. 고 부회장은 3남 1녀를  
 키우면서 갖게 된 ‘학생인권’에 대한 관심을 ‘참여’로 발전시키기도 했다. (이  
 하생략)

## <토픽 11> 장애이해

포함단어	전혀 타당하지 않음	타당하지 않음	보통	타당함	매우 타당함
<b>이해, 인식, 경험, 의미, 필요, 노력, 설명, 문제, 방법, 능력</b>	①	②	③	④	⑤

1)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 대체할 수 있는 토픽명은? ( )

### <2017.09.30. 한국일보> “통합교육 성장하려면 학부모 장애이해 교육 의무화해야”

우리 사회에서는 교육이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존재하죠. 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이 한 교실에서 통합교육을 받는다고 해도 초등학교 저학년을 지나면 아이들은 부의 축적이 성공이고, 이는 어떤 인적 자원과 관계를 형성하느냐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중략) 통합교육의 성공을 위해서는 일반학생과 학부모들이 장애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는 게 필수다. 현재 각급 학교의 장애이해 교육 수준을 어떻게 평가하나?“매년 장애인의 날이면 거의 모든 학교들이 비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형식적으로나마 장애이해 교육을 실시한다. 그런데 학부모들에 대한 장애이해 교육은 거의 전무하다. 부모의 가치관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큰데, 이런 상황에서 통합교육의 실속 있는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비장애 학생들의 학부모들이 장애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에 학부모 연수를 의무화하는 게 시급하다. 인터넷이나 문서 배포보다 집합연수를 실시하는 게 바람직하다.” -현행 장애이해 교육은 시각, 청각, 지체장애 위주라 발달장애에 대한 이해증진이 취약하다. 통합교육 현장에 가장 많은 학생들이 발달장애 학생인데.“발달장애는 체험을 통해 이해하기가 어렵다. 잘못하면 장난이나 놀이로 전락하기 쉽다. 이 경우 오히려 발달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될 수도 있다. 발달장애 학생들이 지능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보이는 이유도 다양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이해교육을 실시하기도 어렵다. (이하생략)

## <토픽 12> 서비스지원확대

포함단어	전혀 타당하지 않음	타당하지 않음	보통	타당함	매우 타당함
<b>지원, 개발, 경제, 확대, 중심, 활용, 교육, 사업, 서비스, 현장</b>	①	②	③	④	⑤

1)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 대체할 수 있는 토픽명은? ( )

### <2018.12.11. 뉴시스> 교육부, 12일 장애학생 일자리사업 설명회...관계부처 합동

교육·고용·복지 연계 통해 취업 지원 강화. 장애학생 취업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교육·복지·고용 연계를 강화한 일자리사업 설명회가 마련된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는 오는 12일 오전 10시30분 충남 아산 국립특수교육원에서 '2019 장애학생 일자리사업 설명회'와 '2018 취업지원 우수사례 발표회'를 연다고 11일 밝혔다. 3개 부처는 내년 정부의 포용사회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장애학생 취업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관련 지원체계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현장중심 맞춤형 일자리사업을 올해 7개 교육청에서 내년 11개 교육청으로 확대해 장애학생의 사회진출 기회를 강화한다. 또 특수학교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진로와 직업' 교과 중심으로 운영하는 중점학교를 올해 21개교에서 내년 32개교로 확대한다.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중심 현장실습도 개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내년 8월부터 2022년까지 정책연구를 통해 장애학생이 성인이 된 후에도 평생교육과 연계되는 진로·직업교육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장애인일자리사업' 보완해 청년 장애인의 사회진출 기회를 돕는다. 특수학교(급) 졸업예정자에 대한 가산점 추가,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발위원회 구성 범위에 특수교육 전문가를 포함해 구성할 계획이다. 전국 36개 직업재활센터를 중심으로 장애인의 채용이 필요한 사업체 현장에서 장애학생 3~5명당 전문 인력 1명씩 한 조로 구성해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현장중심 직업훈련 프로그램도 점차적으로 확대 적용한다. 고용노동부는 맞춤형취업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장애학생 대상 취업지원 프로그램 규모를 올해 3000명에서 내년 3700명으로 늘리고 발달장애인훈련센터도 올해 7개에서 내년 13개로 대폭 확대 설치해 체계적인 상담·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하생략)



### <토픽 13> 지적장애 학생사례

포함단어	전혀 타당하지 않음	타당하지 않음	보통	타당함	매우 타당함
<b>지적장애, 서울, 사랑, 생활, 사회, 가족, 희망, 준비, 학교, 행사</b>	①	②	③	④	⑤

1)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 대체할 수 있는 토픽명은? ( )

#### <2016.08.25. 뉴스1> 울산남목고, 지적장애인대회 금메달 6개 획득

울산 동구 남목고등학교가 전국 지적장애인대회 역도 종목에서 금메달 6개, 은메달 3개를 획득하는 쾌거를 이뤘다. 25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제12회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전국하계대회는 지난 23일부터 3일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sk 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지적장애인의 스포츠 행사이다. 이번 대회는 서울·경기·인천·대전·울산·강원·경북·전남·충북 등에서 선수 2000여 명이 출전해 육상경기, 수영, 농구, 배구, 역도 등 모두 9개 종목에서 열띤 경쟁을 펼쳤다. 남목고는 이번 대회 역도 종목에 출전해 3학년 박자주 양이 -57kg급 스쿼트부문, -57kg급 데드리프트부문, 종합부문에서 잇따라 금메달을 획득하며 3관왕에 올랐다. 2학년 김지희양도 -52kg급 스쿼트 부문, -52kg급 데드리프트부문, 종합부문에서 금메달을 싹쓸이 하며 3관왕에 올랐다. 또 3학년 정은선양은 -63kg급 스쿼트부문, -63kg급 데드리프트부문, 종합부문에서 값진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남목고 성기호 교장은 "그동안 특수학급 학생들에게 '1인 1특기 계발' 육성방침 아래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며 꾸준히 훈련을 해왔다"며 "앞으로도 특수학급 학생들이 열심히 자기 계발을 하여 사회에 나갔을 때 비장애인과 생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토픽 14> 사회봉사활동

포함단어	전혀 타당하지 않음	타당하지 않음	보통	타당함	매우 타당함
<b>봉사, 활동, 전달, 사랑, 직원, 사회, 방문, 가정, 단체, 행복</b>	①	②	③	④	⑤

1)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 대체할 수 있는 토픽명은? ( )

### <2007.05.03. 주간경향> 치과진료봉사 ‘아름다운 동행’

치과 진료 봉사를 위해 대학교수와 학생, 치과의사, 사회복지회관이 하나의 팀을 이뤄 10여 년째 남몰래 장애우와 불우노인을 돕고 있어 화제다. ‘아름다운 동행’에 나선 사람들. 앞줄 가운데가 양춘호 원장과 이현옥 교수다. 전북 익산시의 원광보건대 치위생과 이현옥 교수(50)와 이 대학 치위생과 ‘참모임’ 봉사동아리(회장 송미나·2학년), 김제시에 있는 김제제일사회복지관과 개원의사 양춘호 원장(38) 등이 그 주인공이다. 이들의 ‘아름다운 동행’은 매월 셋째 주 일요일에 예외 없이 시작된다. 복지관의 5~7명 사회복지사들은 김제시에 사는 기초생활 수급자이자 등록 장애인을 돌보다 치과 진료가 꼭 필요한 사람들을 일요일 오전에 장애인 차량으로 모두 모시고 양 원장 병원에 도착한다. 양 원장은 10여 명의 환자를 치료하고 틀니를 무료로 제공하는 등 따뜻한 인술을 펼친다. 그러다 보면 어느덧 오후 1시. 복지관 직원들은 다시 장애인 등을 집에 모셔다 드리고, 일부 양 원장 일행은 차로 40분 거리인 전북 익산시의 사회복지시설 ‘작은 자매의 집’으로 이동한다. 40여 명의 정신지체 장애아동들이 활짝 웃으며 이들을 맞는다. 원광보건대 이 교수와 ‘참모임’ 동아리 학생 10여 명도 매월 셋째 주 일요일이면 만사 제쳐두고 이곳에 합류한다. 이렇게 모인 의료봉사 팀은 항상 20여 명. 정신지체 장애인의 치과 진료는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삶은 더불어 사는 것’이라는 지혜를 서로 배우며, 저녁 6시까지 치료와 놀이를 함께 하면서 화창한 웃음이 끊이지 않는다. (이하생략)

### <토픽 15> 직업훈련센터

포함단어	전혀 타당하지 않음	타당하지 않음	보통	타당함	매우 타당함
<b>직업, 훈련, 교육, 발달, 센터, 지원, 제공, 프로그램, 전문, 기관</b>	①	②	③	④	⑤

1)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 대체할 수 있는 토픽명은? ( )

#### <2017.09.13. 한국일보> 광주 발달장애인훈련센터 개소

상무지구 도시공사 7층에 자리직업체험·훈련 맞춤형 진로교육광주 서구 치평동에 문을 연 광주발달장애인훈련센터 개소식 장면. 광주시교육청 제공. 광주시교육청은 13일 광주 서구 상무지구 광주시공사 건물 7층에 광주발달장애인훈련센터를 전달 개설했다고 밝혔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협업으로 개설한 광주훈련센터는 서울 인천에 이어 전국에서 세번째다. 광주센터는 전체 2,258㎡(전용 1,138㎡) 규모로 지역의 발달장애인 고교생과 졸업생을 대상으로 직업체험과 훈련장으로 활용된다. 센터 내 직업체험 11개관에는 외식 시네마 의류 숙박 병원 사무 산업안전 등의 직무를 실제 근무환경과 비슷하게 만들어 체험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시교육청, 전남대병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기관과 이디야커피, 롯데시네마, BGF리테일(CU편의점), 이랜드월드(스파오), 홀리데이인 광주, 청호나이스 등 기업체가 체험관에 참여했다. 직업훈련은 개인별 특성에 따라 제조·서비스 직무훈련, 사회성훈련 등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성공적인 취업이 이뤄지도록 1개월에서 6개월 과정으로 단계별 프로그램과 연계해 운영된다. 시교육청은 특수교사와 직업재활사를 배치해 맞춤형 진로·직업교육이 이뤄지도록 대상자 선발, 교육일정 조정, 교사 및 학부모 연수를 지원한다. 훈련센터는 시설과 설비를 구축하고 실제 진로·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담당한다. 광주센터 직업체험 프로그램에는 광주시 내 고교 특수학급 학생 217명(19개교 38학급)이 올해 12월까지 참여하게 된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광주센터에서 직업체험과 훈련을 받은 장애학생들의 취업이 더 늘어나기를 기대한다”며 “장애학생들의 꿈을 개발하고 키우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토픽 16> 발달모니터링

포함단어	전혀 타당하지 않음	타당하지 않음	보통	타당함	매우 타당함
<b>학부모, 치료, 병원, 학교, 도움, 가족, 필요, 상태, 건강, 생활</b>	①	②	③	④	⑤

1)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 대체할 수 있는 토픽명은? ( )

### <2015.03.06. 레이디경향> 우리 아이 이비인후과 질환 꼼꼼 점검

3월, 새 학기를 앞둔 아이들의 건강 상태를 더욱 꼼꼼하게 점검해야 할 시기다. 환절기를 보내며 이비인후과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아이들이 늘어나는 때이기도 하다. 나이대별로 유의해야 할 우리 아이의 이비인후과 질환을 정리했다. 유·소아중이염을 눈여겨봐라! 소아기에 가장 흔하게 발병하는 질환 중 하나인 중이염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 이관 기능의 장애 등으로 인해 중이 점막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다. 크게 발열, 귀의 통증 등을 동반하는 급성 중이염과 중이 내에 저류액이 고여 빠지지 않아 발생하는 삼출성 중이염으로 나뉜다. 급성 중이염은 좁은 중이 공간에 급격하게 고름이 차 발생하는 것으로, 고열과 귀의 통증을 유발한다. 이때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으면 고막이 터져 고름이 밖으로 흐르게 된다. 반면 삼출성 중이염은 특별한 자각 증상 없이 진행되다가 중이 내 저류액의 양이 증가하면서 청력 장애를 유발하게 된다. 따라서 비염이나 부비동염이 동반될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 아이들은 성인에 비해 귀와 코를 연결하는 이관이 짧고 넓으며 수평에 가까워 특히 감기에 걸렸을 때 콧물 세균이 이관을 타고 중이 내로 쉽게 들어가 중이염에 잘 걸리곤 한다. 만약 이관 기능의 문제로 중이 내에 액체가 고여 있을 경우 언어 발달 장애, 정서 및 행동 장애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이하생략)

## 2. 지적장애 학생 언론보도

지적장애 학생 관련 언론보도는 8,890건으로 해당 분석에서 총 6개의 토픽이 아래와 같이 추출되었습니다. 토픽에 포함된 10개의 단어와 예시 기사를 보고 토픽명의 타당성을 평정해주세요. 진하게 표시된 단어는 예시기사에 포함된 단어입니다.

### <토픽 1> 특수교육

포함단어	전혀 타당하지 않음	타당하지 않음	보통	타당함	매우 타당함
<b>학교, 교사, 교육, 특수학교, 학부모, 교육청, 특수교육, 교실, 수업, 서울</b>	①	②	③	④	⑤

1)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 대체할 수 있는 토픽명은? ( )

#### <2016.04.27. MBC> '편견에 막혀' 특수학교 태부족

장애 특수학교는 오늘도 전쟁...학생은 '넘치고' 교사는 '태부족'. (중략) 서울 지적장애 특수학교 18곳 가운데 정원이 지켜지는 곳은 단 1곳뿐입니다. 특수학교 교실마다 학생은 넘치는데 교사 수는 어떨까요? 서울시에서 법으로 정해진 특수교사 정원은 2,302명이지만 배정된 인원은 1,479명으로 60% 수준입니다. 교실마다 학생은 많고, 교사는 적은 상황. (중략) 해결책은 특수학교 신설...서울은 14년째 1곳도 안 돼 특수학교를 새로 지으면 교실마다 넘치는 학생 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교육당국도 꾸준히 특수학교 신설을 추진해왔습니다. 2013년부터 서울 중랑과 강서, 강남구 3곳에 폐교된 초등학교 등에 지적장애 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교 짓는 방안이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3곳 모두 첫 삽조차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략) 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 신설이 어려운 이유는 특수학교에 대한 편견입니다. 특수학교를 기피시설로 여기는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엔 서울의 한 중학교에 들어설 발달장애 지원시설 공사를 두고 주민들이 중장비 앞에 드러눕기도 했습니다."집값 떨어진다", "돌발행동에 자녀가 다칠 수 있다"는 게 이유입니다. 급기야 서울시교육청은 특수학교 인근 집값을 전수 조사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이하생략)

## <토픽 2> 지역지원계획

포함단어	전혀 타당하지 않음	타당하지 않음	보통	타당함	매우 타당함
<b>지원, 운영, 계획, 기관, 실시, 센터, 경제, 제공, 교육, 사업</b>	①	②	③	④	⑤

1)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 대체할 수 있는 토픽명은? ( )

### <2018.02.19. 프레시안> 전주시, 장애인 자립 돕는 직업훈련·취업연계 인프라 구축

전북 전주시가 전국 최초로 장애인 전문 직업훈련과 취업을 연계해주는 훈련 센터를 동시에 유치하는데 성공해 장애인의 자립을 도울 수 있는 기반이 갖춰지게 됐다. 19일 시에 따르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최근 열린 맞춤형훈련센터 확정 심의를 거쳐 전주에 맞춤형훈련센터와 발달장애인훈련센터를 통합 설치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맞춤형훈련센터와 발달장애인훈련센터가 신규 설치되는 지역은 각각 3곳으로, 2개 센터가 동시에 설치되는 지역은 전주가 유일하다. 건물 리모델링과 장비구축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맞춤형훈련센터와 발달장애인훈련센터가 운영되면 연간 100여명에 달하는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이 가능해져 사회적·경제적 자립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맞춤형훈련센터는 기업체와 사전 취업계약을 맺고 그 직무에 맞는 훈련을 실시해 최종 취업으로 연계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발달장애인훈련센터는 장애인 직업에 대한 정보와 이해가 부족한 특수학교 1·2학년 대상으로 직업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전공과 학생에게는 실제와 유사한 환경에서 직업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 현장 적응 후 고용 연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발달장애인훈련센터의 경우, 최근 자폐성·지적장애 비율이 크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학교를 졸업한 후 사회참여 기회를 얻지 못해 집이나 주간 보호시설에서 시간을 보내는 중증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하생략)

### <토픽 3> 성범죄

포함단어	전혀 타당하지 않음	타당하지 않음	보통	타당함	매우 타당함
<b>경찰, 조사, 사건, 혐의, 성폭행, 피해, 보호, 여성, 결과, 피해자</b>	①	②	③	④	⑤

1)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 대체할 수 있는 토픽명은? ( )

#### <2018.07.12. 아시아경제> 또...특수학교 교사, 여학생 성폭행...‘제2의 도가니 사건’ 되나

강원도 태백의 특수학교 교사가 지적장애 여학생들을 수년간 성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 사건은 장애가 있는 학생을 상대로 성폭행을 벌였다는 점이 과거 ‘도가니’ 사건과 같아 제2의 도가니 사건이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피해 학생과 학부모에 따르면 이 학교 A 교사(44)는 지난 2014년부터 여학생 2명을 상습 성폭행했다. 학교는 10일 해당 교사에 대해 직위 해제를 했지만, A 교사는 현재 자신의 범죄 혐의에 대해 부인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강력 범죄에 해당하는 성폭행 사건이지만 집행유예 비율이 높아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데 있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16년 유죄를 확정 받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자’ 2884명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를 보면 절반가량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이들 범죄자 중 49.1%는 집행유예를 받았다. 벌금 처분을 받은 경우도 13.8%에 달했다. 평균 형량도 성폭행의 경우 4년 11개월이었다. 강제추행(2년9개월), 성매수(1년5개월)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성폭행이라는 강력 범죄에 비해 처벌은 가볍지 않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성범죄 집행유예 비율이 높다 보니 이는 재범률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대검찰청 범죄분석 자료에 따르면 성범죄는 계속 늘고 있다. 2000년 1189건에서 2009년 1만6156건, 2010년 1만9939건 등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 법무부의 ‘2012~2016년 성폭력 사범 재범률 현황’을 보면 2012년 1311명이던 성범죄자 재범 인원은 2016년 2796명으로 치솟았다. (이하생략)

#### <토픽 4> 관심필요문제

포함단어	전혀 타당하지 않음	타당하지 않음	보통	타당함	매우 타당함
학부모, 문제, 필요, 치료, 서울, 설명, 가족, 관심, 병원, 교수	①	②	③	④	⑤

1)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 대체할 수 있는 토픽명은? ( )

##### <2005.10.17. 한겨레> 장애아 입속 ‘사랑의 잇솔질’ 기다려요

한양여대 치위생과 동아리 특수학교 구강관리 봉사. “하얘진 이 웃음에 기쁘지만 방치됐을 생각하면 가슴아파”. 장애아 74~94% 치주질환 부모 인식 전환·정부지원 절실. “기절아 여기 좀 앉아볼까. 자, 아! 해보세요. 잇몸이 부어있네. 앞니 잇솔질 좀 할까?” 지난 12일 오전 서울 성북구 성북동에 있는 정신지체장애 특수학교인 명수학교의 3층 강당. 한양여대 치위생과 학생들로 구성된 ‘한구동’(한양여대 구강건강 동아리) 학생들 10여명을 데리고 봉사활동을 나온 황선희(42) 교수가 아이들의 입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가 대여섯 개씩 썩은 아이, 치석이 심해 이 전체가 까맣까맣하게 변한 아이, 치주질환으로 잇몸이 퉁퉁 부은 아이 등 학생들의 상태가 안 좋다. (중략) 황윤숙(46·한양여대 치위생과) 교수는 “부모의 인식 부족, 치과의사들의 외면, 정책적 무관심 등으로 사각지대 중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게 장애아들의 구강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구동이 많고 많은 아동들 가운데 이 학교 아이들을 찾아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 장애아들의 구강 건강이 얼마나 열악한지는 통계를 통해서 뒷받침된다. 연세대 원주의대 치위생과 김영남 교수가 최근 전국 장애인 1476명을 대상으로 구강건강 실태조사를 한 결과 장애아동의 74~94%가 치주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장애 아동의 치주질환 비율(68%)에 견줘 높은 수치다. 치주낭을 가진 장애아의 비율은 비장애아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았다. 또 유치우식증(충치)을 경험한 5살 장애아동의 비율이 63.6~80%로 비장애 아동과 비슷했으나 적기에 치료받지 못해 이를 빼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하생략)



## <토픽 5> 대회 및 행사

포함단어	전혀 타당하지 않음	타당하지 않음	보통	타당함	매우 타당함
<b>행사, 참여, 전국, 진행, 기회, 문화, 대회, 프로그램, 체험, 협회</b>	①	②	③	④	⑤

1)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 대체할 수 있는 토픽명은? ( )

### <2008.09.23. 뉴시스> 대구대, 장애학생과 함께 하는 과학잔치

대구대학교 사범대학은 25일 장애인과 함께 하는 '과학썩잔치'를 실시한다. 2006년 시각장애학생, 2007년 청각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사에 이어 올해는 정신지체학생들과 함께 하는 행사로 마련했다. 대구보명학교 학생과 교사 등 120여명을 대구대학교 경산캠퍼스로 초청해 과학매직쇼와 과학연극 공연, 전시, 20여종의 과학체험활동을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는 행사로 구성됐다. 과학매직쇼는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수여하는 이달의 과학문화인상을 수상한 부산사직고 김옥자 교사가 다양한 과학실험을 재미있는 마술쇼 형식으로 선보인다. 또한 대구대학교 학생들이 직접 창작하고 연출한 과학연극은 춤과 노래, 과학실험 등을 포함해 정신지체학생들도 과학의 기본 개념을 쉽고 재미있게 무대에서 선보인다. 이와 함께 20여 종의 과학체험활동은 학생들이 직접 만들어서 가져가거나 재미있는 방법으로 그 자리에서 과학실험을 수행하는 등 체험 위주의 활동으로 준비해 장애학생들에게 과학 활동의 직접 체험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이 행사는 단순히 일회성 전시행사가 아니라 그동안 꾸준히 장애학생을 위한 과학교육의 연구개발 결과를 바탕으로 3년째 이어가고 있는 활동이라는 점과 장애학생들이 직접 몸으로 체험하면서 참여하는 과학 잔치라는 점에서 의미있다. 특히 올해 행사는 대구대학교 교육혁신프로그램으로 선정돼 사범대학 학생들에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생활하는 통합교육의 실천 마당으로서 더욱 의미있다.

## <토픽 6> 사회봉사활동

포함단어	전혀 타당하지 않음	타당하지 않음	보통	타당함	매우 타당함
<b>사회, 활동, 사랑, 생활, 봉사, 가정, 시설, 지원, 복지, 방문</b>	①	②	③	④	⑤

1)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 대체할 수 있는 토픽명은? ( )

### <2011.05.30. 노컷뉴스> "제 인생의 첫 케이크입니다"...사랑의 구내식당 '눈길'

구내식당 종업원들 자발적으로 지적 장애인 위한 요리교실 운영. 삭막해 보이기만 하는 산업단지 콘크리트 건물 사이에 자리 잡은 지하 구내식당. 이곳 종업원들의 자원봉사로 지적 장애인을 위한 요리 교실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위험하다는 편견 탓에 요리를 배울 수 없었던 지적 장애인들에게 각종 요리 비법을 전수하는 '사랑의 구내식당'이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사회로 나설 준비를 하는 지적 장애인들이 참가한 올해 마지막 요리 교실, 그 현장을 다녀왔다. (중략) 경기도 부천의 산업단지 건물 지하 구내 식당인 이곳에서 요리 교실이 시작된 건 벌써 3년이 넘었다. 지하 구내 식당을 운영하는 CJ프레시웨이 종업원의 자발적인 의기투합으로 시작되어오다 이제는 지역사회에서도 인정 받고, CJ프레시웨이 본사에서조차 유무형의 도움을 줄 정도로 자리를 잡은 '장수' 자원 봉사활동이 됐다. (중략) 산업 단지의 지하 구내식당 종업원의 작지만 따뜻한 손길이 어려운 이웃에게 소중한 경험과 사랑을 나눠주고 있다.

### 3. 자폐성장애 학생 언론보도

자폐성장애 학생 관련 언론보도는 3,575건으로 해당 분석에서 총 8개의 토픽이 아래와 같이 추출되었습니다. 토픽에 포함된 10개의 단어와 예시 기사를 보고 토픽명의 타당성을 평정해주세요. 진하게 표시된 단어는 예시기사에 포함된 단어입니다.

#### <토픽 1> 발달모니터링

포함단어	전혀 타당하지 않음	타당하지 않음	보통	타당함	매우 타당함
성장, <b>학부모</b> , <b>치료</b> , 도움, <b>발달</b> , 가정, <b>병원</b> , 가족, 자녀, <b>행동</b>	①	②	③	④	⑤

1)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 대체할 수 있는 토픽명은? ( )

#### <2008.10.27. 매일신문> [약이 되는 의료상식] 아스퍼거 장애

최근 자폐증 못지않게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는 질환이 있다. 바로 아스퍼거 장애다. (중략) 아스퍼거 장애의 경우 자폐증과 달리 언어나 지능 발달이 정상 아동과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사회성이 떨어지는 것은 자폐증과 비슷하다. 실제 초교 고학년이나 중·고교생이 되어서도 친구가 없고 사회성이 떨어져 병원을 찾는 아동 중 아스퍼거 장애 진단을 받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다고 한다. (중략) 아스퍼거 장애의 경우 조기 발견이 특히 중요하다. 자신만의 독특한 말과 행동 등 사회성이 부족한데도 부모들은 '나이가 들면 괜찮아지겠지' 하며 그냥 두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자칫 때를 놓치면 치료도 어려울 뿐 아니라 교우 생활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원인 진단을 해 보는 게 좋다. (중략) 부모 못지않게 중요한 게 초교 교사의 역할이다. 학교에서 사회적 놀이를 기피하거나 교실에서의 규칙을 이해 못할 경우 되도록 빨리 알아채 부모와 상담할 필요가 있다. 특정한 주제에 유별난 능력을 가지거나 그림이나 글쓰기에 서툰고 운동에 소질이 없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아스퍼거 장애아의 경우 낮은 환경에서 또래와 같이 어울려야 할 상황에서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 (중략) 또 아스퍼거 장애의 경우 언어나 지능이 또래에 비해 크게 차이가 나지 않거나 정상이어서 나이가 들어 발견하는 경우도 많아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충고다.

## <토픽 2> 체험활동 프로그램

포함단어	전혀 타당하지 않음	타당하지 않음	보통	타당함	매우 타당함
진행, 참여, 사회, 프로그램, 제공, 활동, 경제, 활용, 지원, 기업	①	②	③	④	⑤

1)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 대체할 수 있는 토픽명은? ( )

### <2012.12.27. 헤럴드POP> ‘세움카페’ 약간의 느낌, 서투른 아메리카노…

장애인과 비장애인 어머니가 함께 만들어가는 카페분업 통해 어려움 극복… 커피향보다 진한 삶과 의지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둔 지난 18일. 임시 공휴일 전날이라 바깥 분위기는 다소 들떠 있었지만, 서울 방학동 아름다운 가게 2층 ‘세움카페’의 네 직원은 평소와 다름없었다. 항상 웃음으로 손님을 맞는 이가영(24·여) 씨는 홀에서는 서빙을, 주방에서는 설거지를 책임졌다. 카페의 ‘왕누나’이자 ‘왕언니’이면서 섬세한 성격의 김정애(26·여) 씨는 생과 일주스와 고구마라테 등 비(非)커피음료를 만들었다. 두 명의 바리스타, 이세미(25·여) 씨와 임사인(24) 씨도 자기 역할에 충실했다. 임 씨가 각종 커피를 만들어 내면 이 씨는 임 씨 옆에서 커피 위에 생크림과 초콜릿 등 각종 장식을 얹었다. (중략) 당시 복지관의 장애인 프로그램 담당자였던 강미경(46·여) ‘세움카페’ 매니저는 “아이들 상태를 보니 바리스타 교육이 가능하겠다고 생각했다”며 “장애인 공동체 개념으로 어머니들과 카페를 구상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2년 동안 직업 적응 훈련과 바리스타 교육을 같이 받았다. 김정애 씨는 생과일주스를, 이세미 씨와 임사인 씨는 커피를 정확한 비율로 만드는 방법을 익혔다. 제일 힘들었던 사람은 근육이 약해 커피 등을 만드는 대신 서빙을 맡게 된 이가영 씨였다. 이 씨는 얇은 산 다니기, 계단 오르내리기, 바가지와 냄비에 물을 가득 받아 쏟지 않고 운반하기 등의 훈련을 집중적으로 받았다. 어머니들도 두 팔을 걷어붙였다. 빵이나 과자를 같이 만들어서 커피를 파는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자는 생각으로 제과·제빵 기술을 배웠다. 특히 김정옥 씨는 지난해, 6개월 만에 제과·제빵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해 카페의 베이커리 총괄 담당이 됐다. 2009년 서울 도봉구에서 ‘골목 대장터’라는 이름의 바자를 여는 등 십시일반(十匙一飯)으로 창업자금 1300만원도 모았다. 주변 도움도 컸다. (이하생략)

### <토픽 3> 직업훈련센터

포함단어	전혀 타당하지 않음	타당하지 않음	보통	타당함	매우 타당함
지원, <b>교육, 센터</b> , 지역, <b>시설</b> , 기관, <b>실시</b> , 서비스, 사업, <b>직업</b>	①	②	③	④	⑤

1)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 대체할 수 있는 토픽명은? ( )

#### <2016.11.29. 서울경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발달장애인 취업 돕자" 맞춤형 교육 실시

지난 2014년 말 기준 우리나라 발달장애인은 전체 장애인의 8.2%다. 250만명 중 20만명에 이른다. 꾸준히 수가 감소하고 있는 전체 장애와 달리 발달장애는 해를 거듭할수록 수가 늘고 있다. 2010~2014년 전체 장애인의 연평균 증가율은 -0.2%였다. 반면 발달장애인은 연평균 증가율이 3.6%다. 발달장애인 중 의사소통을 통해 인지능력을 키우지 못하는 자폐성 장애인의 경우 연평균 증가율이 6.6%에 달한다. (중략) 다음달 15일 정식 개소하는 서울발달장애인 훈련센터는 국내 최초로 들어서는 발달장애인 전용 직업훈련 시설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칸막이를 없애고 협업하는 이른바 '정부3.0'의 대표적 모범사례로 꼽힌다. 발달장애인훈련센터 1호인 서울발달장애인훈련센터는 서울시 동대문구 소재 성일중학교 내 유휴시설에 설립됐다. 센터는 발달장애인을 단순히 교육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고용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시설이다. 교육청은 훈련센터 설립 장소를 제공하고 대상자 추천 및 프로그램에 대한 자문 등의 역할을 맡는다. 공단은 직업체험실습과 훈련시설을 구축하고 발달장애인의 진로·직업 교육, 학부모와 특수학급 교직원 연수 등을 수행한다. 훈련 대상자는 서울특별시 교육청 소속 84개 고등학교의 특수학급을 졸업한 지 2년 이내 혹은 재학생이거나 발달장애로 등록된 이다. 6개월 동안 국비로 제조기술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특히 센터는 훈련이 끝난 후 취업을 알선하고 취업 이후에도 발달장애인의 적응을 돕게 된다. 이와 함께 현재 각 학교 특수학급에서 재학 중인 학생의 교육 프로그램뿐 아니라 부모·교사·기업체 등의 인식개선 교육을 통해 발달장애인이 사회에서도 원만한 생활을 할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다. (이하생략)

#### <토픽 4> 관련연구

포함단어	전혀 타당하지 않음	타당하지 않음	보통	타당함	매우 타당함
<b>연구, 교수, 수준, 대학, 평가, 강조, 효과, 발표, 설명, 문제</b>	①	②	③	④	⑤

1)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 대체할 수 있는 토픽명은? ( )

<2019.02.07. 해럴드경제> **자폐아 예방에 난민치료…‘인류애’로 진화하는 AI**  
 정부 7년간 100억 이상 투입지난 2011년 한국인 과학자의 연구 결과에 전 세계가 주목했다. 당시 김영신 미국 예일대 의대 소아정신과 교수는 경기도 일산 고양시 7~12세 학생 5만 5266명 대상으로 자폐장애 조사를 실시해 발표했다. 세계 최초로 진행한 자폐장애 전수조사였다. 조사 결과 미약한 증세를 보이는 자폐아들까지 자폐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미국정신과저널에 게재됐고, 미국 주요 언론들은 ‘숨어 있는 자폐환자가 예상보다 훨씬 많을 수 있다’며 대서특필했다. 그로부터 8년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2019년 연구과제에 ‘영유아·아동 발달장애 조기 선별 위한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이 포함됐다. 제안요청서(RFP)에는 김 교수 연구결과가 소개됐고, ‘조기 진단이 절실한 자폐아의 지속적 증가’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명시됐다. 정부는 세계 최초를 목표로 앞으로 7년 동안 이 기술 개발에 1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중략) AI로 자폐장애를 선별하는 기술의 핵심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다중감각 데이터를 분석해 행동·반응 심리를 인지하는 것이다. 다중감각은 반응정보, 감정·의도정보, 질병·장애정보 등으로 구성된다. 시선응시·표정·행동 등 비언어적 반응을 감지하고, 미술심리 분석과 언어행동 등을 통해 특정 정서를 포착한다. 이를 통해 학습과 추론을 거치고 의사소통 문제 등을 수치로 뽑아내 자폐성장장애(ASD) 여부를 선별하는 방식이다. (이하생략)

### <토픽 5> 문화예술행사

포함단어	전혀 타당하지 않음	타당하지 않음	보통	타당함	매우 타당함
행사, 문화, 사회, 사랑, 희망, 음악, 협회, 행복, 공식, 작품	①	②	③	④	⑤

1)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 대체할 수 있는 토픽명은? ( )

#### <2016.04.20. 국민일보> 국장협, 27일 제36회 장애인의 날 기념 장애인합창예술제

(사)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국장협·이사장 최공열)는 오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장애인문화예술 활동을 홍보하고 그 역량을 알리기 위해 ‘제36회 장애인의 날 기념 장애인합창예술제’를 개최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사랑의 열매 등이 후원하는 이번 예술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되고 장애인 예술가들의 역량을 선보이는 축제의 장이다.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된 ‘나눔챔버오케스트라’가 오프닝 무대를 장식한다. 국장협문화예술학교 소속의 자폐성 발달장애인 어린이팀 ‘하늘나무무용단’이 창작 무용을 한다. 참빛문화예술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참울림’은 퓨전 난타를 선보인다. 다운증후군 아이들로 구성된 ‘다운 합창단’이 ‘오빠생각’을, 지난해 전국장애인합창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한 ‘푸르나메합창단’이 ‘고향의 봄’ 등을 부른다. 또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구성된 ‘용인 쿼 합창단’이 동요 매들리를 들려주고 지난해 전국장애인합창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에벤에셀합창단’이 ‘오 해피데이’를 부른다. 음악동호회 ‘동작 라이프 색소폰 연주단’이 특별 출연한다. 최공열 이사장은 “이번 공연은 장애인의 문화 향유 기회를 높이고 장애인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인식 개선과 사회 통합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토픽 6> 사건·사고

포함단어	전혀 타당하지 않음	타당하지 않음	보통	타당함	매우 타당함
<b>상태, 결과, 서울, 학교, 사건, 조사, 학부모, 인정, 주장, 발생</b>	①	②	③	④	⑤

1)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 대체할 수 있는 토픽명은? ( )

### <2014.02.25. MBN> 실종 장애아동 숨진채 발견...의사 추정 "범죄피해 가능성 적어"

실종 15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경남 창원시의 한 특수학교 학생 정모(9)군의 사인이 익사로 보인다는 검안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창원 중부경찰서는 지난 24일 오전 창원시내 한 폐건물 지하 3층에서 물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된 정 군의 사인이 익사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검안 결과 정 군의 입과 코 주변에는 거품 등 '익사흔'이 확인됐습니다. 이는 익사 때 나타나는 특징 가운데 하나로 정 군이 숨지기 전 물에 빠졌다가 사망에 이르렀음을 의미한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정 군의 몸에 별다른 외상이나 골절이 없는 점 등에 미뤄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습니다. 날씨가 춥고 물이 찬 상태여서 검안만으로는 정확한 사망 시점을 추정하기 힘들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경찰은 지난 23일 확보한 폐쇄회로(CC)TV 내용을 토대로 정 군이 실종 당일인 지난 10일 해당 폐건물로 들어갔다가 침수된 지하 3층에 빠진 뒤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날 숨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CCTV에는 정 군으로 추정되는 아이가 지난 10일 오후 2시 26분에 폐건물로 들어가는 모습이 담겨 있지만 이후의 행적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에게서 검안 결과를 통보받은 유족 측은 부검은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검안의 소견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에 대해 계속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자폐성 장애 2급인 정 군은 지난 10일 오후 1시 25~30분께 창원 천광학교에서 정규 수업을 마치고 방과 후 수업을 위해 학교 내 다른 건물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학교 밖으로 뛰쳐나가 실종된 바 있습니다.



## <토픽 7> 장애이해

포함단어	전혀 타당하지 않음	타당하지 않음	보통	타당함	매우 타당함
<b>이해, 표현,</b> 의미, 관심, <b>경험,</b> <b>친구, 문제,</b> 거리, 중요, 변화	①	②	③	④	⑤

1)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 대체할 수 있는 토픽명은? ( )

<2017.09.29. 디지털타임즈> **ADHD, 틱, 자폐 부모에게 편견이 담긴 상처 주는 말 6가지**

내 아이를 얼마나 잘 키우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ADHD나 틱장애, 자폐 아이를 돌보고 있는 부모들에게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이 존재한다. ADHD, 틱, 자폐처럼 늦되고 아픈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는 주변의 사소한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되고, 삶 전체를 부정당하는 듯한 충격을 줄 수 있다. 소아정신과 전문의들은 틱장애, 자폐스펙트럼, ADHD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고충은 일반 가정에서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분야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그 고충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되도록 ADHD 아동이나 틱장애, 자폐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에게 하지 말아야 할 말 실수는 대략 6가지다. 1. "내버려두면 될텐데 엄마가 병을 만든다" (중략) 2. "하나하나 다 해주지 말고, 스스로하게 기다려 줘라" (중략) 3. "아이에게 충분한 사랑을 주세요" (중략) 4. "친구와 자주 못 놀아서 그렇다" (중략) 5. "사교육을 너무 일찍 시켜서 수업에 집중을 못한다" (중략) 6. "병원까지 갈 정도냐, 약 먹으면 안 좋지 않냐" (이하생략)

## <토픽 8> 특수교육

포함단어	전혀 타당하지 않음	타당하지 않음	보통	타당함	매우 타당함
<b>학교, 교사, 교육, 지적장애,</b> 수업, 발달장애, <b>특수학교,</b> <b>학부모, 서울, 교육청</b>	①	②	③	④	⑤

1)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 대체할 수 있는 토픽명은? ( )

### <1999.05.07. 연합뉴스> 교재조차 없이 장애학생 수용

경남도교육청이 특수장애 교육시설은 물론 최소한의 교재조차 없이 장애학생들을 수용해 말썽을 빚고 있다. 7일 장애학교인 경남 천광학교 학부모들에 따르면 정서 및 행동장애를 앓고 있는 이 학교 초등반 8명과 유치반 4명 등 12명의 장애학생들이 아무런 교육교재조차 없이 3개월째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 학교는 청각장애 학생들만 다니는 곳이어서 자폐증을 앓는 등 정서 및 행동장애를 가진 학생들에게는 전혀 교육이 이뤄질 수 없는 학교시설이다. 게다가 정서장애 학생들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교실 안전철망은 물론 간단한 교육 기자재조차 없이 방치되고 있다. 정서장애 초등반을 맡고 있는 교사도 청각장애 교육을 전공한 1명뿐이며 유치반은 특수교육 전공자가 아닌 60시간의 교육을 이수한 유치원교사 1명이 학생들을 전담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처럼 장기간 정상적인 교육이 전혀 안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교육시설비 확보는 물론 교재비조차 지원하지 않은 채 팔짱만 끼고 있다. 학부모들은 "잠시라도 눈을 땔 수 없을 정도로 돌발적인 행동을 하는 아이들이어서 거의 매일 아이들과 함께 등교하고 있다"며 "아무리 공교육으로 운영되는 특수학교지만 최소한의 교육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 특수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 장애교육의 현주소"라고 말했다.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3] 발달장애 학생 언론보도기사 토픽명 타당성 검토 결과

	토픽명	N	평균	표준편차	변경 토픽명
1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20	3.80	.523	-
2	통합교육	19	3.58	.961	-
3	대회 및 행사	20	3.90	.641	-
4	사회보호관리	20	3.65	.875	-
5	특수교육	20	3.60	.995	-
6	체험활동 프로그램	20	3.75	.716	-
7	조사결과발표	20	3.55	.887	-
8	교육시설설립	20	4.00	.858	-
9	성범죄	20	4.10	.912	-
10	자폐성장애 학생사례	20	3.55	.887	-
11	장애이해	20	3.55	.887	-
12	서비스 지원확대	19	3.68	.885	-
13	지적장애 학생사례	20	3.70	.865	-
14	사회봉사활동	20	3.95	.686	-
15	직업훈련센터	20	3.70	.979	-
16	발달모니터링	20	3.65	.875	-

[부록 4] 지적장애 학생 언론보도기사 토픽명 타당성 검토 결과

	토픽명	N	평균	표준편차	변경 토픽명
1	특수교육	20	3.75	.967	-
2	지역지원계획	20	3.85	.813	-
3	성범죄	20	3.95	.826	-
4	관심필요문제	20	3.45	.887	발달모니터링
5	대회 및 행사	20	3.80	.834	-
6	사회봉사활동	20	3.75	.786	-

[부록 5] 자폐성장애 학생 언론보도기사 토픽명 타당성 검토 결과

	토픽명	<i>N</i>	평균	표준편차	변경 토픽명
1	발달모니터링	20	3.60	.940	-
2	체험활동 프로그램	20	3.70	.923	-
3	직업훈련센터	20	3.95	.686	-
4	관련연구	20	3.60	.821	-
5	문화예술행사	20	3.85	.671	-
6	사건사고	20	3.65	.489	-
7	장애이해	20	3.85	.745	-
8	특수교육	20	3.60	.883	-

# Abstract

## Keyword and Topic Analysis of the Online News Coverage on Stud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Focusing on Intellectual Disability and Autism Spectrum Disorder

Yeji An

Department of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online news coverage on stud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DD) to understand frequently arising social conflicts and controversies regarding special and inclusive education for the purpose of facilitating more inclusive culture. This study targets students with DD whose population marks the largest proportion of inclusive education of special education and thereby are the subjects of key discussion in Korea, especially after the enactment and implementation of *Developmental Disabilities Act* in 2014. Analyzing online news coverage on students with DD

facilitates understanding the social phenomena of the education by empirically revealing the perceptions and attitudes of the public towards students with DD. It can also reliably serve as the basis for possible systematic support of the *Developmental Disabilities Act* with the ideal life cycle support.

To this end, this study collected 15,616 online news coverage articles on students with DD reported from January 1990 to April 2019, followed by an analysis of its high frequency words and topics by using text big data analysis. In addition, this study analyzed the differences between the high frequency words and the topics according to the type of disability—specifically intellectual disability(ID) and the autism spectrum disorder(ASD) within the domain of DD. The main results of these analyses are as follows:

First, the result of keyword analysis of all articles showed high frequency words that are related to school education, community support, activities, and services. These high frequency words on students with DD were organized into networks of “services to support the overall life of students,” “government support,” “sexual assault of special teachers,” and the “operation and promotion of conventions and events.” High frequency words were further inspected based on a decade-phase for the last 30 years, and the findings over three decades confirmed that the focus of media’s attention expanded from “school support” to “social support,” such as living support and service and other concrete support plans.

Second, the result of keyword analysis of online news coverage of students with ID, as part of DD, consists of high frequency words related to educational activities, incidents and accidents, and government support. They also created four network groups of “institutional and community support for living,” “corporate social

activities,” “sex crimes by special teachers,” and “treatment and counseling.” The major content flow observed by each phase revealed to be similar to the results of previous analysis of overall developmental disabilities, but social controversies and conflicts involving sex crimes and opposition to the establishment of special schools were prominent in the third phase.

Third, the result of keyword analysis of online news coverage of students with ASD, another domain of developmental disabilities, consists of high frequency words related to “school” along with “health” and “service” of living support. By examining the network structure of high frequency words, the results showed four groups—“research and discussion for improving the services,” “cultural and art events,” and the “service development research by companies and universities.” In contrast to keyword analysis results of online news coverage on students with ID, numerous high frequency words related to “treatment” were more predominantly found in the analysis on students with ASD.

Fourth, a total of 19 topics were derived from topic modeling using Latent Dirichlet Allocation (LDA) on online news coverage on students with DD. Topics extracted and named are: ① corporate social activities, ② inclusive education, ③ competitions and events, ④ social welfare facilities, ⑤ special education, ⑥ field activities program, ⑦ survey results, ⑧ education facilities establishment ⑨ sex crimes, ⑩ ASD student cases, ⑪ understanding disability, ⑫ service expansion, ⑬ ID student cases, ⑭ social volunteer services, ⑮ vocational training center, ⑯ developmental monitoring. The decade-phase based analysis of the media’s interest in these topics indicated their increased interests in ① corporate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⑥ field activities program, ⑦ survey results, ⑪

understanding disability, ⑫ service expansion, ⑮ vocational training center. On the contrary, the interest in the topics of ② inclusive education, ③ competitions and events, ⑤ special education, ⑩ ASD student cases, ⑬ ID student cases has decreased. The level of media's interest in ④ social welfare facilities, ⑧ education facilities establishment, ⑭ social service, ⑯ development monitoring has been maintained at the steady level over all decades.

Fifth, a total of 6 topics were derived from topic modeling using LDA on online news coverage on students with ID. Topics extracted and named are: ① special education, ② regional support plans, ③ sexual crimes, ④ development monitoring, ⑤ competitions and events, and ⑥ social volunteer service. By analyzing the media's interest in these topics on a periodic basis, the result found the media's increased attention in ② regional support plans, ③ sex crimes, and ④ development monitoring, while decreased in ① special education, ⑤ competitions and events or similarly maintained in ⑥ social service.

Lastly, a total of 8 topics were derived from topic modeling using LDA on online news coverage on students with ASD. Topics extracted and named are: ① development monitoring, ② field activities program, ③ vocational training center, ④ related research, ⑤ cultural and art events, ⑥ incidents and accidents, ⑦ understanding disability, and ⑧ special education. The media's interest in ② field activities programs, ⑤ cultural and art events, ⑥ incidents and accidents, ⑦ understanding of disability, while interest in ① development monitoring, ③ vocational training center, ⑧ special education has decreased and interest in ④ related research has similarly maintained.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further discussed the direction



guiding towards successful inclusive education and culture for students with DD. This study analyzed the latent contents of big text data of online news coverage from the perspectives of non-disabled population on students with DD which empirical studies have not attempted previously. Therefore, this study has the significance of providing essential data to reflect and re-examine the role of special education by analyzing the perception and attitude of the public towards DD.

**keywords : Stud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y, Stud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Students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 News Coverage, Text Big Data Analysis, Keyword Analysis, Topic Analysis**

*Student Number : 2015-30446*